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예천군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21. 8.

제 출 문

예천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통합신공항이전에 따른 예천군 미래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08.



韓國産業開發研究院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백 훈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메가트렌드 분석	9
제1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9
제2절. 인구 · 보건 · 복지	53
제3절. 산업 · 경제	78
제4절. 농업 · 농촌	101
제5절. 지역개발	126
제6절. 문화 · 관광 · 체육	141
제3장. 예천군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예측	191
제1절. 통합신공항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91
제2절. 인구 · 보건 · 복지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95
제3절. 산업 · 경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99
제4절. 농업 · 농촌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202
제5절. 지역개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207
제6절. 문화 · 관광 · 체육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210
제4장. 대내 · 외 의견수렴	217
제1절. 지역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217
제2절. 지역주민 설문조사	221
제3절. 지역 내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242
제4절.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245
제5절. 1차 · 2차 중간보고	247
제6절. 성과 협의	249

제5장. 기본 구상	255
제1절. 기본 구상	255
제6장.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261
제1절.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261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293
제1절. 인구 · 보건 · 복지 분야	293
제2절. 산업 · 경제 분야	328
제3절. 농업 · 농촌 분야	341
제4절. 지역개발 분야	359
제5절.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366
제8장. 집행 및 관리계획	387
제1절. 사업추진계획	387
제2절. 재정계획	389
제3절. 기대효과	400

표 목 차

[표 1] 연구의 절차	5
[표 2] 공항복합도시 구분	10
[표 3] 국내 항공운송시장 동향	17
[표 4] 국내 주요 공항별 여객 실적	18
[표 5] 국내 주요 공항별 화물 실적	19
[표 6] 최근 5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20
[표 7] 공항 주변 주요기능	21
[표 8]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경과	24
[표 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	24
[표 10] 항공정책 기본계획	28
[표 11]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32
[표 1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계획	33
[표 13]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목별 파급효과	38
[표 14] 통합신공항 연계 시·군 핵심사업 현황	40
[표 15] 세계와 한국의 인구규모	53
[표 16]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연평균) 전망	54
[표 17]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55
[표 18] 한국 사회변화 이슈 및 추세	57
[표 19] 경상북도 분야별 예산규모	65
[표 20] 예천군 연도별 인구 현황	68
[표 21]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71
[표 22] 예천군 읍면별 취약계층 현황	72
[표 23] 국내 주요 산업 전망	82
[표 24] 식품 및 음식서비스업 온라인쇼핑 거래액	83
[표 25] 국민총생산 및 1인당 국민총생산	83
[표 26] 국내총소득 실질성장률	84
[표 27] 주요 산업별 순위	92
[표 28]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93
[표 29] 농가 호수·농가 인구·농림 어업 취업자 동향 및 전망	112
[표 30]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16
[표 31]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현황	142
[표 32] 국가별 관광수입 현황	142

[표 33] 전국 관광객 수 추정치	144
[표 34] 국내여행 관광객 수 추이	145
[표 35]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 추이	145
[표 36] 문화시설 수 추세	146
[표 37] 경상북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149
[표 38] 경상북도 주요관광지점 분류 현황	149
[표 39] 경상북도 문화시설	150
[표 40] 예천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151
[표 41] 예천군 주요관광지 입장객 순위	152
[표 42] 예천군 내 주요 관광지 월별 입장객 추이	152
[표 43] 예천군 보물 현황	157
[표 44] 예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61
[표 45] 예천군 문화시설	162
[표 46]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 중 예천군 개발계획	166
[표 47]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 중 예천군 개발계획	168
[표 48] 예천군 2021년 문화관광 주요사업 조서	170
[표 49] 문화·관광부문 메가트렌드 분석 시사점	172
[표 50] 정부 체육관련 예산 추계	176
[표 51] 국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177
[표 5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2019)	178
[표 53]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181
[표 54] 예천군 공공체육시설	183
[표 55] 2021 예천군 체육사업소 추진계획	185
[표 56] 체육 부문 메가트렌드 분석 시사점	187
[표 57] 통합신공항 부문의 SWOT 분석	193
[표 58] 예천군 농업농촌 부문의 SWOT 분석	204
[표 59] 예천군 지역개발 부문의 SWOT 분석	208
[표 60]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SWOT 분석	212
[표 61]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222
[표 62]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연령대)	222
[표 63]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지)	223
[표 64]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 기간)	224
[표 65]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직업)	225
[표 66]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26
[표 67] 앞으로 예천군이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227

[표 68]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촉진시켰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227
[표 69] 예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228
[표 70] 예천의 미래 발전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9
[표 71]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30
[표 72]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30
[표 73]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231
[표 74]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232
[표 75] 예천군 농촌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233
[표 76] 읍면중심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233
[표 77] 예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4
[표 7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235
[표 79] 예천군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236
[표 80] 예천군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7
[표 81] 예천군의 보건복지시설 중 시급히 조성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238
[표 82] 현재 거주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39
[표 83]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9
[표 84] 예천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0
[표 85] 향후 30년 후 예천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241
[표 86] 예천군민 지역주민조사 시사점	241
[표 87] 예천군 미래발전전략 비전 도출과정	255
[표 88] 지자체 C와 도시슬로건 역할 비교	375
[표 89] 예천군 세입구조	389
[표 90] 예천군 세출구조	390
[표 91] 재정건전성 평가	391
[표 92] 재정건전성 평가 방법	391
[표 93] 재정계획성 평가	392
[표 94] 계획 사업 총 사업비	395
[표 95] 분야별 소요재원: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396
[표 96] 분야별 소요재원: 인구보건복지 분야	397
[표 97] 분야별 소요재원: 산업경제 분야	398
[표 98] 분야별 소요재원: 농업농촌 분야	398
[표 99] 분야별 소요재원: 지역개발 분야	399
[표 100] 분야별 소요재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399
[표 101] 산업별 유발계수	402
[표 102] 파급효과 도출결과	403

그림 목 차

[그림 1] 예천군 연구 지향점	3
[그림 2] 공항복합도시의 구조	9
[그림 3] 주요국 공항복합도시-유럽사례	11
[그림 4] 주요국 공항복합도시-미국사례	12
[그림 5] 주요국 공항복합도시-아시아사례	13
[그림 6] 하이퍼루프 사례	15
[그림 7] 공항 연결을 위한 태국 고속철도 건설 계획	15
[그림 8] 글로벌 항공여객실적 변동 추이(1945~2020)	16
[그림 9] 전년 동기 대비 여객 실적 증감을	18
[그림 10] 전년 동기 대비 화물 실적 증감을	19
[그림 11] 인천공항 3단계 배후물류단지	22
[그림 1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23
[그림 1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경북 반영 노선도)	27
[그림 14] 공항 관련 상위·연관계획 연계도	31
[그림 15] 토지거래허가구역	32
[그림 1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계획	34
[그림 17]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산업 분야)	41
[그림 18]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관광 분야)	41
[그림 19]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신성장분야)	43
[그림 20] 지방공항 및 비행장 활성화 방안	45
[그림 21] 예천군 인근 지자체 핵심사업 현황	46
[그림 22]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문경)	47
[그림 23]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상주)	48
[그림 24]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영주)	48
[그림 25]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안동)	49
[그림 26]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의성)	50
[그림 27]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예천)	51
[그림 28]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예천군의 기대 역할	52
[그림 29]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54
[그림 30] 농촌관련 현 국가정책 방향	56
[그림 31] 연도별(98~12년), 연령별(15~75세) 생활만족도 추이	56
[그림 32] 고령화 지역별 비교	58

[그림 33] 미래 삶의 변화	59
[그림 34] 주요국 삶의 질 지수 비교	60
[그림 35]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	62
[그림 36] 예천군 인구 메가트렌드	64
[그림 37] 예천군 인구변화 추이	68
[그림 38] 예천군 읍면별 인구 현황	68
[그림 39] 성별 연령 분포도	70
[그림 40] 예천군 읍면별 인구 및 노인인구 현황	71
[그림 41]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74
[그림 42]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이용체계[안]	76
[그림 43] 예천군 보건복지 메가트렌드	77
[그림 44] 경상북도 주요 산업단지 현황	90
[그림 45] 경상북도 민선7기 23개 시군 발전방향	91
[그림 46] 한국판 뉴딜 1.0	94
[그림 47] 한국판 뉴딜 2.0	96
[그림 48] 예천군 산업·경제 메가트렌드	100
[그림 49] 식품 주요품목에 대한 연간 수요 성장률	101
[그림 50] 소득 그룹별 가계지출 중 식품의 비중	102
[그림 51] 주요 농산물의 사용 용도	103
[그림 52] 기후 변화와 주요 작물 재배지 변화	110
[그림 53] 장래 인구 전망(1965-2065 중위)	111
[그림 54] 고령인구 비율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변화 추이	113
[그림 55] 바이오산업 분류	117
[그림 56] 경상북도 농림수산업 부문 목표와 추진 방향	119
[그림 57] 고창 정보리발 축제 사례	120
[그림 58] 연 최고기온 변화 추이	121
[그림 59]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123
[그림 60] 예천군 농업농촌 메가트렌드	125
[그림 61] 예천 도시(지역)개발 현황-1	139
[그림 62] 예천 도시(지역)개발 현황-2	139
[그림 63] 예천 지역개발 메가트렌드	140
[그림 64] 경상북도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148
[그림 65] 예천군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151
[그림 66] 예천군 내 주요 관광 지점 월별 평균 입장객(' 18~' 20)	152
[그림 67] 예천 세계활축제	153

[그림 68] 예천장터농산물대축제	154
[그림 69] 예천세계곤충엑스포	154
[그림 70] 예천용궁순대축제	155
[그림 71]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156
[그림 72]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156
[그림 73] 예천군 보물 현황	158
[그림 74] 예천 할 체험장	160
[그림 75] 예천군 인구 및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개소수	162
[그림 76] 관광경복의 이념과 비전	165
[그림 77] 관광경복의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166
[그림 78]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비전과 목표	167
[그림 79]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공간체계	168
[그림 80]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4대 목표	169
[그림 81]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문화관광 및 스포츠 부문	170
[그림 82]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메가트렌드	172
[그림 83] 분야별 체육예산 추이	176
[그림 84]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종목 순위(2019)	178
[그림 85]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82
[그림 86] 경상북도 종합계획 - 교육·체육 부문 목표	182
[그림 87] 예천군 인구 및 인구 천 명당 공공체육시설 추이	184
[그림 88] 예천군 문화체육시설 지도	186
[그림 89]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222
[그림 90]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연령대)	223
[그림 91]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지)	224
[그림 92]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기간)	225
[그림 93]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직업)	226
[그림 94]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26
[그림 95] 앞으로 예천군이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227
[그림 96]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촉진시켰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228
[그림 97]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저해시켰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228
[그림 98] 예천의 미래 발전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9
[그림 99]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30
[그림 100]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31
[그림 101]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231
[그림 102]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232

[그림 103] 예천군 농촌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233
[그림 104] 읍면중심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234
[그림 105] 예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5
[그림 10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236
[그림 107] 예천군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237
[그림 108] 예천군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7
[그림 109] 예천군의 보건복지시설 중 시급히 조성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238
[그림 110] 현재 거주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39
[그림 11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9
[그림 112] 예천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0
[그림 113] 향후 30년 후 예천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241
[그림 114] 전문가 자문회의	244
[그림 115]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246
[그림 116] 1차·2차 중간보고	248
[그림 117] 분야별 성과협의	251
[그림 118] KAC 항공훈련센터	264
[그림 119] 영종도 운항훈련센터	265
[그림 120] 지역 농산물 특화 밀키트 상품	268
[그림 121] 식물 플랫폼 백신 개발 및 생산과정	271
[그림 122] 지역별 브루어리 맥주	274
[그림 123] 지역 특산물 활용 음료	274
[그림 124] 일본 '워크 가미야마'	277
[그림 125] 통합신공항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계획(안)	281
[그림 126] 관광지구 보행개선 및 문화복합 팩토리 사례	285
[그림 127] 의성군 힐링여행코스	288
[그림 128] 건강 힐링 여행코스 사례	288
[그림 129] 포항 청년창업 LAB	295
[그림 130]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297
[그림 131] 공공 산후조리원 사례	298
[그림 132]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00
[그림 133] 평생교육 플랫폼 사례	302
[그림 134] 마을 디자이너 사례	304
[그림 135]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례	307
[그림 136] 밥상공동체 사례	309
[그림 137] 청소년 안경 지원 사업 사례	311

[그림 138] 발달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313
[그림 139]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사례	315
[그림 140] U-health 시스템 사례	317
[그림 141] 남해군 독일마을 사례	319
[그림 142] 농민 기본소득 추진 현황	321
[그림 143] 복합 문화복지센터 사례	323
[그림 144] 다문화가정 시스피커 무상지원 사례	325
[그림 145] 다문화가정 시스피커 무상지원 사례	327
[그림 146] 경상북도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 특구	330
[그림 147] 지역형 시생태계 구축 사례	332
[그림 148] 자연자원(갯벌, 황토) 관광자원화 사례	334
[그림 149]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례	336
[그림 150] 농촌 워킹홀리데이 사례	338
[그림 151]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례	340
[그림 152] 친환경 생태농업 사례	344
[그림 153] 고창 청보리밭·해바라기 축제	346
[그림 154] 양봉 브랜드 육성 사례	348
[그림 155] 경북 곤충산업 육성 전략	350
[그림 156] 신 소득농작물 시험재배 사례	352
[그림 157] 한우 브랜드화 사례	354
[그림 158]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사례	356
[그림 159] 농업생태원 사례	358
[그림 160] 도시 슬로건 사례	375
[그림 161] 의료관광단지 조성 사례	378
[그림 162] 항공 축제 사례	381
[그림 163]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사례	383
[그림 164] 세입구조	389
[그림 165] 세출구조	390
[그림 166] 분야별 사업비 구성	395
[그림 167] 소요재원별 사업비 구성	396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세계 유수의 공항들은 공항주변지역을 공항과 연계한 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항과 주변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현재 대구공항은 공간 협소로 2020년 8월 28일 군위, 의성간 일대로 이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항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기능별, 부문별 연계 사업계획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전략 마련 필요
- 2028년 목표로 추진중인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전후방 연계 공항생태계 조성 등은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공항 건설과 연관 산업 트렌트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기반 대상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통합 신공항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변화 및 산업체계 개편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변화 기조에 대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
- 특히, 지방소멸이 거론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천군 특성에 맞는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함
- 이에 과학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예천군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군정 계획과 사업 발굴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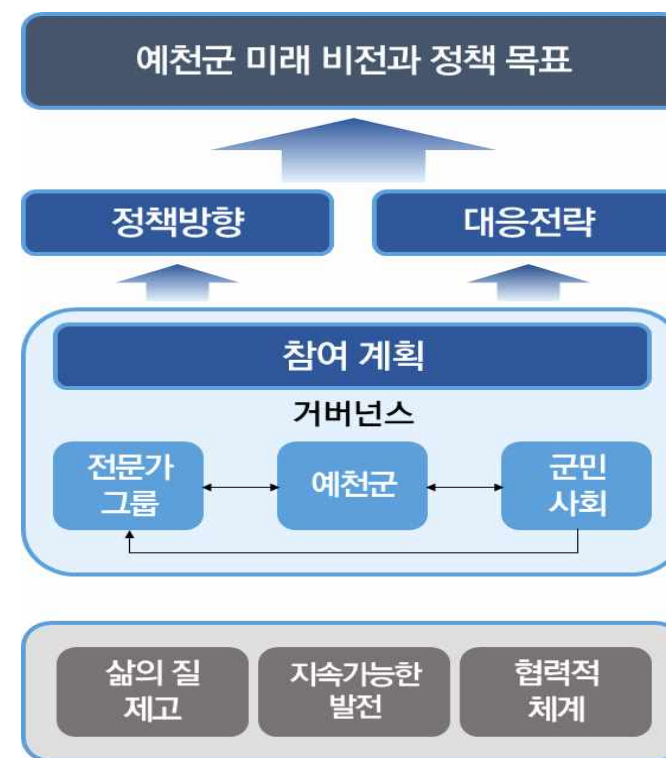
- 본 연구는 2028년 건설 목표인 통합 신공항과 연계하여 대상사업을 발굴 계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사업 추진전략과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실천지향적인 정책방안 마련함
- 또한 경상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국내·외 현황 및 주변 여건 변화 분석에 따른 미래발전 지표 설정하고 향후 30년간 미래전략 군정 운영방안 수립
- 코로나 19에 따른 질병관리 방안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수립
- 인구 소멸에 따른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인구 지속방안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에 맞춰 예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예천형 과제 발굴 수립
- 통합 신공항 및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예천군의 미래 산업 및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신 성장동력 발굴 마련

3. 연구의 성격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기초 골격을 바탕으로 군 단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계획
- 상위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군 단위의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복지 등 각 부문 모든 영역의 계획을 총망라하는 종합계획
- 예천군의 미래상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 종합 지침서 성격

4. 연구의 지향점

- 패러다임의 변화 반영: 예천군민 삶의 질 제고 및 행복 추구
-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
- 협력적 체계: 군민, 전문가, 지방정부 등의 협력과 참여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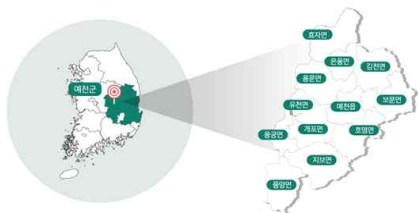


[그림 1] 예천군 연구 지향점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 목표연도: 2050년
- 계획기간: 2020년 ~ 2050년



[그림 1] 예천군 행정구역

2. 공간적 범위

- 예천군 전역(1읍 11면) 661,484km²
주변 인근 시·군 포함

3. 내용적 범위

- 예천군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메가트렌드 분석
- 코로나 이후 분야별 여건 변화 분석 및 예측
- 예천군 현황 분석 및 미래전략 계획 예측
- 현재와 미래 분석에 따른 신 공항 시대 군정 방향 설정 및 미래전략 제시
- 통합 신공항 시대에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분야별 사업 발굴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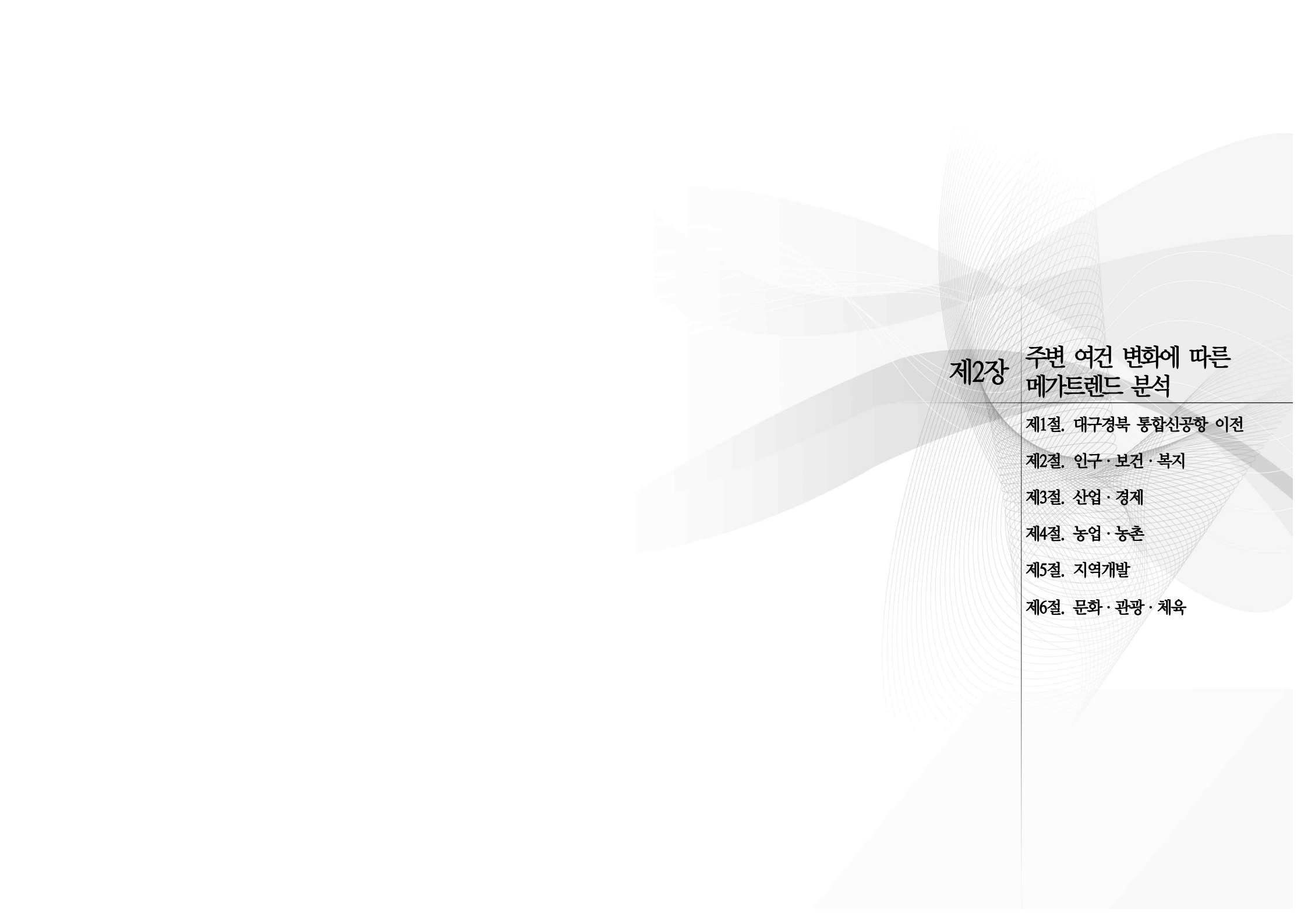
4.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통계자료, 정책자료 분석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현장답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시사점 도출 및 종합분석
- 예천군 미래 비전 설정
- 예천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5. 연구의 절차

[표 1] 연구의 절차

구분	내용			
연구 설정	배경과 목적	범위	방법	절차
현황분석	메가트렌드 분석			
	전 세계 메가트렌드 분석	국내 메가트렌드 분석	경상북도 메가트렌드 분석	예천군 메가트렌드 도출
민관학 의견수렴	지역주민 설문조사	예천군청 집단 심층 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종합분석	예천군의 현재 포지션		종합분석	
기본구상	비전 구상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설정			
부문별 정책방향	종합분석 및 지향점 도출	미래전략비전 설정	목표, 전략 및 세부정책 방향	단계별 발전전략
재정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계획	재정계획	기대효과	



제2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메가트렌드 분석

제1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제2절. 인구·보건·복지

제3절.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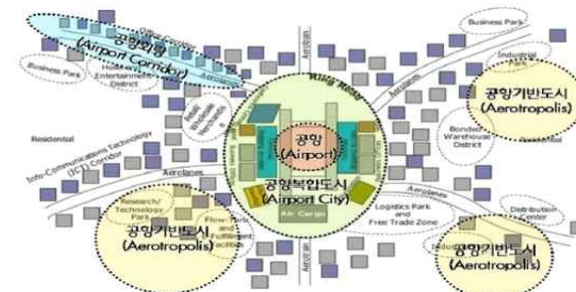
제4절. 농업·농촌

제5절. 지역개발

제6절. 문화·관광·체육

1. 주요국 공항 관련 현황 및 트렌드

- 기존의 승객, 물류이동의 단순한 교통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산업 활동 기능이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시대가 도래함
- 허브공항 구축과 공항 관련 산업은 새로운 도시 성장과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공항 주변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최적 입지로 부상함
 - 항공 수요의 빠른 증가에 따른 공항 주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각 공항은 공항 수의 증가와 더불어 허브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음
 - 많은 외국공항들은 비항공 수의 창출을 위하여 공항주변에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시설을 갖춘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형 공항들은 배후지역까지 개발범위를 확대하여 복합도시 형태로 개발, 항공수요 창출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항복합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고 있음




 곤충도시 *Clean*
 예천

- 공항복합도시란 도시 및 국가발전에 필요한 물류, 교통, 자본, 정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 공항고객의 요구에 맞춘 레저, 업무, 산업시설 입지로 기존의 단순한 승객, 물류 이동 외에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성장, 개발되는 곳으로 활용하는 전략임
- 공항복합도시에는 비즈니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R&D, 전시 컨벤션 기능 집적
- 교통수단 변화와 함께 성장변화하는 도시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장소
- 공항복합도시는 기능과 규모, 영향범위 등을 기준으로 크게 Airport City, Aerotropolis, Airport Corridor 등으로 구분함

[표 2] 공항복합도시 구분

공항 클러스터	양호한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시간적으로 신속성·민첩성이 중요한 산업, 국가 간, 지역 간에 인적 또는 물적자원의 이동이 많은 산업이 공항주변에 집적한 곳
공항도시 (Airport City)	공항터미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여객관련 수요와 물류 처리를 위해 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내부순환도로망으로 공항과 연결
공항기반도시 (Aerotropolis)	공항 반경 20km 이내에 항공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클러스터와 주거배후 단지를 개발한 곳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 공항과 연결
공항회랑 (Airport Corridor)	공항과 공항기반도시 사이 지역으로 도시와 공항을 연결시키고 복수의 터운을 아우르는 테마화된 도시로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

○ 유럽지역

안정기에 도달한 유럽은 공항개발보다는 기존 공항의 시설확충에 관심을 집중하고 공항 및 주변계획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하여 지역전반의 성장을 촉진

-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 스키폴 업무도시(Business City Schiphol)에 공항 관련 산업 및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입지한 유럽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
 - 약 200만명에 달하는 대지에 스키폴지역개발공사(SADC)가 첨단 비즈니스파크를 건설
 - 배후 비즈니스 단지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패커드, 노텔, 시스코시스템스, 유니시스, 캐논, 니콘, 미쓰비시자동차, 르노 등 세계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나 연구소, 물류시설 등을 유치함
 -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8000여개의 외국기업 상당수가 이곳에 입주하였으며, SADC는 입주기업이 있는 기업에 각종 행정 대행 업무는 물론 직원 채용, 주택 알선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함
- 핀란드 반타 공항: 북유럽의 허브공항이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반타 공항 주변Aviapolis에 복합형

첨단 R&D 단지 조성

- 프랑스 샤를드골 국제공항: Rossy Pole 지역에 호텔, 전시장, 판매 및 교육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전반의 경제 촉진
- 벨기에 리에주(Liege) 공항 : 1914년 최초개항을 하여 군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 본격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서비스하기 위해 신축
 - 66%의 유럽 내 항공화물(런던을 포함하면 75%)을 취급
 - 화물운송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로 북쪽에 복합운송화물단지 조성과 공항 주변에는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 리에주 공항 물류단지 특성
 - 신선 식품류, 동물검역, 위험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Flyin' Farm (신선 식품류와 동식물 검역 시설)을 통해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정
 - 공항이착륙요금, 시설료를 유럽의 다른 공항요금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책정하여 경쟁력 확보

[그림 3] 주요국 공항복합도시-유럽사례



네덜란드 스키폴 업무도시

핀란드 Aviapolis

벨기에 리에주 공항 인근 물류단지

벨기에 리에주 공항 인근 지역개발

○ 미국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미국 내 100대 공항 중 60여 공항이 시설의 신선훈확장을 계획하였으며, 지역의 부도심으로 공항관련 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델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공항을 활용하여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델러스 국제공항의 남동쪽 Las Colinas에 주거, 레저, 생산이 복합된 대규모 비즈니스 복합단지 개발
 - 공항인접지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여 엑손모빌·AT&T·아메리칸 항공그룹·사우스웨스트항공·사·킴벌리-클라크코퍼레이션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이 델러스에 본사가 위치함
 -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대한항공·한진해운·두산·노틸러스호성·SK하이닉스·신한금융그룹 등 19개 기업이 미국·북미 지역 본사를 델러스에 마련함
 - 미래에는 공항과 주변 도시를 잇는 소형 수직 이륙비행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4~6인의 승객이 15분 내의 비행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우버가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우버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계획임
- 덴버 공항: 기존 스탠폴턴 공항의 활용방안으로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여 R&D, 교육, 주거, 복합레저기능을 도입하였음. Gateway 지역에는 주거, 상업 및 공항관련 산업, Commerce City 지역에는 대학교, 컨벤션, Medical Center 및 비즈니스기능 유치
- 디트로이트 공항: 메트로 공항과 월로 공항 사이에 Wayne Country Aeropolis를 건설하여 국제상업, 주거 및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성장과 고용창출
- 라스베이거스 공항: 도박과 환락의 도시에서 1980년대 후반 여러 차례에 걸친 세계적 컨벤션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타운으로 변신하여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

[그림 4] 주요국 공항복합도시-미국사례



미국 DFW Airport Business park



미국 Stapleton Airport

○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 건설 중인 대부분의 신공항들은 공항 허브화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공항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흡수하고 공항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에 물류 및 산업단지, 관광레저단지 및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홍콩 첵랍콕 공항: 공항인접지역에 업무지원단지 Sky City를 개발하여 경제, 무역, 관광산업 진흥유도와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대중국 관문역할 강화 및 공항허브 입지 구축함
 - 대표시설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컨퍼런스센터로 다양한 전시, 행사, 공연을 개최하는 Asia World Expo, 영화관, 사무실 등을 포함
-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Capital Airport City에 국제상업, 주거시설과 공항복합타운,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도입하여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물류허브 구축 및 환승체계 구축함
- 싱가포르 창이 공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공항중심지 역할의 활용을 위해 Changi Point 등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상업 및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센토사 섬의 경우 각각 특화된 5개의 테마지역을 설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 마카오 공항: 주변 타이파 및 코로네 섬 사이를 매립한 코타이 지역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고 카지노 및 호텔, 컨벤션, 비즈니스, 쇼핑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함
- 중국 시안 셴양 공항 : 중국이 최초로 시도하는 내륙형 국제공항도시 시범지구
 - (평동신도시) 첨단기술과 컨벤션 산업을 위주로 첨단기술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공항신도시는 물류센터, 항공부품 제조 및 비행기 정비기지 등을 유치
 - (징허신도시) 시안 국제화 대도시의 북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생산 유통 종합 서비스, 중앙 상업지구를 핵심으로 구성

[그림 5] 주요국 공항복합도시-아시아사례



홍콩 Skycity 개발계획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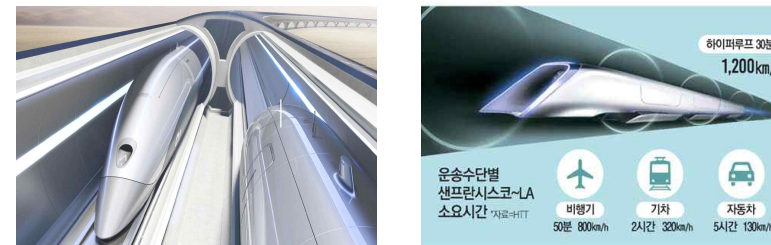
중국 시안 셴양 공항



중국 시안 셴양 공항 인근지역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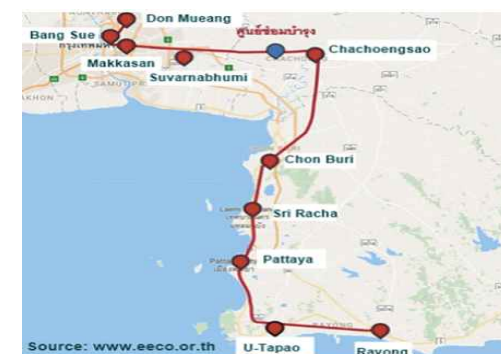
2) 복수공항 운영 동향

- 복수공항시스템(Multi-Airport System, MAS)은 '대도시권 지역의 항공교통량을 담당하는 공항들의 조합'으로 학술적으로 정립이 가능하며, 이를 발전 시켜 '대도시권 지역 내의 상업 운송량을 담당하는 둘 이상의 주요 공항들의 조합'으로도 정의가 가능한 개념임
 - 각국의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공항 역할분담 정책으로 공항별 교통량 및 여객 수요를 분담하는 효과를 가짐
- 미국 사례: 경제 수도라 할 수 있는 뉴욕의 경우 한 지역 내에 5개 공항이 운영 중이며, 1950년대 아이들와일드 신포항(JFK 공항)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자 1,500마일(약 2,400 킬로) 운항거리 규제를 기존의 라과디아 공항에 도입함
 - 이 규정은 국내선, 국제선 직행편 운항을 거리제한 내에서만 인정함과 동시에 거리제한을 초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경유편만 하는 조건을 둠
 - 이로 인하여 휴스턴(1,420마일)에 대한 직행편은 운항할 수 있지만, 덴버(1,609마일)에 대해서는 금지되었으며, 의회는 그 후 덴버 직행편을 인정하고 토요일에는 다른 요일에 비해 여객수가 적다는 점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1979년 이후, 항공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됨과 따라 JFK 공항을 거점으로 하던 많은 대형 항공사(이스탄불 항공, 브레니프 항공, 트랜스월드 항공, 팬아메리칸/내셔널 항공)가 도산하였다. 규제완화로 인하여 이 시기에 탄생한 신흥 항공사들 대부분은 JFK 공항이 아닌 뉴야크 공항을 선택하였고, 콘티넨탈 항공 등은 새로운 국제 항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환승노선 서비스를 제공함
 - JFK 공항의 국내선 편수는 라과디아 공항, 뉴야크 공항보다 적었고, 전통적인 대형 항공사가 아닌 제트블루 항공이라는 저비용항공사에 의해 대부분 운항됨
 - 대형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도 대부분을 JFK 공항으로부터 뉴야크 공항으로 이관
- 유럽 사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공항은 최근 약 50km 떨어져 일반항공 위주로 운영 중인 렐리스타드(Lelystad) 공항을 확대하여 제2의 대체 공항으로 운영 추진 중임
 - 하이퍼루프(Hyperloop)*를 개발하는 'Hyperloop One' 과 네덜란드 정부가 초고속 열차를 이용해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공항과 렐리스타드(Lelystad) 공항을 잇는 '하나의 통합공항(one integrated aerodrome)' 추진 계획을 고려함
 - 스키펴 공항의 수용량 분산을 위해 렐리스타드 공항은 2020년까지 A320과 B737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확장하여 저비용항공사 위주로 공항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
 - 하이퍼루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하나의 통합공항'을 실현할 수 있으며, 두 공항을 이동하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예상됨



[그림 6] 하이퍼루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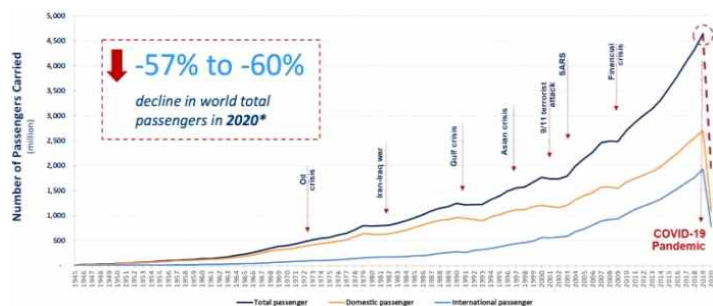
- 아시아 사례: 태국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향후 10년에 걸쳐 약 200만회로 두 배 증가할 전망으로 태국 정부는 급속한 항공 부문 성장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방콕의 기존 2개 공항인 돈므앙 공항(Don Mueang Airport)과 수완나품 공항(Suvarnabhumi Airport)에 이어 과거 군용공항이었던 우타파오 공항(U-Tapao Airport)을 활용하여 방콕 지역에서 총 3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3공항 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함
 - 태국은 2006년 수완나품 공항 개항에 맞춰 이전까지 방콕 지역에서 유일한 공항이었던 돈므앙 공항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저비용항공 등 빠르게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수완나품 공항으로는 용량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에 '2공항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돈므앙 공항을 재개장 운영함
 - 또한 우타파오와 수완나품, 돈므앙 공항을 연결할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새로운 장거리 고속철도는 남부의 라용(Rayong)에서부터 방콕까지 약 220킬로미터(km)를 연결함



[그림 7] 공항 연결을 위한 태국 고속철도 건설 계획

3) 코로나19 이후 변화

- 항공수요는 2010년 이후 고성장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에는 글로벌 항공수요가 60% 감소할 것으로 미래 전망이 변경됨
-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감소된 항공 여객 운송 실적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유례없는 상황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임



출처: ICAO,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9 September 2020

[그림 8] 글로벌 항공여객실적 변동 추이(1945~2020)

- 2020년 상반기 중 글로벌 항공운송산업 총 손실액은 약 843억 US달러(약 99조억 원)로 추정됨 (IATA, 2020.9)
- 항공기 운항 횟수는 2019년 314만 회 규모에서 152만 회 규모로 52% 감소, 수익 측면에서 피해 규모는 4,190억 US달러(약 492조 원) 전망됨
- 공항 부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업 손실액이 약 91조 2,173억 원, 유럽이 약 80조 7,849억 원으로 추정됨
- 항공사 손실액은 유럽이 약 22조 9,291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약 17조 8,666억 원 규모로 추정됨
- (ICAO) '20년 전 세계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 2019년 대비 59~60% 감소 예상, '21년까지 공급좌석 38.9%~49.1% 감소 예상 등 부정적인 전망으로 분석함
- 전 세계 여객 수의 경우 '19년 대비 약 13억 명의 감소 예상함('20년 기준)
- 여객교통량은 '24년에서야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운송산업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발생함
- 미국: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부분의 공항 건설 및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 중 단하며, 안전증진 을 위한 공항 인프라 개발 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함

- 항공사 지원프로그램(Payroll Support Program) 213억 달러 지원(주요 6개사, 자산 대비 10%)
- 보조금(70%)+대출(30%)/ 대출금 10% 정부 주식 취득
- 정부취득 주식 의결권 없음, 보조금 중심 지원, 고용유지(90% 이상)
- 중국: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국 민간항공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6+8' 개 항목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로써 항공기업의 부담이 연간 10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상함
- 민간항공발전기금 감면 정책
- 항공노선 및 항공편 허가관리 최적화, 항공노선 및 항공편 심사준비 절차/시간 조정 절차 간 소화
- 수송력 도입 심사비준 간소화, 운수권 시간 정책 지원 확대, 인프라 및 정보화 구축 강화, 항공화물 허브공항 세관 역량 구축 강화 등
- 프랑스: 항공우주업계 지원프로그램(Aerospace Rescue Package)을 마련함
- 70억 유로(약 9.5조 원) 지원(에어프랑스)/ 자산 대비 약 23%
- 정부 직접대출(30억 유로) + 정부 대출보증(40억 유로)
- 정부 주식취득 없음

2. 국내 공항 관련 현황 및 트렌드

1)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현황

- '20년 6월 항공여객(234만 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여행 기피 현상이 국제(-97.6%) 및 국내(-23.2%) 여객 감소로 이어짐
- 전년 동월 대비 77.8% 하락, 항공화물(23만 톤)은 화물기 운항 증편(79.7%)에도 불구하고, 운휴 여객기 증가(수하물 감소)로 국제화물(-33.5%) 및 국내화물(-34.5%)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국내 항공운송시장 동향

구분		2020년 6월		2020년 1~6월(누적)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여객	국내	2,161,147	-23.2	10,615,660	-33.6
	국제	182,053	-97.6	12,968,784	-71.5
	합계	2,343,200	-77.8	23,584,444	-61.7
화물	국내	12,998	-34.5	83,509	-34.3
	국제	219,341	-33.5	1,526,886	-22.2
	합계	232,339	-33.6	1,610,396	-23.0

출처: 항공시장동향(한국항공협회, 2020.7)

- 국내 주요 공항별 여객 실적은 국내선은 제주공항이 453만 명(20년 1~6월 누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서는 -34.1%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선은 인천공항이 1,063만 명(20년 1~6월 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서는 김포 공항이 -75.2%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6월 기준, 김해와 김포 공항은 매우 저조한 여객 실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의 큰 감소율을 보임

[표 4] 국내 주요 공항별 여객 실적

(단위: 만 명, %)

구분		2020년 6월		2020년1~6월(누적)	
		실적	전년대비	실적	전년대비
국내선	제주	88	-27.2	453	-34.1
	김포	71	-19.4	352	-29.9
	김해	28	-11.1	120	-33.0
	광주	8	-6.9	36	-28.8
국제선	인천	18	-96.9	1,063	-69.7
	김해	0	-100	114	-77.3
	김포	0	-100	54	-75.2
	제주	0.08	-99.6	27	-77.2

출처: 항공시장동향(한국항공협회, 2020.7)



[그림 9] 전년 동기 대비 여객 실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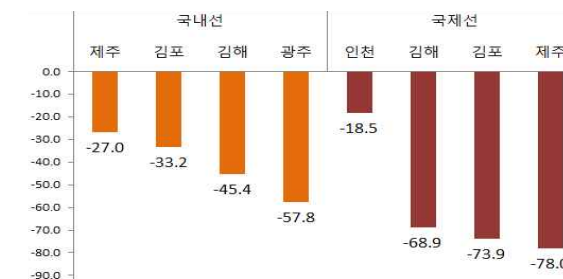
- 국내 주요 공항별 여객 실적은 국내선은 제주공항이 4.4만 톤(20년 1~6월 누적)으로 화물실적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공항이 -57.8%로 전년 동기 대비 화물 실적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으로 확인됨
- 국제선은 인천공항이 149.1만 톤(20년 1~6월 누적)으로 화물실적이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이 -78.0%로 전년 동기 대비 화물실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 국내 주요 공항별 화물 실적

(단위: 만 톤, %)

구분		2020년 6월		2020년1~6월(누적)	
		실적	전년대비	실적	전년대비
국내선	제주	0.6	-23.5	4.4	-27.0
	김포	0.4	-34.8	2.6	-33.2
	김해	0.1	-47.7	0.7	-45.4
	광주	0.03	-48.4	0.1	-57.8
국제선	인천	21.9	-29.0	149.1	-18.5
	김해	0	-100	1.3	-68.9
	김포	0	-100	1.6	-73.9
	제주	0.002	-99.3	0.3	-78.0

출처: 항공시장동향(한국항공협회, 2020.7)



[그림 10] 전년 동기 대비 화물 실적 증감률

2) 우리나라 공항 현황

- 국내에 소재하는 공항은 총 15개소로 대구국제공항은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거점 공항'으로 권역의 국내선 수요 및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임
- 대구국제공항의 2016년 흑자로 전환하여 최근 5년간 당기손익 338억 원으로 전체 공항 중 5위에 해당하며 연 이용객(2019년 기준)은 약 467만 명으로 추산됨
- 국내 소재 공항 중 대다수의 공항이 당기 손익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 증대를 도모함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015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을 확정 발표했고,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해 2017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대책을 발표함
- 2017년 12월에는 지방공항 활성화 터프(TF)를 구성해 항공 수요 개발과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신규 국제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노선당 최대 8억 원으로 확대함

[표 6] 최근 5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 원)

	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	청주	사천	광주	군산	원주	대구	김포	김해	제주
2020	-98	-81	-84	-74	-73	-66	-29	-27	-21	-12	-7	-	-	-
2019	-119	-144	-142	-125	-129	-53	-57	-51	-33	-34	151	944	1,217	155
2018	-138	-135	-131	-119	-117	-87	-51	-35	-30	-30	111	1,275	1,238	809
2017	-139	-128	-119	-116	-106	-58	-48	-27	-27	-29	72	1,584	1,153	981
2016	-124	-122	-96	-117	-99	2	-46	-32	-27	-24	11	1,420	998	1,095

출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은 1월~8월까지의 통계치

- 또한 정부는 공항별 맞춤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무안공항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남도 한바퀴' 등 관광순환버스를 개발
-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내륙의 바다 호수 여행' 을 개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
 - 광주·목포·대전 등 지방공항 배후 도심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증편하는 등 교통대책도 마련
-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에게 대내외적 여건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님
 - 저비용항공사 등에 의한 국내선 수요 창출이 상당히 이뤄진 상황에서 신규 항공 수요를 개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 국내선 여객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현실에서 전국 단위 광역교통망의 연결이 수요 감소를 부채질한다는 점 역시 예측 가능한 미래로 실제 KTX 개통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대구공항은 1989~2003년까지 김포~대구 노선 이용객이 연평균 10.8% 증가하다가,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이용객이 82.8% 급감하였으며 이후 2007년에는 이 노선이 운행 중단된 사례가 있음
- 더불어 2%~10%를 넘지 못하는 실적이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시점임
 - 원주, 사천, 군산, 포항 공항은 2016년 이후 활주로 활용률이 2%를 넘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지방공항의 수요 개발에 있어서 수요예측 네트워크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전 세계 각 공항은 항공사들이 개발 운용하는 수만 개 노선의 네트워크에 놓인 한 점이기에 국내 입지뿐만 아니라 전체 항공망 네트워크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수요 예측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함

3) 공항 주변 지역의 기능

- 공항 주변 지역을 기능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공항 배후지역)
 - 물류단지(항공물류 및 육상물류), MICE(컨벤션), 숙박(호텔, 비즈니스 서비스), 상업시설(아웃렛몰, 쇼핑 콤플렉스)
 - (공항기능 연계지역)
 - 수변관광, 교육 및 연구단지, 항공 관련 교육 및 연구단지, 특화 관광개발, 상업시설
 - (주거기능 중심지역)
 - 주거단지(공항 배후 뉴타운 조성)
 - (주변도시 연계)
 - 항공 연관시설(산업단지, 기타시설), 주변 교통망 연계(고속도로)

[표 7] 공항 주변 주요기능

구 분	주요 기능
공항 배후지역	• 물류단지 (항공물류 및 육상물류) • MICE (컨벤션) • 숙박 (호텔, 비즈니스 서비스) • 상업시설 (아웃렛몰, 쇼핑 콤플렉스) • 비즈니스단지 (공항지원, 오피스)
공항기능 연계지역	• 수변 관광(낙동강, 내성천 활용) • 교육 및 연구단지 (경북 도립대 캠퍼스 일대) • 항공관련 교육 및 연구단지 (업무단지 연계) • 특화 관광개발 (힐링 치유 및 전통문화) • 상업시설 (쇼핑몰)
주거기능 중심지역	• 주거단지 (공항배후 뉴타운)
주변도시 연계	• 항공 연관시설 (산업단지, 기타시설) • 주변교통망연계 (고속도로)

4) 국내 공항 연계 지역개발 사례

- 인천공항의 공항 연계 지역개발은 인천공항을 복합물류거점, 인천항은 즉시배송 중점으로 환적화물의 비중 차이를 두고 목적을 달리 운영
 - 복합거점형 물류기능은 입하된 화물을 일정기간 보관 후 여타 국가로 배송하는 구조
- 일반적으로 배후 물류단지 내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국제 3자물류 활성화가 필요 한데, 현재는 주로 국내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한 2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
- 인천공항은 3단계 배후 물류단지(32만m²)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조성 중 (자유 무역지역으로 선정)
- 최근 백신 공급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콜드체인(냉동·냉장 온도조절물류) 기반을 구축해 신선화물 처리 능력을 강화할 방침
 - 이를 위해 '쿨카고센터(Cool Cargo Center)'를 올해 내 건설할 계획



[그림 11] 인천공항 3단계 배후물류단지

- 공항 배후 물류단지 시사점
 - 도로화물운송은 가장 보편적인 화물운송수단이자 산업연관효과도 높기 때문에 낙후된 SOC·운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물류기반 마련 필요
 - 보관 및 창고서비스는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고, 최근 신선화물 수요의 급증으로 물류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역 내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육성이 중요
 - (콜드체인 물류시설) 온도, 습도 등에 민감한 상품의 생산, 보관, 유통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을 의미하며 과일, 야채, 수산물, 육류, 유제품, 냉동식품, 의약품 등이 적용

3.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1) 개요

- 사업기간: 2014~2028년
- 대상지: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 의성군 비안 일원
- 사업규모: 15.3km² (현 규모 대비 2.2배)
 - 부지: 11.7km², 소음완충지역 3.6km²
 - 활주로 2본 건설 예정: 3,200m(너비 60m), 2,743m(너비 45m)
- 총사업비
 - 군공항: 8.88조원
 - 민간공항: 사전타당성조사용역 후 사업비 및 사업규모 확정
- 사업추진방식
 - 군공항: 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군공항 부지 등 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양여 받은 부지 등을 개발하여 투자금을 회수)
 - 민간공항: 현 민강부지 매각대금 및 정부재정



[그림 1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2) 추진현황

(1) 추진경과

[표 8]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16.07.11	K-2·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
2016.07.12	이전건의서 제출
2016.08.11.	군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
2016.08.30.	K-2 이전사업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판정
2018.03.14.	이전후보지 선정
2019.03.29.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합의
2019.11.12.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의한 선정기준 마련 합의
2020.01.21.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2020.01.22.	이전후보지 유치 신청
2020.07.31.	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2020.08.28.	제7차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를 최종이전지로 선정
2020.09.03.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10.27.	국토부, <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
2020.11.06.	대구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
2020.12.07.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2) 추진과정

[표 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

구분	군공항 (대구시)	민간공항 (국토부)	교통망 (국토부, 경북도)	공항신도시 (경북도)
2020년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11.06.- 2021.11.05.) *민항 시설계획 협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2021-2025년)	통합신도시 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용역 (2020.12.07.-2021.10.02.)	
2021년		사전타당성검토 (2020.10.27. .-2021.10.22.)	사전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지구 지정
2022년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2023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2024년	군공항 건설공사	민항 건설공사	철도, 도로 건설공사	신도시 조성공사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3) 상위 및 연관 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Global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Infra) 개선

- 지방공항 항만 KTX역과 연계한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서비스 강화
- 국가물류거점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망의 건설 및 운영, 관리체계 강화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항공교통은 소형 개인비행기, 에어택시,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고 산업용, 레저용, 교통수단용 등 용도별 대응체계 구축
- 공항 인프라(Infra) 스마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 미래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 물류산업의 Global 경쟁력 강화

- 교통 물류 거점과 지역발전 연계
- 국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Air-City)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 개발
- 지방공항은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산업 간 융복합 물류복합체계 구축 및 신규 물류시장 개척

○ 남북 교통 인프라(Infra) 연결 및 대륙·해양을 잇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항공, 항만은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보완과 물류망 구축 검토
- 대륙 연계 철도 노선에, 도로 항공 물류 철도 등의 인프라(Infra)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유라시아 주요국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계 구축

(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 (목적)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

○ 7대 추진방향

-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망 계획 반영 사항

-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 현재 대구~의성까지 기존 118분 소요를 29분으로 단축
 - 길이: 61.3km, 사업비: 2조 444억 원
- 문경~점촌~상주~김천 구간 연결
 - 길이: 70.7km / 사업비: 1조 1천 437억 원
 - 철도 효율성 향상 및 수도권과 낙후 중남부 대륙을 잇는 산업·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연결
 - 연장: 22.9km / 사업비: 458억 원
 - 대구권, 김천시, 김천신도시 등 주요 도심을 연결해 주민에게 철도 서비스 제공
- 경북선(점촌~영주) 단선 전철화 사업
 - 연장: 55.2km / 사업비: 2천 709억 원
- 대구시·광주시·경북도 등 영·호남 6개 시·도가 공동으로 요구해온 달빛내륙철도(광주 송정~서대구) 반영
- 도청 이전 신도시 안착을 위해 꾸준히 건의해 온 점촌~안동선(47.9km), 신공항과 연계한 동서횡단 노선인 김천~진주선(101.1km)과 의성~영덕선(71.9km), 충남~충북~경북을 가로질러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243.3km), 구미 국가산단의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구미산단선 인입철도(8.3km)는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



[그림 1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경북 반영 노선도)

(3)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 새로운 물류사업 발굴 지원

- 신선, 바이오, 조달, 군물류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 국제항공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화물 LCC 육성 및 인센티브 강화

○ 국제 공·항만의 물류허브기능 강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 Re-shoring, 3D 프린팅 시대에 대비하여 공항만 배후단지 등 국제물류거점지역에 산업복합물류단지 개발
- 유통 물류 관광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주변 공·항만 등에 O2O전용 쇼룸비즈니스센터 구축
- 여객수송중심의 지방공항에 물류기능 계고

○ 남북교류 증진과 통일을 대비한 항공분야 협력사업 발굴

- 신뢰 성숙도에 따라 남북한 간 항공노선의 단계적 확장과 관련 공항의 인프라(인프라(Infra)) 정비 확충 협력 사업 추진

○ 첨단 물류시설 및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 '드론', '물류센터 로봇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 물류로봇, 스마트 컨테이너, 인터모달(Inter-modal) 시스템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Global) 시장 진출 지원
- 미래 신기술 융합 육 해 공 물류기술 개발 및 표준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술표준인증센터' 건립 추진

○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형 물류기술 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형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 개발 및 보급
- 메가 도시시대 및 대륙 간 초고속 이동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차원의 화물운송 시스템 개발 및 연구

○ 육·해·공 물류거점 통합정보 인프라(Infra) 및 국제적 연계망 구축

- '육 해 공 물류정보 통합망' 구축
- '육 해 공 물류정보 통합망' 과 한중일 항만당국 간 연계된 동북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 물류 인프라(Infra) 녹색화 추진 및 물류 안전·보안체계 구축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공 항만, 철도역, 내륙물류기지 등 물류거점의 에너지사용 저감 대책 수립
- 첨단기술에 기반한 효율적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구축

(4)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 항공분야의 종합적 계획

○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표 10] 항공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책에 환류되는 안전정책 구축	제1차 (' 18~' 22)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제5차 (' 16~' 20)
항공보안 기본계획	국내외 항공보안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제2차 (' 17~' 21)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제2차 (' 16~' 20)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제1차 (' 17~' 26)

○ (전략목표1)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새로운 항공가치 창출을 통한 하이브리드(Hybrid)* 항공네트워크 강화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
-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공안전
-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선도
- 세계 속으로 에어실크로드 구축
- 운송·물류분야 드론산업 육성 및 일상 속 드론안전 강화
- 한국형 공항 모델 패키지 수출
- 초단축 글로벌(Global) 생활권 항공교통 미래 준비
- 한반도 항공산업 협력기반 마련

○ (전략목표2)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 스마트한 무단절 공항서비스 고도화
-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

○ (전략목표3)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

- 전후방 종합산업 기반조성
- 항공화물 시장 개척을 통한 항공물류산업 도약
-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금융 활성화 추진
- 소형항공, 레저산업 등 항공운송산업 다양성 확대
- 항공기 제작 및 정비 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이슈 적극대응

○ (전략목표4)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 글로벌(Global) 시대 대비 공항의 앵커 전략 추진
-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공역 체계 선제적 구축
- 접근성 개선으로 공항을 커뮤니티 SOC로 확장
- 기술발전을 위한 공항 테크노폴 추진

○ (전략목표5)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 자율과 견제의 균형 있는 항공안전문화 조성
- 선제적 항공안전 역량 강화
- 빈틈없는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
- 미래형 첨단보안 장비 성능인증 체계 구축

(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 경쟁력 있는 공항

-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활성화

○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는 공항 인프라(Infra) 확충
- 공항 연계 산업 활성화

○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 공항 접근성 강화(전국 KTX 및 도시철도 등과 공항 간 연계 강화)

○ 미래를 준비하는 공항

- 혼련비행 인프라(인프라(Infra)) 확보(지방공항 등에 인프라를 확보하여 분산 추진)
- 통일에 대비한 기반 구축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Global 문화·관광 서비스 Infra 개선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새로운 물류사업 발굴 지원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경쟁력 있는 공항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공항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국제 공·항만의 물류허브기능 강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스마트한 무단절 공항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공항 개발·운영 간소화 및 환경친화적인 공항 개발	남북교류 증진과 통일을 대비한 항공분야 협력사업 발굴	항공화물 시장 개척을 통한 항공물류산업 도약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물류산업의 Global 경쟁력 강화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첨단 물류시설 및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항공기 제작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미래를 준비하는 공항
남북 교통 Infra 연결 및 대륙·해양을 잇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남북교통망 구축 및 Global 항공·해운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형 물류기술 개발	Global 시대 대비 공항의 앵커 전략 추진	
		육·해·공 물류거점 통합정보 Infra 및 국제적 연계망 구축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물류 Infra 녹색화 추진 및 물류 안전·보안체계 구축	기술발전을 위한 공항 테크노폴 추진	

[그림 14] 공항 관련 상위·연관계획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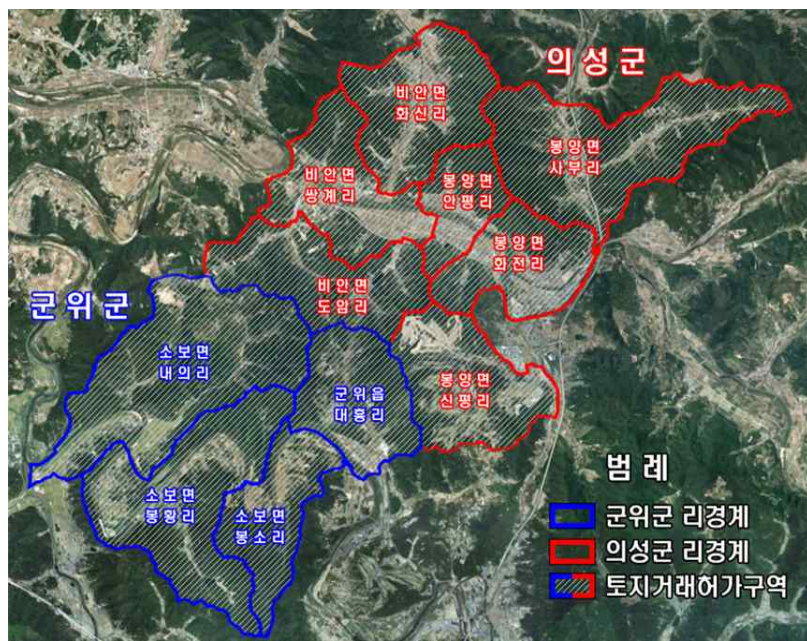
4)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기간 : '20.9.8. ~ '25.9.7. (5년간) ※ 도 공고 : '20.9.3.
- 지정면적 : 63.5km² (25,094필지, 1,922만평)
- 대상지역 : 2개군 4개 읍면 11개리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리, 봉소리, 봉황리)
 -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
- 지정효과
 -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

[표 11]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구분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 주거 180㎡(54평) - 상업 200㎡(60평) - 공업 660㎡(200평) - 녹지 100㎡(30평) - 용도 외 구역 90㎡(27평)
도시지역 외	- 농지 500㎡(151평) - 임야 1,000㎡(303평) - 기타 250㎡(76평)

○ 토지거래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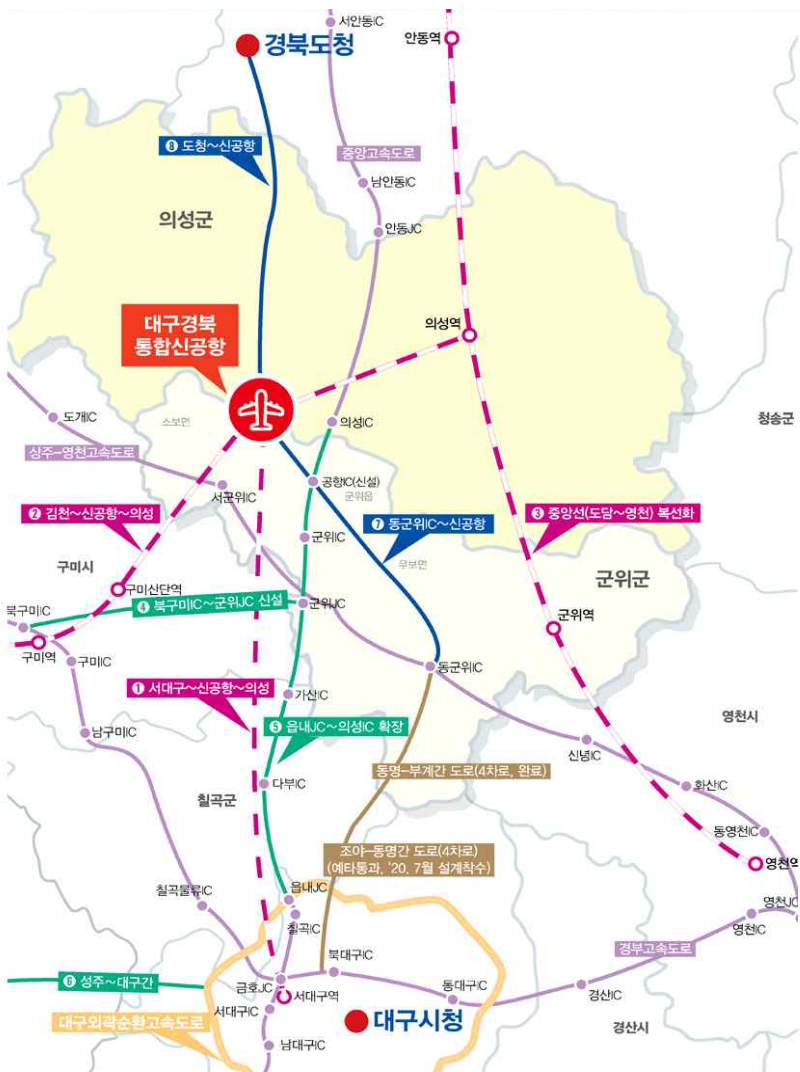


[그림 15] 토지거래허가구역

5) 접근성 개선계획

[표 1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B=4차로, L=11km, 군위 JC ~ 동군위 IC	'17년 개통
	동명-부계간 도로	B=18.5m, L=9.7km, 칠곡 동명 ~ 군위 부계	'17년 개통
	4차순환도로	[신설] B=20m, L=32.5km성서-지천-안심	'21년 개통
	조아-동명 광역도로	[신설] B=35m, L=9.7km북구 조아동-칠곡군 동명면	'24년 개통
	중앙고속도로 확장	[확장] B=4→6차로, L=48km금호JC-의성JC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건의
	동군위IC-신공항도로	[신설] B=4차로, L=31.2km동군위IC-공항IC-신공항	검토 예정
	북구미IC-군위JC	[신설] B=4차로, L=25km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건의
	성주-대구고속도로	[신설] B=4차로, L=18.3km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경북도청-신공항	[신설] B=4차로, L=35km	검토 예정
철도	서대구-신공항-의성	[신설] L=66.8km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
	김천-신공항-의성	[신설] L=74.4km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
	중앙선 복선화	[확장] L=145.1km	추진 건의



[그림 1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계획

6) 통합신공항 SWOT 분석

(1) 강점

- 국토 중앙에 입지하여 대구경북, 경남, 강원 충북충남과 접근성이 양호함
 - (발전 잠재력) 전국 유통거점, 특별수송 거점
 - (주변 경쟁공항과 차별화) '특별수송사의 Secondary Hub' 유치
- 한중일 동남아 연계에 유리한 지리적 강점을 보유함
 - 경제협력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수행 기대 가능
- 항공화물수요 창출 잠재력을 가진 배후경제권임
 -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등 배후도시와의 네트워크
 - 배후경제권 클러스터 조성 가능
- 수도권 백업 대체 Sub공항 역할 잠재력을 보유함
 - 인천공항과 통합신공항의 Hub & Sub 관계(대체 보완) 정립

(2) 약점

- 동서 교통 연계체계 및 접근교통수단이 미흡함
- 직배후경제권의 발전이 부족함
 - 배후경제권 및 산업단지 주요 수출입 품목에 특화된 화물 터미널 시설 인프라(Infra) 조성이 필요
- Global Gateway 역량이 미흡함
 - 노선·운항편수 확보 어려움
 - (발전방향)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
- 야간비행 제한, 배후경제권 규모 제한, 인천공항과 멀지 않은 점 등으로 대규모 물류 거점공항으로 포지셔닝이 어려움
 - Niche Airport형 / 틈새 공항으로 개발 방향 설정 고려
 - ① 배후경제권 활성화 지원 ② 여객 부문과의 시너지 ③ 특정 항공물류 특화된 공항

(3) 기회

- 인천공항 적정규모 및 규모의 비경제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 인천공항 신규투자 수요 지속 발생 → 지방공항으로의 물량 분산 필요성 제고 → 화물특화 공항의 육성
 - (효과적인 인당 처리 실적을 보이는 화물 처리량) ① 60~140만 톤 ② 30~80만 톤
- 통합신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및 지역산업 진흥거점 육성이 가능함
 - 인천공항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
 - 독일 Frankfurt공항과 Hahn공항 간의 Hub & Sub(대체보완) 사례 참고
- 저비용항공사 진입 및 아태지역 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저비용항공사 Target으로 하는 활성화 사업 도출
- 부산항 울산항과의 Sea & Air 복합운송 연계 가능성
- 중소형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
 - '화물특화 공간(Bellyhold)' 을 활용한 수익성 제고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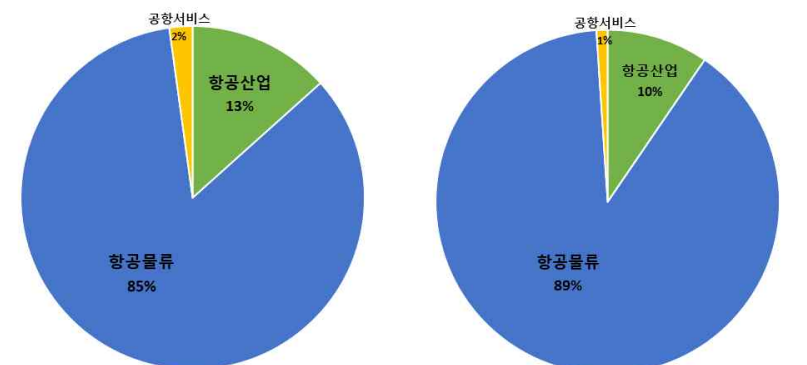
(4) 위협

- 기본적인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거점공항화, 항공복합산업단지 거점화 등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 동남권신공항 : 부산신항-가덕신공항의 국제화물운송 연계 → 화물 허브 경쟁 우위
- 인천공항 위주의 항공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함
 -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 집중화 추세 심화
-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투자재원 부담이 가중됨
- 공항주변 인프라(Infra) 부족 및 군 기지 운영에 따른 민간공항 운영 제약이 존재함
- 상위 계획 상,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공항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미흡함
 - ① 포지션 선정 ②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개선방안 필요

7)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별 파급효과
 - (전국) 생산유발효과 53조 3,40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조 5,564억 원, 취업유발효과 491,812명 예상
 - (대구) 생산유발효과 1조 5,37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761억 원, 취업유발효과 18,929명
 - (경북) 생산유발효과 34조 4,29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조 6,410억 원, 취업유발효과 386,616명
- 항목별 파급효과에서 '공항건설' 은 생산유발액 9,784,141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4,310,112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105,242명으로 예측됨
 - (연결 교통망 구축) 생산유발액 13,659,659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4,892,618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98,750백만 원
- 공항연관산업에서 항공산업 부문은 생산유발액 1,443,572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517,059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10,436명으로 예측됨
 - 항공물류 부문은 생산유발액 9,134,181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4,845,637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171,291명
 - 공항서비스 부문은 생산유발액 235,458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56,701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567명
 - 따라서 항공물류 부문이 공항연관산업 중 생산유발액 비율은 85%, 부가가치유발액 비율은 89%로 항공연관산업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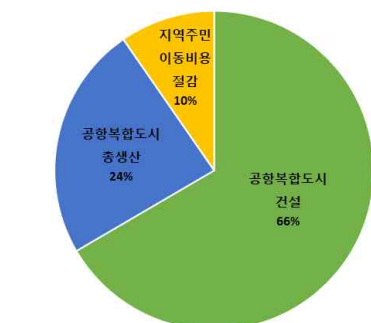
- 공항복합도시에서 '공항복합도시 건설' 부문은 생산유발액 1,134,672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462,735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12,006명으로 예측됨
- '공항복합도시-총생산' 부문에선 생산유발액 427,158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165,269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3,793명으로 기대됨
- '공항복합도시-지역주민 이동비용 경감' 부문에선 생산유발액 148,072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66,999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3,459명으로 예상
- 따라서 공항복합도시 중 건설에서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각각 66%씩을 차지하며 가장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목별 파급효과

(단위: 백만 원, 명)

항목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
공항건설		9,784,141	4,310,112	105,242
연결 도로망 구축		13,659,659	4,892,618	98,750
공항 연관 산업	항공산업	1,443,572	517,059	10,436
	항공물류	9,134,181	4,845,637	171,291
	공항서비스	235,458	56,701	567
공항복합도시	공항복합도시 건설	1,134,672	462,735	12,006
	공항복합도시 총생산	427,158	165,269	3,793
	지역주민 이동비용 절감	148,072	66,999	3,459
합계		35,966,915	15,317,130	405,544

출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대구경북연구원)



<공항복합도시 부문별 생산유발액 비율>

<공항복합도시 부문별 부가가치유발액 비율>

(2) 대구·경북의 미래상

- (대구)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에서 벗어나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

- k-2 후적지는 ICT, IoT 등 첨단기술기반의 스마트시티로 개발
- 팔공산과 금호강을 아우르는 도시 공간 재창조를 통해 동촌신도시 조성
- 아시아폴리스, 혁신도시, 금호위터폴리스 등 인접지역과 연계개발을 통한시너지 창출

- (경북) 소멸위험, 침체된 경제에서 벗어나 지역 전반에 도시화 촉진

- 항공 및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재탄생
- 항공 및 물류 관련 산업 유치 등 새로운 공항 복합도시 조성
- 각종 자금 및 군인·항공산업 종사자 등의 대거유입으로 자급자족형 신도시 형성
 - (인구) 군인군무원과 가족,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 (도시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공항이용객의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화 촉진
 - (인지도) 공항 이용객 연 400만 명 이상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자원 등의 이용
 - (이전주변 지역 지원 사업) 주민생활 지원, 소음피해 저감, 공공시설 지원 등을 통한 도시정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8) 통합신공항 연계 지자체별 핵심사업 현황

- 현재 23개 시·군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립 및 추진 중

- 사업 분야를 크게 산업, 관광, 물류, 일자리, 신성장, 인프라 총 6개 부문으로 분류

- 23개 시·군에서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사업 총 230건 중 관광 부문이 2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인프라 26.5%, 산업 16.1%, 신성장 11.7%, 일자리 10.9%, 물류 9.1%의 순으로 사업이 구성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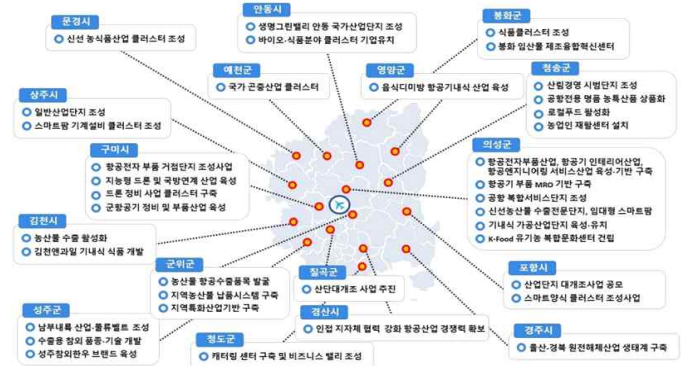
- 예천군은 현재 총 6개의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을 수립 및 진행 중

- 관광(2건, 33.3%), 산업(1건, 16.7%), 물류(1건, 16.7%), 일자리(1건, 16.7%)로 구성됨

[표 14] 통합신공항 연계 시·군 핵심사업 현황

구분	전체	산업	관광	물류	일자리	신성장	인프라
포항	15 건 100%	2 건 15.4%	4 건 26.7%	3 건 20.0%	1 건 6.6%	1 건 6.6%	4 건 26.7%
경주	15 건 100%	1 건 6.7%	6 건 40%	-	2 건 13.3%	2 건 13.3%	4 건 26.7%
김천	11 건 100%	2 건 18.2%	2 건 18.2%	1 건 9.1%	1 건 9.1%	2 건 18.2%	3 건 27.2%
안동	3 건 100%	2 건 66.7%	-	-	-	-	1 건 33.3%
구미	25 건 100%	4 건 16%	3 건 12%	2 건 8%	3 건 12%	4 건 16%	9 건 36%
영주	2 건 100%	-	1 건 50%	-	1 건 50%	-	-
영천	3 건 100%	-	1 건 33.3%	1 건 33.3%	-	1 건 33.3%	-
상주	14 건 100%	2 건 14.3%	4 건 28.6%	4 건 28.6%	-	1 건 7.1%	3 건 21.4%
문경	10 건 100%	1 건 10%	5 건 50%	-	1 건 10%	-	3 건 30%
경산	4 건 100%	1 건 25%	-	1 건 25%	1 건 25%	-	-
군위	24 건 100%	3 건 12.5%	5 건 20.8%	1 건 4.2%	5 건 20.8%	-	10 건 41.7%
의성	21 건 100%	6 건 28.5%	5 건 23.8%	1 건 4.8%	3 건 14.3%	5 건 23.8%	1 건 4.8%
청송	12 건 100%	4 건 33.3%	1 건 8.3%	-	2 건 16.7%	3 건 25%	2 건 16.7%
영양	6 건 100%	1 건 16.7%	2 건 33.3%	-	1 건 16.7%	-	2 건 33.3%
영덕	3 건 100%	-	2 건 66.7%	-	-	-	1 건 33.3%
청도	3 건 100%	1 건 33.3%	1 건 33.3%	-	-	1 건 33.3%	-
고령	2 건 100%	-	1 건 50%	-	-	-	1 건 50%
성주	13 건 100%	3 건 23.1%	4 건 30.8%	1 건 7.7%	-	-	5 건 38.4%
칠곡	9 건 100%	1 건 11.1%	2 건 22.2%	2 건 22.2%	-	-	4 건 44.5%
예천	6 건 100%	1 건 16.7%	2 건 33.3%	1 건 16.7%	1 건 16.7%	-	1 건 16.7%
봉화	16 건 100%	2 건 12.5%	5 건 31.3%	2 건 12.5%	3 건 18.7%	1 건 6.3%	3 건 18.7%
울진	10 건 100%	-	6 건 60%	-	-	-	4 건 40%
울릉	3 건 100%	-	2 건 66.7%	1 건 33.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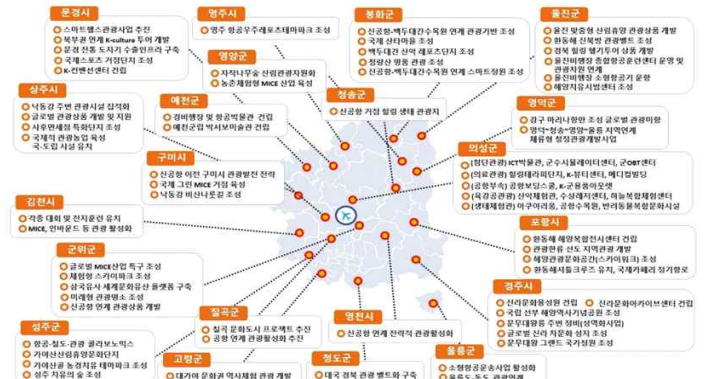
○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중 산업분야의 사업은 총 37건으로 산업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수출 활성화, 항공 연계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17]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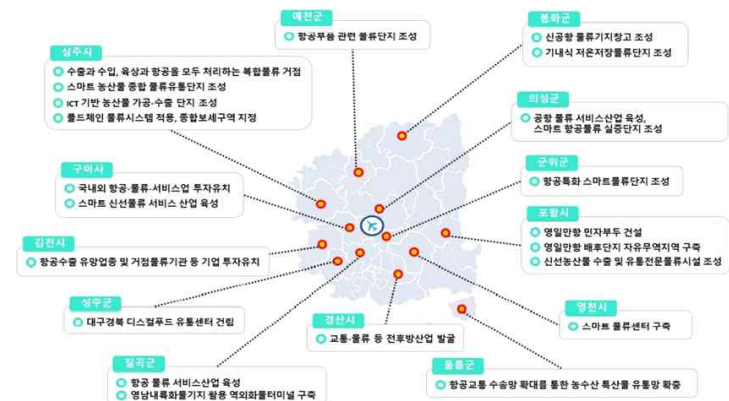
○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중 관광분야에는 총 64건의 사업이 수립되었으며, 관광단지·클러스터 조성, 관광지 인프라 개선,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소형항공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관광지 조성,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개선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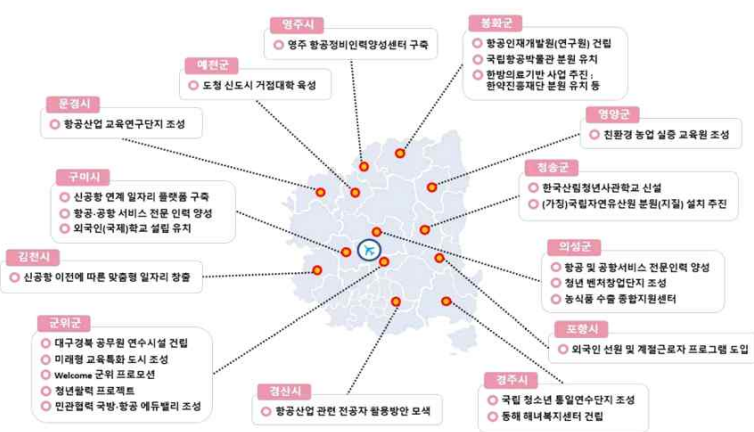
[그림 18]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관광 분야)

○ 물류 분야는 총 21건의 사업이 확인되며, 항공물류 및 항공 물류와 연계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물류 분야)

○ 일자리 분야는 총 25건의 사업이며, 교육연구단지·거점대학 육성, 일자리 플랫폼 구축, 항공 산업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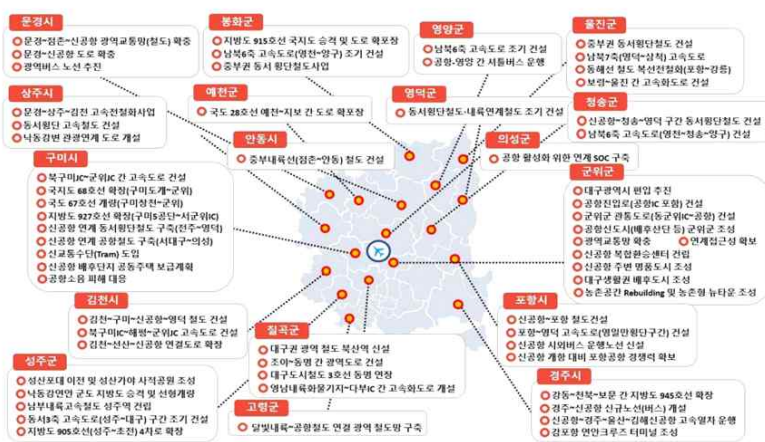
[그림 1]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물류 분야)

○ 신성장 분야는 총 22건의 사업이며, 항공·교통 관련 분야 산업 육성, 스마트 기술 및 시스템을 활용한 산업, R&D 기술 접목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9]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신성장분야)

○ 인프라분야는 총 61건의 사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확충, 고속도로 건설 및 확포장, 신공항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타 교통망 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됨



[그림 1] 신공항 연계 핵심산업(인프라 분야)

9) 통합신공항 관련 예천군 현황

(1) 통합신공항 연계 경북 미래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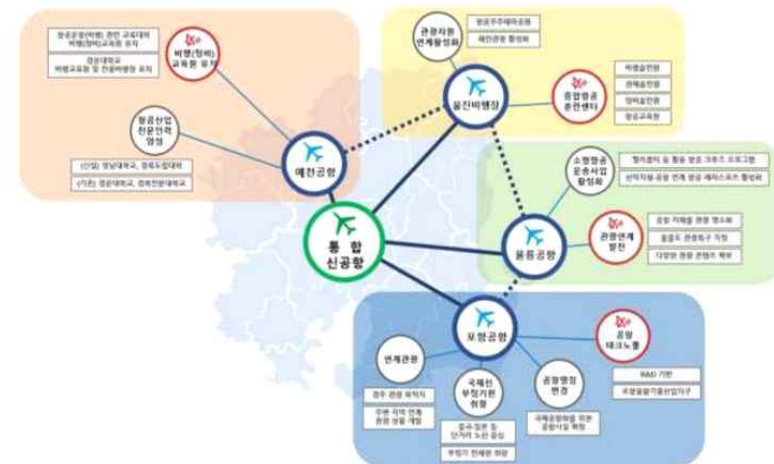
■ 권역별 개발 및 발전방안(안)

- 예천군은 전국 권역 중 동남권에 해당 (대구공항:거점공항)
 - 대경권 내 제주 및 단거리 국제노선 항공수요 등을 원활히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미래성장축 및 지역연계 발전거점의 권역에서 예천군은 북부권에 포함
- 통합신공항 연계 지역 발전전략(안) 중 북부권의 핵심은 '통합신공항 Global 관문 기반'으로 IT·BT 첨단기업 및 비즈니스 중심으로 설정함
 - 수출유망 바이오의약품산업 클러스터
 - ICT 융복합 공항경제권 관광벨트
 - 스마트 항공물류 로봇 실증단지
 - 항공관련 R&D 기관 분원 유치



- 미래지향적 공항경제권 및 공항회랑 조성에 있어서 예천군은 '공항간접영향권'에 포함됨
 - 공항간접영향권(~50km): 대구, 상주, 문경, 김천, 성주, 칠곡, 경산, 영천, 청송, 안동, 예천
- 항공수출 유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항주변 및 배후지역에 '항공수출유망산업단지' 조성

- 예천군이 해당하는 북부권은 7대 유망수출산업 및 품목 중 '제약(의약품 및 약제제품)' 중심으로 설정됨
- 통합신공항 이전과 더불어 예천공항의 방향성은 '항공 관련 학과 운영 대학들의 비행(정비)교육원 유치'를 통한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설정됨
 - 항공운항(비행) 관련 교육 대학의 비행(정비)교육원 유치
 - (Target)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 및 전용비행장 유치
 -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
 - (신설계획) 영남대학교, 경북도립대학*
 - * 경북도립대학에 항공비행교육 및 정비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여 양질의 항공교육 제공을 목표
 - (기존) 경운대학교: 항공기계, 전자, 무인기공학과, 항공운항학과
 - 경북전문대학교: 항공전자전기과
 -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항공기 제조 및 MRO 기업체가 입지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기업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중장기) 울진비행장과 연계한 항공정비 및 비행교육체계 마련



[그림 20] 지방공항 및 비행장 활성화 방안

(2) 예천군 인근 지자체의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현황

○ 예천군 인근 지자체의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인근 지자체의 전체 핵심사업은 총 50건이며, 산업(22%), 관광(30%), 물류(10%), 일자리(10%), 신성장(12%), 인프라(1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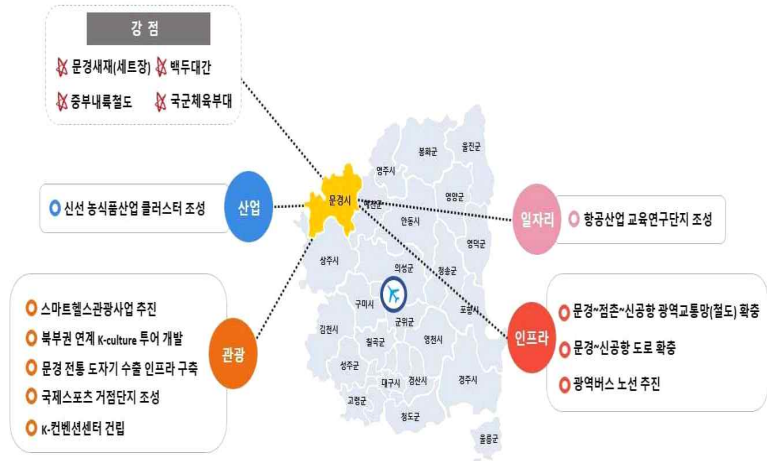


[그림 21] 예천군 인근 지자체 핵심사업 현황

○ (문경) 총 사업 10건 : 산업(1), 관광(5), 일자리(1), 인프라(3)

- 통합신공항의 간접경제권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문경새재(세트장), 백두대간, 중부내륙철도, 국군체육부대 등이 있음

- (산업) 신선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관광) 스마트헬스 관광사업 / 북부권 연계 K-Culture 투어 개발 / 문경 전통 도자기 수출 인프라 구축 / 국제스포츠 거점단지 조성 / K-컨벤션센터 건립
- (일자리) 항공산업 교육연수단지 조성
- (인프라) 문경~점촌~신공항 광역교통망(철도) 확충 / 문경~신공항 도로 확충 / 광역버스 노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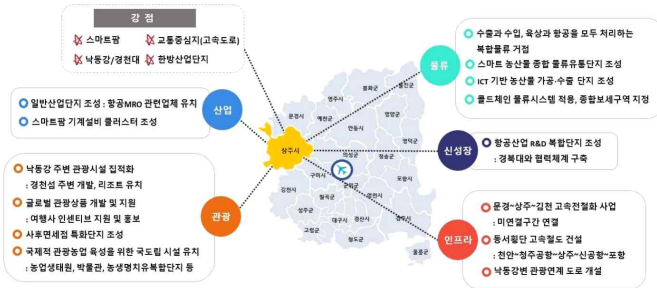


[그림 22]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문경)

○ (상주) 총 사업 14건 : 산업(2), 관광(4), 물류(4), 신성장(1), 인프라(3)

- 통합신공항의 간접경제권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스마트팜, 교통중심(고속도로), 낙동강/경천대, 한방산업단지 등이 있음

- (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항공MRO 관련 업체 유치 / 스마트팜 기계설비 클러스터 조성
- (관광) 낙동강 주변 관광시설 집적화(경천대 주변개발 및 리조트 유치) /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 사후면세점 특화단지 조성 / 국제적 관광농업 육성을 위한 국도입 시설 유치(농생태원, 박물관, 농생명치유복합단지 등)
- (물류) 수출과 수입, 육상과 항공을 모두 처리하는 복합물류거점 / 스마트 농산물 종합 물류유통단지 조성 / ICT 기반 농산물 가공·수출단지 조성 /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적용, 종합보세구역 지정
- (신성장) 항공산업 R&D 복합단지 조성(경북대와 협력체계 구축)
- (인프라)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미연결구간 연결) /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천안~청주 공항~상주~신공항~포항) / 낙동강변 관광연계도로 개설



[그림 23]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상주)

○ (영주) 총 사업 2건 : 관광(1), 일자리(1)

- 통합신공항의 공항확대경제권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베이링국가산단, 국립산림치유원, 대기업(SK, 일진), 소수서원, 부석사 등이 있음

- (관광) 영주 항공우주레포츠테마파크 조성
 - 모델1: 영주비상활주로 활용
 - 모델2: 동양대학교 학군단
 - 모델3: 경북항공고 경북항공기술교육원
- (일자리) 영주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 항공정비인력양성 공간 및 시설 구축
 - 항공정비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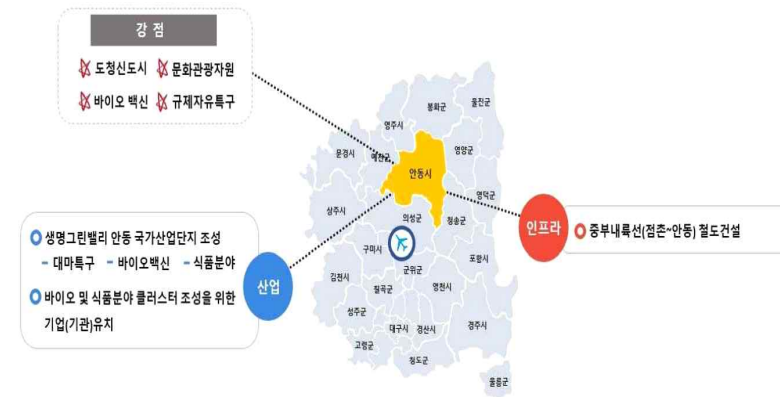


[그림 24]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영주)

○ (안동) 총 사업 3건 : 산업(2), 인프라(1)

- 통합신공항의 공항간접경제권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도청신도시, 문화관광자원, 바이오 백신, 규제자유특구 등이 있음

- (산업) 생명그린밸리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대마특구, 바이오백신, 식품분야) / 바이오 및 식품 분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기관) 유치
- (인프라) 중부내륙선(점촌~안동) 철도 건설



[그림 25]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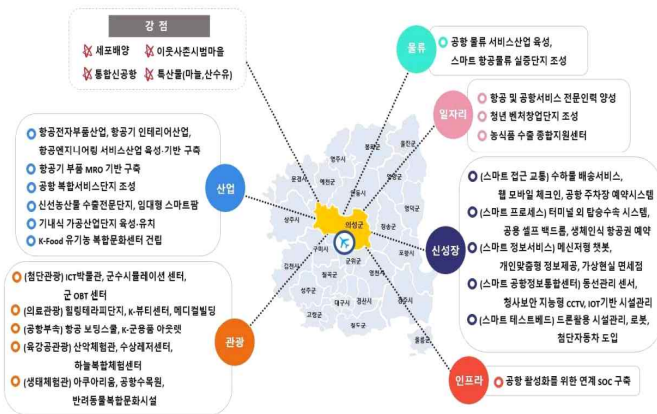
○ (의성) 총 사업 21건 : 산업(6), 관광(5), 물류(1), 일자리(3), 신성장(5), 인프라(1)

- 통합신공항의 공항 및 인접경제권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세포배양, 이웃사촌 시범마을, 통합신공항, 특산물(마늘, 산수유) 등이 있음

- (산업) 항공전자부품산업,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 항공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육성·기반구축 / 항공기 부품 MRO 기반 구축 / 공항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 내식 가공산업단지 육성·유치 /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건립
- (관광) 첨단관광: ICT 박물관, 군수시물레이션 센터, 군 OBT센터 / 의료관광: 힐링테라피단지, K-뷰티센터, 메디컬빌딩 / 공항부속: 항공보딩스쿨, K-군용품 아울렛 / 육강관광: 산악체험관,

수상레저센터, 하늘복합체험센터 / 생태체험관: 아쿠아리움, 공항수목원, 반려동물복합문화시설

- (물류) 공항 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항공물류 실증단지 조성
- (일자리) 항공 및 공항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청년 벤처창업단지 조성 /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 (신성장) 스마트 접근 교통: 수하물 배송서비스, 웹 모바일 체크인, 공항 주차장 예약시스템
스마트 프로세스: 터미널 외 탑승수속 시스템, 공용 셀프 백드롭, 생체인식 항공권 예약
스마트 정보 서비스: 메신저형 챗봇,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가상현실 면세점
스마트 공항정보통합센터: 동선관리 센서, 청사보안 지능형 CCTV, IoT 기반 시설관리
스마트 테스트베드: 드론활용 시설관리, 로봇, 첨단자동차 도입
- (인프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 SOC 구축



[그림 26]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의성)

(3) 예천군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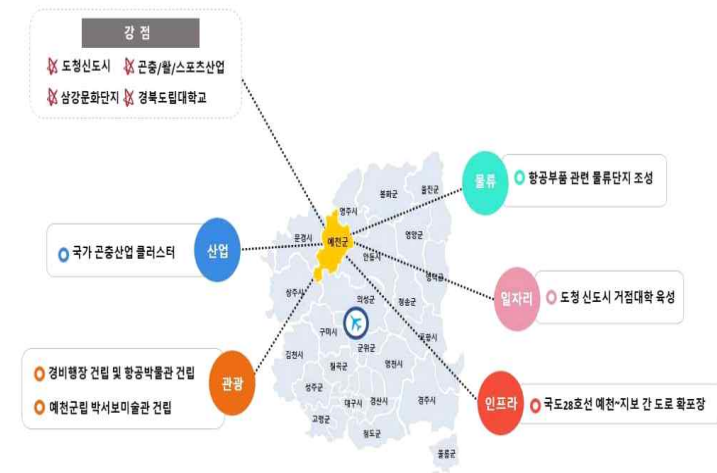
- 예천군 미래전략 키워드: 스포츠타운 + 관광 + 곤충산업
- 미래전략 핵심사업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운동과 레저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 / 국가 곤충산업 클러스터

- 우량종자 육종연구원, 곤충 신소재 기술 개발, 곤충산업진흥원 / 삼강문화단지 관광명소화 추진
- 모노레일, 집와이어, 전광대, 등산로 개설 / 귀농귀촌 은퇴자 마을 조성 / 농식품 가공단지, 타운하우스, 판매 체험장, 테마파크, 실버타운 등

○ 총 사업 6건 : 산업(1), 관광(2), 물류(1), 일자리(1), 인프라(1)

- 통합신공항의 공항간접경제권(~50km)에 포함
- 지역 강점으로는 도청신도시, 곤충/활/스포츠산업, 삼강문화단지, 경북도립대학교 등이 있음

- (산업) 국가곤충산업 클러스터
- (관광) 경비행장 건립 및 항공박물관 건립 /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 (물류) 항공부품 관련 물류단지 조성
- (일자리) 도청 신도시 거점대학 육성
- (인프라) 국도 28호선 예천~지보 간 도로 확포장



[그림 27] 예천군 인근 지자체 신공항 연계 핵심사업(예천)

4.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시사점

1) 예천군의 역할

(1) 한반도 중부권과 남부권의 연결자

- 중부내륙고속도로 철도 완공으로 접근도 향상
- '21.12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문경까지 급행 1시간 19분, 완행 1시간 37분 소요 예상
- 세종시 방면 국도 28호선 연장
- 점촌~신도청~안동 간 54.4km 구간의 단선철도건설사업 연결 시 ⇒ 수도권 접근도 우수, 수도권 및 충청권, 대구경북지역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 기대

(2)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자

- 교통, 산업 등 다소 소외 지역이었지만 청정자연자원과 웰빙, 풍부한 문화, 4차 산업 및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부상 가능
- 안동, 문경 등과 연계하여 남부 및 중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
- 남부 및 중부경제권과 연계·발전한다면 국가 산업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키 역할



[그림 28]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예천군의 기대 역할

제2절. 인구·보건·복지

1. 인구·보건·복지 메가트렌드

1) 미래의 세계 및 한국 인구

- 2019년 세계 인구는 77억 1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67년에는 103억 8천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 한국 인구는 2019년 5천 2백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하여 그 수준을 유지, 이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천 9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5] 세계와 한국의 인구규모

	1970년		2000년		2019년		2040년		2067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세 계	3,700	100.0	6,143	100.0	7,713	100.0	9,199	100.0	10,377	100.0
아프리카	363	9.8	811	13.2	1,308	17.0	2,077	22.6	3,189	30.7
아 시 아	2,142	57.9	3,741	60.9	4,601	59.7	5,189	56.4	5,238	50.5
유 럽	657	17.8	726	11.8	747	9.7	728	7.9	673	6.5
라틴아메리카	287	7.7	522	8.5	648	8.4	742	8.1	763	7.3
북아메리카	231	6.2	312	5.1	367	4.8	410	4.5	450	4.3
오세아니아	20	0.5	31	0.5	42	0.5	53	0.6	64	0.6
남 북 한	47	1.3	70	1.1	77	1.0	78	0.8	65	0.6
한 국 주	32	0.9	47	0.8	52	0.7	51	0.6	39	0.4
북 한	14	0.4	23	0.4	26	0.3	27	0.3	26	0.2

(단위: 백만 명, %)

자료 :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5~2020년 기간 중에 세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09%이며, 2060~2065년 기간 중에 세계 인구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33%로 전망됨
- 2015~2020년 기간 중에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30% 세계(1.09%) 및 아시아(0.92%)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2060~2065년 기간 중에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22%로 인구감소가 심화될 전망

[표 16]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연평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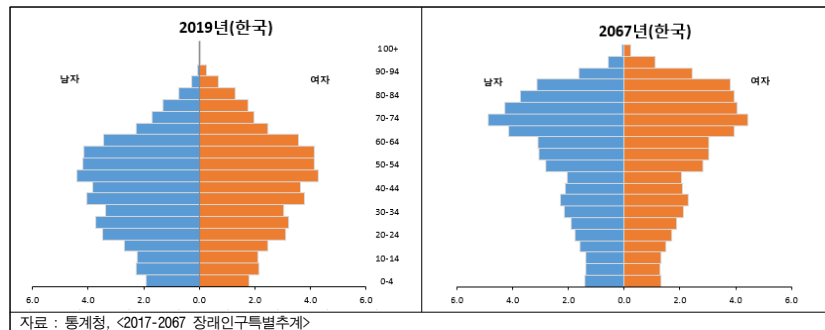
(단위: %)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65
세 계	0.98	0.87	0.78	0.69	0.61	0.53	0.45	0.39	0.33
아프리카	2.37	2.25	2.13	2.01	1.88	1.74	1.61	1.48	1.36
아 시 아	0.77	0.62	0.49	0.36	0.25	0.14	0.04	-0.05	-0.12
유 럽	-0.05	-0.12	-0.17	-0.20	-0.23	-0.26	-0.29	-0.33	-0.34
라틴아메리카	0.84	0.70	0.56	0.43	0.32	0.22	0.11	0.02	-0.07
북아메리카	0.59	0.56	0.53	0.45	0.38	0.34	0.32	0.33	0.34
오세아니아	1.21	1.11	1.02	0.93	0.86	0.80	0.74	0.69	0.63
남 북 한	0.16	0.10	-0.03	-0.19	-0.36	-0.54	-0.71	-0.82	-0.86
한 국	0.05	0.01	-0.11	-0.30	-0.51	-0.75	-1.00	-1.16	-1.22
북 한	0.38	0.28	0.14	0.01	-0.08	-0.14	-0.19	-0.23	-0.27

자료 : 자료 :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
 주)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지수증가를 공식 $\ln(Pt/P0)/t \times 100$ 에 의해 작성

○ 2019년 한국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2.4%, 생산연령인구는 72.7%, 고령인구는 14.9%임.

- 한국은 2019~2067년 기간 중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4.3%p, 27.3%p씩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31.6%p 증가할 전망



자료 :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

[그림 29]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또한,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으로 2019~2067년 기간 중 82.6명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2019년 14.0명에서 2067년 30.2명으로 해당 기간 중 16.2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7]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단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1970년			2019년			2067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세 계	75.0	65.7	9.3	53.2	39.2	14.0	62.0	31.8	30.2
아프리카	90.1	84.1	6.0	78.7	72.5	6.2	55.5	43.2	12.2
아 시 아	79.6	72.9	6.7	47.7	35.0	12.7	62.9	26.5	36.4
유 럽	55.6	39.4	16.3	53.5	24.6	28.8	76.4	25.5	51.0
라틴아메리카	86.2	78.9	7.3	49.1	36.1	13.0	67.2	25.5	41.7
북아메리카	61.7	45.7	15.9	53.0	28.0	25.0	70.5	27.3	43.2
오세아니아	65.9	54.1	11.7	56.8	37.1	19.7	63.4	31.1	32.4
남 북 한	82.9	77.3	5.7	38.8	20.7	18.0	94.6	21.7	73.0
한 국	83.8	78.2	5.7	37.6	17.1	20.4	120.2	17.8	102.4
북 한	81.0	75.3	5.7	41.3	28.3	13.1	65.1	26.1	39.0

자료 :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

2) 삶의 질 추세 변화

(1) 생활권 측면

○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

-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행정구역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17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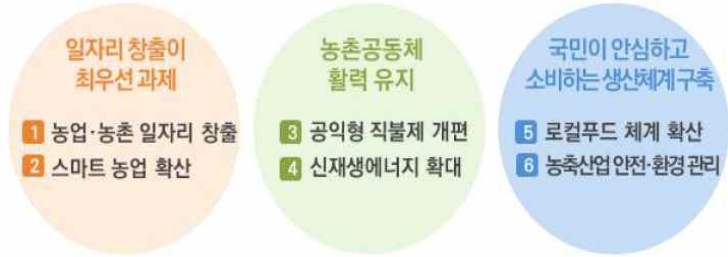
○ 교통 발달 등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행정구역의 통합은 물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추진

- 이명박 정부 때에는 시도 간 협력을 바탕으로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
-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군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
-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을 구현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본격화

- (농업) 경제적 가치 중심 → 공익적 가치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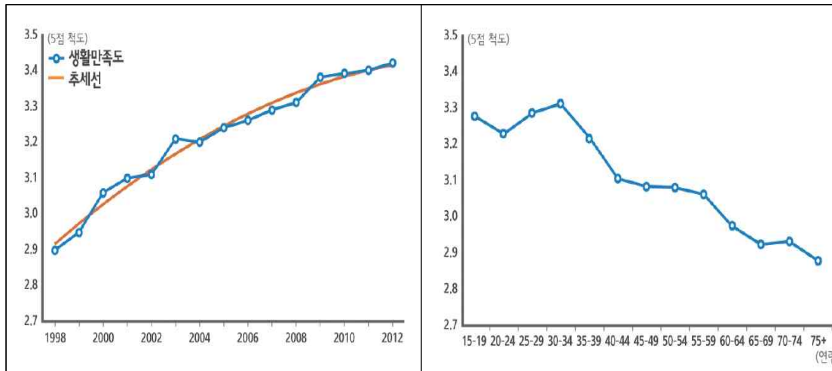
- (농업인) 농산물 공급자 →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
- (정책) 농업인프라, 쌀 중심 → 청년, 혁신농 등 사람중심 농업 육성



[그림 30] 농촌관련 현 국가정책 방향

(2)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 미래 사회는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성장” 가치에서 다음과 같은 삶의 질 중심의 가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 삶의 질은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
- 특히 노인빈곤, 불평등, 양극화, 사회안전망 부재 등이 삶의 질 저해 요인으로 지적
- 98년부터 연도별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나 연령대별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추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 이젠 삶의 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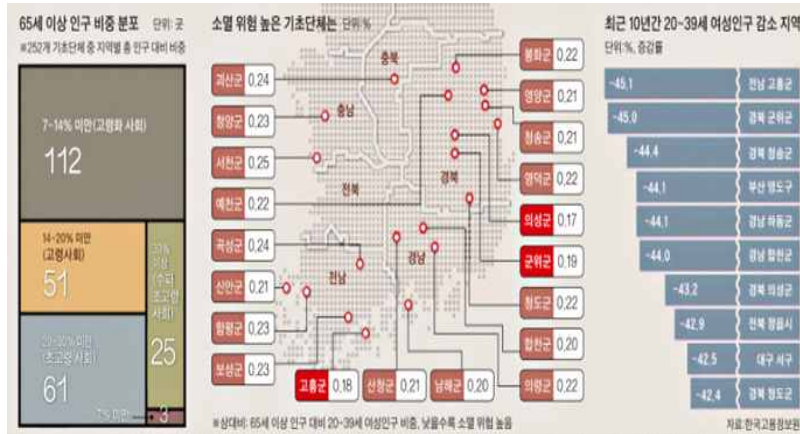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98~12년), 연령별(15~75세) 생활만족도 추이

[표 18] 한국 사회변화 이슈 및 추세

이슈	주요 변화 추세
인구구조의 변화	-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부양부담 가중 -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가구 수의 증가
기후 변화 & 자원 문제	-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변화 - 에너지 수요증가 및 자원부족 심화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 증가
도시화	-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메가시티 등장 -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개선 요구 증가 - 건강 및 여가,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요구 증가
글로벌화	- 자유무역의 확대로 국가 각 시장 개방 - 노동 국제이동 증가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변화 필요 - 국제이슈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학기술 & 융복합화	-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전반적인 삶에 영향 - 가상현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첨단기술 - 인공지능 활용으로 일자리 변화

자료 : 과기정통부(2019), 이젠 삶의 질이다

- 미래준비위원회의 미래와 관련된 요인, 영역, 인프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 행복한 미래의 필요 요인에서 소득/자산 과 건강 의 충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행복의 필요 영역으로 개인생활, 가정, 일터, 사회가 균형하게 필요
 - 행복한 미래 인프라는 복지, 안전, 교육, 환경, 의료 선정
- 미래 변화추세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대응하는 3대 전략과 9개 실천 과제를 제시
- 한국은 20002년 고령화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30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젊은 연령층의 도시이주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예천군의 경우에도 30%대의 초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음
 -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 2050년에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국가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령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복지수요 증대, 개발수요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



[그림 32] 고령화 지역별 비교

- 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추세가 본격화되어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
- 외환위기 이전(1991년~1997년)에 평균 7.5%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1998년~2008년)에는 4.4%, 2008년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1년)에는 3.4%로 크게 떨어졌으며 향후 3%대 이하로 더욱 하락할 전망

1. 미래 사회 이슈: 4차산업혁명(삶의 변화)

-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새로운 삶의 모습 도래 예정
- 불확실성의 증대 가속화에 따라 안정(주거, 휴식(관광), 신뢰(농업)을 추구하는 성향의 고도화



[그림 33] 미래 삶의 변화

3) 웰빙 가치 및 힐링 여가수요 증가

- 웰빙(well-being)이란 행복, 삶의 만족, 질병 없는 상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
- 웰빙 트렌드는 물질문명에 대응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하여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착할 단계에 이르고 있음
- 서구에서 복지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 바람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심화, 질병의 만연, 고령화 사회 도래, 양극화 및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안정과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 및 패턴이 보편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주거의 안정, 휴식의 여가, 신뢰 있는 농업 생산품을 추구하는 성향이 고도화

- 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가치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여가, 위락, 스포츠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종래의 소극적 여가활동(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등)에서 점차 적극적 여가활동(등산, 스포츠, 하키, 육외레저 활동, 해양레저 활동 등)으로 전환 필요
- 웰빙과 문화·관광·스포츠 등 타 분야의 융복합화로 장수촌, 체험관광, 생태도시, 대안의료 등 새로운 산업분야가 탄생
- 웰빙 및 여가·위락수요의 증가로 인해 농촌의 자연, 환경, 경관에 대한 가치도 그만큼 커지고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

2. 정책 환경의 변화

1) 최근 지역발전정책 동향

(1) 장소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지역발전

-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민행복 시대에는 지역발전의 대상을 장소(지역)보다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주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에서 지역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장소의 번영' (place's prosperity)보다는 '사람의 번영' (people's prosperity)을 지향해야 함

- 사람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이야말로 대도시 인구집중과 수도권 및 지방간 공간적 분극화 (polarization)를 극복하고 지방의 정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주민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중시

- 국가 또는 지역의 총체적 풍요가 국민이나 주민 개개인의 풍요와 반드시 직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외형적 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님
- 50년 만에 국민소득은 285배, 수출규모는 16,600배 증가했으나 대조적으로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7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국민행복지수는 148개 국가 중에서 97위(12년, 갤럽조사)에 이릅니다



[그림 34] 주요국 삶의 질 지수 비교

-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 측면까지 확장된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도 차원에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경향 대두
- 소득증가에 따라 행복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제기
- 고령화·저성장시대에서는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여 최종 수혜자의 복리증진에 직결함으로써 인간주의적 발전을 지향해야 함

(3) 지역 간 협력 및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공급

- 단일 행정구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점차 복수의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초한 공동생산방식으로 확대되는 경향임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투자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해소하고 서비스 결핍을 보완
- 생활권 내에서 지자체 간 교차이용, 공동생산, 기능별 특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개선
- 지역행복생활권은 선진국의 새로운 경향인 소(하위)지역(sub-region) 단위의 생활권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생활권을 의미

2) 미시적 소프트 발전

(1) 지역발전 체감도 제고

-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는 인프라 위주의 물리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 지역발전을 지향해야 함
- 지역에 소재한 자원, 인력,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역내에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해야 함
- 산업, 교통 등 거시적 개발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미시적 소프트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물리적 시설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 부담과 시설이용의 유희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

- 최근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의 역할과 가치가 부각됨
-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은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역문제를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는 제3의 대안으로 평가됨
-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 강조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발적인 역량을 통하여 구성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생활 자치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심화로 대두된 지역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역발전정책 예상			
	16대 노무현 정부	17대 이명박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
지역 문제 인식	• 수도권 일극집중이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 요소산업 성장정책으로 인한 고착 • 지역간의 소모적 경쟁과 갈등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 지역주도의 발전전략 부족 •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 •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	• 지방도시와 농촌의 동반 쇠퇴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속 •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 • 중앙수도 정책의 한계 노정
배경 목표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 통합 • 혁신수도화 / 다극분산형 발전 • 공간 질 / 삶의 질 중시 질적 발전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지역주민의 정책 혜택도 제고 • 행복함 삶의 기쁨 제공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특징	• 중앙정부 주도 • 상향식 정책 • 정책별/부처별 지원 • 기존 행정구역단위	• 중앙정부 주도 • 하향식 정책 • 부처별 산발적 개별지원 • 기초생활 / 광역경제 / 초광역개발	• 주민/지방정부 주도 • 상향식/주민제안 정책 • 맞춤형/메카지 지원(부처협업) • 생활권단위(지역협력개발)

[그림 35]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는 지역정책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해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을 추진

-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해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 혁신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균특법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 핵심정책

○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개념 복원 및 위원회와 회계의 명칭 변경(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도 혁신협의회) 구축 △지역주도로 계획한 투자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역이 계획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신(新)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임

○ 현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제2의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이후 1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경북, 경남, 충북, 강원, 전북, 전남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내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경북도가 농·생명 산업과 교통 중심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있었기에 가능

○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생활할 수 있는 정주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지역인재 의무할당제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산업 중심이 아닌 기존의 균형정책을 우선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음

3) 시사점

(1)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인구증가의 둔화

○ 출산을 저하,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예천군은 2008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 35%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저출산의 영향으로 예천의 유년인구(0~14세)의 비율은 2010년 16.4%, 2015년 7.8%, 2019년 6.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예천군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산촌 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따라서 고령화 농산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주 촉진대책의 추진 필요

(2) ‘고용 없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 대두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복지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 창출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 7.5%, 1990년대의 6.2%에서 현재, 3%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성장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3% 내외의 성장률은 고용창출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며, 향후 고용창출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잠재성장률 및 사회안전망 실현이 주요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3)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지역경쟁전략의 변화 필요

- 무역·투자자유화, 초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지식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선진국 중심, 제조업 중심의 지구촌경제가 향후에는 교육,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산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산될 것임
- 중국의 성장 및 한·중,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대응 모색

4) 향유 문화 변화에 대응

- 기후 변화, 자연재해, 황사 및 미세먼지 심화 등 환경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음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정주환경 등 새로운 도시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됨
- 농산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개발 시책 및 제도 정비 필요함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적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개인의삶의질 제고 • 가족지원특화사업과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현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 •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모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삶의 기반 강화 •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 고령친화 사회로의 도약 • 예방적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 지역상생 기반 구축 •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상화 참여	•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 예상 • 행정 지방소멸 대응 필요 • 지역산업 관영자원을 활용한 지역 강소도시 육성 방안 필요 •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광역네트워크 도시 구축이 필요 • 기초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의료, 교육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 •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 필요 • 청년의 지역 유입 유도보다 기 유입 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착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될 필요	• 청 장년 세대의 단절 현상 대응 필요 • 고령 농업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요구 • 청년 정착을 위한 대대적 공적 지원 필요 (청년 이주를 위한 일자리 창출 중요) • 휴양 레저 가족을 위한 농촌 공간 개조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연 단위 지역의 광역적 기초생활 인프라 차별적 제공 • 소멸위협 지역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신도시 보건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 필요

[그림 36] 예천군 인구 메가트렌드

3. 경상북도 인구·보건·복지 현황

1) 분야별 예산 규모

- 2020년 경상북도 전체 총괄예산(일반+특별) 24조 478억 원 중 사회복지여성에 할당된 예산은 28.5%인 6조 8,651억 원으로 나타남

[표 19] 경상북도 분야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19				증감률(%)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24,047,855	100%	22,314,303	100%	25,663,987	100%	7.8	△6.3
일반공공행정	1,775,093	7.4	1,801,549	8.1	2,115,964	8.2	△1.5	△16.1
공공질서 및 안전	832,626	3.5	522,990	2.3	836,285	3.3	59.2	△0.4
교육	191,370	0.8	161,196	0.7	180,315	0.7	18.7	6.1
문화 및 관광	1,506,099	6.3	1,409,911	6.3	1,661,900	6.5	6.8	△9.4
환경보호	2,621,113	10.9	2,591,051	11.6	3,018,156	11.8	1.2	△13.2
사회복지	6,865,113	28.5	6,008,553	26.9	6,146,210	23.9	14.3	11.7
보건	416,645	1.7	383,266	1.7	383,932	1.5	8.7	8.5
농림해양수산	3,005,718	12.5	2,866,653	12.8	3,383,507	13.2	4.9	△11.2
산업중소기업	575,347	2.4	555,373	2.5	629,185	2.5	3.6	△8.6
수송 및 교통	1,108,262	4.6	1,107,550	5.0	1,449,513	5.6	0.1	△23.5
국토 및 지역개발	2,077,750	8.6	2,050,914	9.2	2,530,702	9.9	1.3	△17.9
과학기술	64,788	0.3	39,688	0.2	46,106	0.2	63.2	40.5
예비비	350,803	1.5	312,860	1.4	783,720	3.1	12.1	△55.2
기타	2,657,129	11.0	2,502,749	11.2	2,498,492	9.7	6.2	6.3

- 2020년 경상북도 분야별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총 6조 8,651억 원이며, 이중 예천군에 할당된 예산은 1.3%인 약 88,6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경상북도 분야별 예산 중 보건부문 예산은 총 4,166억 원이며, 이중 예천군에 할당된 예산은 2.1%인 약 8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2) 경상북도 사회복지 정책

- 경상북도 종합계획) 중 사회복지부문 정책은 ‘가가호호 행복 보장하는 선진사회’ 아래 선별성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 보호와 효율, 분배와 성장을 조화하여 미래 투자형 복지 지향
 -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운 서비스 지원망 구축으로 보편적 서비스 수급권 확보
- 이를 위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선제적·예방적 복지 강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 구현 등으로 구체화

(1) (추진방향1)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 서비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시설 확충과 서비스 설계
 - 보건복지시설 및 서비스 균형 배치 → 접근성 취약지역 집중 관리
 - 유비쿼터스 통합복지서비스 설계
- 복지영역에 투입 가능한 새로운 자원 발굴과 기존 자원의 유기적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 충분성 확보
 - 중앙정부 지원 유도, 민간자원 활성화로 신규 재원을 발굴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 우수 자원 유차연계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
 - 타 영역 지역 보유 자원의 복지자원화(스포츠, 문화, 관광 시설의 유니버설화 등)로 삶의 질 제고
- 사회서비스업의 심화 단계에 부합하는 복지관련 사업의 영역 확장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서비스 디자인 설계 개념을 적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브랜드화 등
 - 보건복지관련 산학연 클러스터와 네트워크의 거점인 대규모 보건복지사업 추진
 - 복지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에 민간경영기법 도입하여 재정건전화 유도

(2) (추진방향2) 예방·투자사업 강화로 자립지원

- 직접적인 편익 제공보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일어서는 자립지원 강화사업 확대
- 복지와 교육, 훈련, 취업을 연계하여 고용 확대

- 적극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복지 의존성 완화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과 소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복지-고용 연계 프로그램 설계
-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일하는 복지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스스로 극복토록 유도
-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사회구성원 확보
 - 출산자녀관련 인식 개선, 고용 불안 제거, 출산양육 부담 해소,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중장기적인 출산장려책 마련

(3) (추진방향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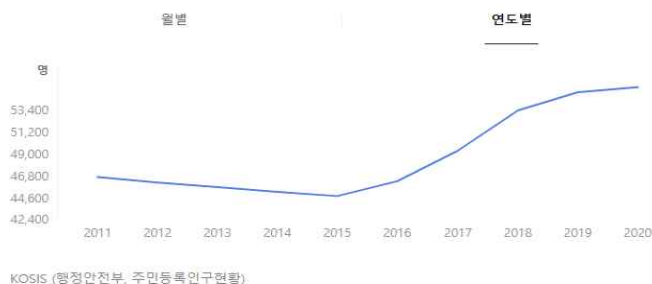
- 공급자 편의에 따르던 획일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도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향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특히 농어촌과 소외지역)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 서비스 대상, 영역, 지역, 주체 간 융합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
 - 대상 : 개인, 가족 단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영역 : 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영역 간 융합
 - 지역 : 권역·인근지역 간 연계·협력
 - 주체 : 민·관·학·연 연계협력

4. 예천군 인구·보건·복지 현황

1) 인구추이

- 예천군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부터는 5만여 명에 이르고, 세대당 인구도 2.11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6월 현재 55,784명이며 작년대비 소규모 증가 추세에 있음

- 대부분 호명면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천읍 및 용궁면 등의 경우는 인구정체상태로 나타남



출처 : 국가통계포털(KISIS),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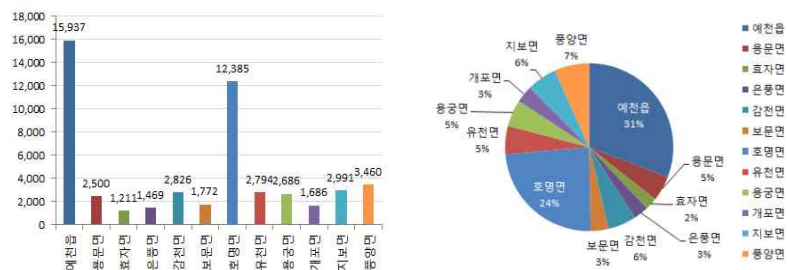
[그림 37] 예천군 인구변화 추이

[표 20] 예천군 연도별 인구 현황

구 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비율
2015년	44,674	21,396	2.09	21,895	22,779	0.96
2016년	46,166	22,123	2.09	22,503	23,503	0.96
2018년	51,717	24,504	2.10	24,246	25,007	0.97
2020년	55,613	25,105	2.18	26,287	28,814	0.98

출처 : 국가통계포털(KISIS),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 예천군 읍면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51,717명이며, 예천읍 15,937명, 호명면 12,385명, 풍양면 3,460명, 지보면 2,99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8] 예천군 읍면별 인구 현황

2) 지역 인구 분석

- 이러한 인구 증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들어선 김천시가 가장 높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중인 예천군, 대חק이 밀접한 경산시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시군별로 차별화된 균형발전정책 등으로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천읍과 도청신도시가 조성중인 호명면 위주로 인구 집중도가 높아 상업 및 생활 기반 시설, 의료서비스 등의 주민 편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지역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천읍과 호명면으로 편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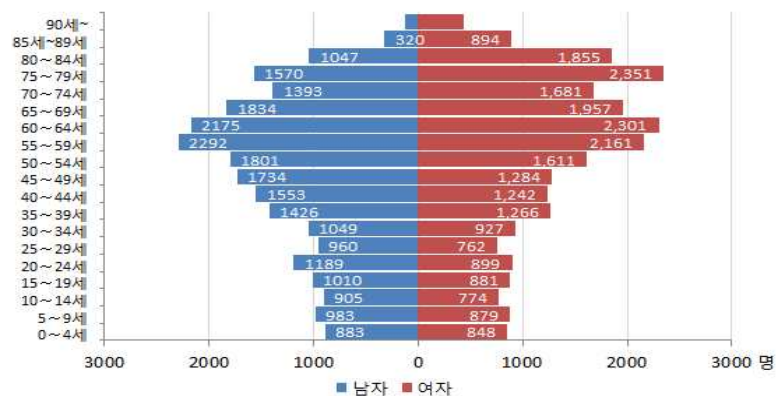
3) 전반적 인구 특성

(1)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 예천군의 인구는 1975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08년 기준 47,993명에서 2017년 49,253명으로 2.63%(1,260명) 증가
- 2015년 경북도청 이전을 기준으로하면 9.08%(4,101명)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 인구 유입이 예상됨
-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신도시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변화가 예측되며 공공보건의료관 신설 및 보건의력 확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2)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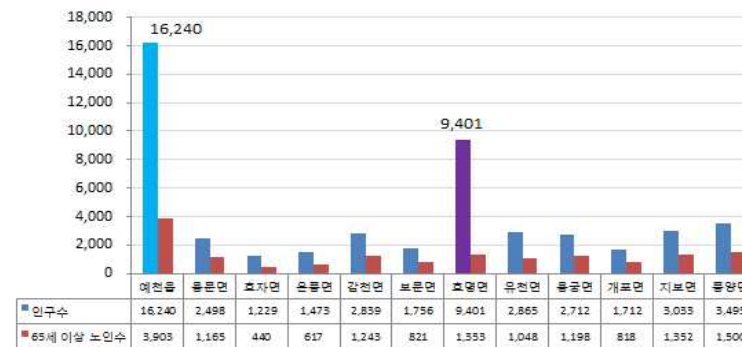
- 2020년 예천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에서 0~14세 인구분포는 5,272명, 15~64세 인구 28,793명, 65세 이상 인구가 18,458명으로 나타남
- 예천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18,458명으로 전체 인구의 31.38%로 UN이 정한 20%를 훨씬 넘는 초고령화 지역에 해당
 - 노인 인구 중 남성 40.67%, 여성 59.33%로 여성의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성별 연령 분포도

(3) 고령화의 가속화

- 예천군 노인인구는 2015년 13,967명에서 2020년 18,458명으로 증가하였음
- 연도별 노인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65~69세 노인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75~79세 노인인구는 조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38%이며 노인인구 수는 예천읍이 3,903명으로 가장 많고 효자면이 440명으로 가장 작지만, 해당지역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개포면이 47.78%로 가장 높고 도청 신도시가 조성중인 호명면은 14.39%로 가장 낮음
-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얼마나 부양할지를 가늠하는 노년부양비와 얼마나 젊은 사회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생각됨
- 예천군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전국 노년부양비는 16.7인데 반해 예천군은 54.38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노령화 지수의 경우에도 전국 83.3, 예천군 350.6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자 1인당 생산가능



[그림 40] 예천군 읍면별 인구 및 노인인구 현황

- 인구는 전국 6.0인데 반해 예천군 1.84로 나타남

[표 21]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구 분	예천군	전국
노년부양비	54.38	16.7
노령화지수	350.69	83.3
고령자1인당 생산가능인구	1.84	6.0

출처 : 국가통계포털(KISIS)

4) 시사점

(1) 저출산의 만성화

- 전국적으로 인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 만혼과 비혼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가임기여성인구의 이동 및 감소, 기대수명 증가와 가속화되는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예천군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431명으로 전국(1.172명), 경북(1.396명)보다 높음
 - 예천군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를 의미하며 원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임여성의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음

(2)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면지역 다수 분포

- 예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인구수는 예천읍이 6,649명으로 가장 많고 효자면이 771명으로 가장 적음

[표 22] 예천군 읍면별 취약계층 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다문화(외국인주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계	24,976	1,933	3.9	1,383	2.8	4,969	10.1	15,458	31.3	864	1.8	369	0.7
예천읍	6,572	677	4.2	466	2.9	1,277	7.9	3,903	24.0	135	0.8	114	0.7
용문면	1,816	117	4.7	108	4.3	344	13.8	1,165	46.6	54	2.2	28	1.1
효자면	767	69	5.6	49	4.0	133	10.8	440	35.8	54	4.4	22	1.8
은풍면	941	64	4.3	34	2.3	158	10.7	617	41.8	54	3.7	14	1.0
감천면	1,966	143	5.0	105	3.7	369	13.0	1,243	43.7	81	2.9	25	0.9
보문면	1,308	82	4.7	63	3.6	265	15.1	821	46.7	54	3.1	23	1.3
호명면	2,232	137	1.5	104	1.1	554	5.9	1,353	14.3	54	0.6	30	0.3
유천면	1,695	100	3.5	98	3.4	349	12.2	1,048	36.5	81	2.8	19	0.7
용궁면	1,891	138	5.1	66	2.4	382	14.1	1,198	44.1	81	3.0	26	1.0
개포면	1,249	74	4.3	61	3.6	222	13.0	818	47.7	54	3.2	20	1.2
지보면	2,102	142	4.7	97	3.0	409	13.5	1,352	44.5	81	2.7	21	0.7
풍양면	2,437	190	5.4	132	4.0	507	14.5	1,500	42.9	81	2.3	27	0.8

출처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 예천군 전체 인구에서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천읍이 13%로 가장 높고 효자면이 2.0%로 가장 낮으나, 읍·면별 자체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보문면이 74.0%로 가장 높고 호명면이 24.0%로 가장 낮음
-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곳은 용문면, 보문면, 용궁면, 풍양면으로 12개 읍·면 중 4개면이 차지
- 의료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외국인주부) 순

5. 정부정책 검토

1)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
 - (추진 방향)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견인
 - (포용의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을 적극 보호·지원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
 - ① 행동계획 추진
 - ② (공공성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등 국가가 할 일은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
 - ③ (출산·양육을 존중) 국민이 행복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 ④ (편안한 노후) 노후소득 보장,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돌봄체계 개선등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인간답게 삶을 마감
 - ⑤ (혁신 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기반을 조성
 - ⑥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 (추진방법)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정점으로 사회적 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수립

2)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치매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적용대상을 경증치매 어르신에게로 대폭 확대
 -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 참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년~2020년)

- HP2020의 핵심가치인 건강수명을 연장(2020년 76.6세)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을 만들

- 고령화, 노인인구증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증가하는 의료비 대책 필요
- 저출생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
- 현대생활 특성상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대사성질환 등에 대한 대책
- 경제성장 전망 하에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②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보장] "국민 최저선" 보장	①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②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 ③ (교육급여) 교육 기회 보장 ④ (생계급여) 최저생활보장 강화
[탈빈곤] 빈곤 탈출의 사다리 복원	① 자활일자리 확대 ② '청년' 등 근로빈곤층 인센티브 확대
[예방]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① 자살위계층 대상 다층적 보호 강화 ② 복지대상 체계적 발굴 및 지원 확대
[이행 기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사후관리 강화 ② 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그림 41]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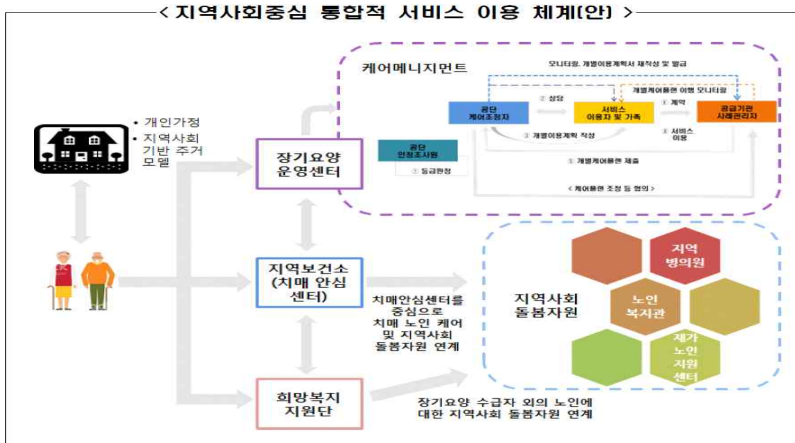
- 건강관리사업의 과제는 건강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예방 중심의 상 병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등임
-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분야 :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
- 예방 중심의 상병 관리 분야 :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 환경보건 관리 :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물리적 환경관리 분야로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손상에 방, 그리고 건강영향평가 등이 중점과제임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라 모성, 영유아, 노인인구 집단이 중점과제로 포함되었으며, 비교적 공통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접근이 용이한 근로자, 학생 등의 대상 집단 포함
- 사업체계의 확충 및 효과적 관리 : 사업운영체계, 정보통계, 평가, 재정 등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관련 계획

- 문제인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액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
-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절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정신 실현
-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상태에 돌입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인구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 할 시점
- 문제인 정부는 저출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판단
- 국공립유치원 등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등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
- 한국 사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재생산을 위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초 위에서 진로맞춤형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 등 공교육을 혁신
- 평생·직업교육 강화하는 국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대 지원 확대, 고졸자 취업 확대 등과 함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도 추진
-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
- 해양과 연안 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 하며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 개선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4) 경상북도 정책 방향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에 기반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급판정도구 개선
 -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그림 42]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이용체계(안)

-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층의 삶을 책임” 지는 “예방적·적극적 빈곤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
-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획기적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강화
 - (목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추진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4대 방향으로 개선: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② 국민최저선 보장 수준 강화 / ③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 ④ 빈곤 예방

6. 시사점

- 각 권역별로 주요 복지수급, 건강문제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에도 차이가 있어 사업을 개발할 때에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 공공형 보건 인프라 강화를 고려해야 함
- 예천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보건복지사업을 실시하지 말고, 계획단계에서 권역별로 주민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진행하는 접근이 필요함
-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사업분야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알리고 보건사업으로 선택한 정신건강(우울 / 스트레스), 신체활동 등의 현재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주민들은 복지관 및 보건소의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먼 단위 광역화 복지모델 공급이 필요한 상태
- 향후 찾아가는 복지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각종 보건복지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외부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복지과 및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있어 향후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상(인구 및 지역)이 제한되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지모델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함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비경제권 원격사회도래 • 포스트 코로나 신보안정책 • 기후변화 대응 의료정책 필요 • 원격의료 등 신메디케어 헬스정책 •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 돌봄 안전망 강화 •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강화 • 고령화 치매 대응 •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 • 정신건강, 심리지원 관련 복지	- 포스트 코로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 - 미래 지향 소멸 대비 도시 경쟁력 강화 -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중추역역역 - 자연, 생태, 역사문화 관광벨트 강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 구축 -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행정자치 구현	- 예천 신도시 공공형 보건 인프라 강화 - 고령화 대응: 정신건강 및 예천형 카루나리케어 - 예천 먼 단위 광역화 복지모델 공급 - 예천 재난안전망 구축 - 다양성 인정 복지모델 - 도농복합형 공공교육 지원망 안 수립

[그림 43] 예천군 보건복지 메가트렌드

제3절. 산업·경제

1. 산업·경제 현황 및 메가트렌드

1) 세계적 경제 추세

(1) GDP 측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코로나 이전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천 421억 8천만 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하락, 캐나다(8위)와 러시아(9위))
 -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
 - 실질 GDP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 GDP는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명목 지표를 주로 쓴다.
- 경제 패권 다툼 중인 미국(21조4천277억 달러)과 중국(14조3천429억 달러)은 약7조 달러 격차, 이어 일본(5조818억 달러), 독일(3조8천462억 달러), 영국(2조8천271억 달러), 프랑스(2조7천80억 달러), 이탈리아(2조12억 달러) 등이 3~7위권에 자리
- 한편 2019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순위는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
 -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천682달러로 전년(3만3천340달러)보다 줄었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1인당 GDP가 줄면서 한국 순위는 그대로
- 코로나 첫해인 2020년, 브라질의 유명 민간 연구기관인 제틀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브라질경제연구소(Ibre)에 따르면 경제 규모 1~8위는 미국(20조8000억 달러), 중국(15조 2000억 달러), 일본(4조9000억 달러), 독일(3조8000억 달러), 영국(2조6000억 달러), 인도(2조6000억 달러), 프랑스(2조6000억 달러), 이탈리아(1조8000억 달러) 등이고 캐나다와 한국은 1조7000억 달러에서 1조6000억 달러로 줄어들며 9위와 10위, 러시아는 1조7000억 달러에서 1조5000억 달러로 감소하며 11위를 기록
- 한편,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한 GDP 순위에서는 중국(24조 2000억 달러), 미국(20조 8000억 달러), 인도(8조 7000억 달러), 일본(5조 2000억 달러), 독일(4조 5000억 달러), 러시아(4조 달러), 인도네시아(3조 3000억 달러), 브라질(3조 1000억 달러), 영국(3조 달러), 프랑스(3조 달러) 등임

(2) 장래 총생산 전망

- 최근 PwC가 발표한 '2050 세계 경제 장기 전망 - 세계 경제 순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신흥 경제권으로의 경제력 이동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32개 국가의 잠재적 GDP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2016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 경제가 매년 2.5%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42년이 되면 지금의 두 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러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7개의 신흥 경제국 (E7: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이 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이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비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G7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
- PwC 경제학자 존 후스워드는 이번 보고서 결과에 대해 "신흥 경제국으로의 세계 경제력 이동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2050년이 되면 E7 국가가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G7 국가는 20% 미만으로 줄어들 것" 이라고 요약

(3) 주요국 경제정책 추세

■ 1970년대 세계경제 정책

- 1960년대 케인즈주의에 힘입어, 호황기를 누리던 미국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하여 침체를 맞이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이루어졌음
- 국제금융적으로는 기존에 달러-금본위제에 기반하였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1971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달러-금태환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음
 - 이는 기본적으로 달러가치에 대한 위기가 시작된 것이지만, 금본위제에서 금극적으로 달러본위제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국제무역적으로는 GATT체제에 기반하여 관세무역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관세철폐, 수출입자유화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음

■ 1980년대 세계경제 정책

- 1980년대에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을 대신하여 통화정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재편됨

- 국제금융의 경우 달러-금 태환본위제가 붕괴됨에 따라 달러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금융화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GATT체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음
- 1980년대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 및 달러위기 해소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던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이루어졌음
-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및 내구재 산업의 무역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의 무역경쟁력 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적극적인 무역협상이 이루어짐
- 미국의 경우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달러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을 제 공하였음

■ 1990년대 세계경제 정책

- 미국의 경우 2세대 동태확률일반모형인 Neokensian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이 등장하여, 다시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기존의 RBC(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여전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우선시 되었음
- 이에 따라 미국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을 통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시장의 대안경기(Great Moderation)이 이루어져 경제의 안정기에 돌입함
- 국제무역의 경우자유화가 적극 진전되었으며,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1994년 협상에 이르러 GATT의 문제점을 극복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
- 또한 국제금융의 경우 달러시장의 확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향후 1990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발발하는 기제가 되었음
- 1990년대 후반에는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IT기업의 버블 문제로 IT 버블 위기가 발생하였음

■ 2000년대 세계경제 정책

- 2000년대 세계경제는 다자간 협상이었던 GATT 체제를 대신하는 일대일 무역개방 체제인 FTA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제경제 상의 자유화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하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가 불거져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이루어졌음
- 미국의 경우 금리를 조정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도입되었으며,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복잡한 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미시적 건전성 뿐만아니라, 거시적 건정성을 정책적으로 관리, 통제하게 되었음

■ 2010년대 세계경제 정책

- 2010년대에는 2007년 금융위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적 침체(secular depression) 문제가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의 저성장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 또한 문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New normal이라고 하는 저성장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루어졌음
-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을 비롯하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린뉴딜을 비롯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되었음

2) 국내 경제 추세

(1) 국내 경제 전망

-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역성장($\Delta 1.9 \sim \Delta 1.1\%$)을 시현
- 2021년에는 백신 보급,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정부 재정정책과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위축
 -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서비스업 중심 고용 부진 등으로 실물부문 수요 확대가 제한적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각 산업 고용여건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표 23] 국내 주요 산업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19	2020(E)			2021(F)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0	-0.7	-1.4	-1.1	2.6	3.0	2.5
민간소비	1.7	-4.4	-4.1	-4.3	2.9	3.1	2.5
설비투자	-7.5	5.6	5.7	5.7	4.9	4.3	3.2
지식재산	3.0	3.3	4.2	3.8	.8	3.9	3.7
건설투자	-2.5	1.7	-2.9	-0.7	-1.8	0.5	2.1
상품수출	0.5	-2.9	-0.4	-1.6	9.3	5.3	2.3
상품수입	-0.8	-0.9	-0.3	-0.6	7.5	5.9	3.2

출처: 2021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0)

○ 각 산업별 전망 중 식음료 산업은 내식 장기화에 따라 HMR(간편조리식) 중심의 식음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외식이 감소하며 내식 수요 증대, 웰니스·건강 증진 등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한 식습관 토대의 내식 중심 생활 패턴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공식품) 내식 수요 확대에 특히 가정간편식(HMR) 관련 제품 소비의 다변화 관찰
- (음료/주류) 생수 배송 호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홈(HOME)술 트렌드로 맥주, 수제 맥주, 와인 등 저도주 수요 확대 예상
- (외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및 공공장소 기피현상으로 배달 외식 성장세 지속
- (건강식품) 일상 속 건강, 위생,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식 니즈 증대 예상

○ 유통 산업은 오프라인에서 백화점과 편의점 채널의 소비 회복세를 기대하며, 온라인 유통은 아마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전망

-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효과 제고방안 모색 및 온라인 경쟁 심화로 소비자 확보 전략 정립 및 고객 유지 전략 재정비 필요

○ 식음료 부문은 비대면 식생활의 뉴노멀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내식시장 및 건강 식음료 수요확대가 예상

- 소량 식재료·식품 즉시배송 '퀵 커머스' 역량 강화로 비대면 식품시장 선점 필요
- 식물성 식품소재 및 HMR R&D 강화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라인업 확장

○ 식품 및 음식 서비스업 온라인 쇼핑 증가 추이

-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물을 포함한 식품 거래액은 17조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에서 12.5%, 음식서비스업은 약10조원으로 7.2%를 차지
- 최근 온라인쇼핑 매출규모는 10% 이상씩 증가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은 꾸준한 증가세 (특히 음식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지난 상반기에 식품의 온라인쇼핑 비중이 15%를 넘어섰으며, 음식서비스업 또한 10%에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식품 및 음식서비스업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억 원, %)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식품 총계	음식 서비스업	온라인쇼핑 총계
2018 (비중)	104,944 (9.3%)	29,405 (2.6%)	134,349 (11.9%)	52,628 (4.6%)	1,133,140 (100%)
2019 (비중)	134,287 (9.9%)	35,342 (2.6%)	169,629 (12.5%)	97,328 (7.2%)	1,352,640 (100%)
2020. 1/4 (비중)	45,294 (12.3%)	14,352 (3.9%)	59,647 (16.2%)	34,508 (9.4%)	368,927 (100%)
2020. 2/4p (비중)	44,479 (11.9%)	13,000 (3.5%)	57,479 (15.3%)	38,358 (10.2%)	374,926 (100%)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거래동향, 2020. 7)

주: p=6월 통계치는 추정치로 반영

(2) 국내 총생산 추세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2019년 1,919조 원으로 2000년 652조 원에서 약 2.9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의 경우 2019년 3.71천만 원/명으로 2000년 1.39천만 원/명으로 약 2.7배 증가하였음

- 이러한 양 추세는 모두 상승추세이지만, 국민총생산 증가에 따른 1인당 국민총생산은 증가하지 않아, 국민의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25] 국민총생산 및 1인당 국민총생산

(단위: 1조 원, 천만 원/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총생산	1,323	1,389	1,440	1,501	1,563	1,658	1,741	1,836	1,898	1,919
1인당 국민총생산	2.67	2.78	2.87	2.98	3.08	3.25	3.40	3.57	3.68	3.71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 당해연도 시장가격

- 실질성장률로 환산했을 때,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은 꾸준히 등락을 반복하지만, 2000년 6.5%의 성장률을 보였던 반면 2019년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등,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6] 국내총소득 실질성장률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민총소득 실질성장률	6.50%	4.00%	8.60%	2.70%	4.30%	2.40%	4.00%	5.70%	0.40%	2.50%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총소득 실질성장률	6.50%	4.00%	8.60%	2.70%	4.30%	2.40%	4.00%	5.70%	0.40%	2.5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 실질가격 (2015년도 기준)

- OECD, <Real GDP Long-term Forecast>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21년 2,104십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567십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2021년 3.39%에서 2030년 2.14%, 2040년 1.48%, 그리고 2050년 1.25%까지 하락함

(3) 분야별 생산 추계

- 농림어업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2000년 7.61%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1.62%로 5.99%p 하락하였으며, 광업은 2000년 0.63%에서 2019년 0.10%로 0.53%p 하락하여 1차산업의 비중이 줄어들어 확인됨
- 한편 제조업의 경우 2000년 25.02%에서 2019년 25.32%로 0.30%p 증가하여 과거 20년 동안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서비스업의 경우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2000년 46.49%에서 2019년 58.08%로 11.59%p 급증하였음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볼 때, 대표적인 소비자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2000년 12.89%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9.40%로 감소하였으며,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업인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0년 4.57%에서 2019년 5.46%로 증가하여, 소비자서비스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른 국민총생산의 지출은 2000년 651.6조원으로 이중 355.1조 원이 민간소비지출, 71.0조 원이 정부소비지출, 206.9조 원이 총고정자본형성을 차지함. 비중으로는 각각 54.87%, 11.20%, 31.96%로 나타남.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총생산의 지출은 1,919.0조 원, 민간소비지출은 931.7조 원, 정부소비지출은 329.3조 원, 총고정자본형성은 575.1조 원이며 비중으로는 각각 48.13%, 17.01%, 29.71%를 차지함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민간소비지출의 침체가 발생하여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정부소비지출은 점진적으로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은 2000년 수출이 221.2조 원, 수입이 209.5조 원으로 순수출은 11.7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수출이 766.6조 원, 수입이 711.0조 원으로 순수출이 55.6조 원으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다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순수출이 -2.7조 원으로 경상수지적자로 전환된 후 다시 흑자 전환되어 현재까지 흑자를 기록

-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은 2000년 651.6조 원으로 이중 270.3조 원은 파용자보수, 200.1조 원은 영업잉여, 112.0조 원은 고정자본소모, 70.0조 원은 생산 및 수입세, 0.6조 원은 보조금으로 분배되었음. 비중으로는 각각 41.49%, 30.71%, 17.18%, 10.75%, 0.12%를 차지함

-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897.2조 원, 455.6조 원, 381.5조 원, 196.9조 원, 12.7조 원으로 비중으로는 각각 46.78%, 23.74%, 19.88%, 10.26%, 0.66%를 차지함

- 파용자보수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여 2000년 41%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9년 현재 45%까지 증가함. 한편 영업잉여는 2000년 30.71%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어 23.74%까지 하락하였으며 반면 고정자본소모는 2000년 10.75%에서 2019년 현재 17.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영업잉여 비중의 축소와 고정자본소모 비중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라 한계수확체감하여 고정자본소모 대비 영업잉여, 즉 영업이익이익률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2000년 10.75%, 2019년 현재 10.26%로 크게 추세가 바뀌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2000년 0.12%에서 2019년 현재 0.66%로 증가추세에 있음

(4) 중앙정부 경제정책 추세**■ 1970년대 경제정책**

- 1970년대는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관차금융을 활용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
- 또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음
 - 대규모의 중화학공업투자가 이루어졌던 1970년대 하반기에는 전체 상업차관 도입액의 46%가 중화학공업 외산 설비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
- 그 외 주요한 경제정책으로는 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으로 경상수지 관리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자유화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음
-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상승 압력을 낮춰야 했기 때문에 노동억압정책을 통하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였음
 - 1970년대에 들어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고조되었음. 정부는 1971년 12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곧이어 〈國家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단체행동뿐 아니라 단체교섭까지도 주무관청의 조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 1973년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980년대 경제정책

-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함.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 위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
 -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을 추진
 - 안정화 시책은 통화 및 재정 긴축을 통해 추진됨
-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공업부문의 과잉투자로 인한 투자효율 저하 및 채산성 악화,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제한 등 투자불균형 문제가 노정되면서 정부는 1979년 5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투자조정을 단행

■ 1990년대 경제정책

- 1993년 6월의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으로 시작되었음

-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CP 금리를 사실상 자유화함
-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렀음. 경제위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조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와 유사한 것으로서 '경영개선조치'가 있었음
- 1997년 11월 외환위기 발생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어 IMF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관련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하게 되었음
 -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은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되었음. 첫째는 단기적 관점에서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경제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음
 - 금융부문에서 있어서도 구조개혁은 단기적 과제로서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중장기적 과제로서 금융안전망의 정비 및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되었음

■ 2000년대 경제정책

- 한미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 실시
-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수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했으며, 체감 경제 지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채권국이 되었으나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감소
 -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이 가능했던 측면도 존재
- 비정규직 보호법을 추진,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됨
 - 한편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편법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양산 및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2008년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여 시장 경제의 지표로써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음

- 이로인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기업 감세 정책을 통한 투자활성화, 4대강 사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0년대 경제정책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함께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음

-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불공정거래 금지법(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등이 2013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

○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3대 목표를 설정

-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개각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 인사인 최경환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여 이른바 '초이노믹스' 를 표방

- 최경환 부총리는 41조원의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부양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DTI, LTV 등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 실시.
- 또한 '가계소득이 증대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뒤이를 문제인 정부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음. 초이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추진하였음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을 뒤이었으나 그 방법은 달리 하여,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음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표방하여 기업과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였음

○ 또한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음

3) 경상북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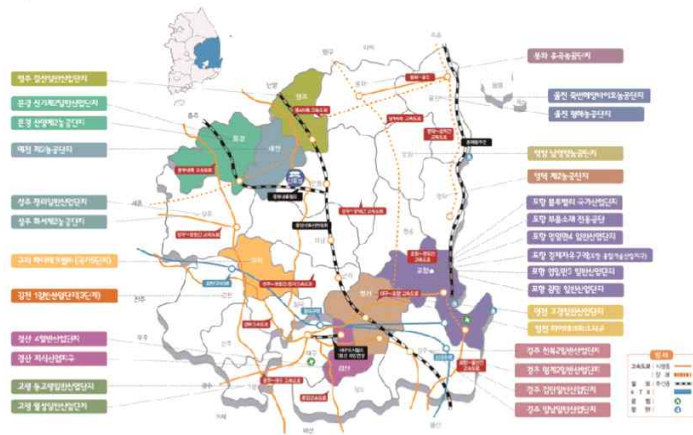
○ 경상북도 2020년 주요 산업 지표는 아래와 같음

주요지표		경상북도(전국비중, 순위)		전국		
생산 및 소득	지역내 총생산(명목, 백만원)	108,782,638	(5.7%, 5위)	1,902,527,946		
	1인당 지역내 총생산(명목, 천원)	40,677	(전국평균대비1.1배, 6위)	36,866		
[18]	지역경제성장률(실질, %)	-1.13	(전국평균대비-0.2배, 16위)	4.55		
	1인당 지역총소득(명목, 천원)	34,530	(전국평균대비0.9배, 7위)	37,014		
인구 및 고용	추계인구(명)	2,665,836	(5.1%, 6위)	51,849,861		
	고령인구(명)	549,415	(6.8%, 4위)	8,026,915		
	고령인구 비중(%)	20.60	(전국평균대비1.3배, 2위)	15.50		
	경제활동인구(천명)	1,488	(5.3%, 6위)	28,186		
	경제활동인구 비중(%)	55.82	(전국평균대비1.0배, 5위)	54.36		
	고용률(%)	61.70	(전국평균대비1.0배, 7위)	60.90		
	청년고용률(%)	38.70	(전국평균대비0.9배, 11위)	43.50		
	실업률(%)	3.90	(전국평균대비1.0배, 3위)	3.80		
[19]	청년실업률(%)	11.20	(전국평균대비1.3배, 1위)	8.90		
	산업 구조					
[18]	1차산업(명목, 백만원)	5,500,601	(16.6%, 3위)	33,219,757		
	2차산업(명목, 백만원)	56,043,958	(8.8%, 3위)	635,189,039		
[18]	3차산업(명목, 백만원)	41,084,401	(3.8%, 6위)	1,071,885,428		
	산업별 기업 구조	전산업	계(개)	232,030	(5.7%, 5위)	4,103,172
300명 이상(개)			173	(4.3%, 5위)	4,063	
계(개)			29,217	(6.7%, 5위)	437,024	
제조업		1~99명(개)	28,858	(6.7%, 5위)	433,006	
		100~299명(개)	280	(8.4%, 4위)	3,343	
		300명 이상(개)	79	(11.7%, 2위)	675	
[18]		도매 및 소매업	계(개)	55,670	(5.4%, 5위)	1,027,109
			1~99명(개)	55,653	(5.4%, 5위)	1,025,939
			100~299명(개)	17	(1.7%, 9위)	1,008
			300명 이상(개)	0	(0.0%, 11위)	162
제조업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백만원)	46,578,155	(8.2%, 13위)	565,244,876	
		제조업 성장률(%)	-1.20	(전국평균대비-0.3배, 13위)	3.84	
[18]	제조업 GRDP 성장기여도(%p)	-1.45	(전국평균대비-0.3배, 위)	4.65		
	서비스업 지표	서비스업 부가가치(백만원)	41,084,401	(3.8%, 6위)	1,071,885,428	
[18]		서비스업 성장률(%)	3.99	(전국평균대비0.8배, 12위)	4.93	
	[18]	서비스업 성장기여도(%p)	2.22	(전국평균대비0.8배, 12위)	2.74	
무역		수출액(백만달러)	37,712	(7.0%, 7위)	542,233	
	수입액(백만달러)	14,783	(2.9%, 8위)	503,343		
	[19]	3대 수출품목	1위.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 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2위. 철강 3위.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혁신	외국인투자유치(백만달러)	25	(0.1%, 16위)	23,328		
	[18]	특허등록건수(건)	6,634	(4.1%, 4위)	162,561	
		연구개발비(억원)	30,204	(3.5%, 4위)	857,287	
	[18]	연구개발인력(명)	25,774	(3.7%, 6위)	691,060	
재정[20]		재정자립도(%)	32.1	(전국평균대비0.6배, 14위)	50.4	

* 지표별 전국순위 : 수도권 포함 17개 시·도기준

- 경북 경제인구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기준 1,488천 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0%로 전국 평균 0.79%에 비해 낮음
 -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8년 64.25%에서 '19년 64.19%로 소폭 감소
 - 고용은 '19년 경북의 실업률 3.9%, 청년실업률은 11.20%로 전국 평균(각 3.8%, 8.9%)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9년 실업률은 3.9%로 2018년에 비해 -0.2%p 감소 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0.1%p높음
 - 청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80%p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대비 2.3%p 높음

○ 경상북도의 주요산업단지지는 주로 포항, 경주, 경산, 문경 등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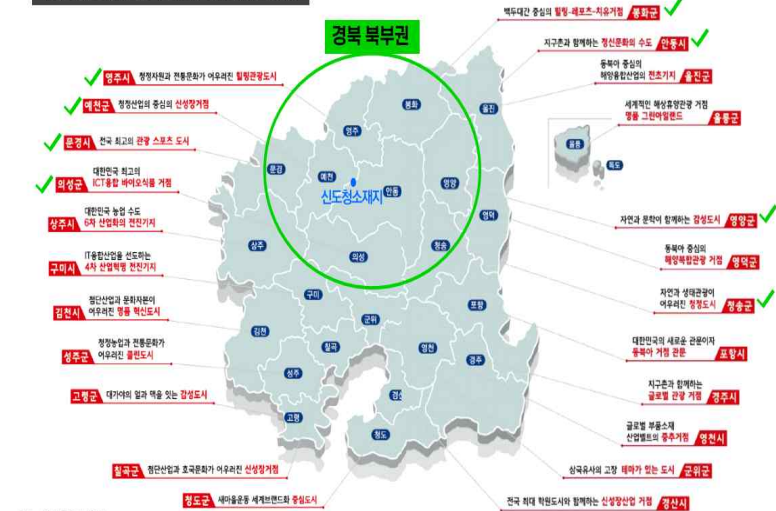
[그림 44] 경상북도 주요 산업단지 현황

- 2019년 경북의 전년대비 GRDP성장률은 -1.13%로 감소하여 ,3.38%로 성장한 전국평균과 대조적이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1.26%, 3년간 평균성장률 0.62%를 감안하면 감소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전국에서 경북지역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2%수준으로, 지난10년간 계속 감소 추세
- 2018년 지역 내 총소비지출액은 62,055십억 원으로 민간·정부소비 지출액은 각각42,393십억 원, 19,662십억 원이고, 최근 5년간(2014~2018년) 5.06%로 증가하여,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4.52%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민간소비연평균 증가율은 3.77%로 전국평균(3.94%)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정부소비

(8.13%)로 전국 평균(6.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경북지역의 민간소비는 최근 5년간 주류 및 담배(7.25%),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6.78%), 의료보건(5.76%), 오락문화(5.33%) 순으로 증가
- 경북지역의 군위, 안동, 청도, 고령 등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지역외의 모든 시군은 산업과 관광발진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선정

경상북도 민선7기 23개 시군 발전방향



자료 : 경상북도 민선7기

[그림 45] 경상북도 민선7기 23개 시군 발전방향

- 2018년도 지역총소득은 92,345십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2.83% 성장
 - 2018년도 지역총생산대비총소득 상대수준은 84.44로 지역총생산이 지역총소득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2020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73.9%, 재정자립도는 32.1%로 전년대비 각각 2%p, 0.2%p 증가
 - 경북지역 재정자립도는 지난 8년간 계속 73%수준을 유지 (5년 평균 71.86%, 3년 평균 72.7%, '20년 73.9%)
- 주요 산업별 순위는 지속적으로 전자부품 및 컴퓨터, 1차금속, 자동차 제조, 금속가공 순으로 나타났음

[표 27] 주요 산업별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위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위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3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도 및 경로의존성이 높음

- 밸류 체인상에서의 기업유형은 적절한 분포이지만 분야별 리딩기업이 취약하고 영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음

○ 연구조직의 질적 수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전반적인 R&D 역량 보완이 필요

- 사업품목 다각화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음

4) 예천군 현황

○ 산업구조

- 최근 10년 간 1·2차 산업은 약간 감소, 3차 산업은 약간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 예천군 총사업체 수는 3,327개소, 종사자 수 11,060명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 1차 산업이 1.5%, 2차산업이 9.9%, 3차산업이 88.6% 차지

○ GRDP

- 지역총생산은 9,002억 원 수준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이 29.2%, 농림어업이 27.0%, 건설업 11.0%, 제조업 5.2% 등의 순

○ 제조업

- 총매출액은 105,647백만 원 수준
- 총 18개 업체에 360명의 종사자 근무

- 식료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 제조업 중심으로 입지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2011년 3개소에서 2015년 5개소로 증가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의 경우, 2011년 7개소에서 2017년 9개소로 증가

[표 28]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년	3,172	9,815	21	242	434	2,134	2,717	7,439
2010년	3,067	10,285	13	90	269	1,034	2,785	9,161
2015년	3,327	11,060	17	167	273	1,095	3,037	9,798

자료 : 예천군, 2018, 「동계연보」

2. 경제·산업 정책 현황

1) 문재인 정부정책

○ 한국판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

-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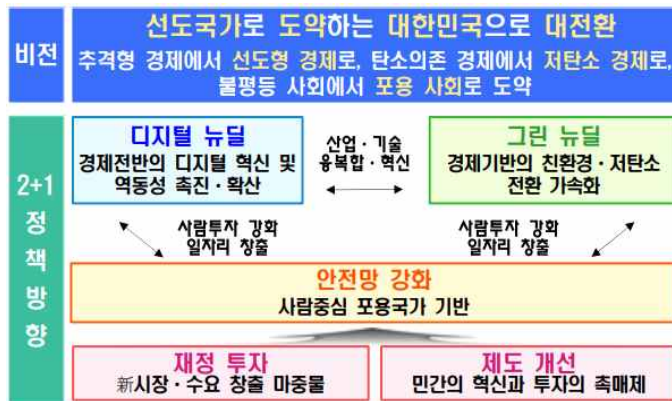
- 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진행

○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

○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임

-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그림 46] 한국판 뉴딜 1.0

-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
 - 즉, 기후 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
 -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 한편, 2013년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년 5월 9일 일간 《르몽드》에 '위기 이후 녹색 기금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 DNA 생태계 강화는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

-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발·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
- 또한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
-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
-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
- 이를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
- SOC 디지털화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
- 이를 위해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추진
- 위와 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이에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 과제로 대두됨
 -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
 - 또한 디지털화가 전분야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
- 이러한 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해짐
 - 대외적으로는 선제적인 디지털뉴딜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에 따라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

- 따라서 기존의 한국판 뉴딜 1.0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새로운 뉴딜(한국판 뉴딜 2.0)은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됨



[그림 47] 한국판 뉴딜 2.0

- 한국판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함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
-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
 - 뉴딜로 창출되는 작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전망
- 그린뉴딜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할 계획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

- 휴먼뉴딜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함

-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
- 미래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

-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

2) 경상북도 산업정책

- 경북은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미래지역발전전략

- (비전) 녹색 창조 통합의 새경복의 실현 / 통합과 상생의 경북세상
- (북부자원권) 예천, 청송, 의성 등 8개 시군
-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생명산업도시 조성: 생명바이오산업+수변지역 개발

- 최근의 산업 정책 방향

- 산업 기술 융복합 가속화: ICT융합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신산업분야 발굴 및 육성
- 개방형 혁신활동 지원: 첨단신소재,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분야의 산학연 공동협력 R&D 추진 및 사업화
- 중소기업기술 및 비즈니스로드맵 데이터에 기반 하는 기업성장지원 강화; 주력산업 및 융복합 R&D지원과 기업성장단계 맞춤형 사업화지원 연계강화

- 지역특화 연구산업 육성

- IT, BT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연고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 지역기업 수요 및 특화발전특구와 연관된 유망품목 기획 및 육성
- 주력산업 및 융복합 R&D지원과 기업성장

3) 예천군 정책

- 예천군은 산업경제부분의 미래핵심 전략과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음
-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황토 6차 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예천 미래 농촌 핵심 프로젝트, 삼천(三川) 수변관광 비즈니스벨트 조성, 학가산 산악관광지대 조성, 국가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전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부문별 전략계획으로는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경제도시를 산업경제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미래 新산업단지 조성, 백두대간 날씨(기상기후) 산업 육성, 무인비행장치 서비스융합산업 육성, 스마트 에어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고부가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해 곤충 테마 콘텐츠도시 프로젝트, 아시아 충효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 한천스포츠클러스터 조성, 경상북도미래유산센터 설립도 예천의 산업을 확대시키는 관련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천 제2농공단지 투자유치 및 관리,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등이 있음

비전	제조업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기반·인력 전략목표	수요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을 통한 혁신성과 계고											
성과지표 · 목표치	성과 목표											
	신규고용(명)			사업화매출액(억원)			청년고용비율(%)			수출액비율(%)		
	R&D	비R&D		R&D	비R&D		R&D	비R&D		R&D	비R&D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57.5	64	63.3	77.68	97.7	109	127.0	151.2	49.39	49.39	48.15	48.15
									19.18	19.18	14.60	14.60
추진 방향	산업구조 혁신				지역기업 생태계중심				수요기업 현장중심			
	지역산업 성장주기, 포트폴리오 맞춤형 전략				거래관계 핵심기업 발굴, 혁신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킹			

3. 산업·경제 시사점

- 전 세계는 자본주의 단일체제와 함께 정보통신교통기술의 발달로 매우 속도감있는 경제교류 사회로 변화
- 또한 중국 및 동남아등의 지속적인 산업화 성장이 다소 저하되면서 전체적으로 저성장시대로 진입
 - 한편, 국가 간 양극화시대 극대화
 -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한국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IMF 이후 저성장시대에 돌입하였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지역 간 경제 격차 및 세대 간 소득 격차등도 동시에 확대
- 중앙정부는 기업위주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 복지확대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
- 또한 디지털 뉴딜등 ICT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산업에 투자를 진행 중
 -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 사업 부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조사 결과 대비 하반기 조사에서 매출과 종업원 등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 되었고, 위생용품 생산 및 반도체 관련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서 정책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요청
 - 인력 충원을 하고자 하는 일부 기업에서 기업 규모로 인하여 채용의 어려움 발생. 비대면 채용 박람회 개최로 기업 인력 수급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으로 정기적 비대면 회의장 개설 등 기업 수요 확인. 현재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등 지원사업 홍보 필요
-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AI)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 육성, (5G) 5G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주요
 - 따라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연계 SOC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진행 중
 - (창업)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 (벤처) 경북형 일자리 특별모델 (포항 벤처밸리)
 - (인재) 경북형 스마트 인재 1만명 양성 프로젝트

- 예천의 지역 환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단독적인 지자체 사업 진행보다 주변 지역과의 지속적 소득창출 연계사업이 필요
- 이를 위해 안동-영주-문경 트라이앵글 광역 연계 미래 신경제 모델이 필요
- 분야별 진행방향
 - (식품) 물, 음료, 주류, 식품, 곤충 산업 육성
 - (드론) 항공관련 드론 농업, 드론 항공 축제
 - (일자리) 청년 및 중장년 창업교육 및 특화산업 육성
 - (문화) ICT 신 문화산업 조성
 - (바이오) 안동 연계 메디 산업
- 전반적으로 지역기업의 신산업(뉴딜 등) 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 제공 및 관련 지원 사업 적극 홍보 필요
- 경상북도 주력산업별 명확한 뉴딜 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 필요
- 지역기업의 그린뉴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그린뉴딜 관련 유망품목 R&D, 비R&D 지원 사업 강화
- 지역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 지역우수 인재 고용촉진 사업 등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 홍보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A시대의 서막 • 산업성장을 견인할 5G, 자율주행차 • 신기술로 떠오르는 블록 체인 • 제주, 가덕도, 경북신공항논의 • 개인로봇의 부상 • 규제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 패이크데믹시파질병확산경계 • 불안한 기술 위협 • 실버및초령의료기술증가	• (새)농동형스마트리빙케어육성 • (5G)5G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 (수소)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 • (신재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조성 • 통합신공항건설및연계SOC구축 등 • (창업)경북형 청년창업특구조성 • (벤처)경북형 일자리특별모델 (포항벤처밸리) • (인재)경북형 스마트인재 12명 양성 프로젝트	• (식품) 물, 음료, 주류, 식품, 곤충 산업육성 • (드론) 항공관련 드론 농업, 드론 항공 축제 • (일자리) 청년 및 중장년 창업교육 및 특화산업 육성 • (문화) ICT 신문화산업 조성 • (바이오)안동연계 메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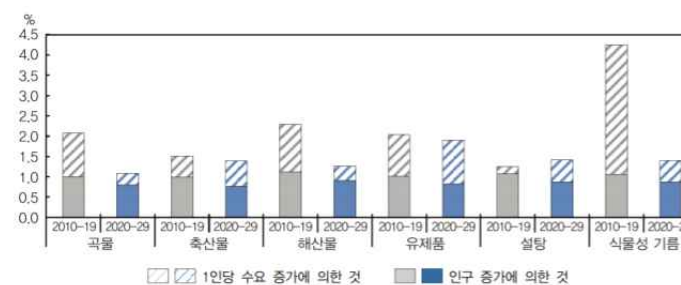
[그림 48] 예천군 산업·경제 메가트렌드

제4절. 농업·농촌

1. 국외 농업환경 동향과 소비 트렌드

1) 농산물 수요와 고품질 농산물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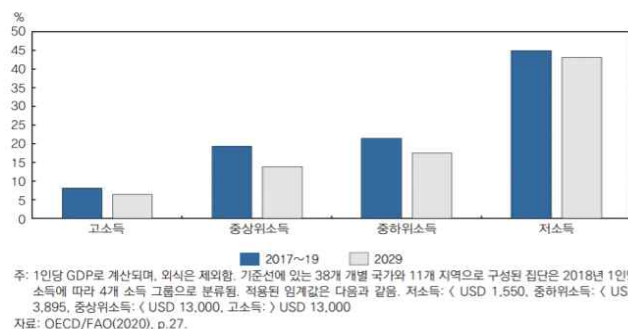
- 전 세계적 인구증가가 농산물 수요증가로 이어지며, 고소득국가의 고품질 농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1인당 식품지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총 농산물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급증하는 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고소득국가의 1인당 식량작물 수요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나, 식물성 기름과 설탕, 유류, 유제품의 경우, 소득과 선호도가 수요의 성장 요인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인구의 영향력은 식량 작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 농산물 수요 증가는 인구의 변화 외에도 소비자의 개별 소비 패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패턴은 소비자 개인의 선호도와 실질 소득에 의하여 결정됨
- 세계 경제 발전의 결과로서 모든 소득집단에 걸쳐 1인당 식품지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성 기름과 축산물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득을 식품에 지출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총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지출 비중도 감소함



[그림 49] 식품 주요품목에 대한 연간 수요 성장률

- 고소득 국가의 소득증가 예상치를 기준으로, 총 가처분소득에서 식량비중은 기준연도(2017-19) 약

8%에서 2029년까지 6%로 떨어질 것이며, 식품지출 비중의 절대적인 감소 폭은 중상위 및 중하위 소득을 가진 신흥국가들에서 비교적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그림 50] 소득 그룹별 가계지출 중 식품의 비중

- 해당 국가 중에서 중상위소득 국가들의 경우 기준연도에서 2029년까지 19%에서 14%로 하락하고, 중하위소득 국가들의 경우 식품지출의 비중이 21%에서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10년 동안 1인당 소득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가계지출 중 식품의 비중 감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에 지출되는 가계소득의 비율은 2029년까지 평균 43%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 국가에서 최저소득층들은 여전히 소득과 식품가격 등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OECD-FAO는 향후 농산물 수요가 사회·문화적, 소득·주도적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발맞추어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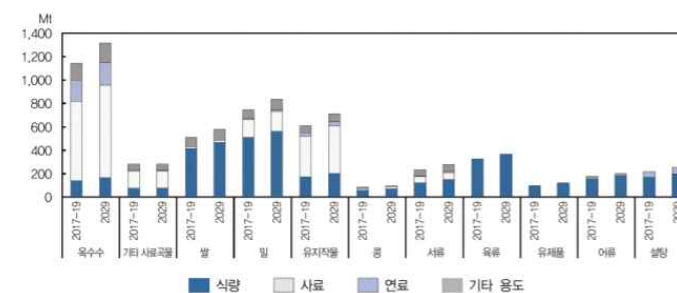
- 도시화가 지속되고, 특히 고소득 및 신흥국가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 및 편의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세는 설탕과 식물성 기름의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 좌식생활 방식 등의 영향으로 일일 칼로리 요구량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세계적으로 육류 생산량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리한 육류와 사료 가격비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며, 육류 생산 증가의 대부분은 신흥국과 저소득국(특히 브라질과 중국,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및 터키)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농산물을 용도에 따라 4가지(식량과 사료, 연료 및 기타 용도 등)로 구분할 때 향후 10년 동안 농산물 소비 용도별 사용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식량은 현재 세계농업에서 생산되는 칼로리의 52%를 차지하는 농산물의 주요 사용처이며, 사료는 생산된 칼로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7%는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및 종자, 원료 등으로 사용됨 (그림 3)

○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지형과 생산방법 변화로 농작물 생산량의 변화와 생산지 작물변화가 예상

- 1850년대부터 경제 및 인구성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어 왔으며, 1880년~2012년(133년)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5℃ 상승함
-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폭염, 온난화, 극한 강수 현상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21세기 전반에 걸쳐 증가할 가능성 매우 높게 전망됨



자료: OECD/FAO(2020), p.28.

[그림 51] 주요 농산물의 사용 용도

2)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현재 세계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불확실성은 모든 소비와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은 농식품 소비분야 전망의 불확실성을 유발

- OECD-FAO 농업전망에서 다루는 대부분 품목의 생산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최소한 주요 생산 및 무역 국가들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류(downstream) 식품 가공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소비자 수요 강제 조정 및 계절 노동 부족 등은 모두 농업에 대해 특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는 주요 공급 및 가공, 무역 및 국가, 국제 물류 시스템, 중간 및 최종 수요에 이르기까지 식품체계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노동과 자본, 생산에 대한 중간 투입물(살충제, 종자) 등 요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규모는 코로나19의 지속성과 확산 속도 및 경제조정과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의 지속시간과 가격 및 국내 및 국제시장 간의 차등 영향, 국가 및 상품 간의 차이, 회복 시기 및 회복 가능 경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하여 견해가 매우 달랐으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수요와 무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의 대응행이 가지는 영향력은 각 산업별 특성 및 국가별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반적으로 고소득국가의 농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간 투입물의 공급 차질과 장기적으로는 고정자본품목의 공급차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저소득국가의 일부 농업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는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

3) 주요국 농업·농촌 정책 동향

(1) 영국

■ 정책수립 배경

- 영국의 농업은 높은 수준의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이 매우 높음
 - 농업종사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이지만, 국가 식량 전체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로 인해 농업지역 특히 저지대에 환경이 교란된 지역이 늘고 있으며, 대기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존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높기도 함
-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추세가 멈추었지만 농업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향후 생물 다양성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의 내용

- 1999년 농촌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완료한 후 <농촌백서>에서 다섯 가지 농촌정책의 목표를 제시함
 - 첫째 목표는,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면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 두 번째 목표는, 농촌에서 살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환경에서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 및 촉진하는 것
 - 세 번째 목표는, 농촌의 경관과 생물(그리고 그 서식지) 다양성 및 풍부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
 - 네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농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
 - 다섯 번째 목표는,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 및 정부 기관들 간 보다 나은 공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비정부조직들과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증진하는 것
- 이후 DEFRA는 2004년 <농촌전략 2004>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농촌백서>의 농촌정책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난 3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그리고 새

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농촌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 세 번째 목표는, 농촌의 경관과 생물(그리고 그 서식지) 다양성 및 풍부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
 - 네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농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
 - 다섯 번째 목표는,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 및 정부 기관들 간 보다 나은 공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비정부조직들과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증진하는 것
- 영국 정부는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에서 처음으로 농촌정책의 비전을 설정함
- 첫 번째 비전은, 번성하는 농촌 지역사회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지향하는, 활력 있는 농촌(living countryside)
 - 두 번째 비전은,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를 갖춘, 일하는 농촌(working countryside)
 - 세 번째 비전은, 환경이 유지되고 향상되어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보호되는 농촌(protected countryside)
 - 네 번째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찬 농촌(vibrant countryside)
- 2007년부터 시작된 RDPE는 2013년까지 총 59억 유로(공공투자는 52억 유로)를 농촌 개발 부문에 투자함
- 제2축인 환경 부문 투자 비율이 약 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식물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 제1축과 제3축의 투자는 2000~2006년의 ERDP에서 사업별 지원사책이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정해진 사업 명칭이 없이 각 지역의 지역발전청(Rural Development Agency: RDA)에서 차별적으로 운영

(2) 독일

■ 정책수립 배경

- OECD 정의에 따른 독일의 농촌우세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s)은 국토면적의 29%, 인구의 12%, GDP의 9%를 차지함
- 그보다 작은 분석 단위를 사용하는 독일의 농촌지역 정의에 따르면 국토의 59%, 인구의 27%, GDP의 21%를 차지함
- 약 절반의 농촌 주민들이 대규모 집합도시(agglomeration) 또는 도시화된 지역 근교 거주
- 해당 지역(district)에 소속된 지자체(municipalities)의 최소 50%가 자동차로 30분 내 초광역중심(supra-regional centre)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위치하는 지역에 농촌 주민의 45%가 거주함

- 이러한 높은 접근성은 독일의 국가공간정책에서 지지하는 다중심적(polycentric) 정주 구조에 기인하는 것임
- 인구, 경제적 성과, 자원, 도시 중심으로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유형의 농촌 지역이 나타남
 - 농촌지역에 대해 단일한 정책 접근을 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지역 기반의 다부문적 정책 접근이 바람직함
- 농촌지역은 몇 가지 소득 지표들에서 다른 유형의 지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 농촌지역은 국가 전체 평균 1인당 GDP의 80% 수준임. 노동인구 1인당 GDP는 국가 전체 평균의 91%로 이보다는 완화된 수준임
 - 1인당 GDP상의 동독과 서독 간 격차는 모든 지역유형에서 현격하게 나타나며, 북부와 남부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농촌우세지역의 1인당 GDP가 낮은 것은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고용률과 통근에 기인함
- 전국적으로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외곽의 농촌지역에서는 그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음
 - 외곽의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미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농촌 인구 중 31%(690만 명에 해당)가 향후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동독에서 특히 심각함

■ 정책의 내용

- 독일의 농촌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진행되어 온 분권화 과정에 기인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음. 독일은 흔히 협력적 연방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기도 함
 - 독일의 행정구역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Länder), 자치시·군(municipalities)/ 자치연합(municipal associations)으로 구성됨
- 독일 기본법은 공동 업무(joint tasks)라 지칭하는 '각급 정부 간 제도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정책과 농지(토지) 구조의 향상, 연안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공동 업무로 구성됨(GAK: 농업사회보장정책 & GRW: 독일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 공동 업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며, 재정 지원함
 - 공동 업무의 이행은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s)에 의한 '틀 계획(frame-work plans)'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틀 계획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있어 농촌지역 대상의 정책적 우선순위 및 개입수단을 마련함: 농촌 구조의 향상 / 생산 및 마케팅 구조의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 / 산림 / 연안 보호
- GAK(농업사회보장정책)는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을 정의하는 주요 수단임
 - 독일의 분권화 구조를 반영하여, EU에 의해 공동으로 자금 지원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주 차원에서 설계·운영됨. 각 주는 해당 주의 특수한 경제적 맥락에 따른 우선순위와 수요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함
- 단독 주 프로그램(single Länder programme)은 연방 차원의 농촌개발정책에 연계됨
 - 이러한 연계 형태는 '농업구조 향상 및 연안 보호'를 위한 공동 업무(joint tasks)에서 찾을 수 있음
- 주 프로그램은 다년도 공동 틀 계획에 수립된 전반적 원칙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이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함
 - 공동 틀 계획은 각 주에서 제시한 물리적·재정적 여건에 근거하여 연방 차원에서 다듬어진 것임
- 초기 GAK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강했으나, 지난 15년 동안 자연자원 보호, 통합적 농촌개발, 지역 관리(regional management) 등의 수단들이 도입되면서 보다 넓은 견지에 서의 농촌개발이 힘을 얻고 있음
- GAK의 농촌정책 이행 단계에서는 지역(region)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지역의 주체들은 이들 기관이 공공 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 전략/목표와 공공지출의 질(quality) 간의 일관성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분권화된 운영 시스템(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중앙 주체(연방 재정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등)들의 역할은 주로 ① EU로부터 지역으로 일정 기금이 이전되도록 보장, ② 공동 기금 제공, ③ 새로운 개발 인센티브 제공 및 새로운 전략 시험, ④ 지역 단위에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임
- GRW(독일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는 주로 구조적 문제를 가진 지역에 초점을 두고 개선적 접근방법(remedial approach)을 취함
 - GRW의 대상 지역은 소득 수준, 고용, 물리적 인프라와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됨
- GAK와 마찬가지로 GRW도 국가(연방정부)와 주(경제부) 사이에 협의된 공식적 협약을 통해 다년도에 걸친 과업 또는 계획을 수립함.
 - 각각의 과업 계획은 연방정부와 주가 각각 같은 규모로 공동 재정 지원함
 - 두 가지 경우 모두 EU 프로그램이 국가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금의 많은 비중을 제공함

(3) 일본

■ 정책수립 배경

- 면적상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에서 절대적인 인구 수 감소와 고령화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35년의 인구는 2005년에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10% 정도 감소하겠지만 산간농업지역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중산간 지역은 2005년 30%에서 2035년 4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산간 지역에는 고령자만이 사는 세대가 2005년 20%에서 2030년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촌의 과소화 등에 따라 집락기능 유지가 곤란한 집락이 점차 증가함
 - 2007년도 조사에 의하면 약 2,600여개 집락이 무인화
 - 과소 시정촌 조사에 의하면 집락기능이 저하되거나 유지가 곤란한 집락의 비율은 9호 이하의 집락에서 50%, 65세 고령자 비율이 50% 이상인 집락에서 40%에 이르고 있음
- 일본 농업은 한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경작포기지가 증가하며 농업 종사자 수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 정책의 내용

- 1960년대부터 농공간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정비 정책 시작
 - 농업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추진
- 197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 농업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일체적 정비가 중요한 전략
 - 농업생산기반 정비나 생활환경 정비 분야 공히 근대화로서의 시설 기능의 효율성·편리성을 추구
 - 농촌 환경에 인공적인 요소가 형성
- 1980년경부터 쾌적성(amenity)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농촌정비정책 등장
 - 1986년부터 농촌 어메니티(amenity) 대회 개최
 - 지역 만들기,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경관의 보전·형성, 도시-농촌 교류 등이 농림수산성의 농촌정비정책의 키워드로 등장
 -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다양한 농업농촌정비사업 추진

- 2001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농림수산성에 농촌진흥국 신설(농촌정책을 농림수산성에서 주관한다고 공식화)
-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농촌정책을 추진. 이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국토의 보전,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의 전승)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 혼주화(混住化) 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국민들은 편안함과 평온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져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풍요로운 농촌 자연환경의 경관 등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됨
 - 농촌의 진흥은 국민 전체의 생활을 지탱하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할 필요
 - 농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주민, 비영리단체(NPO)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필요
- 최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3개 분야 (1) 식량공급 기반 강화, (2) 지역 자원 활용에 의한 지역 만들기 사업, (3) 저탄소사회 구축과 지구환경 문제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건 정비, 후계자 육성 및 농지의 유효이용, 농업용수 안정 공급, 경작 포기자 해소
 - 도시와의 공생, 농지·수자원 환경 보전향상 대책, 중산간지역 등 조건 불리 지역 지원, 안전하고 안심한 농촌 만들기, 도시농업 진흥
 - 농산어촌 저탄소사회 실현,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2.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변화

1) 우리나라 기후 환경 변화와 소비 및 생산방식의 변화

- 우리나라 주변 기온 상승은 전 세계에 비해 최근 30년의 경우 약 1.5배 높게 상승했으며, 최근 20년의 경우 약 0.7배 낮은 수준의 기후 변화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증장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21세기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특히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 관련 극한지수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기온의 변화를 1973년과 2017년의 연평균기온 증감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은 1.14℃ 상승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0.91℃, 강원권 0.90℃ 순으로 높음(전국의 연평균기온은 0.67℃ 상승)
- 주요 농작물 주산지 변동 흐름은 기온 상승으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되고 있음



[그림 52] 기후 변화와 주요 작물 재배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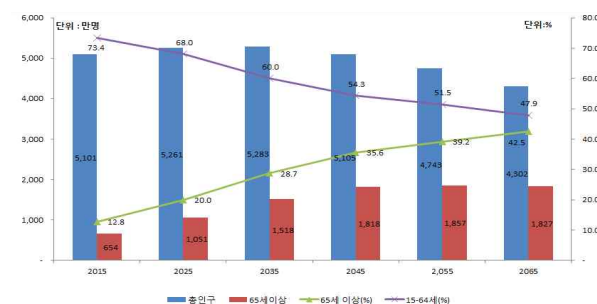
○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및 재배가능지(재배적지) 변동 예측

- 사과: 1980년에는 전국에 걸쳐 사과 재배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1995년 이후 충남 일부, 충북, 경북지역으로 재배 면적이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사과의 주산지인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경산,영천,경주 등)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경북(청송,안동,영주 등)·충북(충주,제천 등)·충남(예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위도36~37 사이) 재배 면적이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정선,영월,양구 등) 산간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복숭아: 재배 면적은 1990년 이후 경기도(부천, 평택 등), 충남(천안, 아산, 논산 등)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충북(충주, 음성, 영동, 옥천 등), 강원도(춘천, 원주 등), 경북(영천, 경산, 청도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
- 포도: 경남(김해, 밀양, 양산, 창원 등)에서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영월, 산척, 양구 등)에서는 재배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평, 화성, 포천, 영월, 거창, 남원, 무주 등 생육기 기온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재배 면적이 증가
- 단감: 1980년대에는 따뜻한 남해안(순천,광양,창원,김해,밀양 등)에서 재배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경상도 동해안(경주,포항,경산 등)과 전라도 서해안(나주,장성 등)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경북의 동해안을 따라 영덕 및 내륙 지역까지 재배지가 북상

- 감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집중 재배되었으며, 경남 및 전남에서는 1980년까지 일부 재배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감소 추세이며, 2000년대부터 경기도 이천(1.0ha), 충남 천안(1.0ha) 등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음
- 인삼: 전통적으로 충청지역(금산, 음성, 괴산 등)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집중되었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강원지역(홍천, 횡성, 원주, 춘천 등)으로 확산

2)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 고령화의 가속화와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위험과 질병 등의 유행으로 인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개편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2065년 생산 가능 인구는 47.9%, 고령인구는 4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
-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5년에는 -1.03% 수준이며,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출처: 통계청(각 연도) 추계인구

[그림 53] 장래 인구 전망(1965-2065 증위)

-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p 상승하였으며, 1998년부터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농가 호수는 1998년 141.3만 호에서 2017년 104.2만 호로 연간 1.6%씩 감소, 2018년 농가호수는 2017년 대비 1.4% 감소한 102.8만 호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2018년보다 1.4% 감소한 101.3만 호로 전망. 중장기적으로 농가호수는 연평균 0.8% 감소하여 2028년은 94.8만 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농림업 취업자 수는 1998년 248만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27.9만 명으로 20년간 연평균 3.4% 감소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8년 농림 어업 취업자 수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

[표 29] 농가 호수·농가 인구·농림 어업 취업자 동향 및 전망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농가 호수(만 호)	141.3	104.2	102.8	101.3	97.7	94.8	-1.6	-1.4	-1.4
농가 인구(만 명)	440.0	242.2	238.2	234.2	214.2	191.2	-3.1	-1.6	-1.7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	19.6	42.5	42.9	43.3	46.9	52.3	1.2%p	0.4%p	0.4%p
총 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	9.5	4.7	4.6	4.5	4.1	3.6	-0.3%p	-0.1%p	-0.1%p
농림 어업 취업자 (만 명)	248.0	127.9	134.0	136.0	138.4	136.2	-3.4	4.8	1.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가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 신생아 수 40만 명 이하로 감소, 고령사회 진입,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 중임
-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 전체 고령화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의 노동력 부족 및 농촌 정주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유능한 농업·농촌 미래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농업 부문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함

3) 인구 변화에 따른 건강식품 수요 증가

- 인구 고령화, 세계적 전염병 확산 등의 요인들로 인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에 10.5%에서 2019년에 14.9%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19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국내출하액+수입액)는 3조 7,257억 원으로 2015년 2조 2,294억 원 이후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성장

-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의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16.6%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5년 22.3%→2019년 24.6%)



※ 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년 식품 등 생산 실적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KOSIS 인구통계 자료 / 고령인구 비율 : 총 추계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출처: aTFS 식품시장 뉴스레터(2021. 2)

[그림 54] 고령인구 비율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변화 추이

- 2019년 기준, 내수용 건강기능식품의 출하액은 2조 9,508억 원으로 2015년 1조 8,230억 원 이후 연평균 12.8%의 급속한 성장

- 최근 몇 년간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위험요인들과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들의 유행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규모가 확대
- 코로나 19와 고령화로 인한 면역력강화 제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역력 강화, 개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규모도 확대

4) 스마트팜의 확대

- 스마트팜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에 처방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업기술
- 스마트팜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동화시스템 및 로봇기술들을 시설원예(비닐·유리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원격 또는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 형태 필요

- 농·축산업 인구 고령화, 젊은 층의 영농 승계 인력난 및 생산 면적 감소, 투자 위축 등에 따른 소득·수출·성장률 정체 등 지속 가능성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안으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제시
-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유통, 소비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농업생산을 핵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생산 중에서도 모니터링 및 제어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로봇 등과 연계된 자동화 기술 등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현재 우리 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주로 환경정보(온·습도, CO₂, 조도 등) 기반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재배시설의 개폐 및 제어(보온덮개, 천창, 커튼, 환풍기, 스프링클러, 양액, 열풍기 등)하는 수준
 - 향후, 재배 생육정보 기반의 생육단계별 정밀한 작물관리를 위한 생육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및 작물생리 장애 병충해 진단 전문 모델 개발 등으로 발전

5) 중앙정부 농업·농촌 정책 동향

(1) 1990년대 농업·농촌 정책

- 우르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통하여, 1989년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입 자유화를 추진하였음
 - 우르과이라운드는 1986년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료되었음. 이에 따라 대대적인 시장개방에 돌입
-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한 농림수산물 수출입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추진함
 - 이는, 첫째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농어촌에 대한 확고한 중장기 계획 추진, 둘째로 중장기 정책 방향하에서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당면 농어촌 문제를 해결을 강구, 셋째로 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농어촌공사 설립,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등 전업 지원 제도 추진을 골자로 함

(2) 2000년대 농업·농촌 정책

- IMF 외환위기와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농업·농촌정책은 패러다임을 달리하였음
 - 기존 농정 패러다임에서 정책대상이 농업이었다면, 참여정부에서는 농업, 식품, 농촌을 모두 정책 대상으로 아올렸고, 지원방식 역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적 지원을 추진했다면, 농가유

형별로 맞춤형, 차별적 지원을 추진하였음

- 그밖에 투유자 방향으로 생산기반 등 SOC에서 소득, 복지, 지역개발로 다양화되었으며, 소득 안정 수단도 가격지지 방식에서 소득 보전 방식으로 바뀌었음
- 정책의 중점이 과거에는 생산 중심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비자 안전 및 품질로 옮겨갔으며, 농촌의 성격도 농업생산 공간에서 생활, 정주, 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음

(3) 2010년대 농업·농촌 정책

-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농업에서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모두 아우르게 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 세계적 저성장, 고령화 등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율성 위주에서 효율성과 형평성·국민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두 트랙 접근 필요
 -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융복합 및 생산·가공·관광 등이 결합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
- 농업 경영체·농촌공동체·지자체의 자조·자립·협력 및 농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
- 새로운 농정은 기술개발 및 ICT·B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 소외계층 배려와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해 농업문제 완화
- 경쟁력·소득·복지 3대 핵심 축을 기초로 통합적 배려농정 추진
 - (농업) ICT·BT융합 창조 농업 및 6차 산업화, (소득)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영안정, (복지) 지역·부처 연계 및 생활 체감형 복지 확충
 - 쌍방향 맞춤형 정책 및 지방농정 등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
 - 공감·협업·창의·성과·현장농정 등 행복농정을 통해 새로운 농정 뒷받침

(4) 농업·농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농촌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
- 농촌다움(rurality)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농촌 지역의 미래 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확산

[표 30]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현제의 농촌정책 및 전략	미래의 농촌정책 및 전략
정책 수준	철 학 • 분야별 정책방향 설정되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한 철학 취약 ※ 고전적 의미의 경쟁력 중시	• 농촌다움(rura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경쟁력의 재정의(농촌다움이 경쟁력)
	범 위 • 분야 : 산업(경제), 복지 • 정책고객 : 농업인 중심	• 분야 : 산업(경제), 복지, 농촌(자연)자원 • 정책고객 : 농업인, 지역주민, 도시민
	시스템 거버넌스 • Top-down 방식 (폐쇄적 분절형, 권위주의형)	• Bottom-up 방식 (개방적 네트워크형, 민주·자율형)
전략 수준	중앙정부 역할 • 단위사업까지 개입	• 지역 중심 성과 지향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평가, 환류 강화
	사업(예산) 구성 • 편중(하드웨어, 단기사업 위주)	• 균형(소프트웨어, 중장기 지식·통계 인벤토리, 장기적 체질강화)
	제도(법) • 농업과 농촌 혼재 (농업>농촌)	• 농촌부각 (농업<농촌)
관리 수준	정책지표 (indicator) • 인구, 소득 등 일부 지표	• 농촌다움, 지속가능성 등 포괄 다양한 지표
	추진방식 • 개별사업 위주	• 지역특성을 살리는 포트폴리오(사업군) 방식

출처 : 지역발전 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 정책의 범위가 농업인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경제와 복지 향상 중심에서 경관·생태 등 녹색성장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
- 정책의 성과지표 설정에서 인구와 소득을 중심으로, 정량화하던 방식에서 농촌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지표로 확장
- 중앙정부에서 단위 사업까지 개입하던 방식에서 지역중심의 성과지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강화
- 지자체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개방적 네트워크형 정책을 표방
- 하드웨어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 강화에 노력

3. 경상북도의 바이오산업육성

1) 바이오산업 분류와 육성 방향

- 바이오산업은 세부적으로 레드바이오산업, 화이트바이오산업, 그린바이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어 세계 각국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태
- 레드바이오산업(red bio-industry)은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의료 부문에 바이오기술이 접목되어 나타나는 산업으로, 혈액의 붉은색을 본떠 붙여진 명칭으로 질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신약 개발, 진단시약, 줄기세포 등이 포함
- 화이트바이오산업(white bio-industry)은 산업 생산 공정에 바이오기술이 응용된 산업으로 옥수수, 콩, 사탕수수, 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
- 그린바이오산업(green bio-industry)은 바이오기술이 농수산산업 분야에 응용되어 기능성소재와 식물 종자,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정의



[그림 55] 바이오산업 분류

- 경상북도도 지역의 기반을 근거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비슷한 형태여서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2011년부터 SK케미칼이 안동 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상북도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기업규모와 관련 전문 인력의 분포는 타 지역과 비슷한 실정으로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기회 필요성 요구

- 경상북도 내 식품업체는 전체 기업체 수는 총 2,194개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지역 특산물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업체가 23개 시·군 중 11개 지역(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에 있음
- 경상북도 4년제 대학 중 식품 관련 교수가 존재하는 대학은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5개 대학이었으며, 식품 관련 세부전공 등이 존재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 분야는 식품 가공인 것으로 파악
- 경상북도의 화장품 제조업체는 전반적으로 업체 수가 많지 않으며 주로 경산을 중심으로 업체가 군집되어 있음

2)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육성

○ 경상북도는 안동 인근지역을 백신산업 전략기지로 육성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바이오·백신 산업 육성을 목표로 2005년부터 바이오·백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꾸준한 기틀을 다지며, 2012년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와 2016년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유치에 성공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참여하는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사업으로 A형 간염 백신 및 A형·B형 간염 혼합백신을 개발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2021년, 백신상용화지원센터가 2022년 완공되면 안동 바이오·백신 시티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 세계 유일의 국가백신대행시설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세계 백신기업·재단·연구소 및 국내 백신 기업(중소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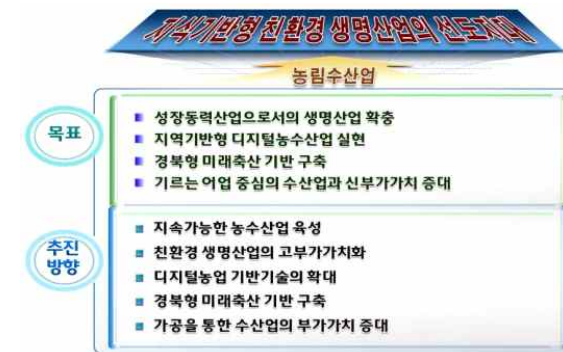
3) 경상북도 농림수산업 정책

○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에서 농림수산업 부문은 '지식기반형 친환경 생명산업의 선도지대'를 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

- 농업의 상대적 비중 저하,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활력 저하, 농의소득 중심으로의 전환,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타 지역에 비한 지역 식품산업 생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목표: 지식기반형 친환경 생명산업의 선도지대
 -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생명산업 확충

- 지역 기반형 디지털농수산업 실현
-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 기르는 어업 중심의 수산업과 신부가가치 증대
- 산림자원의 고부가 활용

○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친환경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디지털농업의 기반기술 확대,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가공을 통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용방안 모색으로 설정함



[그림 56] 경상북도 농림수산업 부문 목표와 추진 방향

4. 예천 농업 환경 변화와 대응

1) 통합신공항과 주변 교통망 발달

- 예천군 주변 지역의 도로 및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국내 대도시 지역의 친환경 신선농산물 공급지로서의 경쟁력 구비하고 있으며, 예천군의 친환경 이미지는 신도시에 입주민의 우수 친환경 신선농산물 소비수요 충족과 인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신공항건설을 대비한 농업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을 비롯한 국제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국제인증 확대하면, 국내 소비시장에서의 위상증대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항공운송망과 연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 효과 기대
- 예천군이 갖는 문화·체육 도시 이미지 정착과 발전을 위한 경관농업 단지 조성으로 예천군

곤충도시 *Clean* 예천

곤충도시 Clean
에듀

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사육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 초기 시설 투자비용은 많겠지만 악취 등 환경 문제가 개선된 양돈단지 조성 연구와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은 예천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이며, 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 첨가물 개발과 사육 시설 개선 등 시범 사업장 조성을 통한 기술 보급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수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돈 단지 조성이 필요함

5) 자연생태원을 통한 친환경 도시 강조

- 리모델링이 필요한 곤충생태원 활성화 방안으로 곤충 생태원을 ‘(가칭) 예천자연생태원’으로 개편하여, 토종 농작물과 우리나라 전통 가축(동물) 전시 기능 추가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자연생태원은 곤충생태원과 토종농작물을 수집 전시하는 농업생태원 그리고 토종가축(대동물, 중소동물)을 사육 전시하는 축산생태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예천군의 친환경 이미 지 확립과 전통농업테마파크 관광자원으로 육성 필요
- 건강한 먹거리 수요 증가와 함께 기능성 잡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토종유전자원 전시를 통한 신규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농가 지원 필요

6) 예천군 농업·농촌 정책 동향

-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은 ‘강소형 도농복합도시’라는 비전하에 경북중심, 경제성장, 가치창조, 행복공동체 4대 핵심전략계획을 설정함
 - (경북중심) 미래예천 기반 조성
 -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가치창조) 고부가 도시브랜드 확립
 - (행복공동체) 활기찬 지역사회 강조
- 미래핵심전략 중 농업 농촌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중 ‘예천 미래 농촌 혁신 프로젝트’에 포함됨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농촌 정책 중요성 증가, 지역 역량에 기반한 상향식 농정 거버넌스 강화 필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강조, 다기능 농업의 등장 등 변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 1) 예천형 농촌발전모델 개발

-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지역개발 정책들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확립
- 산발적으로 중복되는 중앙정부 관련 사업을 마을 혹은 읍면 단위로 체계적·통합적으로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시범 지역 선정 및 지역발전 계획 수립
- 예천형 농촌개발 시범사업 추진
- 2) 예천군 농촌혁신지원센터 설립
 - 예천형 농촌개발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예천군 농촌혁신 지원센터’ 설립
 - 예천군 농촌혁신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수립
- 3) 치유농업 육성 사업 추진
 - 치유농업 연구센터 및 치유농업 전문가 과정 개설
 - 치유농장 육성 사업
 - 치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 4) 청년일꾼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젊은 인력 육성
 -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과 역할 확대
 - 청년일꾼 함께 일하기 사업
 - 청년 사무장 지원 사업
 - 영농정착자금 보조 지원



[그림 59]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 부문별 사업 계획 중 농업 농촌은 '소득이 늘어나는 혁신농업도시'에 포함됨

- 예천 농산물 통합 마케팅
 - 예천통상 설립
 - 예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 참기름 6차산업 브랜드화
 - 참기름 공동가공센터 설립
 - 참기름 협회 설립 & 품질 관리 규약 제정
 - 예천 참기름 공동마케팅
 - 예천 참깨 공동수매 지원
- 과수 선진화 특화 밸리 조성
 - 국가 과수종묘 선진화 특화지구 조성
 - 친환경 과수 생산·인증 종합센터 건립
 - 과수 친환경 생산체계 혁신 지원
 - 과수산업 연계 지역특화 6차 산업단지 조성
- ICT 첨단 스마트축산 육성
 - (생산) 스마트 청정농장 조성사업
 - (유통/마케팅)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지원 사업
 - (6차산업) AI 기반 미래형 농식품 가공공장 시범사업
- 스마트 농업시설 생산단지 조성
 - 스마트 농업 시설·자재 생산단지 조성
 - 스마트 농업 실증지원센터 건립
- 솔라셰어링(영농형 태양광) 시범 및 확대 보급
 - 솔라셰어링 시범사업
 - 솔라셰어링 확대 보급 사업

5. 시사점

- 정부와 경상북도의 농축산업 분야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조에 대응하여 스마트팜 기반의 농산물 신소재 산업 육성을 미래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
- 농업의 4차산업화 및 스마트기술 고도화를 통한 예천군 도시 이미지 제고
-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예천군에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열대채소 선별 및 지역적응 연구를 통해 재배 실패요인을 최소화 한 재배 보급화 전략이 필요함
- 향후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에 활용 가능한 농작물 우선선정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준비
- 식자재를 소비하는 구매자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친화식품, 면역력강화식품, 친환경 신선채소 등 시장성이 높은 작물에 집중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함
- 선진화된 기술력 도입 및 친환경 농작물 재배로 청정 예천군 지역 이미지 제고 가능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스마트농축산업 · 청년농업인육성 · 농축산서비스산업 · 농식품벤처산업 · 농산물수출시장개척 · 치유휴양산업 ·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 외식산업 외연확장 · 농업생산 유통, 소비 플랫폼 구축 · 농촌산업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첨단 융합기술로 경북농업문제 해결 - 기후변화와 농식품산업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 맞춤형 농식품 소비로 건강한 식생활 가능 - 농업 다원적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스마트팜 기반 농산물의 신소재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열대채소의 선별과 선점 그리고 육성 대체식품 메디푸드 육성 - 환경 및 사회변화에 대응 통채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확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농업 육성

[그림 60] 예천군 농업농촌 메가트렌드

제5절. 지역개발

1. 지역개발 정책의 메가트렌드

1) 1960~70년대: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 이 시기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 경제발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도로, 항만,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치중
 - 당시 지역개발은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
 - 특정 지역개발 시책은 산업화를 촉진하거나 국토의 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치중
- 투자의 효율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이 됨. 투자의 효율성 기준은 공간 전략에도 적용되었음
 -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 입지와 국토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전략을 채택
 -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 제품 판매,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 접근성과 물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성이 있는 서울-인천, 울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
- 잠재력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 대책 이후 정책적 관심 사항이 됨.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정책적 제도와 방안들이 제시되기 시작
 - 1972년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공공기관 이전 및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 1977년에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구상
 - 이 당시에 수도권 정책은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치중한 반면, 실천적인 집행은 미흡

2) 1980년대: 경제정책 보완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정책 목표의 전환이 이루어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업기반이 정착 단계에 이르면서 국가의 정책 목표도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개발의 상대적 중시로 전환되었음
 -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환경 훼손 및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이 증대하였기 때문

- 1980년대의 공간개발정책은 경제성장 위주 정책으로 초래된 공간적인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 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데 치중
 - 지역개발 수단도 경제적 하부구조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주택,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을 병행하는 보다 균형적인 전략이 채택
-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한 기존의 특정지역 개발 계획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
- 수도권 집중 억제 및 후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와 수단이 마련됨
-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의 제정으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활동의 집중 억제 수단으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설 억제, 대학정원의 규제 조치와 함께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이전촉진권역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4년에는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이 수립되어 인구 집중 억제와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3) 1990년대: 세계화, 지방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 문민정부의 출범 후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수립·집행되어 왔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폐지되고, '신경제5개년개발계획' 이 수립
- '신경제5개년개발계획' 은 정부주도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과 달리 민간 부문의 창의와 선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자율시장 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
 - 이를 위하여 공정 경쟁 체제 도입, 시장 기능의 활성화, 정부 규제 완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환경 및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
-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기술 혁신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 개방적 국토 공간구조 형성을 위하여 연안 지역의 신산업 지대 등 생산과 물류거점을 조성하여 내륙지향적인 공간구조를 점차 해양지향적인 공간구조로 전환을 시도
 - 연안 거점은 지방의 국제적 직교류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추진
- 세계화시대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일 도시 중심의 성장 거점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 거점의 개발과 육성에 치중

- 이를 위하여 신산업지대와 주변 도시지역, 그리고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 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계 하는 광역권 개발 계획을 추진
- 1990년대 지역 개발 정책 추진의 주요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적인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창의주도를 통한 분권화된 자율적인 추진 방식의 도입
- 이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민간자본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추진

4)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지역개발 트렌드

(1) 불균형 성장 속에서 소득수준 격차 완화 추구

-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은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간 소득격차는 초기에는 증가되다가 점차 완화
- 생산의 집중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장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생산은 더욱 집중 되는 추세
- 제조업체의 경우 초기에는 대도시에 집중되다가 대량생산단계로 이행하면서 생산조직이 중소도시 로 이전되는 경향, 서비스 업체는 대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경향
- 생산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생산 집적지로의 인력 이주에 따른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 각종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사회계층간) 등으로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들

(2) 3D(높은 Density, 낮은 Distance와 Division)의 추구

- 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제 지리적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함
- 생산의 집중 (높은 density)
 - 생산이 집중되어야 집적효과(agglomeration)를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도시는 집적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체)
- 시장까지의 거리 단축 (낮은 distance)
 - 시장까지의 거리(상품자금·정보의 이동속도)가 짧아야 성장지역으로부터의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를 누릴 수 있음
- 주변 지역(세계시장 포함)과의 통합 (낮은 division)
 - 주변 지역과의 교역장벽이 낮아야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

-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발전(급속한 비용절감)은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가속화

(3)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

- 지역정책은 제로섬 게임(생산의 지역 간 이전)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으로 인식되어야 함
- 각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화함으로써 균형 발전 및 전체적 국가 발전 도모(포지티브 게임)
- 지역 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보조금(지역 간 자원의 이전)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에 내재된 자원의 활용을 통한 시장원칙에 입각한 지역경쟁력 제고 에 초점이 이동
- 보조금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은 자생력 확충에 근본적으로 한계
- 중앙·지방(광역·기초)정부 및 이해 관계자를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됨

2.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1)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조 및 추진 시스템 변화

(1) 개요

- 전후 복구가 끝나고 60~70년대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서울, 부산 등 핵심 '성장거점'에 의한 지역발전 추구, 산업화/도시형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대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 2000년대 들어 집적 이익을 분산하고 지역 격차를 교정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 역발전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은 노무현 정부로 2003년 출범
- 1990년대까지의 효율성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이 지역 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으로 정책의 기초가 변화하였으며, 균특법 제정과 함께 통합적 지역발전의 추진체계가 도입됨

(2)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조 변화

- 수도권 과다한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을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로 설정
- 정책목표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화'이며,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설정하고, 균형정책, 혁신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의 5대 세부정책 추진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가 균형발전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신지역발전체계로 전환
 - 신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로 설정하였고, 핵심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정책 추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정책으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세를 확충하였고, 200여개 국고보조사업을 22개 포괄 보조 사업으로 통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지역행복(HOPE) 프로젝트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설정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정책비전 하에서 연계성이 높은 지자체들 간 자율적으로 63개 지역생활권 설정
 -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 간 연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마을사업, 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역점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분권, 포용,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제시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3대전략, 9대 핵심과제를 제시
 - 3대 전략은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구성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시스템 변화

- 참여정부는 계획체계-추진체계(조직, 예산, 거버넌스)-지원체계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계획체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시책을 망라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 수립
 - (추진체계) 중앙단위에서는 부처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분산적 추진 방식에서 통합적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지역 단위에서는 민/관/산/학의 협의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도록 별도 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지원체계) 국가직 아젠다인 균형발전을 모든 주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된 시스템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주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되고 일관된 시스템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체계 구축
 - (계획체계)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지역발전계획과 광역위원회가 수립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 (추진체계) 이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를 묶어 7개 광역경제권 발 전위원회 설치, 지역혁신협의회 폐지 및 임의기구인 지역발전협의회로 격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22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지원체계)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균특법 개정
 -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등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균형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계획, 조직, 재정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가 중앙 주도적 시스템으로 변화했다는 한계
-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 생활권 협의회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계획체계)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이명박 정부의 광역발전계획을 폐지하고 시도발전계획 부활
 - (추진체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가 지방에서의 지역발전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기능과 역할을 환원, 지역생활권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축으로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
 - (지원체계) 특별회계의 명칭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 계로 변경
 - 지역발전정책의 주민 삶의 질,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책 내용이나 예산규모 등에서 사업이 빈약하고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소홀
-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복원하고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 하고자 균특법 개정
 - (계획체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발전계획을 구성하는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시·도 발전계획 수립

-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의 지역혁신 체계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 주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
- (지원체계)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균특법을 개정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복원, 재정분권에 따라서 균특회계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 및 계정 변화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실제 구현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2005년에 탄생
 - 과거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토특회계 등 타 특별회계사업 및 일반회계사업 등 7개 계정 관련 사업들을 통합·흡수함으로써 조성
- 과거 지역개발계정(현 지역자율계정)은 주로 낙후지역, 즉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개발 등 지역 간 차이를 시정하는 사업을 포함
 - 과거 지역혁신계정(현 지역지원계정)은 주로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 되고, 광역적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을 포함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및 자원배분체계 변화

- 균특회계는 현재 지역지원계정(과거 지역혁신계정)과 지역자율계정(과거 지역개발계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지원계정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역자율계정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시도에,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시군단위에 재원을 배분
- 초기 균특회계는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200여개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여 24개의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되었음
 -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체계는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은 바뀌었으나 편성사업이 다소 달라졌을 뿐 그 운용방식은 비슷함
 - 2010년 19개 시도자율편성사업과 5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된 19+5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용되었던 광특회계는 2015년 지특 회계로 개편되면서 20+5 포괄보조사업으로, 이는

다시 2019년 균특회계로 개편되면서 37+6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

- 2019년 4월 현재,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에 의거 균특회계 일부사업이 지방에 이양됨
 - 2019년 37+6개 균특회계 포괄 보조 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15+5개로 축소, 개편
 - 특히, 지역자율계정 중 37개 시도자율편성사업은 15개 포괄 보조 사업으로 축소,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됨
- 균특회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비를 매칭(matching fund system)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균특회계 포괄 보조 사업별 보조율은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사업별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공간별로 상이한 보조율(30~70%) 적용
- 재원배분기준은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기재부가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지출한도를 산정하여 배분
 -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은 계속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재정수요 (30%)인 인구조차 면적, 낙후도 요소(70%)인 지방소득세와 재정력지수, 고령 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기재부가 5개 포괄보조사업의 지출한도액을 산정하면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시군구별 지출한도는 계속소요만 해당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소관부처별로 지출한도를 통보
- 지역지원계정사업은 기재부에서 부처별로 지출한도액을 배분하면 각 시도의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처가 예산을 신청

3. 경상북도 지역개발의 정책 트렌드 변화

1)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 김해평야와 낙동강 및 남강연안 유역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고 울산, 부산, 진해, 마산, 삼천포를 공업대상 지역으로 개발 육성하여 국제진출로의 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
- 농업적 토지자원이 풍부한 낙동강 중하류 연안 및 남강 연안의 평야와 김해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개시설의 개선 경지정리 농로건설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
- 김해 금남지구의 간척으로 농경지를 확장하며 경제작물의 재배와 주산단의 개발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

- 남해안의 어패류 및 양식장을 개발 보전하기 위한 동남해안 공업지역에서 유출되는 수질 오염 방지책을 강구
- 부산, 울산, 마산, 삼천포를 대규모 임해공업지로 개발 육성하여 정유, 석유화학, 제강, 기계, 비료 등 중화학공업을 유지하는 동시 사천, 진주 등 내륙으로 공업의 계열화를 도모하는 한편 C.T.S. 개발로 이 지역이 국제 진출의 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산청, 하동지구의 고령토와 물금지구의 광물을 개발
- 남해안 고속도로와 마산-대구 간 고속도로의 건설 및 부산 경주간의 산업철도의 전철화를 도모하는 동시 부산항의 대대적인 개발과 울산, 마산, 삼천포항을 개발 정비하여 임해공업을 적극 지원
- 또한 김해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부산항과 더불어 국제간 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합천댐 건설과 낙동강 및 그 지류의 하천 개수와 조림사업을 강화하여 홍수조절과 농토를 보호하는 동시 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과 부산 마산 등 주요도시에 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
- 특히 울산공업단지의 부족 용수를 낙동강 물금지구에서 유역 변경식에 의하여 공급
-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인사, 통도사 등 주요 문화재 보전에 역점을 두어 관광자원을 개발

2)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 저점개발정책에 의한 공업화 추진으로 대도시와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적으로 과밀, 과소현상을 초래
- 지역생활권 구상은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려는 국토정책으로서 지역단위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주민이 배후 농촌지역을 결합시킨 일정 범위의 지역단위로서 그 지역 내의 생산, 생활,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권역인 동시에 주민의 제반 편의시설의 공동 이용권역이라 할 수 있음
- 예천군은 안동생활권으로 묶어, 중심도시는 안동으로 하여 생활권을 구성
- 지역생활권 중심도시에는 그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주민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

- 중심도시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새로이 유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확충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게 하고 취업기회의 확대에 따라 신규로 소요되는 인력을 1차적으로 지역생활권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생활권 조성의 선도적 수단으로서 생활권내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확포장을 통하여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 간의 접근도를 향상하도록 함
- 특히, 생활권 중심도시와 배후 군 중심도읍간 및 생활권 중심도시간의 접근도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 대구의 중추기능 강화 및 광역도시권의 합리적 관리하고 개발부진지역인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
- 남북 및 동서 산업축의 개발과 산업구조 개편 및 기술을 고도화 추진
- 지역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전 강화
- 대구광역도시권 내의 업무단지와 한의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업무, 정보, 금융, 국제, 교육, 문화 기능을 확충
-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및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경산, 달성, 칠곡, 왜관, 영천, 청도, 성주 등에 공업, 교육, 연구, 근교농업, 위락기능 등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개발
- 구미지역에 연구단지 조성 및 공대 육성
- 대구중심의 방사, 순환형 광역교통망과 복합유통단지 조성
- 안동, 상주, 점촌, 영주 등에 중소공단을 조성하고 농업가공기능을 중점 육성
- 주왕산, 안동, 동해안 및 상주를 연결한 관광, 위락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을 진흥
- 남북 및 동서 간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접근성 제고

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포항, 구미, 경산, 안동 등 지역거점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네트워크 추진

-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정보통신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거점인 텔레포트를 건설하고 시군마다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 구미 등 중서부내륙은 국가 과학 산업이나 기술혁신 지향적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 기반산업을 육성
- 경산 등 남부도시지역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테크노파크와 섬유기계단지 등 관련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지식 섬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국제유교문화제, 경북문화산업비전을 추진하는 등 문화의 세계를 선도하는 사업을 추진
- 경주 등에 컨벤션센터를 건설하여 국제회의도시를 육성하고, 문화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의 문화지식산업을 육성하며, 영상, 음반,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개발
- 북부권의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동해안 지역을 연계하여 세계문화, 해양 관광지대로 개발
- 북부자원권(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영양, 예천, 봉화)은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지식 및 벤처농업의 거점지대로 육성하며, 북부권 개발촉진지구로 추진
- 울진공항(경비행장)을 건설하고 포항, 예천공항 등 기존 공항을 확충하여 항공수요에 대처하며, 울릉도 항공교통시설망 확충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도청 신도시권은 경북의 행정중심도시로서 북부지역의 거점기능 수행
- 도청 신도시는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서 행정, 교육, 문화, 유통 등 고차서비스 기능 수행
- 안동은 유교문화권 중심도시, 영주는 고품격생태관광휴양도시, 문경은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서 역할 정립
- 상주, 문경 등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활용한 녹색 산업문화관광산업 육성
- 대경권 거점 조성, 중소도시 소프트 인프라 강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신도청 도시 및 KTX 역세권(동대구, 신경주, 김천) 개발, K2 이전 및 적지 개발, 도시 재생 등 주요 사업 추진

- 교통망이 취약한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대하여 국가 기간 교통망의 조기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동서5축(영주-울진), 동서6축(상주-안동-영덕), 남북6축(영천-청송-양구), 남북7축(울산-포항-영덕-삼척) 간선도로망 건설
- 주력산업 첨단화 및 뿌리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산업벨트 조성
-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화발전, 로봇 등 IT융복합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복합단지 육성 추진
-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유교문화자원과 백두대간 천혜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녹색산업의 허브로 육성
- 국제 유교문화 허브, 로컬 푸드, 웰빙 온천, 슬로시티 등 백두대간의 청정비즈니스화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기반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북부권은 생명, 바이오, 신소재벨트 조성 및 도청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 추진
- 균형발전거점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북부권은 문화, 복지,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청신도시를 명품도시화
-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경북형 상생발전모형 정립
- 경북형 농촌개발 모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및 확산
-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산학관민 협력형 신농촌 발전모형 정립
- 농산촌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스마트교통체계 도입과 공유교통체계 확산
- 지역별 특화개발 지구 조성과 기존 시가지와 상호보완적 기능 배분, 공공자원배분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 등 도시 간 연계성 강화
-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녹색주거환경 조성, 빈집 주택재고 관리 강화 및 공공임대사업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
- 중소도시 수준의 농산어촌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 고령친화형 생활 SOC 확대 및 노인 여가 시설 등 사회 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
- ICT 기반 원격 의료 거점기관 설립 및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 미래형 이동수단 부품소재 산업기반 강화 및 차세대 배터리 집적단지, 무선충전산업기반 강화, 퍼스널 모빌리티드론항공 부품산업 육성 검토
-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사성폐기물 분석, 연구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사성 융합기술개발 전문기관 설립 등 원전산업 전 주기 발전 거점 조성 검토
-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에너지 특화 융복합단지, 지능형 에너지자립 단지, 전력 빅데이터 신산업 등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검토
-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세계적 연구개발 인프라 및 벤처밸리 조성, 인공 지능 가전산업 육성, 5G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전력 반도체, 로봇 생산연구 기반 강화 검토
- 고기능성 철강소재 산업 육성, 첨단 베어링, 탄소, 타이타늄, 그래핀, 인조 흑연 등 미래형 신소재산업 육성 검토 -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백신, 화장품, 청색기술, 천연물신약, 지능형 실버케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거점 조성 검토
- 스마트팜 혁신밸리, 곤충산업클러스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경북형 생태축산단지, 골드시드 프로젝트 등 스마트농업 전환 촉진 추진
- 백두대간 임산자원, 국가반려동물산업, 한약재산업, 힐링, 치유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가목재산업단지, 산림자원활용 관광단지 조성 검토
- 신라 천년고도 경주 문화유적 및 왕경 복원과 가야문화권 관광거점, 선비, 유교문화 관광거점 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 ICT 기술과 문화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지역별 관광거점도시와 승마, 경마 관광자원 개발 등 말산업 육성
- 동북아 및 환동해권 MICE 관광거점단지 조성, 국제크루즈 및 국제페리 관광거점 구축, 동해안 마리나항만 조성, 울릉도, 독도 접근성 개선
- 남북7축(포항~삼척)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동해선 고속철도 복선화(포항~강릉, 대구~포항 영일만 직결철도 등 남북교류와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동해안축 교통망 확충 검토
- 남북6축(영천~양구) 고속도로, 문경~경북선 고속철도(문경~김천), 남부내륙 고속철도(김천~거제), 중앙선 고속철도 복선전철화(도담~신경주) 검토 등 국토 내륙연결성 강화 추진
- 동서3축(대구~무주) 및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중부권 동서횡단 고속 철도(서산~울진) 등 동서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4. 예천군 지역개발분야 현황

- 예천군은 읍면지역 및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
- 각 부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그림 61] 예천 도시(지역)개발 현황-1

-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른 수도권 및 대도시 접근성 향상
- 국도 28호선, 34호선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 체계 형성
- 예천읍에서 경북도청신도시와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 준공으로 신도시와 원도심 연결 체계 구축
- 예천역 (1928년 개통)은 도로 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원거리 이용자들이 사용 중



[그림 62] 예천 도시(지역)개발 현황-2

5. 시사점

- 스마트시티와 녹색도시 등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천군의 도시 구성도 저탄소 녹색 친화도시로 변화해야할 시기
- 집약형 도시 전략, 교통체계 개선 등 군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구시가지 개선사업 등의 수행이 동반되어야 함
- 고령자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 고령자 친화형 안전 도시 조성,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함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최대한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SOC 확충 등을 통해 신공항 및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신공항과 예천군 사이를 잇는 광역버스노선 신규 개설,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래 신(新) 교통 시스템(드론 택시) 등을 선제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 조성 필요
-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전환, 첨단 교통수단 도입을 고려하여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 인프라 확대 필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활용	• 뉴모빌리티도시	•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집약형도시
• 집약형도시 전략	• 개발 거점중추도시	• 저탄소 녹색 친화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도시	• 제로에너지시티	• 고령자 친화형 안전도시 조성
• 재난안전도시	• 고령자 친화형도시	•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 창의도시	• 광역교통체계 개선	• 통합신공항 및 세종시와 접근성 강화
• 광역교통체계 구축	• 초고속 첨단화 교통수단 도입	• 수소버스 및 드론 택시 도입
• 친환경 교통체계 실현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 최첨단, 초고속화 기술 상용화	• 공학경제권 확장	
• 교통물류 거점 경쟁력 강화		

[그림 63] 예천 지역개발 메가트렌드

제6절. 문화·관광·체육

1. 세계 문화·관광 추세

1) 관광객 수 및 관광 수입

(1) 관광객 수

- 세계 경제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약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의 하나로 부상함.
- 경제성장 가속화, 저렴한 항공 이용비, 기술적 변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비자 촉진 등의 이유로 세계 관광객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유가가 안정되면서 항공 연결이 많아져 인도-러시아와 아시아-아랍 소규모 지역까지 관광 시장이 넓어지면서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은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국제관광 협력 포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OECD 국가에서만 GDP 4.2%, 일자리 6.9%, 서비스 수출의 21.7%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의 강력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2) 관광수입

-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UNWT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제 관광객이 급성장해 14억 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UNWTO가 예상했던 2020년보다 2년 일찍 달성될 정도로 국제 관광시장은 그 숫자와 지출규모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국제 관광객 수는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약 15억 명의 인구가 관광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관광지는 유럽으로 약 7억 1천만 명,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억 4천만 명으로 6%의 성장률로 관광객이 뒤를 이었으며, 미주지역 관광객은 2억 1천만 명으로 3위였지만 평균보다 낮은 3% 성장률을 보임
- 그 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각각 10%와 7%로 성장률이 높았지만 각 6천만 명으로 전체 관광 수요에서 비중이 적게 나타남
- 주요 관광소비 국가로는 중국이 지출액과 관광객 수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천5백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

한 수치이며, 관광 지출액도 3천1백억 달러로 전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소비 대국으로 나타남

[표 31]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현황

(단위: 백만 명, 십억 US달러, %)

연도	국제관광객수		국제관광수입	
	관광객수	성장률	관광수입	성장률
2000	681	2.56	496	9.11
2001	680	-0.15	482	-2.82
2002	700	2.94	482	0.00
2003	690	-1.43	524	8.71
2004	763	10.58	624	19.08
2005	804	5.37	680	8.97
2006	853	6.09	745	9.56
2007	904	5.98	857	15.03
2008	922	1.99	944	10.15
2009	883	-4.23	852	-9.75
2010	940	6.46	927	8.80
2011	983	4.57	1,030	11.11
2012	1,035	5.29	1,078	4.66
2013	1,087	5.02	1,159	7.51
2014	1,142	5.06	1,274	9.92
2015	1,195	4.64	1,222	-4.08
2016	1,241	3.85	1,246	1.96
2017	1,328	7.01	1,346	8.03
2018	1,403	5.65	1,448	7.58

자료: UNWTO, <Tourism Highlights>, 각년도

기준: 가격은 실질가격으로 환산

○ 주요국의 국제관광 지출액 및 관광객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 국가별 관광수입 현황

(단위: 백만 명, 십억 US달러)

순위	국제 관광지출액(US\$ billion)		비율(%)	관광객수
	2016	2017		2018
중국	250.1	257.9	19.2	62.9
미국	123.6	135	10.0	-
독일	79.8	83.7	6.2	38.9
영국	64.8	70.7	5.3	-
프랑스	40.3	41.4	3.1	-
호주	30.8	34.2	2.5	30.8
캐나다	28.9	31.8	2.4	21.1
한국	27.2	31.7	2.4	15.3
이탈리아	25	27.1	2.0	62.1
홍콩	24.1	25.5	1.9	29.3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6-2018)

주: 공란은 데이터 없음

(3) 관광 형태 변화

○ 머물며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및 호캉스(Staycation and Hocance)

- 거창하고 장기간의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피곤한 일로 그동안 장기간의 여행을 즐겨왔던 패턴이 이제는 일주일 이상의 여름휴가를 가는 것보다는 보다 짧게 여러 번 휴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 짧은 휴가를 연속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대신 집 또는 인근 호텔에서 간단히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혹은 호캉스(Hocance) 등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인스타그램 위주의 휴가(Insta-Holidays)

- 관광산업은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지에서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부분은 소셜네트워크에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Schofields' 라는 영국 리서치회사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세 미만의 응답자 중 약 40% 이상이 자신들이 휴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최우선 요소가 인스타그램미빌리티(Instagrammability)라고 답함
- 아트바젤(Art Basel)과 같이 아트작품들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던 또는 스냅샷을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건, 2019년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한(Social Media-Inspired) 여행이 보다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현대미술을 매개체로 해 핵심가치는 섬과 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다른 국제예술제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고 있는 일본의 세토우치국제예술제(Setouchi Art Triennale)는 2010년 세토 내해(Seto Inland Sea)의 7개의 섬에서 시작해 이제는 12개의 섬에서 150명의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봄, 여름, 가을로 나눠 개최되고 있음

○ 웰니스 위주의 여행(Driven by Wellness)

- 다차원적인 건강의 조화를 의미하는 웰니스 관광트렌드는 점차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Global Wellness Institute는 2022년까지 관련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은 피트니스 또는 스파 위주의 호텔 및 리조트에서부터 자연에 집중해 정신적 치유를 하는 여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여행들은 경험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활력과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해줌

○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여행(B-Leisure Trips)

- 업무위주의 일반적인 비즈니스여행에서 이제는 'B-Leisure' 여행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관광패턴은 관광객들이 비즈니스와 레저를 적절히 조합하는 일정을 가진 관광으로 전환

- Avis 렌터카의 최근조사에 의하면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87%가 비즈니스와 레저를 함께하는 여행을 선호하며, 응답자의 92% 정도가 휴가목적의 레저여행에서조차 일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이제는 비즈니스여행과 레저여행의 경계선은 점차 무의미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일지라도 더 많은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장소를 선호하게 됨

2. 국내 문화·관광 추세

1) 관광객 수 및 관광 수입

(1) 관광객 수

- 전국 관광객 수 추정치에 따르면 2005년 전국 국내여행 관광객 수는 151,282,625명으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2010년 82,386,112명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9년 204,861,576명까지 상승하였음
- 연평균 증가율로는 2.04%의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추정치는 아래와 같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동향>에서 15세 이상 총인구와 통계청, <사회조사> 상 국내여행 관광여행 참가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상 국내여행 참가자당 평균 관광여행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표 33] 전국 관광객 수 추정치

연도	15세 이상 인구	국내관광 참가율	1인당 관광참가 횟수	전국 관광객수 추정치
2005	39,759,000	57.74%	6.59	151,282,625
2006	40,248,000	57.09%	7.20	165,424,688
2007	40,763,000	55.80%	7.57	172,185,358
2008	41,273,000	60.30%	6.07	151,067,847
2009	41,751,000	64.80%	4.56	123,369,195
2010	42,206,000	64.00%	3.05	82,386,112
2011	42,636,000	63.20%	3.09	83,262,992
2012	43,038,000	65.15%	3.84	107,670,747
2013	43,426,000	67.10%	4.24	123,548,707
2014	43,801,000	44.60%	4.32	84,392,263
2015	44,131,000	66.70%	4.54	133,636,612
2016	44,387,000	68.65%	4.60	140,169,707
2017	44,600,000	70.60%	4.92	154,918,992
2018	44,796,000	69.90%	5.26	164,703,245
2019	50,954,000	69.20%	5.81	204,861,576

○ 아래는 1인당 국내여행 횟수를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표 34] 국내여행 관광객 수 추이

연도	총횟수	숙박여행	당일여행
2004	5.87	2.65	3.22
2005	6.59	2.79	3.80
2006	7.20	2.94	4.26
2007	7.57	3.00	4.58
2008	6.07	2.58	3.48
2009	4.56	2.43	2.13
2010	3.05	2.27	0.78
2011	3.09	2.14	0.95
2012	3.84	2.56	1.28
2013	4.24	2.79	1.45
2014	4.32	2.94	1.38
2015	4.54	3.04	1.50
2016	4.60	3.08	1.52
2017	4.92	3.23	1.70
2018	5.26	2.86	2.41
2019	5.81	2.86	2.9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는 2004-2008년, 2009-2017년, 2018-2019년으로 분절되어 있어, 시계열 단절이 있을 수 있음

(2) 관광수입

- 관광수입은 2007년 이전까지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나, 이후 급증하여, 2002년 5.90십억 달러에서 2008년 9.80십억 달러로 성장하고 2019년 21.60십억 달러까지 성장
- 연평균 증가율로는 2002-2019년 간 7.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35]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 추이

연도	관광수입	연도	관광수입
2002년	5.90	2011년	12.50
2003년	5.30	2012년	13.40
2004년	6.10	2013년	14.60
2005년	5.80	2014년	17.80
2006년	5.80	2015년	14.80
2007년	6.10	2016년	16.90
2008년	9.80	2017년	13.40
2009년	9.80	2018년	18.60
2010년	10.30	2019년	21.60

출처: 관광지식포털, <세계관광지표>

2) 문화시설 수 추이

○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각 도별로 1개 군을 선별하여 추세를 산정함

- 경기도 가평군(면적: 843.71km², 인구: 62,814명), 강원도 철원군(면적: 889.46km², 인구: 46,006명), 경상북도 예천군(면적: 661.38km², 인구: 53,611명), 경상남도 고성군(면적: 517.94km², 인구: 53,196명), 전라북도 부안군(면적: 493.53km², 인구: 54,125명), 전라남도 영광군(면적: 475.01km², 54,037명), 충청북도 옥천군(면적: 537.12km², 인구: 51,332명), 충청남도 서천군(365.62km², 인구: 53,660명) 등

[표 36] 문화시설 수 추세

(단위: 개소 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연 시설	공공 공연장	3	3	4	7	9	9	9	9
	민간 공연장	1	2	2	2	1	2	2	2
	소공연장	0	0	0	0	0	0	0	0
	영화관	0	0	0	1	2	2	4	4
전시 시설	미술관	1	2	3	7	7	7	7	7
	화랑	0	0	0	0	0	0	0	0
지역문화복지 시설	시군구민회관	1	2	2	4	4	4	4	4
	종합복지관	0	7	8	16	25	25	24	24
	청소년수련시설	0	1	3	7	8	8	10	9
기타 시설	문화원	3	4	5	8	8	8	8	8
	국악원	0	0	0	4	4	4	4	4
	전수회관	6	7	8	10	10	10	10	11
합계		15	28	35	66	79	79	82	82
인구 천명당 개소 수	0.09	0.13	0.13	0.15	0.18	0.18	0.18	0.19	0.19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3) 관광행태 변화

○ 클룩(KLOOK)이 전 세계 12개국 ‘프로 해외여행객’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설문 조사 및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행업계를 주도할 6가지 신흥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

- 혼행족(‘혼자 여행하는 사람’, 솔로여행): 클룩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클룩 플랫폼 내의 솔로 여행객 수가 31%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호주, 뉴질랜드, 홍콩, 중국, 영국은 모두 10% 증가). 이 중 중국의 경우 단체 여행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60%에 가까운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혼자 여행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ex, 쿠팡클래스, 자전거 투어 등)
- ‘액티비티’를 우선시하는 프로여행라: 목적지에서 여행의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는 것은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 2,400명 중 63%는 비행편과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전 특정한 ‘액티비티’에 대한 참석을 먼저 확인하고 있음. 특히 이들 중 54%는 뱃짓 구역 같은 계절적인 이슈나, 콘서트 혹은 스포츠 경기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튜브’ 여행: 여행의 또 다른 가이드북은 유튜브로 오직 글로만 느껴야했던 가이드북과는 달리, 마치 친구가 설명해주는 듯 한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곳곳을 누비는 ‘유튜버’들과 대리여행을 하며 예비여행자들은 만족감을 느낌. 또한 인기 유튜버가 다녀온 여행지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는 데, 예를 들면 지난해 한국의 인플루언서 마미손과 진행한 6개 도시투어는 해당코스를 그대로 따라 나설 만큼 인기가 높음

- ‘인싸여행’의 증가: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Fear of missing out’이란 뜻의 FOMO(포모)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데, 이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싸’ 역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음. 인싸(인사이터 Insider의 줄임말)란, 이른바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로, 지속해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자신의 여행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로 인한 관심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여행 액티비티 트렌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방식으로 재편되기도 함. 인싸여행족의 증가로 여행의 순간을 찰막하게 공유하는 짧은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의 성장으로 여행자들의 여행욕구를 더욱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손가락 여행’ (모바일 예약): 여행 역시 급격히 ‘모바일’에 의해 계획되는 추세로 클룩 조사결과에 의하면 밀레니얼 고객들(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의 70%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을 하는데, 이른바 ‘손가락 여행족’의 증가임. 특히 지난해 발행된 구글의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여행객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로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의 경우 이 비중이 87%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 즉흥 여행: 액티비티 중심으로 여행이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객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정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날씨에 따라, 혹은 기분, 몸 상태에 따라 자신의 여행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여행자들의 개별 여행에션 즉시 예약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2015.10~2018.9)간 블로그를 포함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빅데이터 약 264만 건과 함께 영향력 있는 여행 관련 온·오프라인 버즈량 데이터 총4만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2019년 국내여행 트렌드로 브리지(B·R·I·D·G·E)²⁾를 선정하였음

- B(Break the Generation Gap)는 다세대 가족여행을 의미하며, 국내여행에서는 멀티제너레이션, 즉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여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소셜미디어에서 국내여행 관련 키워드로 가족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요 여행사들 또한 효도관광 상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R(Recreational Activities)는 레저여행으로 축제, 체험, 행사와 같은 레크레이션 관련 키워드가 국내여행의 목적 및 활동부문 주요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서핑, 루지, 집라인 등 레포츠

1) Travel Daily, 클룩 2019 글로벌 여행 트렌드(이정민)

2) 일상과 여행이 서로 분리돼 동떨어져있던 것이 아닌, 다리(브리지)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나와 연결돼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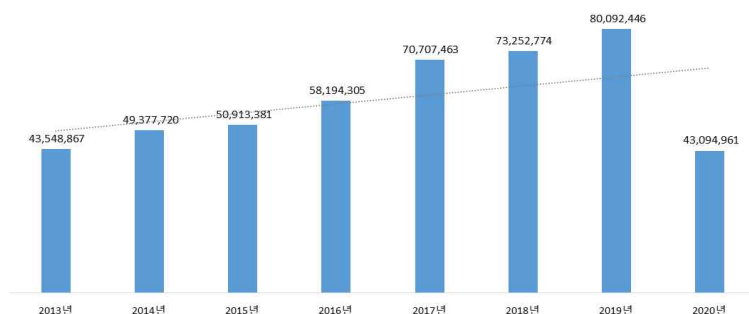
초도 여행지에서의 인기 액티비티로 꼽힘

- I(Influential Contents)는 SNS 여행콘텐츠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되고, 주요 여행지 및 여정이 결정되기도 하며, 특히 여행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성들을 사진뿐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해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업로드 됨
- D(Delicious Foods)는 맛집 탐방으로 국내여행 중 음식관광의 비율은 2015년 13.2%, 2016년 24.7%, 2017년 34.7%로 연간 10%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여행의 주요 목적 및 활동으로 맛집 및 카페투어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 특히, TV에 나온 음식을 찾아 떠나는 미식이 여행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 G(Go Anytime)는 연중여행으로 골목·시장·거리 등 일상과 가까운 친숙한 곳으로의 여행과 함께 비수기·성수기, 주중·주말 구분 없이 여행을 떠나는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 E(East Coast)는 동해안 여행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 경강선과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우수 숙박시설이 확충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우수 관광지로 인기가 높음

3. 경상북도 문화·관광 추세

1)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 경상북도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연간 총 입장객 수를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로 2013년 43,548,867명에서 2019년 80,092,446명으로 약 8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확인됨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데이터(2013-2020)
*주요관광지점별 입장객의 총합으로 중복 카운트 포함

[그림 64] 경상북도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경상북도 내 인기 주요관광지점으로는 2020년 기준 강구항(영덕군)이 총 3,204,903명으로 입장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문경시) 1,630,526명, 하회마을(안동시) 836,839명 등의 순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확인됨

[표 37] 경상북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순위	지역	지점명	유/무료	입장객(명)
1	영덕군	강구항	무료	3,204,903
2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무료	1,630,526
3	안동시	하회마을	유료	836,839
4	경산시	갯바위	무료	828,161
5	경주시	경주 토함산 (불국사탐방로 제외)	무료	819,668
6	경주시	경주 동궁과 월지	유료	809,649
7	경주시	대릉원	유료	725,769
8	경주시	불국사	유료	700,377
9	경주시	경주월드	유료	624,392
10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부석)	유료	566,984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지역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경상북도)

- 경상북도 주요관광지점 분류 현황으로는 관광장소 및 시설이 201지점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하였으며, 문화 관련이 77지점으로 전체의 23.8%, 자연 및 생태환경이 46지점으로 14.2%를 차지함

- 경상북도 내 주요관광지점 중 자연 및 생태환경 형태의 관광지가 가장 부족함

[표 38] 경상북도 주요관광지점 분류 현황

	지점수	누적 입장객	
관광장소 및 시설	201	16,075,669	
문화	77	7,468,371	
자연 및 생태환경	46	5,135,030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문화시설 추이

- 경상북도 지역 문화시설의 추세를 살펴보면 시설 합계는 2011년 140개소에서 2019년 256개소로 약 82.9% 증가함
- 2011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문화시설은 청소년회관으로 2011년 4개소에서 2019년 62개소로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대가 두드러짐
-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수는 2011년 0.05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2019년 0.10을 차지함

[표 39] 경상북도 문화시설

(단위: 개소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공연시설	공공공연장	27	28	36	37	38	31	39	40	48.2
	민간공연장	4	4	9	7	5	10	8	10	150
	영화관	19	19	17	16	20	21	28	32	68.4
전시시설	미술관	6	7	9	10	13	11	6	11	83.3
	화랑	5	5	6	16	20	25	5	26	420
지역문화 복지시설	시군구민회관	27	27	18	20	19	18	13	14	-48.2
	종합복지관	17	17	19	13	15	26	28	26	52.9
	청소년회관	4	2	5	8	12	67	65	62	1,450
기타시설	문화원	23	23	22	22	23	23	23	23	0
	국악원	-	-	-	-	-	-	-	-	-
	전수화관	8	8	9	11	13	19	7	14	50.0
합계	140	140	150	160	178	239	176	247	256	82.9
인구 천 명당 개소수	0.05	0.05	0.06	0.06	0.07	0.09	0.07	0.09	0.10	-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증감률: 2011년 대비 2019년 증감률

4. 예천군 문화·관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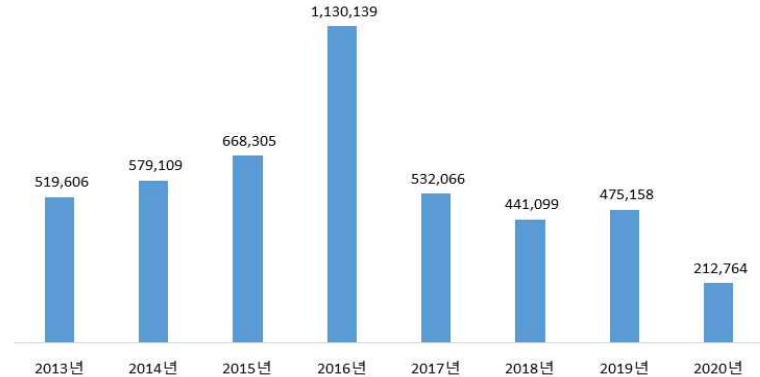
1)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 예천군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연간 총 입장객 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입장객의 급증으로 10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기록함
-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함

[표 40] 예천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주요 관광지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강문화전시관	-	-	-	-	-	-	-	16,318
예천군곤충생태체험관	74,479	87,877	80,195	691,893	67,606	66,603	82,360	28,325
예천목재문화체험장	-	-	-	-	-	-	-	3,479
예천온천	388,067	438,095	377,638	382,901	424,826	361,020	373,810	154,699
예천충효테마공원	21,925	22,870	187,462	33,493	22,730	242	0	331
천문우주과학공원	35,135	30,267	23,010	21,852	16,904	13,234	11,731	5,887
활기찬 예천! 활체험센터	-	-	-	-	-	-	7,257	3,725
연도별 총 입장객	519,606	579,109	668,305	1,130,139	532,066	441,099	475,158	212,764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데이터(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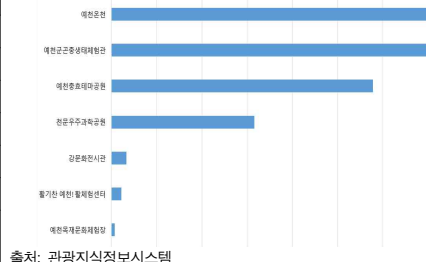
*주요관광지점별 입장객의 총합으로 중복 카운트 포함

[그림 65] 예천군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 예천군 내 주요관광지점 중 입장객 합계('13~'20)를 살펴보면 예천온천에 총 290만 명이상이 방문하였으며, 곤충생태체험관 110만 명 이상, 충효테마공원 28만 명 등의 순으로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확인됨

[표 41] 예천군 주요관광지 입장객 순위

주요관광지명	입장객 합계
예천온천	2,901,056
예천군곤충생태체험관	1,179,338
예천충효테마공원	289,053
천문우주과학공원	158,020
강문화전시관	16,318
활기찬 예천! 활체험센터	10,982
예천목재문화체험장	3,479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예천군 내 주요 관광지의 최근 3개년('18~ '20)의 월별 입장객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인 11월~2월까지의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인 6~8월은 상대적으로 입장객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 보편적인 휴가철인 7~8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름 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표 42] 예천군 내 주요 관광지 월별 입장객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50,049	50,521	44,749	39,214	41,585	23,472	6,849	24,377	38,093	37,424	38,624	46,142
2019년	48,026	43,821	44,052	42,822	41,081	30,456	14,767	34,283	32,571	43,081	41,424	58,774
2020년	51,771	28,835	-	-	5,988	17,785	23,555	22,530	443	18,382	26,583	16,892
평균	49,949	41,059	29,600	27,345	29,551	23,904	15,057	27,063	23,702	32,962	35,544	40,603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데이터(2018-2020)

*주요 관광 지점별 입장객의 총합으로 중복 카운트 포함

[그림 66] 예천군 내 주요 관광 지점 월별 평균 입장객('18~'20)

2) 예천군 축제 현황

(1) 예천 세계활축제

- 개요: '대한민국 활의 고장' 인 예천이 자랑하는 체험형 테마축제로 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전시, 국내·외 활 문화 교류 등 행사, 산 속에서 펼쳐지는 필드 아치리, 활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구성됨
- 축제 주제: 활로 하나 되는 세계
- 기간: 10월 중
- 장소: 예천한천체육공원, 예천읍 시가지 일원
- 주관: 예천세계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 행사: 거리 퍼레이드, 활쏘기 체험, 활 서바이벌, 필드 아치리(활사냥), 외국 활 시연단 공연, 세계전통 활쏘기 대회 등으로 구성함
- 터키,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29개국 선수 100여명이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활로 경기 진행
- 2019년 축제 기준 관광객 약 10만 여 명이 방문함



[그림 67] 예천 세계활축제

(2) 예천장터농산물대축제

- 개요: 예천 각 마을에서 정성스레 가꾼 우수 농·축·특산물을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대표 축제
- 축제 주제: 농업이 미래다
- 기간: 10월 중(3일간)
- 장소: 예천읍 시내 일원

○ 주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 축제내용: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한우 시식회, 추수감사제 전시 체험행사 등

- 2019년 기준 농산물 7억 8천만원 판매 성과를 달성함



[그림 68] 예천장터농산물대축제

(3) 예천세계곤충엑스포

○ 개요: 2007년 국내 최초로 곤충엑스포를 개최한 이래 2012년과 2016년에 개최된 곤충 엑스포는 세계곤충학회에서 '세계최대곤충박람회'로 인증받는 등 곤충산업분야에서 새 지평을 열었음

○ 2021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친환경 생태산업인 곤충산업을 발전시켜 미래 농촌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천 친환경 청정구역, 곤충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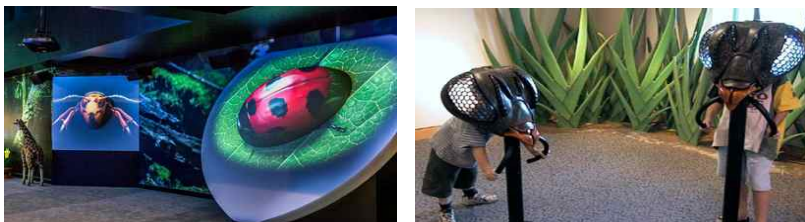
○ 주제: 살아있는 곤충 세상 속으로

○ 목적: 곤충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농산업을 활성화하여 예천군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함

○ 장소: 예천곤충생태원 및 예천읍 시가지 일원

○ 주최/주관: 예천군/(재)예천문화관광재단

○ 주요 프로그램: 주제관, 산업관, 희귀곤충관, 미디어파사드, 메인공연 등으로 구성



[그림 69] 예천세계곤충엑스포

(4) 예천용궁순대축제

○ 예천 대표 먹거리인 용궁순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로 5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있는 용궁순대로 시식, 만들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구성

○ 기간: 7월 중

○ 장소: 용궁면 읍부리 용궁전통시장 일원

○ 주관: 용궁축제추진위원회, 경북일보

○ 판매행사: 토끼간빵, 호박, 잡곡, 참기름, 오곡미초 등 지역특산물

○ 축제내용: 시식회, 만들기 체험, 농특산물 경매행사, 품바공연 등

- 2019년 기준 역대 최대 2만여 관람객, 50억 경제 유발효과가 추산됨



[그림 70] 예천용궁순대축제

(5)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 개요: 낙동강, 내성천, 금천 세 강이 합쳐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형에서 이름을 딴 삼강, 물과 사람이 모이는 나루터, 그리고 나그네 술 한 사발의 낭만이 흐르는 주막이라는 스토리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2년 연속 지정축제로 선정됨

○ 기간: 9월 중

○ 장소: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 일원

○ 주관: 예천군, 세계유교문화재단

○ 축제내용: 개막공연, 막걸리 시음·시식, 노래자랑, 주막퀴즈쇼, 보부상 체험 등

○ 부대행사: 캠핑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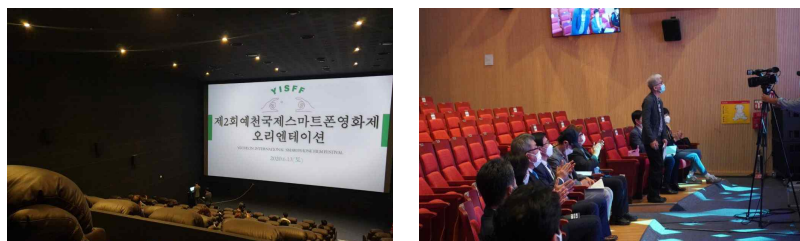
- 20개의 캠핑 사이트 운영 (삼강문화단지 캠핑장)



[그림 71]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6)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 개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 성격: 경쟁영화제
- 개최기간: 10월 중
- 장소: 예천 신도시 일원(호명면)
- 주최/주관: 예천군/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 성과: 해외 11개국 포함 530여 작품 참여 및 수상작 배출



[그림 72]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3) 주요 문화재·역사자원

(1) 국보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국보 제328호 2019.12.2. 지정)

-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응대선사(祖膺大禪師)가 만들었으며, 건립자, 건립시기, 건립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매우 드문 고대 건축물임
- 대장전은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팔만대장경의 일부를 보관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며, 불단 위에는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인, 후불벽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2호인 놓여 있음
- 윤장대는 대장전 불단 앞 좌우에 각 1좌씩 있으며, 높이 4.2m, 둘레 3.5m 규모의 화려하고 독특한 팔각 정자 모양 불교 공예품.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의 일종
-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당시의 불교 경장 건축의 원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 특징이 기록과 함께 잘 남아 있으며,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한 사례를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로 국내 유일이라는 희소성과 상징성이 큰 문화유산을 예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예천군 용문사 대장전



예천군 용문사 윤장대

(2) 보물

- 예천군이 보유한 보물은 총 22개로 소재 지역별로는 용문면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예천읍 23%, 감천면 9% 등의 순으로 보물이 소재하고 있음

[표 43] 예천군 보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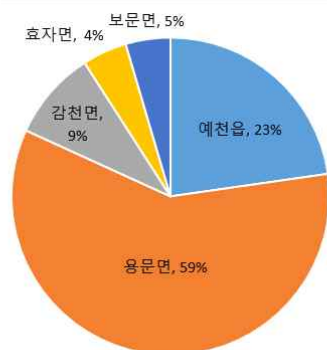
번호	보물명	장소	유형
1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예천읍	유적건조물/탑
2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용문면	유물/석조/불상
3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용문면	유물/석조/불상
4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예천읍	유적건조물/탑
5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예천읍	유물/석조/불상

6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용문면	유적건조물/주거건축/가옥
7	정탁 초상	예천읍	유물/초상화
8	정탁 문적 - 약포유고 및 고문서	예천읍	기록유산/민간문서
9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감천면	유물/금속조/불상
10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용문면	기록유산/국왕문서
11	대동윤부군옥목판 및 고본	용문면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관판본
12	권문해 초간일기	용문면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
13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용문면	유물/목조/불상
14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용문면	유물/금속조/불상
15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감천면	기록유산/전적류
16	예천 용문사 팔상탱	용문면	유물/불교회화
17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용문면	유물/불교회화
18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용문면	유물/목조/불상
19	예천 용문사 천불도	용문면	유물/불교회화
20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	효자면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21	예천 아웅정	용문면	유적건조물/조경건축/누정
22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보문면	유물/불교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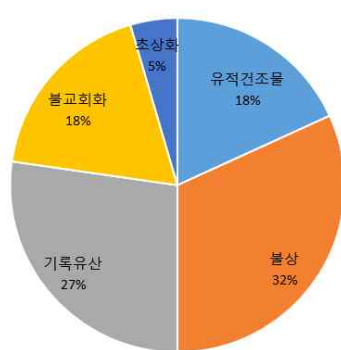
○ 예천군이 보유한 보물 중 불상이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록유산 27%, 유적건조물(탑, 가옥 등) 18%, 불교회화 18%, 초상화 5% 순으로 나타남

○ 용문면에 예천군 보물의 상당수가 위치함에 따라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함

[그림 73] 예천군 보물 현황



예천군 보물 소재지



예천군 보물 유형

(3) 명승

- 예천군에 소재한 명승은 총 세 곳으로 예천 화룡포, 예천 선몽대 일원, 예천 초간정 원림이 있음
- 예천 화룡포는 용궁면 대은리 42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곡류 하천 공격면의 가파른 절벽 위에는 화룡포 경관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뛰어난 경관 조망 장소가 마련되어 있음



예천군 화룡포와 전망대



- 예천 선몽대 일원은 호명면 선몽대길 74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4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으로, 한국의 전통적 산수미를 보여주는 내성천 유역의 대표적 경승지임

- 가묘, 개실, 정자와 단, 비각, 비 등의 시설물과 퇴계선생의 친필인 선몽대 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서예 유성룡, 약포 정탁, 김상헌, 이덕형 등의 친필시가 남아 있는 등 선인들의 유교적 전통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



예천 선몽대 일원



- 예천 초간정 원림은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문면 원류마을 앞 계류가 굽이쳐 흐르는 암반 위에 세워진 초간정과 주변 자연 경관이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 원림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명승임

- 초간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대동윤부군옥'을 저술한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초간 권문해(1534~1591)가 1582년 지은 정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권문해의 현손이 세운 것으로 정자는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 기와집



예천 초간정 원립

- 명승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경관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도가 매우 크므로 이를 관광코스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보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 과제임

4) 체험관광

- 예천군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코스로는 활쏘기, 충효, 농촌, 목재문화체험이 있음
- 활쏘기는 '예천 활 체험장'에서 체험 가능하며 실내 231.40m², 실외 991.73m²으로 조성되어 날씨와 계절과 상관없이 활 체험 복합공간을 이용 가능함
- 양궁(리커브), 국궁, 흡작활, 호버볼, AR 무빙타겟 활쏘기, 활 서버이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그림 74] 예천 활 체험장

- 예천군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7곳으로 각 지역의 농작물 경작체험 및 경작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됨

- 두부·인절미·밀랍초 만들기 등은 마을 당 중복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체험마을별 특색을 살려 프로그램 내용의 중복이 없도록 재구성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관광객들의 다양한 체험마을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4] 예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 구분	체험내용	위치
출렁다리 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만들기 체험	전통떡만들기+두부만들기+오미자푸딩+오미자청 담그기+각종 수확체험(감, 블루베리, 참외, 구찌 병, 감자, 고구마, 옥수수)+천연염색+밀랍초 만들기+ 나무문패 만들기+자연물공예+ 누에고치 공예+강정 만들기+서예체험	용문면 용문경천로 826
흰돌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만들기 체험	두부만들기+ 산나물채취+ +사과따기+ 사과잼만들기+손수건물들이기+다슬기잡기	효자면 제촌길 96
회룡포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만들기 체험 기타	천환경바이크+체험 인절미떡만들기+수제 잼만들기+화분만들기 +시골비빔밥 체험+농산물 수확체험+부채만들기	용궁면 회룡길 197
삼강주막마을	만들기 체험 기타	주막체험+ 떡메치기+ 양반자전거타기	풍양면 삼강리길 91
회룡포여울마을	농작물경작체험	작물심기+수확체험(포도)	용궁면 용개로 357
금당실전통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만들기 체험	밀랍초 만들기+인절미만들기+블루베리따기+사과따기	용문면 금당실길 118-32
유천국사골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만들기 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물공예+두부 만들기+고추장 만들기+연날리기+메뚜기잡기+모내기+벼 베기+김장체험	유천면 죽안길 136

5) 문화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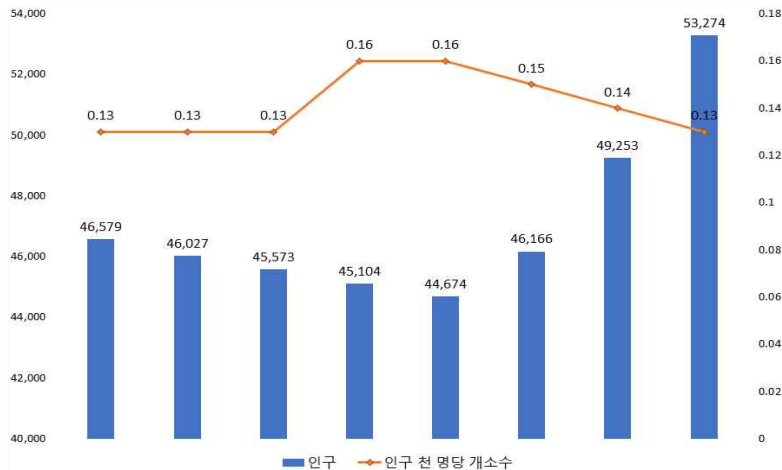
- 예천군의 주요 문화시설로는 공공·민간공연장, 미술관, 군민화관, 문화원, 전수화관이 있으며, 전수화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종합복지관이 부재하여 군민 복지 증대를 위해 기존 복지관의 확장 또는 신규 종합복지관 설립이 필요함
-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개소수는 2011년 0.13에서 2016년 0.16까지 증가하였으나, 예천군의 인구수가 증가하며 다시 0.13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따라서 증가한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문화시설 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표 45] 예천군 문화시설

(단위: 개소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연시설	공공공연장	1	1	1	1	1	1	1
	민간공연장	-	-	-	-	-	-	-
	영화관	-	-	-	-	-	-	-
전시시설	미술관	1	1	1	1	1	1	1
	화랑	-	-	-	-	-	-	-
지역문화 복지시설	군민회관	1	1	1	1	1	1	1
	종합복지관	-	-	-	-	-	-	-
	청소년회관	-	-	-	1	1	1	1
기타시설	문화원	1	1	1	1	1	1	1
	국악원	-	-	-	-	-	-	-
	전수회관	2	2	2	2	2	2	2
합계	6	6	6	7	7	7	7	7
인구 천 명당 개소수	0.13	0.13	0.13	0.16	0.16	0.15	0.14	0.13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그림 75] 예천군 인구 및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개소수

5. 문화·관광 정책 추세

1) 중앙정부 문화·관광정책 추세

(1) 1990년대 문화·관광 정책

- 1993년 6월 확정된 '신경제 5개년계획'에 관광진흥대책이 포함하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추진
 - 이 계획에는 1993년 대전 EXPO와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PATA 총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책이 포함
- 1994년 12월 23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국의 기능이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의 기능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관광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음
 - 관광 기능이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관광정책은 기존의 하드웨어적 개발 정책 이외에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를 지정·지원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이미지를 개선·고양하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발 정책을 추가하기 시작하는 시기

(2) 2000년대 문화·관광 정책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중에 관광산업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제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물류와 금융산업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끌 엔진산업으로 설정하고 있고, 여기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산업발전 전략의 병행,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 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또한 여기에는 용유·무의·제주도를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음
- 문화관광부 관광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
 - 첫째, 관광숙박시설, 항공 등의 교통 체계,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관광 부문의 정보화, 국제회의 산업 등 관광 발전의 기초가 되는 관광 인프라 구축
 - 둘째,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독특하고도 다양한 체험 관광 상품 개발
 - 셋째,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 수용 체계의 구축
 - 넷째, 해외홍보·마케팅 정책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관광시장을 조사하고 전략적으로 확대
 - 다섯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구축
 - 여섯째, 국민 관광 참여 기회 확대
 - 마지막으로,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

(3) 2010년대 문화·관광 정책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 이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정책과 질적 성장정책을 동시에 추진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고품격 관광 육성, 소외계층 여행지원 및 인프라 구축, 출입국절차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
 - 첫째,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책을 제시
 - 둘째,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을 제시
 - 셋째,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
 - 넷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 다섯째,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제시
 - 여섯째,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을 제시
 - 일곱째,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

2) 경상북도 문화·관광정책

(1) 2000년대 이전의 문화·관광 정책

- 1997년도에 수립한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시사점
 - 경상북도에서 1997년에 수립하여 2001년까지 5년간 추진하였던 계획
 -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잠재성 발굴 미흡, 주변 지역 관광자원과의 차별성 부족, 지역별 관광개발 사업 실행의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됨
-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성과
 - 제2차 권역계획이 수립·집행된 5년 간 IMF체제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둠
 - 경상북도 관광객 수: 3,097만 명('95) → 3,787만 명('00)으로 약 22.3% 증가
 - 관광숙박업체 수: 42개소 5,052실('95) → 48개소 5,321실('00)으로 객실 수 기준 약 5.3% 증가

(2) 2010년대의 문화·관광 정책

- 2009년도에 수립한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은 상위계획인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제시된 경북권 관광개발 방향인 '전통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과 경북의 경쟁력있는 관광자원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이념을 설정함
- 이념: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Korea in Korea'로 설정함
- 비전: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의 실현으로 설정
- 3대 목표: 글로벌 수준의 지역밀착형 문화·생태 관광개발, 관광기업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비즈니스 메카,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북만의 관광 브랜드 창조로 설정



[그림 76] 관광경북의 이념과 비전

- 관광경북의 추진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광개발을 기본원칙으로 삼음
 -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관광정책,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관광 수요시장의 욕구,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7대 추진전략
 - 경북관광의 새 지평 개척과 뉴-콘텐츠 개발
 - 관광권역 리모델링과 인프라 균형개발
 - 미래형 융복합 관광 육성과 벨트 개발
 - 경북관광의 기초체력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뉴트랜드관광 전략 마케팅과 글로벌화
 - 재원확보와 투자유치 특별대책
 - 경북관광 홍보·환류 강화와 서비스 선진화



[그림 77] 관광경북의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 내 예천군 관련 개발계획은 예천온천과 예천포리를 포함하고 있음
- 예천온천은 온천휴양형으로 중장기 체류형 관광지로, 표적시장은 북부권 및 대구권, 예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전천후 온천휴양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함
- 예천포리 관광지는 교육 및 충·효 체험형(충효테마파크) 단기 및 장기 체류형 관광지로 표적시장은 경북 북부권·대구권·수도권이 포함되며 예천온천과 더불어 교육형 숙박거점으로 개발하여 유교문화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함

[표 46]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 중 예천군 개발계획

관광단지	위치	면적(㎡)			사업기간		투자비(억 원)		
		지정면적	4차(기정)	4차(변경)	시작	완료	합계	공공	민자
예천온천	예천 감천 관현천향	21,960	21,960	21,960	2001	2015	945.4	24.2	701.2
예천포리	예천 감천 포리	210,241	210,241	210,241	2000	2012	105.0	27.6	7.4

- 4대강 유역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자원 활용에서 낙동강 유역에 마을숲 문화 경관 마을 조성 예시로 예천 금당실 마을이 포함됨
- 또한 경북 북부권 연계관광 클러스터의 중심을 예천으로 설정하여 문경, 영주, 안동 등지의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결하는 북부권 관광 게이트웨이로 육성을 계획함
- 주요 사업: 백두대간 공충바이오생태원 조성, 국립양궁원 건립, 예천 은하수공원 조성,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 풍수테마공원 건립 등

(3) 현재의 문화·관광 정책

- 2017년에 수립한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 경상북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관광의 선도기능 모색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으로 지역관광개발 정책수법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지역관광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함
 - 행정적 범위: 경상북도 전역(대구광역시, 강원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연계)
 - 시간적 범위: 2017년~2021년(5년)
-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문화관광 핵심거점을 목표로 비전과 목표 수립
 - 비전: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문화관광 거점 'Asian Top Class 관광지'
 - 4대 목표
 - 감각적 자원과 콘텐츠 개발
 - 경북형 감성 마케팅
 - 경북인의 감동 서비스
 - 활발한 공생 네트워킹



[그림 78]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비전과 목표

-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내에서 예천군은 낙동강 문화관광권,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권, 백두대간권 관광사업에 포함
 - 상주·문경과 함께 백두대간, 낙동강 특화자원 공동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 예천온천은 민간투자 미흡과 조성계획이 실효되어 관광단지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예천 삼강이 신규로 관광지에 지정됨

○ 예천포리 관광지는 문화체험형 장단기 복합형 관광지로 개발 계획이며, 표적시장은 경북 및 충북 북부지역으로 설정됨

- 숙박, 휴양, 문화, 휴식 등 다양한 시설 도입으로 관광객이 체류하며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

○ 예천삼강 관광지는 문화체험형 장단기 복합형 관광지로 표적시장은 전국·전 계층으로 설정됨

- 지역 고유 문화인 삼강주막과 삼강마을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며 화룡포와 연계한 강변 휴양문화 관광지로 조성

[표 47]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변경계획 중 예천군 개발계획

관광단지	위치	면적(㎡)	지정일	사업기간		재원별(백만 원)			
				시작	완료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예천포리	감천면 관현·천향리	210,241	04.11.08	2005	2017	28,100	9,680	10,680	7,740
예천삼강	예천 감천면 포리	211,141	14.04.28	2011	2017	94,193	48,096	28,812	17,285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12~2021)

- 비전: 녹색 감성 관광의 선도지대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 공간체계 중 예천군

· 소권역 중 '소백산권'에 영주, 봉화와 함께 포함됨

- 예천의 주요사업은 용궁 빌리지움,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금당실 구십승지 체험 콘텐츠 지원,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79]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공간체계

3) 예천군 문화·관광정책

(1)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 새 정부의 조기출범과 민선 7기 출범, 도청신도시 조기 정착과 원도심 공동화 예방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함

○ 향후 2030년까지 예천군의 미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예천군이 주체가 되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중장기 계획임

- 시간적 범위: 2019~2030년

- 공간적 범위

· 행정 단위: 경상북도 예천군

· 권역 단위: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의성

· 광역 단위: (1차) 대구권, 동해안권, 세종권 / (2차) 수도권, 충청권(단양 등)

○ 예천을 넘어 경북중심지로 부상, 도청 신도시 중추기능과 경제·산업·문화 선도 기능의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 비전: 강소형 도농복합도시

- 4대 목표

· (경북중심) 미래예천 기반 조성

·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가치창조) 고부가 도시브랜드 확립

· (행복공동체) 활기찬 지역사회 강조



[그림 80]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4대 목표

○ 문화관광 및 스포츠 부문의 추진전략으로는 '가족이 즐겨찾는 문화관광도시'가 설정됨

- 문화·관광·여가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증진함
- 지역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지역의 재발견을 통해 지역 매력을 새롭게 리뉴얼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살기 좋은 예천 만들기를 추진함
- 3대 추진전략
 - 지역 수요 대응 생활여가서비스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여가 향유 기반 마련
 - 지역 기반 문화 관광 상품 개발
지역자원 및 스토리의 재발견을 통해 문화관광 혁신 및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
 - 지역 융합 문화 관광 시장 창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융복합한 특새관광시장 창출과 지역자원의 선·면적 연계제를 통한 관광 상품 가치 제고



[그림 81]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문화관광 및 스포츠 부문

(2) 예천군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 예천군 2021년 군정계획 중 문화관광 부문은 전체 사업량 36건, 총 사업비 272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음

[표 48] 예천군 2021년 문화관광 주요사업 조서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36건	27,227	1,893.5	13,734.8	11,532.8	68

- 문화관광 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제 39회 대한민국연극제 공동 개최, 제3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각 문화재 보수설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말무덤 공원 조성사업,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전시관 설치,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등이 포함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문화행사 및 축제의 개최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의 경우 전망대, 사계절 썰매장, 숲속 어드벤처, 산림치유숲, 유아 숲 체험원, 원산성 십터, 등산로 정비 등 약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6. 문화·관광 시사점

- 전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잠시 침체된 경험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관광수입 또한 유사한 패턴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관광행태로는 머물며 즐기는 호캉스, 인스타그램 중심의 휴가, 웰니스 중심의 관광, 그리고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여행의 새로운 관광 패턴이 등장하고 있음
- 전국 국내여행 관광객 수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를 겪었으나 이후 반등하여 상승추세에 있으며 관광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관광행태로는 홀로 여행하는 솔로여행, 액티비티 중심의 여행,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한 여행 등 세계 여행 패턴과 유사한 관광패턴이 등장하고 있음
- 경상도는 연간 총 관광객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도내 인기 관광지의 대다수가 경주시에 밀집. 주요관광지점 분류 중 자연 및 생태환경 부문이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함. 문화관광 정책 기조는 감성과 감각적 콘텐츠 및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예천군 내 주요관광지점 기준에서 예천온천과 곤충생태체험관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겨울에 관광객이 집중되어있고 여름 휴가시즌인 7~8월에는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예천군 인구수 증가에 따라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 증가에 비례하도록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차별적이고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표 49] 문화·관광부문 메가트렌드 분석 시사점

구분	내용
메가트렌드 분석	전 세계 - 전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잠시 침체된 경험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관광수입 또한 유사한 패턴으로 성장추세에 있음 - 머물며 즐기는 호캉스, 인스타그램 중심의 휴가, 웰니스 중심의 관광, 그리고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여행의 새로운 관광 패턴이 등장하고 있음
	전국 - 전국 국내여행 관광객수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를 겪었으나 이후 반등하여 상승추세에 있으며 관광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홀로 여행하는 솔로여행, 액티비티 중심의 여행,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한 여행 등 세계 여행 패턴과 유사한 관광패턴이 등장하고 있음
	경상북도 - 꾸준한 관광객 증가 추이로 인기 관광지는 경주시에 밀집. 자연 및 생태환경 관련 관광지가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함 - 감성과 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자원활용 정책 -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짐
	예천군 - 예천온천과 곤충생태체험관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겨울에 관광객에 집중. 따라서 여름철 관광객 유도를 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 - 예천군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시사점	- 예천군의 목표인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사계절 문화체험형 관광지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함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군
- 소소한여행,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여행 증가 -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 경험소비, 여행메타버전성시대 - 누구나 즐기는 여행 (온라인부터 100세까지) - 여행 트렌드 세터, 뉴제너레이션 - 모바일과 여행플랫폼 비즈니스 진화 - 빅데이터가 여행의 관광시대 개막 - 공유, 여행공간이동 경험을 잇다 - 옛것이 풍기는 낯선 새로운 뉴트로 - 엘리트 교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	- 감각적 자원과 콘텐츠 개발 - 이색 문화생태관광 개발 - 일상의 관광화 일상의 문화화 - 스몰 투어의 시대 및 감성 관광시장 부상 - 개인 맞춤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 도심권 관광타운 조성계획 - 주변의 강 문화 개발 - 산업 기반의 문화관광 자원화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시도 - 관광지간 연계 강화 - 육상, 활동형 생활체육 보급

[그림 82]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메가트렌드

7. 체육 트렌드

1) 주요국 체육 관련 동향

(1) 미국의 체육

-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간접적인 후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 진흥을 국가차원에서 주도하지 않는 특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역할을 민간 스포츠 조직(NCAA, USOC 등)이 담당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2) 영국의 체육

- 엘리트 스포츠 진흥과 국민 스포츠 참여율 제고라는 기존의 두 스포츠 공공 정책 목표에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올림픽 유산의 계승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가 추가됨
 - UK스포츠는 이러한 추가적인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 한 정책으로 '골드 이벤트 시리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국을 주요 국제 이벤트 유치의 선도자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간헐재정 기조 아래 비정부 공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UK스포츠와 스포츠 잉글랜드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기관 평가에서는 현재의 구조대로 두 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UK스포츠와 스포츠 잉글랜드는 당분간 독립된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공존하게 되었음

(3) 프랑스의 체육

- 엘리트 체육 분야는 국제적 영향력 등의 속성을 감안하여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조직이나 선수들은 미리 제정해둔 기준에 의해 선발됨. 체육부의 엘리트 스포츠 관련 공무원들은 엘리트 선수들의 은퇴 후 인생관리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유함. 이를 통해 선수들의 사회·직업적 상황 파악과 개별적 후속조치를 취함
- 학교 체육에 있어서 지역 당국의 역할을 쇄신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학교 시간표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장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를 연맹 스포츠 대회나 기타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비워두어야 함

- 최근 장애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스포츠 활동을 정부의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하여 스포츠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 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되어 공공분야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해야만 함

(4) 독일의 체육

- 독일 정부는 2014년 반도핑 관련 법안을 발의 하여 도핑 위반을 한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반도핑 규제에 조화로운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독일 반 도핑 기구의 최근 주요 목표는 기구의 감독하에 훈련과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반도핑 규제는 독일 올림픽스포츠 연맹의 조직하에 독일 반도핑 기구가 총괄하고 있으며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 산하단체들은 반도핑 규제안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선수로서의 경력 이외에도 은퇴 이후 직업적 가능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중 경력(Dual Career)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엘리트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최근 독일 내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스포츠 클럽을 통한 이민자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의 주도로 '스포츠를 통한 통합'이라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5) 일본의 체육

- 스포츠기본계획을 통해 1) 어린이 스포츠 기회의 확충, 2)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포츠 활동 추진, 3)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스포츠 환경의 정비, 4)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과 스포츠 환경의 정비, 5)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6) 도핑방지 등 스포츠계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7) 최고 스포츠와 지역에서의 스포츠와의 제휴·협동 추진이라는 7가지 정책적 과제가 제시됨
- 스포츠 기본법 제 10조에 의해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교육위원회는 지방의 실정에 맞는 스포츠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정해야 함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를 전담하는 독립과를 설치하는 추세임

(6) 중국의 체육

- 베이징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중국 엘리트 체육이 정책의 초점이 되었음
- 그러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정책 의제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의 배제, 기존의 전국 체제를 답습하는 피상적인 개혁, 개혁 담론의 왜곡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중국 대중 체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침으로 일컬어지는 '2011-2015 생활체육 단련 프로그램'은 대중 체육 발전의 목표로 정기적으로 체육에 참여하는 사람 수 증진, 시민의 건강 상태를 증진, 체육 참여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음
 - 최근 중국 내 체육 산업 개발에 대한 정치적 관심으로 생활 체육이 단지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려는 유익함 때문만이 아니라 잠재적 경제발전 기회의 제공이라는 인식이 체육 정책 내에서 형성, 반영되고 있음

2) 국내 생활체육 동향

(1) 국내 생활체육 예산 추계

- 체육예산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으로 구분되어 활용됨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합한 예산은 2005년 288,384 백만 원에서 2017년 1,426,599 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005년 47.80%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36.18%로 하락하였으며, 전문체육 예산은 2005년 47.20%에서 2017년 28.80%로 하락하였음
- 그밖에 국제교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전제 4.07%에서 2017년 24.12%로 증가하였음. 스포츠산업 예산은 2005년 0.93%에서 2017년 6.51%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예산은 2005년 0%에서 2019년 4.38%로 증가하였음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예산만 분리하여 살펴보면, 생활체육 예산은 2005년 137,852 백만 원에서 2017년 516,154 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문체육 예산은 136,118 백만 원에서 2017년 410,800 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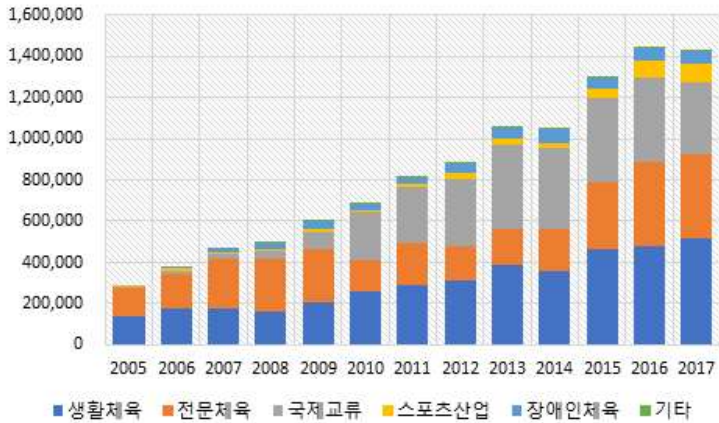
○ 이러한 추이는 전반적으로 체육 예산이 증가하지만,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예산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0] 정부 체육관련 예산 추계

단위: 백만 원

연도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기타	합계
2005	137,852	136,118	11,725	2,689	0	0	288,384
2006	177,776	162,942	19,499	10,835	7,000	0	378,052
2007	173,448	246,041	22,239	9,074	19,613	0	470,415
2008	161,049	257,058	35,098	12,962	25,710	263	492,140
2009	205,963	254,663	88,970	15,169	34,510	244	599,519
2010	262,196	150,404	229,209	11,944	27,550	226	681,529
2011	291,747	201,728	271,426	15,244	32,301	220	812,666
2012	312,148	164,545	325,602	30,259	43,947	214	876,715
2013	385,627	179,331	403,816	29,896	52,707	205	1,051,582
2014	355,391	207,200	390,811	27,285	63,010	241	1,043,938
2015	463,476	326,200	409,176	43,000	52,810	245	1,294,907
2016	479,857	409,800	408,286	77,990	59,610	233	1,435,776
2017	516,154	410,800	344,065	92,920	62,488	172	1,426,59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8) 재구성
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 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실적의 합산



[그림 83] 분야별 체육예산 추이

(2) 국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7년 대비 육상경기장 개소 수는 12.1%, 간이운동장 개소 수 7.6%, 체육관 개소 수 11.0% 등 생활체육을 위한 주민 공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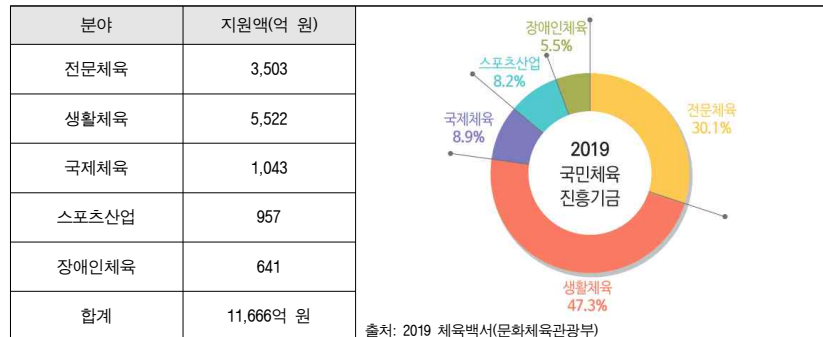
[표 51] 국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항목	2017년말 기준		2018년말 기준		2019년말 기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 육상경기장	26,927	177,614,312	28,578	188,756,984	30,185	198,051,572
2. 축구장	256	20,455,381	255	20,537,112	252	20,447,703
3. 하키장	984	30,013,006	1,019	31,111,769	1,040	31,135,673
4. 야구장	16	1,014,641	16	1,014,414	16	1,014,414
5. 싸이클경기장	264	7,915,878	293	9,389,310	309	9,610,609
6. 테니스장	11	492,640	11	492,640	11	492,640
7. 씨름장	772	7,542,350	797	7,885,331	818	8,274,016
8.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66	221,752	66	220,350	71	224,674
9. 체육관	20,602	54,703,992	21,847	59,268,363	22,866	60,015,081
- 구기체육관	1,010	22,650,854	1,066	23,361,098	1,139	25,368,827
- 투기체육관	427	9,096,302	444	9,298,952	471	10,432,582
- 생활체육관	47	687,023	46	684,417	46	748,685
10. 전천후게이트볼장	536	12,867,529	576	13,377,729	622	14,187,560
11. 수영장	1,479	7,211,524	1,594	7,752,748	1,742	9,267,537
12. 롤러스케이트장	406	6,687,373	428	6,972,090	457	7,594,411
13. 사격장	157	1,954,815	165	1,967,759	172	1,947,302
14. 국궁장	26	1,054,153	26	1,050,394	25	1,051,893
15. 양궁장	264	2,575,791	273	2,643,628	280	2,865,231
16. 승마장	24	582,522	25	656,205	24	653,685
17. 골프연습장	20	842,544	20	842,544	19	829,852
18. 조정카누장	83	798,857	84	810,201	89	916,914
19. 요트장	11	1,203,094	11	1,203,094	11	1,203,094
20. 빙상장	17	322,319	17	322,319	17	322,319
21. 설상경기장	29	1,186,940	30	1,270,062	31	1,309,119
22. 기타 시설	4	462,500	4	462,500	4	462,500
	426	7,721,386	531	9,523,054	792	13,04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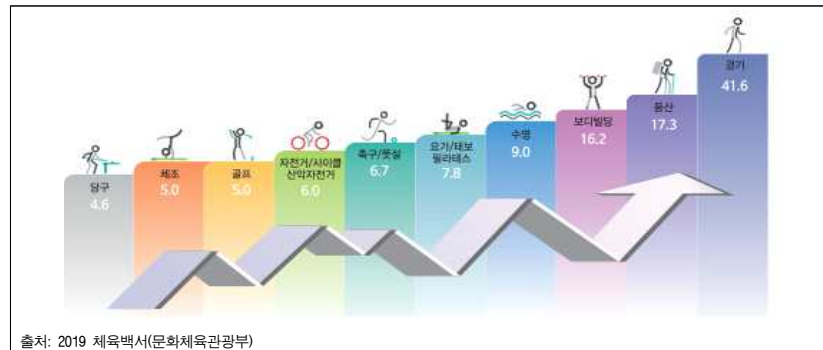
(3) 생활체육 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11,666억 원의 실적 중 47.3%가 생활체육에 지원됨

[표 5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2019)



- 국민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2017년 56,755원에서 2019년 78,214원으로 37.8% 증가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로는 걷기(41.6%), 등산(17.3%), 보디빌딩(16.2%)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84]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종목 순위(2019)

- 생활체육 참여 장소로는 민간체육시설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체육시설(26.4%), 기타 부대시설(17.9%), 학교/직장 체육시설(14.1%), 자가시설(4.0%) 순으로 확인됨

3) 생활체육 관련 정부 정책

(1) 1980년대의 생활체육

- 60~70년대 기간 엘리트 전문체육인 양성이 주목적이었던 국가정책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체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체육으로 정책적 지향점이 점차 옮겨가기 시작하였음
 - 1982년 체육부가 창설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선진체육의 기틀이 마련됨
 - 1988년도 서울올림픽은 국민적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벤트였던 동시에 체육에 대한 국민의식개선이 이루어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시설 면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체육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함
 - 공공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등의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됨
- 그러나 생활체육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로 프로체육선수 육성이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자리 잡음
 - 당시 컬러 TV방영 및 보급을 통해 스포츠 중계가 인기를 끌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데 기여함
 - 1982년에는 프로야구, 1983년에는 프로축구가 출범하여 프로스포츠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음

(2) 1990년대의 생활체육

- 1980년대 말부터 국가정책은 서서히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생활체육진흥으로 옮겨갔으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음
 - 1990년에는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였으며, 체육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시도하였음
 - 1990~1992년까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동 참여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제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음
 - 1991년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를 구성하여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음
- 1993년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왔던 엘리트체육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국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민체력증진과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의 균형을 도모함

(3) 2000년대의 생활체육

- 2000년대 체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가지고 추진
- 첫째로 성, 연령, 계층,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건립이 집중적으로 추진됨
 -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제시)
 - 운동장, 체육관 기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둘째로 스포츠시설 및 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지역별 스포츠시설 건립 및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시도하였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셋째로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라는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됨

(4) 2010년대의 생활체육

- 2010년대 비로소 생활체육이 체육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으며, 체육을 복지개념으로 이해하고 추진함
 - 복지로서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분 내' 생활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건립이 추진되었음
 - 또한 생활SOC 건립 및 공공기관 복합화 계획과 연계되어 생활체육시설을 겸비한 다목적 생활SOC 및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됨
- 고령화가 사회의 주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100세 시대에 맞는 고령인구 복지 측면에서 생활체육 정책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고령인구의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을 비롯하여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또한 국민의 체육복지뿐만 아니라, 인권이 중요시 되어 엘리트선수의 인권 보장 정책을 추진함

4) 경상북도 생활체육 추세

(1) 경상북도 체육시설 추이

- 경상북도 지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2019년 157.6% 증가한 2,929개소로 확인됨
 - 인구 천명당 동네체육시설 개소수는 1.22로 2011년의 0.50보다 많이 개선됨

[표 53]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단위: 개소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육상경기장	29	30	31	31	31	29	29	30	32	10.3
축구장	49	42	56	55	57	62	64	66	69	40.8
야구장	13	12	19	20	23	20	23	29	31	138.5
테니스장	47	42	48	48	51	53	62	57	60	27.7
씨름장	7	7	9	9	10	9	13	10	9	42.9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137	1,135	1,126	1,705	1,829	1,189	2,055	2,510	2,929	157.6
구기 체육관	20	20	22	23	24	23	24	27	27	35.0
투기체육관	3	3	4	4	4	4	4	4	5	66.7
생활체육관	21	22	29	31	33	31	37	40	42	100.0
수영장	17	17	17	21	22	24	22	25	26	52.9
국궁장	14	14	15	15	16	15	17	17	18	28.6
양궁장	1	1	1	1	1	1	1	1	2	100.0
승마장	3	3	12	3	4	3	3	3	3	0
골프연습장	3	4	4	5	5	5	4	4	4	33.3
요트장	1	1	1	1	1	1	1	1	1	0
빙상장	1	1	3	1	1	2	2	1	1	0
전천후게이트볼장	29	28	28	38	43	37	48	56	59	103.5
롤러스케이트장	11	10	10	12	13	12	14	12	13	18.2
사격장	4	4	4	4	4	4	4	4	4	0
합계	1,357	1,344	1,376	1,962	2,100	1,459	2,350	2,815	3,248	138.7
인구 천 명당 개소수	0.50	0.50	0.51	0.73	0.78	0.54	0.87	1.05	1.22	-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증감률: 2011년 대비 2019년 증감률

(2) 경상북도 체육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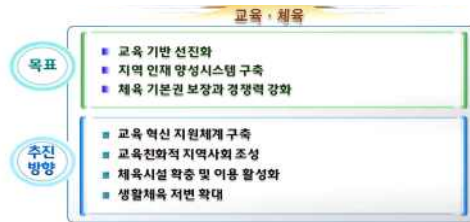
-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은 '녹색·창조·통합의 새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강·산·해가 어우러진 희망 경북을 지향함
 - 녹색: 국토, 교통, 산업, 환경의 지속가능한 녹색화를 추진
 - 창조: 창의에 의한 새로운 가치·공간·제품의 창조를 추진
 - 통합: 연계협력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추진
- 경상북도를 총 7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함
 - 체육은 교육과 하나의 부문으로 '쾌적한 생활 및 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에 포함
 -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지역개발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산업경제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문화관광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교통물류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생활복지	쾌적한 생활 및 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자원개발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환경방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지역 구현

출처: 경상북도

[그림 85]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 교육·체육부문 목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체육 환경 조성
 - 체육에서는 체육 기본권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함



출처: 경상북도

[그림 86] 경상북도 종합계획 - 교육·체육 부문 목표

-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동기와 기회를 제고함
 - 도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체육복지 혜택과 재원 안정성에 기초한 효율적 활용 간의 균형을 유지함
 -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흑자경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함
- 생활체육 저변 확대
 - 도민 선호도와 건강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여 생활체육 종목목 선정하며,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관련 프로그램과 교실을 운영함
 -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성화로 도민 전체의 체력 단련과 활기찬 공동체 생활을 도모함
 - 생활체육관련 조직과 지도자 등의 조건 정비로 도민 모두가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함

-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생활체육과 복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상호 교류를 반영하여 지역·계층·영역 간 통합으로 도민 전체의 화합과 건강,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진하도록 함

5) 예천군 생활체육 추세

(1) 예천군 체육시설 추이

- 예천군의 공공체육시설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18년 증감률에서 전체 공공체육시설 수는 19.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생활체육관이 200%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육상경기장과 테니스장은 50% 증가하였으나, 축구장은 50%,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은 6.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예천군의 인구 및 인구 천 명당 공공체육시설 개소 수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예천군 전체 인구수는 201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수는 이에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아 인구 천 명당 개소 수의 수치가 감소함
- 예천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인프라 확대 및 운영 고도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예천군을 활과 국궁의 특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공 양궁장 및 국궁장 확대를 통해 군민과 지역 관광객의 양궁·국궁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문화관광 부문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양궁·국궁의 생활체육화와 문화관광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표 54] 예천군 공공체육시설

(단위: 개소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육상경기장	2	1	2	2	2	2	1	3	50.0
축구장	2	2	2	2	2	2	1	1	-50.0
야구장	-	1	1	1	1	1	1	1	0.0
테니스장	1	1	1	1	2	2	1	2	50.0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6	16	18	18	18	18	15	15	-6.3
구기 체육관	-	-	-	-	-	-	1	1	0.0
생활체육관	1	1	2	1	1	1	2	3	200.0
수영장	1	1	1	1	1	1	1	1	0.0
국궁장	1	1	1	1	1	1	1	1	0.0
양궁장	1	1	1	1	1	1	1	1	0.0
골프연습장	1	1	1	1	1	1	1	1	0.0
전천후 게이트볼장	-	-	-	-	-	-	-	1	-
합계	26	26	30	29	30	30	26	31	19.2
인구 천 명당 개소수	0.55	0.56	0.65	0.64	0.66	0.64	0.52	0.58	-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증감률: 2011년 대비 2018년 증감률 (또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



출처: 통계청, <시군구 기본통계>

[그림 87] 예천군 인구 및 인구 천 명당 공공체육시설 추이

(2) 예천군 체육 정책

-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중 예천군 체육 현황은 문화스포츠와 함께 분류됨
 - 군민 문화스포츠 관람 경험률은 22.9%로 경북 평균 45.0%에 비해 하회하였으며, 영양(12.6%), 군위(14.6%), 의성(17.8%)에 이어 4번째로 낮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예천군 내 주요 체육시설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공설운동장, 육상실내훈련장 등이 있으며, 동네체육시설은 15개소
 - 공설운동장 내 육상실내훈련장, 학생실내체육관 등이 집적되어 다목적으로 활용함
 - 청소년수련관이 공설운동장과 연결하고 있어 청소년 스포츠 단체의 전지훈련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구비한 것이 강점임
- 부문별 사업계획 중 체육 및 생활체육 부문이 따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가족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도시'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생활스포츠 향유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2030년
 - 총 사업비: 6,900백만 원(국비 1,500 / 지방비 5,400)
 -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예천군
- 생활스포츠 향유 기반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 생활체육진흥시설 확충

-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진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
 - 매년 군민 대상 생활체육진흥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별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진흥시설 확충
 - 생활스포츠클럽 육성
 - 동네생활체육진흥시설과 연계하여 생활체육동호회를 육성하고 스포츠클럽 조직화 지원
 - 체육진흥시설과 연계한 생활스포츠클럽 육성
 - 생활스포츠클럽의 군민체육대회, 읍면민 체육대회, 생활스포츠체육대회 참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추진
 - 생활스포츠지도자 육성
 - 지역 체육인 대상으로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취득과정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비공모)' 과 연계하여 생활체육현장에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생활체육광장 확대
 - 예천군체육회 주도로 지역주민 수요에 대응하여 읍면별로 특화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광장 운영' 참가
 - 보건소와 연계 협력하여 읍면별 건강지표 및 주민 생활시간을 고려한 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비공모)' 과 연계하여 생활체육광장 운영 지원
- 2021년 예천군 주요군정계획 중 체육사업소 추진계획은 사업량 총 14건, 사업비 총 87억 원이 계획됨
- 주요 사업으로는 예천 국공장 조성사업,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동네 운동기구 설치, 각 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음

[표 55] 2021 예천군 체육사업소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4건	8,710	1,780	990	5,940
예천 국공장 조성사업	연면적 517.7㎡	1,450	480	250	720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내부 마감 리모델링	1,000	300	210	490
동네 운동기구 설치	25개소	100			100
파크골프장 조명시설 설치	1식	160			160
신도시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1식	150			150

제3장 예천군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예측

제1절 통합신공항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2절 인구·보건·복지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3절 산업·경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4절 농업·농촌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5절 지역개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6절 문화·관광·체육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제3장. 예천군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예측

제1절. 통합신공항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통합신공항 현황 분석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통합신공항의 입지

- 국토 중앙에 위치해 대구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 한·중·일·동남아 연계에 유리한 통합신공항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협력 공항으로서의 활성화 가능성

○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천군의 위치

- 통합신공항의 '공항간접경제권'에 포함되는 예천군의 위치로 공항과 연계한 거점산업 육성 가능
- 항공화물 및 항공 산업과 연계한 지역 자원을 보유함
- 항공 인력 교육 수요에 대응 가능한 예천공항, 공항 연계 식음료 산업 육성에 유리한 우수 수자원 등

(2) 약점 (Weaknesses)

○ 교통 연계체계 및 접근교통수단 부족

- 통합신공항과 예천 간 인구 및 화물의 증가 될 이동량에 대응할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 통합신공항 직통 셔틀버스, 대중교통 등 접근교통수단 개선 필요

○ 국제공항과의 연계 산업·인프라 전략체계 미흡

-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산업·인프라 전략체계 재정비 및 구축 필요성 대두
- 기존 예천의 자원과 산업을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기회(Opportunity)

- 지방공항으로의 물량분산 필요성 제고
 - 현재 인천공항에만 집중되어있는 항공(물류)산업에 대한 문제성이 대두되며 지방공항으로의 역할 분산 시도
 - 통합신공항의 인천공항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성장 가능성 확보
- 통합신공항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기초
 - 통합신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역할 수행에 따른 예천군 지역산업 육성 가능성 확대
 - 통합신공항 인근 지역의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저비용항공사 및 중소형 항공기 운영 증가
 - 저비용항공사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중소형 항공기 운영 증가
 - 대규모 관광객 유도의 부담감을 완화한 중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유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부담감 증가에 따른 국내 치유형 단기여행, 소도시 중심 여행 트렌드 부상
 - 억제된 생활 속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

(4) 위협(Threat)

- 기본적인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 존재
 - 개항 전인 통합신공항의 여행객 및 항공화물 수요의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
 - 개항 이후 최소 3개년의 운영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함
 - 따라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전략 목표치 설정의 한계가 존재
- 지방공항 간 경쟁 심화
 - 인천공항의 역할을 분담하며 각 지역 공항 간 경쟁 심화 양상
 -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별 전략 수립에도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경쟁
- 고급인력 및 투자자원 확보의 어려움
 - 항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원 확보 어려움

- 산업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각 지역 공항 특색을 반영한 정책 미흡
 - 지역별 구조, 장단점, 기회와 한계 등을 반영한 지역 공항별 전략 부족
- 예천군에 적합한 공항정책 발굴 필요성 대두

[표 57] 통합신공항 부문의 SWOT 분석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 위치적 강점(국토 중앙에 위치한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연계산업 구상 가능 ▪ 항공화물 및 항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보유	▪ 교통 연계체계 및 접근교통수단 미흡 ▪ 공항 직접영향권에 미포함 ▪ 국제공항과 연계할 산업·인프라 전략체계 미흡
외부 환경	기회(O)	위협(T)
	▪ 지방공항으로의 물량분산 필요성 제고(항공화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 ▪ 통합신공항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기초 ▪ 저비용항공사 및 중소형 항공기 운영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 기본적인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 ▪ 지방공항 간 경쟁 심화 ▪ 고급인력 및 투자자원 확보의 어려움 ▪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미흡

2) 예천군의 통합신공항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에 따른 항공화물물류 중심 거점화 추진
 - 식료품 산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화물 물류 수요를 진작
-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항공을 통한 물류 및 여객 운송의 배후 기지 구축
 - 지리적 요충지로서 예천군의 지정학적 입지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배후기지로서 입지 확보

(2) S-T 대응전략

- 항공인력 교육 수요에 대응 가능한 예천공항, 공항 연계 식음료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방항공 배후도시로서 도시경쟁력 확보
 - 항공산업, 공항연계 식음료 산업, 바이오 신산업 등 도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통합항공 연계 산업력 산업 적극 육성
- 예천공항의 확대를 통하여 항공산업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
 - 종합항공전문훈련센터 유치/조성 등을 통하여 우수 인재 확보 및 예천군 지역연고 강화

(3) W-O 대응전략

-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접근체계 개선을 통해 예천군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접근성을 제고하여 이음도시 예천군 실현
 - 예천군의 대내외적인 연결성을 극대화하여 인접도시와의 협력, 상생경제 구축
- 국제공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품격에 맞는 관광지 구축 및 식음료 등 도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 적극 육성
 -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항공산업, 식음료 산업 등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적 여객, 화물 수요 확대

(4) W-T 대응전략

- 예천군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방공항의 경쟁력 격화 문제를 정면 돌파
 - 항공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방공항의 수요 자체를 창출하여 경쟁문제를 해소
- 인접도시와의 적극적인 연계 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공조 강화
 -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공조강화를 통하여 경제협력 증진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 반영

제2절. 인구·보건·복지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예천군 인구·보건·복지 현황 분석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신도시 입지로 경북도 유일 인구증가 지역 및 청년인구 증가
- 청정한 환경 및 다양한 복지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 경로당, 복지관, 체육관 등 비교적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성
 - 청정 자연환경 및 겨울철 상대적 온난한 기후로 삶의 질 기반
- 아동 및 여성 복지사업에 군민·사회적 관심 증대
-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에 관한 논의 활성화
 - 예천군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
- 공무원들이 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보건서비스 마인드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에 보건복지 공공인력의 강한 책무성

(2) 약점 (Weaknesses)

-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율
 - 경상북도 평균을 상회하는 예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평균으로 복지에 대한 미래 수요 감당이 갈수록 가중화 예상
- 한정적인 시 재정으로 증가하는 사회 각종 세분화 복지 수요 응대 어려움
- 아동,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복지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부족
- 출산율 향상을 위한 기반 시스템(육아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 필요
- 운영 중인 복지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부족
- 보건복지와 관련한 통합 서비스 전달방식 및 관리 시스템 부족

-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 보건복지 및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군민 인지도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해 보건복지 증진은 차선으로 인식

(3) 기회(Opportunity)

- 보건복지 친화적인 정부 정책과 국가 책무성 강조
 -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초고령화 대책 마련의 중요성 대두
- 법정 보건복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기조
 - 국가의 복지 역할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국민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
-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정책 다층화 및 확대 가능
 - 출산·양육·약자지원·노후책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시행
- 경상북도의 복지 확대 정책에 관한 확고한 계획
 -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복지 기회 강화 등에 초점

(4) 위협(Threat)

- 국가적 경제성장 위축으로 사회적·개인적 위기 상황 확대
 - 사회적·재정적·인적자원 기반 약화
- 인구 감소 및 고령 인구 증가의 고착화로 지역사회 역동성 및 발전 잠재력 약화
- 지자체간 경쟁 심화
- 초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동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정책 효과
- 선 성장과 후 분배 논리에 밀려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및 인력확충 후순위 우려
- 전 세계적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정치/사회/보건복지 체계의 혼란 가중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위기

예천군 인구·보건·복지 부문의 SWOT 분석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 경북도내 유일 인구증가 - 청정 자연환경 및 겨울철 상대적 온난한 기후로 삶의 질 기반 - 예천군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에 보건복지 공공인력의 강한 책무성	약점(W) -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 보건복지 및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군민 인지도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해 보건복지 증진은 차선으로 인식
	기회(O) - 보건복지 친화적인 정부 정책과 국가 책무성 강조 -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초고령화 대책 마련의 중요성 대두 - 법정 보건복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기조	위협(T) - 초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동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정책 효과 - 선 성장과 후 분배 논리에 밀려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및 인력확충 후순위 우려 - 전 세계적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정치/사회/보건복지 체계의 혼란 가중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위기

2) 예천군 인구·보건·복지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청년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 가능성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공공교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반 마련 정책 추진
- 정부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분석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마련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활성화
 - 적극적 청소년 아동 복지지원체계 전략 (S-O 전략)
 - 장애인 인프라 확충 및 정부정책 시행 (S-O 전략)

(2) S-T 대응전략

- 세대별·계층별 복지수요 파악으로 최적화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 효과 증대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주민 생활만족도 향상
-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중심 전략 구상
- 예천 농민에 대한 건강, 소득 지원 정책 강화
- 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도시권 중장년 인구 유입 추진
- 적극적인 복지행정추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대응방안 마련

(3) W-O 대응전략

- 예천지역 적용가능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전략 마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 환경 조성
- 산촌균형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 접근성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
- 적극 홍보를 통한 예천군 보건복지 정책 주민안내 실시
 - 장기적 치매 커뮤니티 케어 운영 계획 수립
 - 고령화 가속화 대응 복지 체계 마련

(4) W-T 대응전략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복지서비스 인지도 확대 전략 필요
 - 1인가구의 주거, 건강, 경제환경 개선 지원
 - 정신건강 지원 및 예방정책 강화, 복지 사각지대 사전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환경조성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문화·사회·생활체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 세대·지역·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제3절. 산업·경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중심지화 가속
 - 도청신도시 조성과 유관기관 이주 등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청신도시 개발 2·3 단계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예천이 경북의 중심지로 성장
- 도농복합형 가용부지 산재
 - 백두대간과 낙동강이 형성한 비옥한 평야와 낮은 구릉 등으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많은 편으로 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기에 적합
 - 차별화한 지역이미지(곤충, 충효, 활) 보유
 - 예천을 상징하는 곤충, 충효, 활 등 지역특화형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 도시브랜드 형성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확장이 용이
- 융복합 6차산업(농산촌+체험) 기반 양호
 - 백두대간·학가산의 임산물과 특용작물, 낙동강·내성천 주변의 농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 푸드 등을 활용해 생산·판매·체험이 가능한 6차산업화의 기반 보유

(2) 약점(Weakness)

- 예천읍 원도심 기능 약화
 - 도청신도시 조성과 예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심재생과 유동인구 유입전략이 필요
-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간 연계 미약
 - 도청신도시와 예천읍 간의 공간적 경제적 분리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과 직통연결도로 주변 개발,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 등의 조기 추진이 절실
-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농업·농촌 중심의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팜과 축산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제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

(3) 기회(Opportunity)

- 도청 이전에 따른 위상 및 거점기능 강화
 - 도청신도시의 초기 정착과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확립은 향후 경북중심도시로서 예천군의 행정·경제·공간적 거점기능 강화로 작용
- 향후 광역 고속교통망 요충지 예상
 - 중부내륙고속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동서5축고속도로 등 예천을 둘러싼 광역교통망의 개선으로 우수한 접근성의 예상
- 배후도시와의 연계 가능성 풍부
 - 도청신도시와 예천군 주변의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등의 경북 북부권과 충북 단양 등지와의 경제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4) 위협(Threat)

-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감소 현상 심화
 - 세계 무역 갈등과 코로나 등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분위기 감소와 인구감소는 지역 발전의 한계로 작용
-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급변 가속화
 - 전통방식을 넘어 농업·농촌 경영의 생산성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과 과제 도출이 필요
- 주변도시 간 경쟁 심화(산업단지 등) 지속
 - 낙동강 상류지역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의 한계와 더불어 안동, 영주, 의성 등지와의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의 심화가 예상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중심지화 - 도농복합형 가용부지 산재 - 융복합 6차산업(농·산·촌+체험) 기반 양호	- 예천읍 원도심 기능 약화 -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간 연계 미약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외부 환경	기회(O)	위협(T)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향후 광역 고속교통망 요충지 예상 - 배후도시와의 연계 가능성 풍부	-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감소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급변 가속화 - 주변도시 간 경쟁 심화(산업단지 등) 지속

2) 예천군 산업·경제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경북중심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미래예천 전략과 도시브랜드 형성
 - 예천군민이 원하는 경북중심도시 조성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미래예천 전략과제의 발굴과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확립

(2) S-T 대응전략

- 도청신도시 초기 정착과 원도심 기능 강화를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도청신도시 2·3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천읍의 행정·경제·문화 기능 회복을 연계할 수 있는 직선연결도로 주변 개발과 원도심 도시뉴딜 사업 추진

(3) W-O 대응전략

- 지역 유흥자산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백두대간과 낙동강, 전통문화 등지에 산재한 유흥자산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치, 유동인구 유입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

(4) W-T 대응전략

-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통한 경북 북부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 예천군과 경북 북부권을 둘러싼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성장 발전과제의 도출을 통해 민간기업 유치 및 교통거점으로 육성

제4절. 농업·농촌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예천군 농업농촌 현황 및 문제점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내·외 물류교통 여건
 - 통합신공항은 인접한 지역의 항공물류시스템을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유리
 - 한류문화와 함께 한식 밀키트 수출단지 조성 유리
 - 철도 및 도로 확충은 농산물 신속물류와 물 관련 산업체 유치 유리
- 다양한 지형분포로 토종 유전자원(종자) 풍부
 - 지역 내 고도 차이가 크고, 산악지형과 평지가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토종 유전자원 풍부
 - 정부의 종자관리 기관(부서)이 인접해 있어 정보교류에 유리
 - 종묘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
- 곤충산업을 선도하는 곤충산업 도시이미지
 - 곤충도시 이미지가 예천군의 대표적 이미지로 전국적 인지도 높음
 -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곤충 관련 기반조성 우수 (곤충생태원 등)
 - 곤충관련 다양한 기업체 분포

(2) 약점(Weakness)

- 고령화로 농업 시설투자 및 영농의지 부족
 - 농민 고령화로 전문적 농업기술 적용과 시설개선 의지 부족
 - 신규 유입되는 전문 청년농업인 부족
 - 예천군 지역 내 대규모 스마트팜 구축 사례가 부족
-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 간 연계성 부족

- 예천읍과 도청신도시 연결도로 주변 농지의 특화단지 부족
-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도시 주민 유입력 부족
-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의 빈번한 교류를 위한 이벤트 부족

○ 기후 변화로 인한 농특산물 재배 여건 변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과 홍수로 지역 농특산물 수확량 변동이 큼
- 노지농업 중심 농업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수확량 변동성 큼
- 특산 농산물의 수확량의 연간 수확량 변동성 크기 때문에 안정적 가공식품 공급 어려움

(3) 기회(Opportunity)

○ 신선농산물의 국내외 수요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과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발달로 신선농산물 소비량 증가
- 교통물류 환경 개선으로 신선채소 재배 지역적 한계가 무너짐
- 고가의 우수한 품질(안중) 농산물 소비증가

○ 경상북도의 바이오산업육성 의지

-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체 분포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등)
- 중소기업에서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그린바이오산업체 다수 분포
-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 재인식

○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정책

-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일환으로 청년 농업창업 장려 및 스마트팜 보급사업 실시
-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혁신 밸리 조성 등 농업-기업-연구기관 연계 기술혁신 연구, 생산·유통-인력양성-기술혁신 및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 도모

(4) 위협(Threat)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부족

- 생산되는 농산물의 다양성은 있으나, 전국적으로 예천을 대표하는 작물 품목 인지도 부족

- 지역별 농작물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전개 경쟁력 부족
 - 스토리텔링을 통한 농산물 마케팅 정책 부족
- 수도권과 대도시 대상 예천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활동 부족
- 예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데이터 축적 부족
 - 한우사육 규모 경쟁력 구비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연계 등 대규모 투자 부족
- 타시군의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
- 대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식용곤충 사육농가 증가
 - 국내 식용곤충 생산량에서 예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 식용곤충 산업화 기업체 부족

[표 58] 예천군 농업농촌 부문의 SWOT 분석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내외 물류교통 여건 ▪ 다양한 지형분포로 토종 유전자원(종자) 풍부 ▪ 곤충산업을 선도하는 곤충산업 도시이미지	▪ 고령화로 농업 시설투자와 영농의지 부족 ▪ 예천을 구도심과 신도시간 연계성 부족 ▪ 기후 변화로 인한 농특산물재배 여건 변화
외부 환경	기회(O)	위협(T)
	▪ 신선농산물의 국내외 수요증가 ▪ 경상북도의 바이오산업육성 의지 ▪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정책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부족 ▪ 예천 한우 우수성 부족 ▪ 타시군의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

2) 예천군 농업·농촌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통합신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신선농산물 수출 거점 선점
 - 공항시설 활용 콜드체인 신선채소 수출 조건 유리
 - 수출용 신선채소 공급에 특화된 스마트팜 육성
 - 신선채소 품질관리 연구지원센터 운영
- 풍부한 토종유전자원을 활용한 종자산업 육성
 - 토종 유전자원을 활용한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를 통한 우수성 확인 과학적 자료 축적
 - 특화된 농산물(특화 채소, 한약재 등) 종묘 발굴과 보급체계 구축으로 관련 산업체 유치
 - 토종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수출용 한식 밀키트 수출단지 조성
 - 밀키트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제품질인증 (ISO, 할랄, 비건 인증 등)
 - 전국의 수출용 밀키트 유통을 선점 할 수 있도록 국가별 식품 관련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 수출용 밀키트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2) S-T 대응전략

- 신선채소 등 농산물 해외수출 선점으로 예천농산물을 대표적 K-FOOD로 육성
 - 예천농산물이 대표적 우리나라 신선농산물로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쟁력 확보
 - 위생적 신선농산물의 수확 및 정선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
 - 해외수출 맞춤형 신선채소 포장기술 발굴과 적용
- 토종 한우품종 발굴과 사육으로 특화된 예천 한우 브랜드화
 - '제주 동태지', 일본 '흑우' 등 토종 품종 발굴을 통하여 예천 한우 브랜드화
 - 지역 토종농산물을 활용한 한우사육 스토리텔링 개발과 홍보
 - 예천군 차원의 예천한우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사업 추진

(3) W-O 대응전략

-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 감소분을 규모의 경제성을 구비한 전문농업인으로 세대교체
 - 고령 농업인 자녀가 귀농하여 전문농업인으로 변화하도록 기술 및 재정 지원
 - 고령 농업인이 기존의 농업시설과 농지를 전문농업인 양도를 장려하는 정책 개발
 - 기업승계 전문농업인에 대한 우선지원정책 추진
-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팜 집중 육성
 -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 연결 축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6차산업단지 집중 유치
 - 해외수출 신선채소 공급기지로 스마트팜 육성
 - 해외수출 우수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신선농산물 시장 경쟁력 확보

(4) W-T 대응전략

- 예천군 기후 변화에 부합되는 열대과일, 채소 육성으로 예천 농산물(품목) 브랜드화
 - 농촌진흥청 중심 기후온난화 대응 열대 농작물 중 예천군 특화 작물 선정하여 예천농산물 브랜드화
 -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 고향 채소를 재배 육성하여, 국내 거주 이주민 수요 선점
 - 디지털 노지 농업 조기 정착으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 기반 구축
- 식용곤충산업에서 산업곤충산업 전환을 통한 곤충산업 부가가치 향상
 - 식용곤충 사육 원가상승으로 수입산 식용곤충과 경쟁하기 어려운 여건 고려
 -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의 식용곤충 생산량 증가로 예천군 식용곤충경쟁력 약화
 - 시설원예와 스마트팜 확대로 증가하는 산업곤충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제5절. 지역개발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예천군 지역개발 현황 분석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경상북도 신도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지역개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내 주거단지 및 상업지구 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예천군 관내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안동시 등 인접시군에서의 인구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지역개발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예천군의 경우 신도시-구도심의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임업, 농업 지역 등 도농복합형 6차산업화 기반 지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및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잠재력이 풍부함

(2) 약점(Weakness)

- 군청소재지인 예천읍 구도심과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인 신도시 간의 지역개발 및 발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통합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의 도로망 등의 물리적 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개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음
 - 젊은 인구의 경우 지역개발에 있어서 교육, 안전 등 각종 지역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의 사와 개발수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의 경우 지역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음
- 예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19년 기준 15.68%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 등에 의존하여야 함

(3) 기회(Opportunity)

-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라 경상북도 북부권 인접지역의 광역접근성이 개선됨.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대응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중부내륙고속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동서5축고속도로 등 예천군 인접 지역에 광역교통망이 개선됨에 따라 예천군이 가지는 우리나라 지형 상 위상학적 지위 제고
- 도청신도시와 예천군 주변의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등의 경북 북부권과 충북 단양등지와의 경제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4) 위협(Threat)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및 저성장의 가속화에 따라 예천군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불안요소 가중
 -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미래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투자심리의 위축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가속화 및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혁신 잠재력이 지역의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위협요소 가중
- 전국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지방 소도시의 지역경제 침체 및 두뇌 유출 가중

[표 59] 예천군 지역개발 부문의 SWOT 분석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개발 ▪ 관내 지속적인 인구유입 ▪ 다양한 도농통합형 지역구조	▪ 구도심-신도시 간의 지역분리 ▪ 구도심 및 농산촌지역 중심의 인구고령화 ▪ 낮은 재정자립도
외부 환경	기회(O)	위협(T)
	▪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개발 호조 ▪ 고속도로, 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개선 ▪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주요 요충지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안 요소 가중 ▪ 빠른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대응 능력 부족 ▪ 수도권 중심의 두뇌유출

2) 예천군 지역개발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통합신공항 개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북신도청 소재 명품 신도시 개발
 -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북신도청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북부권 대표 명품 신도시 이미지 구축
-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북부권 핵심 인프라 구축
 -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천군의 사통팔달 연결성 제고

(2) S-T 대응전략

- 적극적인 국비/지방비 투자집행을 통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및 위축된 수요 증진
 - 민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개발을 군 차원에서 집행함으로써 SOC 건설 및 경기 활성화 촉진
- 다양한 주민수요에 대응하여 미래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을 도입하여 인구유출 방지
 - 주민 수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구축

(3) W-O 대응전략

-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개선 계기를 통해서 도시의 연결성을 총체적으로 강화
 - 도시와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구도심-신도시, 도심-교외 지역 등 도시 내 연결성을 강화
- 고속도로, 철도 등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국비/도비 사업을 적극 시행
 - 국비/도비 등 중앙정부, 경상북도 재정을 지원받아 SOC 건설 투자집행

(4) W-T 대응전략

- 구도심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침체에도 높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등 핵심 인프라 구축
 -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확장
-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의 구축
 -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거주민의 편의성 적극 고려

제6절. 문화·관광·체육 현황 및 미래전략 예측

1.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현황 분석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보유
 - 국보, 명승, 온천, 체험마을, 체험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
 - 3개의 지역축제와 최초의 스마트폰 영화제 등 활성화 가능한 축제
- 민선7기의 지역발전 정책 의지
 - '전통문화와 청정자연 환경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추진을 목표로 지역의 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 중
 - 문화관광 관련 공약은 총 5개로 이중 1개 완료, 4개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
- 차별화 된 지역 이미지 요소
 - 예천군은 역사적으로는 충효, 생태자연으로는 곤충, 체험활동에서는 활이라는 지역의 차별적인 관광요소를 보유
 - 가족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코스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

(2) 약점(Weakness)

- 사계절·체류형 관광을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 예천온천의 방문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어 겨울철 관광에는 강하나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감소하여 사계절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유입이 증가할 관광객에 대비하여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
- 원도심-신도시 간 연계 부족
 -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공간적·경제적 분리에 따른 공간구조 개편이 시급
 -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 및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중요

-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보강 필요

-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예천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보강이 필요
-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중요성 대두

(3) 기회(Opportunity)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구유입 증가 예상
 -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 등 예천군 인구 유입 증가 예상
- 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 가능성
 - 유교역사 문화권을 공유하는 안동·문경 등 주변 도시와의 관광연계 가능성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지역별 공항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 기대
- 도로교통 여건 개선의 기회
 -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 및 개선 사업 진행
 - 공항 및 주변 배후도시와의 교통편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계 관광 활성화 가능

(4) 위협(Threat)

- 저성장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 경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활양식 및 문화생활 패턴의 변화
 -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
 - 고령화 인구를 수용할 세분화된 문화·체육시설 조성이 중요
- 주변 도시와의 경쟁 심화
 - 각 지역 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 정책 운영 및 홍보
 -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여 지역별 산업육성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 중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환경 급변
 - 세계적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 트렌드 변화(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관광에서 치유힐링으로)
 -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필요

[표 60]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SWOT 분석

구분	발전 잠재력	발전 제약요인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보유 ▪ 민선7기의 지역발전 정책 의지 ▪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요소	▪ 사계절·체류관광을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 원도심-신도시 간 연계 부족 ▪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보강 필요
외부 환경	기회(O)	위협(T)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구유입 증가 예상 ▪ 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 가능성 ▪ 도로교통 여건 개선 기회	▪ 저성장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 주변 도시와의 경쟁 심화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환경 급변

2) 예천군 문화·관광·체육 미래전략

(1) S-O 대응전략

- 미래 예천군 먹거리산업 발돋움 위한 스포츠 의료 특화 산업 육성
 - 경상북도의 생활체육의 생활문화화 정책 및 해외스포츠 교류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 예천군을 스포츠의료 특화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한 육성 전략 수립
 - 예천군 종합발전계획(2018)에서도 '한천스포츠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스포츠 의료 관광 유인력 제고를 제안한 것과 연계하여 진행
 - 예천군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 로컬스포츠·글로벌스포츠를 지향하는 스포츠 산업 육성
- 인접 배후도시와 연계한 관광코스 구상
 - 유사한 유교 문화권을 공유하는 안동·영주·문경 등 배후도시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
 - 지역 간 관광객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시스템 구축, 연계 관광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 이동 및 유입을 증대
 - 단일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인접 도시와의 협업을 통해 보완

(2) S-T 대응전략

- 예천군 공공디자인 및 도시 브랜드화
 - 예천군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타 지역 시민들에게 예천군내 관

광지의 이미지 각인 및 제고 전략을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예천군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지역브랜드 설정, 브랜드 로고 작업을 진행하여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다양한 SNS채널에도 적극 활용
- 체류관광을 증대시킬 지역 기반 및 인프라 구축
 -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관광 체험 코스를 조성하고 해당 코스를 적극 홍보하여 사계절 관광·가족 단위 휴식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성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체류관광 증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3) W-O 대응전략

- 사계절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 특화 축제 활성화
 - 통합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레저스포츠 축제를 주축: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를 주제로 특화된 항공레저스포츠 축제를 선도
 - 예천군 방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 시즌을 중심으로 구상하여 사계절 불거리가 가득한 예천군 지역 이미지 제고
- 예천군 지역 내 관광문화벨트 조성
 - 관광지 간 연계성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이 부족했던 권역을 관광문화벨트로 설정하여 코스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이동 편의성 제고

(4) W-T 대응전략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광타운 확충
 - 예천군의 원도심-신도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
 - 원도심에 글로벌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신도시 시민들, 신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자연 및 정신문화 치유 힐링 벨트 구상
 -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제한적인 생활·여가 방식의 급변화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양상
 -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관광중심에서 힐링·치유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천의 산악 자원과 전통자원(서원, 고택 등)을 관광자원화 추진

제4장 대내·외 의견수렴

제1절. 지역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제2절. 지역주민 설문조사

제3절. 지역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제4절.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제5절. 1차·2차 중간보고

제6절. 실과 협의

제4장. 대내·외 의견수렴

제1절. 지역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 일시: 2021년 1월 20일~1월 28일
- 지역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명단
 - 예천군을 대표하는 기업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도의원 및 군의원 등 총 14인

2. 인터뷰 주요 내용

- 예천군 미래발전방안 관련 사항
 - (단기) 신공항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 (중기) AI 등 신기술 도입 및 확산
 - (장기) 기후 변화 대처
 - 예천군 3대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이 중요함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 원도심-신도시 연계방안으로는 '전원도시-첨단 인프라' 도시의 컨셉 연결이 가능함
 - 자연환경을 활용한 원도심 계획 고려 및 원도심-신도시 격차 개선을 목표로 함
 - 문경(점촌)-신도청-안동-신공항 연결 고속철도망 건설이 필요함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방지가 시급한 요소임
 -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이 중요함
 - 농업·유통 중심, 기업 유치에 위한 신산업 육성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고려해야 함
 - 예천군 전반에 걸쳐 편의시설 확대가 필요함

- 지역주민 사고방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
 - 기존의 폐쇄성·배척성을 개선하여 군민 통합으로 연결하는 방안
- 도농복합형 도심으로의 변화 모색
- 예천군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 구상
 - 물, 황토, 곤충의 산업화 추진 등 검토
- 상설시장 활성화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함
 - 시설개선 추진 미비, 고객 휴게시설 부재, 상설시장 연계 부족, 기존 농특산물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필요 등

○ 통합 신공항 연계·산업 관련 사항

- 통합 신공항 이전 효과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분야임
- MICE 산업에 집중이 필요하며, 곤충산업의 체계적 확대안을 모색해야 함
- 도청신도시 부근 컨벤션 센터 건립 검토
- 도립대학과 통합신공항을 연계하여 항공학과 인재양성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 국내식 가공/유통 관련 신산업 발굴이 필요함
 - 예천군의 곤충을 활용한 고단백식 등 개발
- 통합 신공항 대비 체류 시설 및 부대시설 완비를 진행해야 함
- 미래 신공항 수요에 대비한 항공부품단지 조성을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 검토
- 신공항-신도청 4차선 직선 도로망 구축 건의
- 신공항과 연계한 축제 기획 고려
 - 해외사례: 오시코시 항공축제
- 신공항 배후도시 입지를 강조한 대규모 아웃렛 단지 조성 고려
 - 중국, 일본 포함 동남아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효과 기대 가능함

○ 군유지 활용 관련 사항

- 항공 관련 연습장 및 훈련장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항공물류 관련 단지 조성은 거리상 입지 조건 등을 검토한 판단이 필요함
- 28번/34번 국도와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 검토
- 식품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검토 및 연계가능 사업 등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 임야 및 토지 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유치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문화·예술·관광 관련 사항

- 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기존 문화시설의 입지 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 및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
 - 예: 온천 인근 호텔급 숙박시설 확대 등
- 관광객 유치 및 신도시 주민 유입을 도모할 자체적 먹거리 다양성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 예: 낭만 먹거리촌 등
-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문화관광의 중요요소임
 - 인근 시·군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 개발(안동, 영주 등), 기존 관광지 간 연계 코스 강화 등을 고려
- 양반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한옥스테이, 향교, 서원체험 등)
- 금당실마을 적극 개발, 폐철도부지 활용(어울림공원, 레일바이크, 공영장, 푸드트럭 등), 차박 장소 발굴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트라이앵글 역이용 및 예천 문화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고려
- 고령 및 은퇴자를 메인 타겟으로 하는 문화관광 시설 개발이 필요함
- 삼강-회룡포 레저타운 조성 검토
- 신도시와 원도심 간 낭만 가로수길/ 자전거길 조성 검토
- 지역 내 예술인 육성 및 지원 부족이 부족한 실정임
 - 예술사업 지속성 강화, 공연/전시 기회 확대 등 진행

○ 체육·교육·스포츠 관련 사항

- 폐교를 활용한 교육체험장 조성 방안

- 경상북도권 스포츠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전지훈련 캠프 조성안 검토
- 신도시(실내시설)-원도심(실외시설) 건립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체육관 설립 등
- 양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트레이닝센터, 전지훈련시설 등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운영
- 세계적 대회 개최를 위한 예천군 체육·스포츠 관련 인프라 보강이 필요함
 - 전지훈련 체류시설, 부상 재활치료센터 등
- 실업팀 창설: 감독/코치진 확보, 인적 인프라 구축 등
- 육상 아카데미 활동 강화 및 육상/양궁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레저스포츠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활용
- 활: 세계 활 문화 테마파크 추진, 활 아카이브 구축, 축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

○ 보건·복지·인구 관련 사항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근로환경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공공의료단지, 국가감염병연구단지, 실버휴양의료단지, 의대 및 연수원 유치 등을 예천군 현황에 맞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
- 전 세대(신도시 청장년층, 원도심 고령층) 어울림 시설이 필요하므로 조성 검토
-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조성이 필요함
- 기존 아동·청소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야 함

제2절. 지역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일시: 2021년 1월 19일(화) ~ 2021년 1월 29일(금)
- 장소: 예천군 관내 12개 읍면동
- 설문대상자: 예천군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수: 449개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5
- 조사방법: 직접대면조사
- 문항 구성내용
 - 공통부문: 만족도 및 저해요소 4문항
 - 통합 신공항: 경제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2문항
 - 인구: 인구 수준, 인구유입정책 등 2문항
 - 경제: 경제발전 정도, 경쟁력 등 2문항
 - 산업/경제: 기술변화 체감도 등 2문항
 - 농업/농촌: 특산물, 애로사항, 정책 등 2문항
 - 문화/관광: 대표 관광지, 정책 등 2문항
 - 복지/보건: 만족도, 애로사항 등 2문항
 - 미래상: 바람직한 미래상 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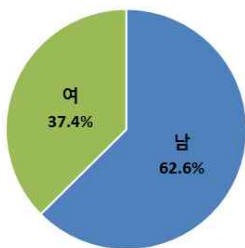
2. 인구학적 특성

1) 성별

- 설문조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로는 응답자 전체 449명 중 여성이 168명으로 37.4%, 남성이 281명으로 62.6%를 차지함

[표 61]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구분	응답(명)	구성비(%)
남	281	62.6
여	168	37.4
전체	4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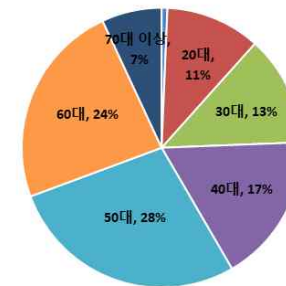
[그림 89]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2) 연령대

- 설문조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대로는 응답자 전체 447명 중 50대가 124명으로 27.6%, 60대가 23.6%, 40대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2]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연령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호	10대	3	0.7
	20대	49	10.9
	30대	57	12.7
	40대	77	17.1
	50대	124	27.6
	60대	106	23.6
	70대 이상	31	6.9
	전체	447	99.6
결측	시스템	2	0.4
전체		449	100.0



[그림 90]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연령대)

3)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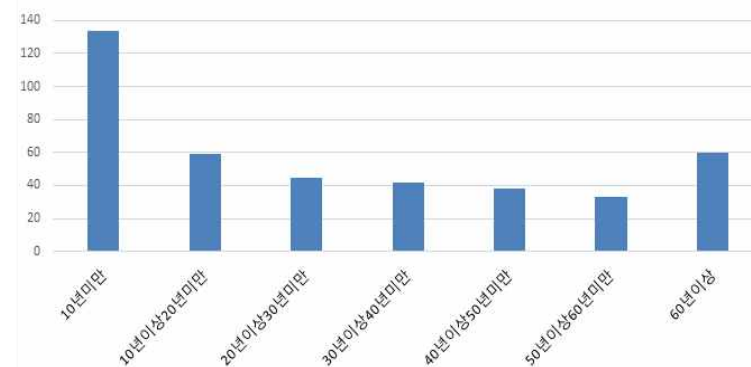
- 설문조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로는 예천읍이 78명으로 17.4%, 호명면 16.5%, 용문면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천읍	78	17.4
용문면	35	7.8
호자면	30	6.7
은풍면	22	4.9
감천면	26	5.8
보문면	30	6.7
호명면	74	16.5
유천면	34	7.6
용궁면	32	7.1
개포면	32	7.1
지보면	28	6.2
풍양면	20	4.5
기타	4	0.9
무응답	4	0.9
전체	449	100.0



[그림 91]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지)



[그림 92]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기간)

4) 거주기간

- 설문조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기간으로는 10년 미만이 29.8%, 60년 이상이 13.4%, 10년 이상 20년 미만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4]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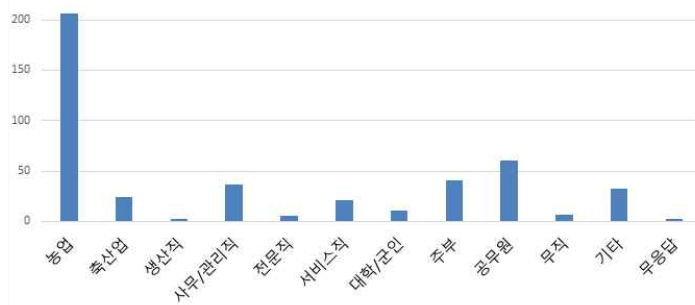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10년 미만	134	29.8
	10년 이상 20년 미만	59	13.1
	20년 이상 30년 미만	45	10.0
	30년 이상 40년 미만	42	9.4
	40년 이상 50년 미만	38	8.5
	50년 이상 60년 미만	33	7.3
	60년 이상	60	13.4
	전체	411	91.5
	시스템	38	8.5
전체		449	100.0

4) 직업

- 설문조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직업으로는 농업이 206명으로 45.9%, 공무원이 13.4%, 주부 9.1% 등의 순으로 차지함

[표 65]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직업)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농업	206	45.9
	축산업	24	5.3
	생산직	2	0.4
	사무 /관리직	37	8.2
	전문직	6	1.3
	서비스직	21	4.7
	대학 /군인	11	2.4
	주부	41	9.1
	공무원	60	13.4
	무직	7	1.6
	기타	32	7.1
	무응답	2	0.4
	전체	449	100.0
	시스템	38	8.5



[그림 93]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직업)

3. 설문조사 결과

1) 지역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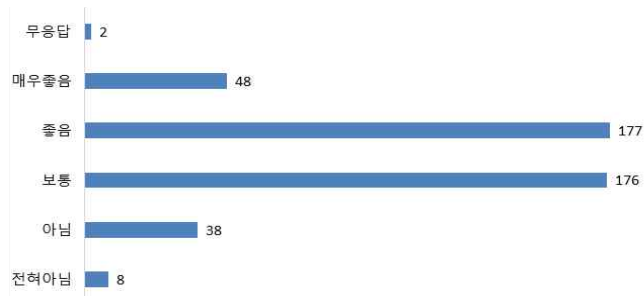
- 예천군이 타 지역 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 답변은 50.1%, 부정적 답변은 10.3%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예천군이 타 지역 대비 살기 좋은 지역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66]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아님	아님	보통	좋음	매우좋음
빈도(명)	8	38	176	177	48
퍼센트(%)	1.8	8.5	39.2	39.4	10.7

*무응답: 2명

(단위: 명)



[그림 94]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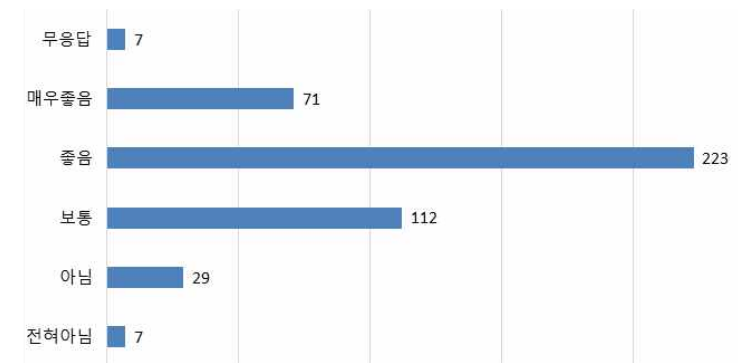
- 앞으로 예천군이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는 긍정적 답변이 65.5%, 부정적 답변이 8.1%로 향후 예천군의 발전에 대한 군민의 관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67] 앞으로 예천군이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아님	아님	보통	좋음	매우좋음
빈도(명)	7	29	112	223	71
퍼센트(%)	1.6	6.5	24.9	49.7	15.8

*무응답: 7명

(단위: 명)



[그림 95] 앞으로 예천군이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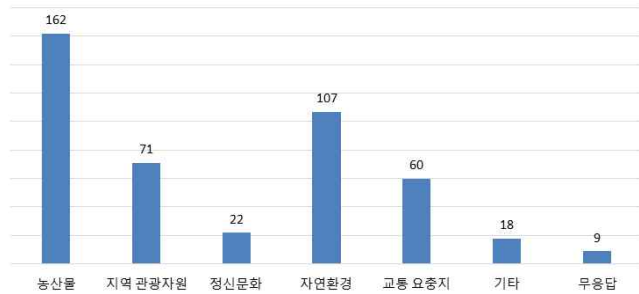
2) 지역발전 촉진

-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촉진시킨 중요 분야에 관한 문항에서 농산물 36.1%, 자연환경 23.8%, 지역 관광자원 15.8% 등의 순으로 중요 분야가 나타남

[표 68]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촉진시켰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농산물	지역 관광자원	정신문화	자연환경	교통 요충지	기타
빈도(명)	162	71	22	107	60	18
퍼센트(%)	36.1	15.8	4.9	23.8	13.4	4.0

*무응답: 9명



[그림 96]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촉진시켰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3) 지역발전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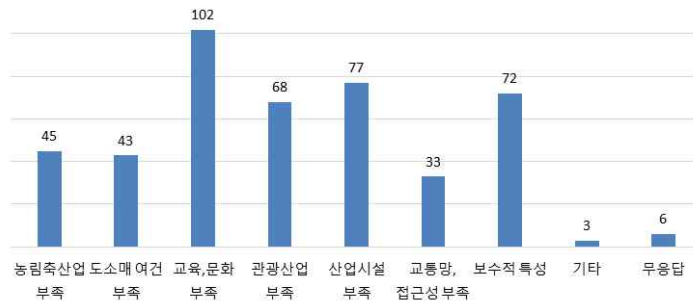
- 지금까지 예천군 지역발전을 저해한 요인에 관한 문항에서는 교육·문화 부족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산업시설 부족 17.1%, 보수적 특성 16.1%, 관광산업 부족 15.1% 등의 순으로 저해 요인이 나타남

[표 69] 예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 업 부족	도소매 여건 부족	교육,문화 부족	관광산업 부족	산업시설 부족	교통망, 접근성 부족	보수적 특성	기타
빈도(명)	45	43	102	68	77	33	72	3
퍼센트(%)	10.0	9.6	22.7	15.1	17.1	7.3	16.0	0.7

*무응답: 6명

(단위: 명)



[그림 97] 지금까지 예천군 발전을 저해시켰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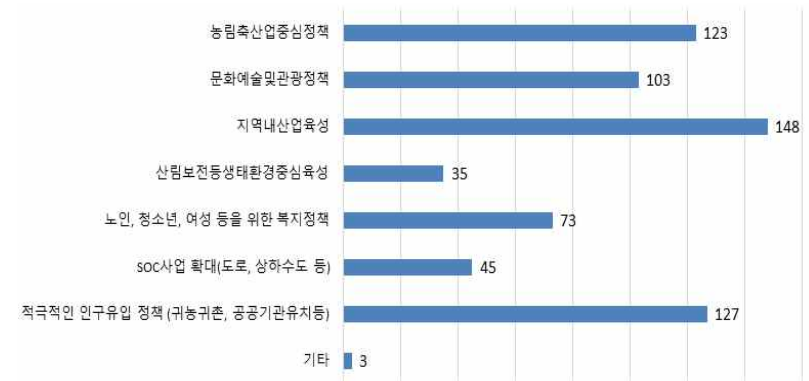
4) 장기발전방향

- 예천의 미래 발전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지역 내 산업육성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 19.3%, 농림축산업 중심 정책 18.7%, 문화예술 및 관광 정책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0] 예천의 미래 발전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업 중심정책	문화예술 및관광 정책	지역내 산업육성	산림보전 등 생태환경 중심육성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복지정책	SOC사업 확대 (도로, 상하수도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귀농귀촌, 공공기관 유치등)	기타
빈도(명)	123	103	148	35	73	45	127	3
퍼센트(%)	18.7	15.7	22.5	5.3	11.1	6.8	19.3	0.5

(단위: 명)



[그림 98] 예천의 미래 발전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통합 신공항

- 통합 신공항 이전이 예천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1.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1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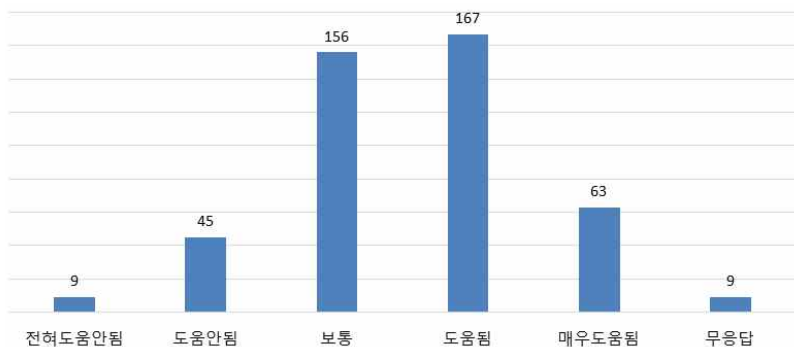
(단위: 명)

[표 71]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빈도(명)	9	45	156	167	63
퍼센트(%)	2.0	10.0	34.7	37.2	14.0

*무응답: 9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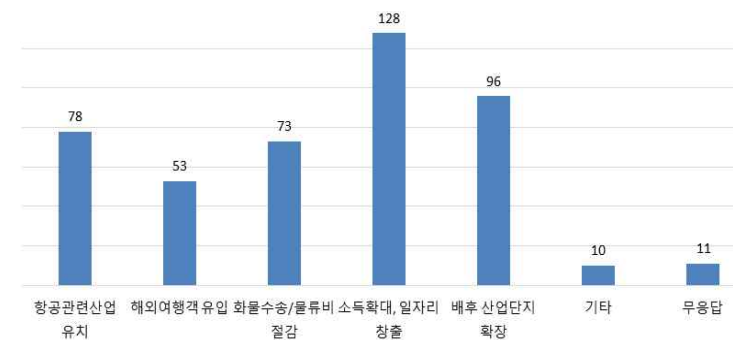
[그림 99]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득확대·일자리창출 분야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후 산업단지 확장(21.4%), 항공 관련 산업유치(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2]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항공 관련 산업 유치	해외여행객 유입	화물수송 / 물류비 절감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배후 산업단지 확장	기타
빈도(명)	78	53	73	128	96	10
퍼센트(%)	17.4	11.8	16.3	28.5	21.4	2.2

*무응답: 11명



[그림 100] 신공항 이전에 따라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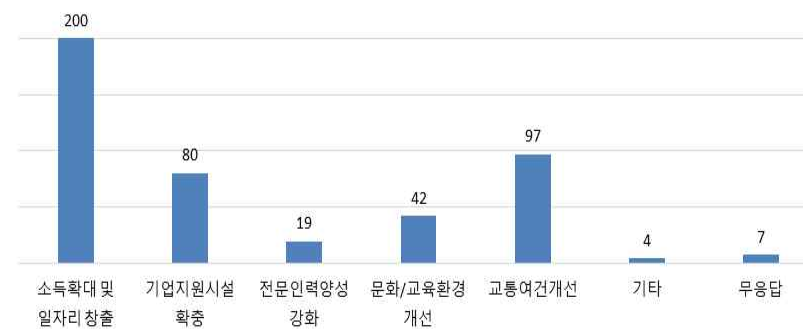
-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에 관한 문항에서는 소득확대 및 일자리창출 부문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여건 개선 21.6%, 기업 지원시설 확충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3]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무엇입니까?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시설 확충	전문인력양성 강화	문화/교육 환경 개선	교통여건개선	기타
빈도(명)	200	80	19	42	97	4
퍼센트(%)	44.5	17.8	4.2	9.4	21.6	0.9

*무응답: 7명

(단위: 명)



[그림 101]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6) 전략사업

-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으로 적합한 것을 묻는 문항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22.0%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축산업 활성화 19.5%, 관광산업 육성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4]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관광산업 육성	귀농귀촌자 등의 외부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신공항 관련산업 활성화	군내지역 간 균형발전	소상공인, 자영업,중 소기업등 지원강화	기타
빈도(명)	135	152	100	91	74	73	63	4
퍼센트(%)	19.5%	22.0%	14.5%	13.2%	10.7%	10.5%	9.1%	0.6%

(단위: 명)



[그림 102]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7) 농촌 및 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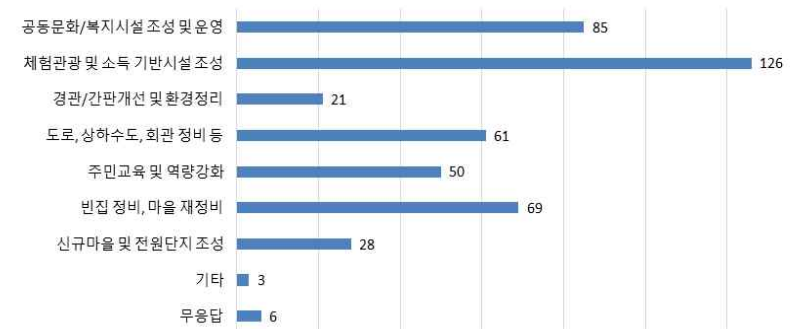
- (사업수요) 예천군 농촌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체험관광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문화·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18.9%, 빈집·마을 재정비 15.4%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75] 예천군 농촌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공동문화/ 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체험관광 및 소득 기반시설 조성	경관/간판 개선 및 환경정리	도로, 상하수도, 회관 정비 등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빈집 정비, 마을 재정비	신규마을 및 전원단지 조성	기타
빈도(명)	85	126	21	61	50	69	28	3
퍼센트(%)	18.9	28.1	4.7	13.6	11.1	15.4	6.2	0.7

*무응답: 6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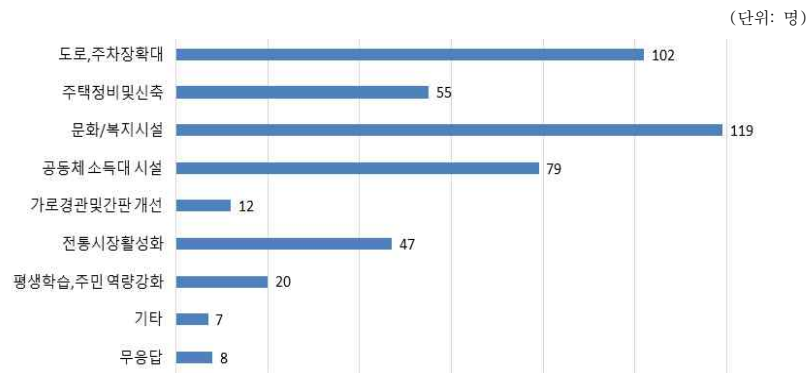
[그림 103] 예천군 농촌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읍면중심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주차장 확대 22.7%, 공동체 소득증대시설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6] 읍면중심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도로, 주차 장확대	주택정비 및신축	문화/복지 시설	공동체 소득증대 시설	가로경관 및간판 개선	전통시 장활성 화	평생학습, 주민 역량강화	기타
빈도(명)	102	55	119	79	12	47	20	7
퍼센트(%)	22.7	12.2	26.5	17.6	2.7	10.5	4.5	1.6

*무응답: 8명



[그림 104] 읍면중심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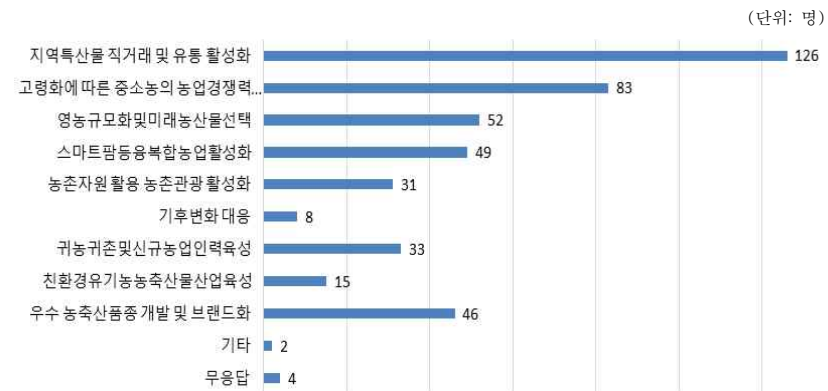
8)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 지역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 활성화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화에 따른 중소농 농업경쟁력 강화 18.5%, 영농 규모화 및 미래 농산물 선택 11.6%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77] 예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도(명)	퍼센트(%)
지역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 활성화	126	28.1
고령화에 따른 중소농의 농업경쟁력 강화	83	18.5
영농 규모화 및 미래농산물 선택	52	11.6
스마트팜 등 융복합 농업 활성화	49	10.9
농촌자원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31	6.9
기후 변화 대응	8	1.8
귀농귀촌 및 신규 농업인력 육성	33	7.3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산업 육성	15	3.3
우수 농축산품종 개발 및 브랜드화	46	10.2
기타	2	0.4

*무응답: 4명



[그림 105] 예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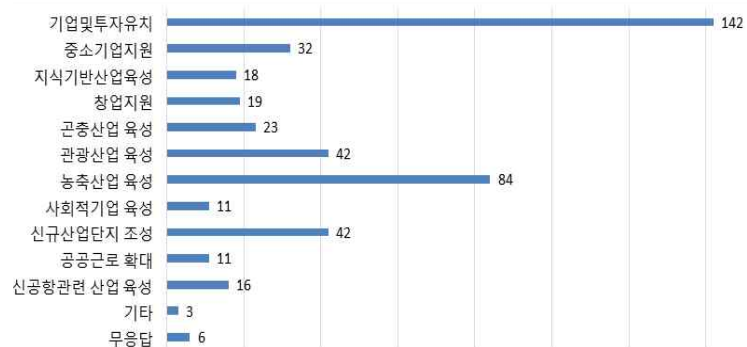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지에 관한 문항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가 31.6%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농축산업 육성 18.7%, 관광산업 육성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각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빈도(명)	퍼센트(%)
기업 및 투자유치	142	31.6
중소기업 지원	32	7.1
지식기반 산업육성	18	4.0
창업지원	19	4.2
군축산업 육성	23	5.1
관광산업 육성	42	9.4
농축산업 육성	84	18.7
사회적기업 육성	11	2.4
신규산업단지 조성	42	9.4
공공근로 확대	11	2.4
신공항공 관련 산업 육성	16	3.6
기타	3	0.7

*무응답: 6명

(단위: 명)



[그림 10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10)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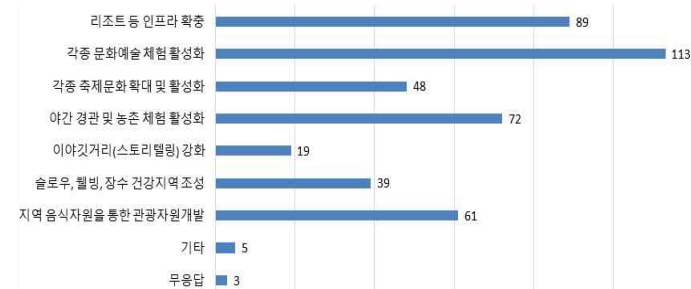
- 예천군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각종 축제문화 확대 및 활성화가 25.2%로 가장 높았으며, 리조트 등 인프라 확충 19.8%, 야간 경관 및 농촌체험 활성화와 16.0%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표 79] 예천군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리조트 등 인프라 확충	89	19.8
각종 문화예술 체험 활성화	113	25.2
각종 축제문화 확대 및 활성화	48	10.7
야간 경관 및 농촌 체험 활성화	72	16.0
이야깃거리(스토리텔링) 강화	19	4.2
슬로, 웰빙, 장수 건강지역 조성	39	8.7
지역 음식자원을 통한 관광자원개발	61	13.6
기타	5	1.1

*무응답: 3명

(단위: 명)



[그림 107] 예천군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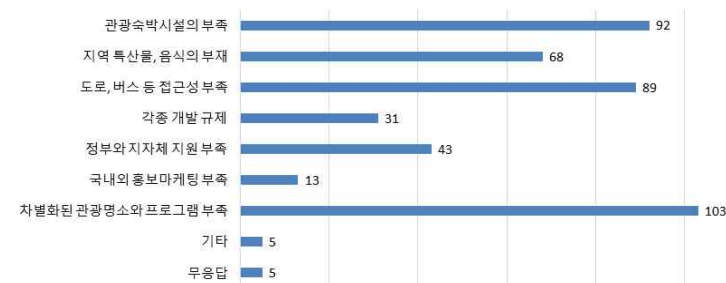
- 예천군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 차별화된 관광명소와 프로그램 부족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숙박시설 부족 20.5%, 도로·버스 등 접근성 부족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0] 예천군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숙박 시설의 부족	지역 특산물, 음식의 부재	도로, 버스 등 접근성 부족	각종 개발 규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부족	국내외 홍보마케팅 부족	차별화된 관광명소와 프로그램 부족	기타
빈도(명)	92	68	89	31	43	13	103	5
퍼센트(%)	20.5	15.1	19.8	6.9	9.6	2.9	22.9	1.1

*무응답: 5명

(단위: 명)



[그림 108] 예천군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보건복지

- 예천군의 보건복지시설 중 시급히 조성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문항에서 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이 49.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13.4%, 저출산 대응시설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1] 예천군의 보건복지시설 중 시급히 조성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공공병원 등)	220	49.0
마을단위 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	29	6.5
노년세대를 위한 주거공간(실버타운)	32	7.1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60	13.4
전문요양시설(노인치매, 중증질환자)	27	6.0
저출산 대응 시설(육아지원센터 등)	57	12.7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2	2.7
기타	9	2.0

*무응답: 3명

(단위: 명)



[그림 109] 예천군의 보건복지시설 중 시급히 조성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2) 도로교통·정주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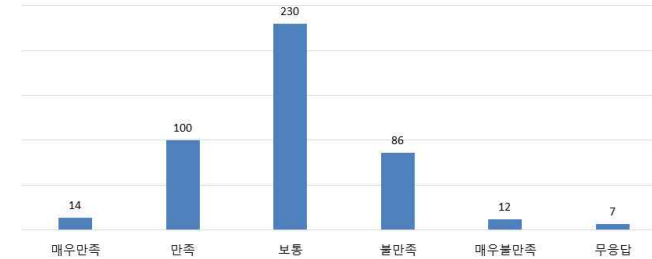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 긍정적 의견은 25.4%, 부정적인 의견은 21.9%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82] 현재 거주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빈도(명)	14	100	230	86	12
퍼센트(%)	3.1	22.3	51.2	19.2	2.7

*무응답: 7명

(단위: 명)



[그림 110] 현재 거주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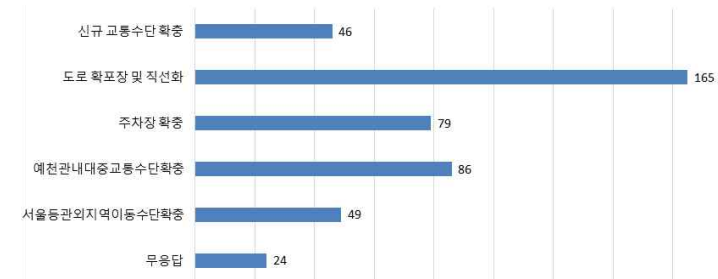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것이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도로 확포장 및 직선화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천 관내 대중교통수단 확충 19.2%, 주차장 확충 17.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표 83]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교통수단 확충	도로 확포장 및 직선화	주차장 확충	예천관내 대중교통수단 확충	서울 등 관외지역 이동수단 확충
빈도(명)	46	165	79	86	49
퍼센트(%)	10.2	36.7	17.6	19.2	10.9

*무응답: 24명

(단위: 명)



[그림 11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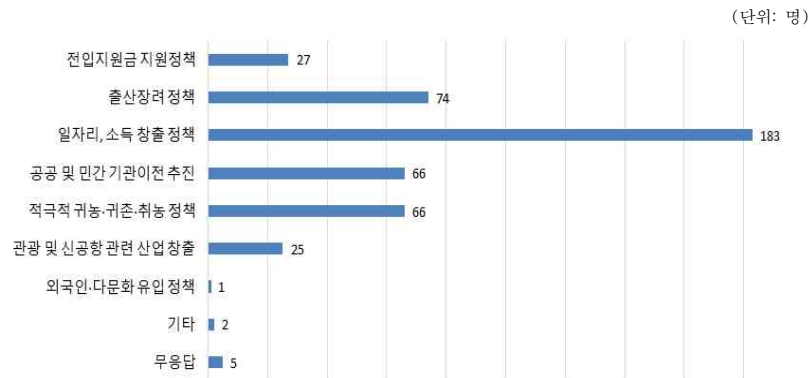
13) 인구정책

- 예천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일자리·소득창출정책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정책 16.5%, 공공 및 민간 기관이전 추진과 적극적 귀농·귀촌·취농 정책이 각 66.0% 등의 순으로 응답이 확인됨

[표 84] 예천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전입지원금 지원정책	27	6.0
출산장려 정책	74	16.5
일자리, 소득 창출 정책	183	40.8
공공 및 민간 기관이전 추진	66	14.7
적극적 귀농·귀촌·취농 정책	66	14.7
관광 및 신공항 관련 산업 창출	25	5.6
외국인·다문화 유입 정책	1	0.2
기타	2	0.4

*무응답: 5명



[그림 112] 예천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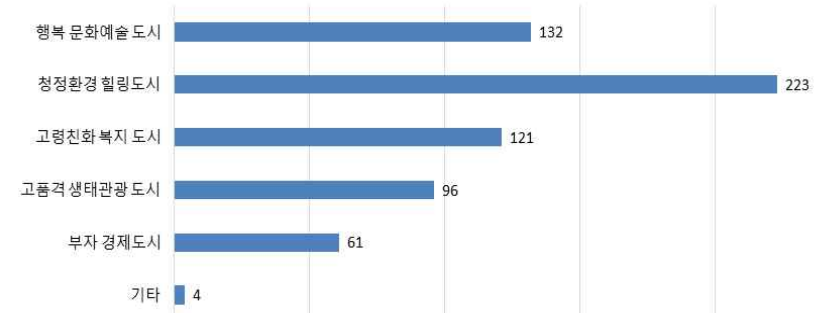
14) 예천군 미래상

- 향후 30년 후 예천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청정환경 힐링도시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 문화예술도시 20.7%, 고령친화 복지도시 19.0%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85] 향후 30년 후 예천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빈도(명)	퍼센트(%)
행복 문화예술 도시	132	20.7%
청정환경 힐링도시	223	35.0%
고령친화 복지 도시	121	19.0%
고품격 생태관광 도시	96	15.1%
부자 경제도시	61	9.6%
기타	4	0.6%

(단위: 명)



[그림 113] 향후 30년 후 예천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4. 설문조사 시사점

[표 86] 예천군민 지역주민조사 시사점

분야	지역주민의 인식
통합신공항 이전	- 예천군 경제활동에 통합 신공항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확대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산업 육성과 더불어 교통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인구	-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적 변화 양상을 군민들도 인지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인구 증가 방안 모색 필요
경제	예천군의 장기적 미래발전방향으로 지역 내 산업육성 및 유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
농업·농촌	- 현재의 예천군 발전을 이끈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 - 향후 체험관광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농업 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문화·관광 생활체육	- 읍면중심지 개발에서 문화·복지시설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로 대두 - 예천군 특화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문화 및 리조트 인프라 확충 필요 -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
보건·복지	-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이 최우선 -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저출산 대응시설 필요

제3절. 지역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일시: 2021년 3월 3일 10:00~11:00 (외부 전문가)
2021년 3월 4일 14:00~16:00 (내부 전문가)
- 장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대회의실(외부), 예천군(내부)
- 지역 내·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위원	내부 전문위원
김향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동은(예천군의회 군의원)
심근섭(농촌진흥청)	조윤(정택기념회 회장)
양진홍(한국국토연구원)	정외지((주)그루작 실장)
홍진기(한국산업연구원)	

2.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의견

- 농업·농촌 분야
 - 인구유입을 위해서 4차 산업을 대입한 스마트팜, 곤충산업 등으로 연계 추진이 필요함
 - 곤충산업: 기능성/가공산업 중심으로 육성 고려해야 함
 - 공항 이전에 따른 물류에서 예천군인 중요한 거점으로 수행 가능 → 기능성 곤충 제품 개발, 농업의 내수 시장 해외시장으로 확대 등 추진 가능함
 -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점(전략기지) 설정 선행될 것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천군 농산물 활용한 창의적 사업 아이템 창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산업·경제 분야
 - 지역의 입지와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여 사업 유치 / 틈새 품목을 설정해야 함
 - 사례: 영주시의 범용 베어링 산업

- 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을 리스트화하여 예천군에서 실행 가능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안
 - 기업 성공사례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업 기반이며 기술 분야가 높지 않은 제품으로 선정
 - 사례: 소형 전기차
- 우수한 수(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 모색, 황토밴트 조성 등 검토
 - 황토 활용 제품 다양화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

○ 원도심-신도시 연계 분야

- 예천읍을 도시형으로 발전시키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전원형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고려
- 거주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빈집을 군 차원에서 매입하여 공원/주차장/공공 휴게시설 정비로 전원 도시 형태 개선 방향도 가능함
-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종합복지관 조성안
 - 아동~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도록 복합시설 조성
- 원도심-신도시 사이 가로수길, 자전거길 등 조성하는 방안 (경관사업)
- (신도시) 감염병 연구단지, 기타 부품소재 기업 등 유치를 통해 젊은 인구 유입 장려가 필요함
- (원도심) 기존 맛집 및 가게를 발굴해서 외지인이 방문하기 좋도록 활성화
 - 로컬 크리에이터 골목길 창업 유도

○ 문화·관광 분야

- 예천군의 지역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메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한 단계임
 - 지역 브랜드 포지셔닝의 중요성
- 예천군 메인 키워드: 마음의 피난처, 자연 휴양, 힐링 → 농촌 유토피아로 연결함
 - 농촌 유토피아로 관광을 확장시켜 교육, 주거, 생활까지 종합 발전 도모
- 박서보 미술관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전체를 경관계획으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함
- 프로젝트에 300억 이상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 시스템까지 갖춰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임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저하됨)

- 소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지불하고 체류하며 완성도 높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화 전략이 필요함
-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사업, 체류형 관광 사업을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변화양상을 고려한 문화관광 사업 개발 필요(차박 여행 수요 증가)

○ 지역개발 분야

- 중장년(은퇴자) 대상으로 체류하며 지방에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함
- 정부부터 귀촌, 작물재배~판매까지 귀농인의 어려움을 공공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상
 - 중장년(은퇴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지역 단지화 추진안
 - 생활, 의료 인프라 등 확충
 - 단지화 규모는 약 2,500명 선
- 다(多)지역 순환 전략 구상 제안
 - 주변 지자체와 협업하여 영주/예천/문경 등 인근 지역 순환 체류 시스템 구성함
 - 향후 마음에 드는 지역에 정착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을 포함함
 - 사례: 금산 커뮤니티 센터 / 교육훈련 및 일반 서비스 시설을 한 곳에 군집 구성함
-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 상설시장 → 공설시장으로 변화가 필요함



[그림 114] 전문가 자문회의

제4절.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1.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4월 29일(수) 10:30~12:00
- 장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예천군 출향민 기업인

출향민 세미나 참석인	
안상구 (재경예천군민회장)	정재승 (코스닥협회 회장)
권세준 (덕성여대 교수)	석근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권영갑 (전/예천읍민회장)	윤상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임석중 (대한잡사회 회장)	이국중 (재경예천군민회 사무국장)

2) 세미나 주요 논의 사항

- 예천군 지역 브랜드 및 인지도 관련
 - 예천군 자체의 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한 편임
 -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 고려하여 수(水)자원 연계 음료, 산림 등에 활용할 것
- 예천군 지역 강점
 - 예천군은 상대적으로 지역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임
 - 전국대비 지역 우수인재 약 10배 배출(전문직 등)
 - 예천군의 기존 강점 및 보유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출하여 예천군 창업 활성화, 곳감 브랜드화 등을 포함해야 함
- 예천군 문화관광 및 개발 관련
 - 예천은 잠옷단지조성 추진 이력 및 내용을 보유함
 - 농가 및 주민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소득개발사업 발굴이 필수적임

- 관광객 체류를 위한 시설/먹거리/즐길 거리가 부족한 실정임
- 삼광문화단지를 중심으로 관광허브를 구축해야 함
- '보는' 관광이 아닌 '직접 체험' 하는 공간 조성 필요
 - 예: 강문화박물관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등
- 루지, 집라인 설치하는 방안 고려
 - 루지 설치운영 사례: 통영은 3호까지 설치 예정
- 예산을 확실히 투자해서 '예천군 랜드마크' 를 임팩트 있게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체류형 관광객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함

○ 예천군 산업경제 관련

- 소규모 기업·수공업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집중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정착 및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중요요소임
 - 정착 지원금 대폭 지원, 임대료 할인 등
- 원도심을 활성화해서 기능장들을 정착시키는 방안 검토

○ 기타 의견

-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방법론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정주인구 확대)
 - 유치원, 영어마을, 교육개발사업 확대, 교육·문화시설 조성 등
 - 젊은 층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소득창출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가능함
- 감염병 연구단지의 경우 '감염병' 용어의 민감도가 높아 주민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공업용 드론사업의 경우, HW와 SW 기반을 모두 갖춰서 진행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그림 115] 출항민 기업인 세미나

제5절. 1차·2차 중간보고

1. 출항민 기업인 세미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1차) 2021. 03. 26(금) 15:30~17:30
(2차) 2021. 06. 25(금) 15:00~16:00
- 장소: 예천군청
- 참석자: 예천군 실과 담당자 및 지역 관계자 등

2) 주요 논의 사항

- 예천군 맞춤형 전략 제시 필요
 - 타 시군이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 또는 전략의 선정
 - 예천군 현실을 반영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정책방향·핵심정책방안에서 선택과 집중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진행 계획 제시
 - 예천군 10만 도시 달성을 위한 선행과제 고려
- 예천군 종합발전계획과의 유사점 및 차별점 명확화
 - 2030 종합계획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 파악을 위해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제시 필요
 - 예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과는 분리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은 따로 설정하여 제시
- 신도청과 구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 구도심 불량건물 철거, 도로 확포장, 기반 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 관광객 유치 및 머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 개선
 - 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 관광객 숙박 시설 확충, 볼거리-먹거리-즐거리 개발
 - 정주 형태의 다양한 체류 아이템을 만들어 향후 예천군 정착 유도
 - 박서보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광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 방안 수립

○ 장기적 사업 발굴

- 경북 거점 컨벤션 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군민 행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등

○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큰 핵심사업(선도사업) 추가 발굴

- 해외사례 + 정부 정책(북부권 미래전략 등) + 예천군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핵심사업 발굴
 - 물류단지(도청 신도시 연계)
 - 박서보 미술관 (문화관광 연계)
 - 삼강문화단지 활성화 방향성

○ 통합 신공항 이전과 '이음' 비전의 연관성 강조

- 본 용역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전 도출 근거 및 방향성 정리
- 원도삼-신도시 연결, 인근 지역 간 연결, 세대 연결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비전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제시 요청
- 예천군 출향민 기업인 인터뷰 등 자문을 통해서 현실성 반영

○ 최종보고 포맷 재정립

- 대규모 프로젝트(복합단위사업) 제시
- 그 외 핵심과제(세부사업)는 각 분야별 챕터로 정리하여 제시



[그림 116] 1차·2차 중간보고

제6절. 실과 협의

1. 예천군 실과 협의 개요

- 일시: 2021년 05월 13일(목) 10:30 ~ 11:30 / 14:00 ~ 17:00
- 장소: 예천군청
- 참석자: 예천군청 각 실과소 담당자, 분야별 연구진(5인)

2. 분야별 실과 협의 주요 내용

1) 산업·경제 분야

- 밀키트·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관련 사항
 - 밀키트 산업 정착을 위한 기업유인책 발굴이 필요함
 - 예천군 내 음료 전문 OEM/ODM기업 및 음료수출 전문 공장을 보유 중임
 - 도내 대표 주류기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에너지·슬로시티 관련 사항
 - 하늘자락공원 풍력단지: 현재 검토 및 샘플링 단계(2022년 이후 착공 예상)임을 고려
 - 생태계 파괴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타 지자체 사례 검토가 필요함
 - 예천군의 현재 인구는 슬로시티 가입요건에 초과 상태임
- 복합쇼핑단지조성·황토산업 육성·대마 산업 관련 사항
 - 중소기업도 직업체험 테마파크 등 에듀테인먼트 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쇼핑몰 운영은 기업유치가 관건임.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세계 최고 기술력의 황토벽돌 전문 생산기업(삼한씨원) 소재지가 예천이므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햅프(대마)특구인 안동시와의 재배 협업 가능성 고려

2) 보건·복지 분야

- 평생교육 관련 사항
 - 현재는 일자리 중심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됨

- 계층·성별별 프로그램 독자 운영으로 교육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함
- 평생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서별 프로그램 통합관리 방안 검토
- 시니어센터 활용 방안: 노인층 일자리 활동 연계, 장애인 독립 활동 지원 등

○ 복지 관련 사항

- 안전 확인 기술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사항보다 고도화된 운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여성/청소년/아동/학대 예방시설의 보충이 필요한 실정임
- 예천군 내 복지 구심점 부족: 종합복지관 필요성이 대두됨
- 공공부문에서의 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병원의 확대가 시급함

○ 보건·의료기관 관련 사항

- 온천을 활용한 치료/재활 의료복지시설 개발방안 모색
- 공공의료기관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방안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3) 문화·관광·체육 분야

○ 핵심전략 관련 의견 및 요청사항

- 숙박시설·여가 문화가 강조된 사업으로 제시 요청
- 무형문화재 농요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불교, 유교 외 기독교 문화 관련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 고려
- 스포츠 의료관광단지 조성 실현 가능성 검토(2050년 장기적 플랜으로 구상)
- 야간 스마트 경관 마스터플랜 구축 → 삼강문화단지 중심으로 조성 검토

○ 향후 연구 진행 관련 의견 제시

- 2050년 예천군 미래상 설정 구체화 필요 → (예) 스포츠의 메카, 문화예술의 도시
-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견인해야 하는 핵심전략 및 사업을 선별해야 함
- (스포츠) 종합경기장 설립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 및 관광 유치 등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주변 지역과 예천군의 차별성 강조 / 예천 지역 브랜드 홍보 강화전략 수립
- 분야별 이음 전략에 대한 연결성 보강이 필요함

- 경관농업과 관광의 매칭 방안을 구상해야 함

4) 농업·농촌 분야

○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농업분야 대응

-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축 중심으로 스마트팜 단지 집중 육성함으로 신·구도시 연결하는 방안 고려
 - 시설원에 신선농산물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단지 등
- 고부가가치 신선채소 종자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함(고급화 및 수출화 전략)
- 예천군 친환경 농산물 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검토가 필요함 (수출 경쟁력 확보 등)

○ 농업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항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과채류 실증단지 조성
- 기업형 농업육성 및 유치: 농자재 및 시설지원,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 등
- 귀농귀촌 집중단지 조성: 지역정착 지원/ 마케팅 유통전문가 컨설팅 등
- 산지유통센터 종합화(로컬푸드센터) 및 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축산) 가축사양기술 개발을 통한 한우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양돈단지 개발을 고려해야 함

○ 경관농업 및 곤충산업 관련

- 문화관광단지 주변 경관농업육성, 예천 농업생태원 조성 검토 필요
- 예천 양봉 특화(예천봉밀 브랜드화), 산업곤충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



[그림 117] 분야별 실패협의



제5장 기본 구상

제1절. 기본 구상

제5장. 기본 구상

제1절. 기본구상

1. 예천군 비전 도출 과정

-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예천군 미래발전전략의 비전 도출을 위하여 통합신공항 이전, 인구/보건/복지, 산업/경제, 농업/농촌, 지역개발,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메가트렌드를 분석함
- 예천군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지역주민 설문, 지역 내·외부 전문가 자문,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예천군 실과 담당자 협의를 진행함
- 종합분석을 통하여 SWOT 분석 및 키워드 분석을 실시함
- 통합신공항, 인구/보건/복지, 산업/경제, 농업/농촌, 지역개발, 문화/관광 6개 영역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미래전략을 설정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예천군 미래발전전략의 비전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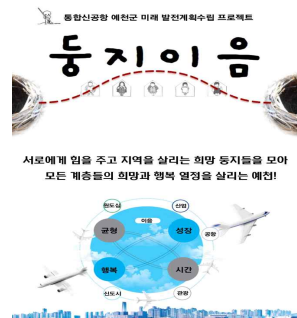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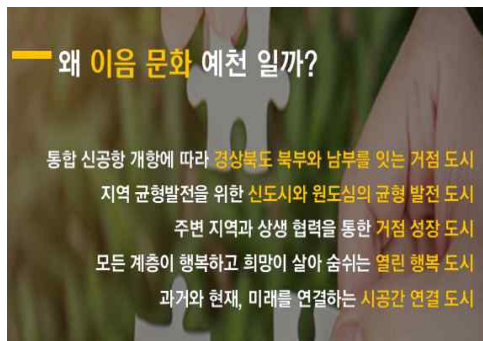
[표 87] 예천군 미래발전전략 비전 도출과정

구분	내용
현황 및 메가트렌드 분석	통합신공항 이전
	인구/보건/복지 현황분석
	산업/경제 현황분석
	농업/농촌 현황분석
	지역개발 현황분석
	문화/관광/체육 현황분석
대내·외 의견 수렴	지역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역 내외부 전문가 자문
	출향민 기업인 세미나
	예천군 실과 담당자 협의
종합분석	SWOT 분석
미래전략 수립	키워드 분석
	분야별 미래전략 수립
	↓
비전설정	통합 신공항 이전 예천군 미래 비전 도출

2. 예천군 미래 발전 비전

■ 비전 : 한반도 이음 문화 예천

- 미래발전계획에서 비전(vision)이란 '바람직한 미래상이자 계획의 궁극적 목표상'을 의미함. 이러한 비전이 몽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는 잠재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또 국가의 국토관리 철학과 공유하는 방향이어야 함
-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그동안 소외 받았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 기대가 향상되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예천군은 통합신공항 및 경상북도청 이전에 따라 경상북도내의 산업 및 관광의 거점 역할 기능이 매우 높아진 상태로 이에 대비한 미래 신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예천군은 타지역에 비해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나 원도심 및 그 외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한 상태로 지방소멸 및 인구 증가 방안이 모색이 필요함
- 원도심은 고령층, 신도시는 청년층으로 인구 계층이 구성되어 있어 모든 계층이 행복하고 희망이 숨쉬는 행복도시로 지역 발전 추구 전략 마련 필요
- 회룡포 및 삼강주막, 금당실마을 등 과거의 역사 시간이 흐르고 있고, 4차산업과 결합된 미래 신도시와의 시공간 연결체 구성으로 미래 예천군 모습 발굴 요구



3. 예천군 미래 발전 전략

-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시간 도시 예천
 - 어르신, 아이, 청년 등 모든계층이 함께 어울리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도시 예천
 -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하고 지역 간 소통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감동도시 예천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도시 예천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 역사와 힐링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하게 즐기며 정주하는 녹색도시
- 산업과 문화예술이 이어지는 향유도시 예천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물류산업 육성 및 기존 곤충산업과 연계하고 동식물을 매개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팜과 연계한 미래 농업 육성을 통해 부자 농촌 예천 만들기
 - 역사 및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도심의 문화예술을 이어주는 문화향유도시 예천





제6장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제1절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제6장.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제1절. 통합신공항 연계 핵심사업

순번	사업명
1	예천 공항조성 확대 및 발전계획
2	밀키트(Meal Kit) 식품단지 조성
3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단지 조성
4	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5	스마트 슬로우 라이프 청년 업무지구 조성
6	신선식품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7	예천 ART 커넥션 문화복합팩토리 조성
8	자연 및 정신문화 치유힐링벨트 조성

사업1 예천 공항조성 확대 및 발전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연간 10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 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보유
- 2005년 12월 민항 폐지로 현재는 공군 군비행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및 경상북도 주변 울진과 울릉공항과 연계방안 필요성 증대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0~2040년
- 위 치 : 예천공항 및 인근 부지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종합훈련센터 건의, 항공훈련센터 인프라 조성, 소형항공기 운행 등
- 총사업비 : 45,500백만 원(국비 11,000/ 지방비 29,500/ 민자 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국토교통부 종합항공훈련센터 건의
 - 사업비: 10,500백만 원 (국비 3,500백만 원/ 지방비 7,000백만 원/ 민자 0)
 - 국토교통부 종합항공훈련센터 유치
 - 항공법기준에 의거 종합항공훈련센터 유치 건의
 - 현 예천공항 내 시설 기반 조성
 - 전반적인 항공종사자 육성방안 수립
 - 활주로 증설, 계류장, 정비고 확장, 인프라 구축
- 종합항공훈련센터 인프라 조성
 - 사업비 : 5,000백만 원(국비 2,500백만 원/ 지방비 2,500백만 원/ 민자0)
 - 예천공항 인프라 확장

- 종합적인 비행 교육 기능 강화
-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항공 서비스직, 기내식 관련 종사자 등) 교육
- 헬기, 드론, 비행 등 조종사 인력 확보, 실습 여건 개선 및 교육생 및 인력확보

○ 종합항공훈련센터 조성

- 사업비 : 20,000백만 원 (국비 5,000백만 원/ 지방비 12,000백만 원/ 민자 3,000백만 원)
- 종합 항공 훈련센터 조성
 - 운항 객실, 승무원 훈련공간, 업무 휴식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
 - 운항훈련공간: 모의 비행 장치, 예비 신기종 조종사 양성을 위한 모의 비행 장치 확보
 - 객실 승무원 훈련 공간 : 비상 탈출 슬라이드, 화재 진압 훈련실, 응급처치 실습실, 도어트레이너 등
 - 항공정비 훈련공간 : 항공정비 및 헬리콥터 정비 등 항공정비, 항공기 정비 실습 등

○ 소형 항공기 운행

- 사업비 : 10,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8,000백만 원/ 민자 2,000백만 원)
- 국내선 민간항공기 재 운행
 - 김포, 통합신공항 연계한 민간 항공기 운행 재개
- 예천공항에서 울릉공항으로 소형 항공기 운행
 -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변 울릉 공항 등 방문을 위해 소형 항공기 운행

4) 예산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국토교통부 종합항공훈련센터 건의	10,500	10,500	-	-
종합항공훈련센터 인프라 조성	5,000	-	5,000	-
종합항공훈련센터 조성	20,000	-	10,000	10,000
소형 항공기 운행	10,000	-	5,000	5,000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45,500백만 원(국비 11,000/ 지방비 29,500/ 민자 5,0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공모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항공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6) 유사사례

(1) KAC 항공훈련센터

- 개소: 2017. 6월 김포국제공항 내 위치
- 목적: 항공기 조종사 양성
- 교육과정: 제트전환과정(조종사 교육 중간단계의 고등훈련과정)
- 시설
 - 로비: 4,000㎡ 규모의 항공훈련센터 로비
 - 교육시설: 강의실 및 브리핑실(제트훈련과정 교육 진행, 20인 수용)
 - 시뮬레이터홀*: 모의비행장치 6대 설치/ 비행 시뮬레이션 진행
 - 세계 최대 시뮬레이션 제작 및 항공인력양성 기업인 캐나다CAE(Canadian Aviation Electronic)사가 참여 및 설립



[그림 118] KAC 항공훈련센터

(2) 영종도 운항훈련센터

- 개소: 2016년 영종도 신축 이전(대한항공-보잉 사 합작투자)
- 면적: 부지 3만 2,614㎡ / 연면적 8,660㎡
- 연간 3,500명 조종사 훈련이 가능한 대형 운항훈련시설
 - 시뮬레이터 12대: FFS, 모의비행장치 등 8대 및 신기종 4대
 - 보잉 787·777·747·737, 에어버스 380·330 등 보유 항공기 전 기종의 시뮬레이터를 운영
- 교육과정
 -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
 - 지상학 훈련과정



[그림 119] 영종도 운항훈련센터

7) 기대효과

- 우수한 항공 인력 확보를 통한 미래 항공산업에 이바지
- 종합항공훈련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 향상

8) 향후 계획

-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와 공모사업 진행

사업2

밀키트(Meal Kit) 식품단지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밀키트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재료와 레시피를 제공하는 세트로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시대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 친환경 건강식품의 관심 증대, 온라인 배송 증가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양상
- 신도시, 신공항 배후지역 입지, 초고령화 대응 식품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판매망 확보 가능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40년
- 위 치 : 예천군 농공3단지 일원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밀키트 연구소 조성, 인력양성 및 판매장 조성, 유통 판매망 확보 등
- 총사업비 : 54,000백만 원(국비 6,000/ 지방비 17,000/ 민자 31,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 사업비: 45,00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10,000/ 민자 30,000백만 원)
 - 제3농공단지 내 밀키트 식품단지 조성
 - 입주기업 세제혜택 조성
 - 주택단지 입지 지원
- 예천 밀키트 연구소 조성
 - 사업비 : 5,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4,000/ 민자 1,000백만 원)
 - 대학 및 식품기업, 요리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한 밀키트 연구소 조성
 - 식품 자유 리빙랩 조성

- 요리 특성화고 설립 및 식품 스타트업 시장 추진

○ 밀키트 식품인력양성 및 판매장 조성

- 사업비 : 4,000백만 원 (국비 1,000/ 지방비 3,000/ 민자 0 백만 원)
- 관내 요리특성화고 설립
- 식품스타트업, 브랜드화 시장 추진
- 스마트 팜 및 노벨푸드 매장 설치
- 공유 주방 및 로봡공학 등 새로운 분야 시장 다각화

○ 수출국가 맞춤형 밀키트 제품개발 및 수출

-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한식 관심도 높은 국가 대상 한식 밀키트 개발 및 수출
- 항공 운송망을 활용한 밀키트 수출용 제품개발과 수출국 인허가 지원
- 신공항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수출용 밀키트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

○ 유통 판매망 확보

-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확보
- SNS 활용 홍보 및 판매
- 비대면 활용 유통 추진

4) 예산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45,000	45,000	-	-
예천 밀키트 연구소 조성	5,000	-	5,000	-
밀키트 식품인력양성 및 판매장 조성	4,000	-	4,000	-
수출국가 맞춤형 밀키트 제품개발 및 수출	비예산	-	-	-
유통 판매망 확보	비예산	-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54,000백만 원(국비 6,000/ 지방비 17,000/ 민자 31,000백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 공모

6) 유사사례

- 경상북도 : 통합신공항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 통합신공항으로 경제물류 기능을 보강하여 경상북도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기여
 - 수출 전문단지 · 수출 종합지원센터 · 농식품 가공타운 조성
- 지역 농산물 특화 밀키트상품
 - 경북 밀양 지역의 농산물 제조기업 팜월드에서 직접 원료 수급
 - (경남 밀양) 서홍감자, (경북 청도) 미나리, (경북 영덕) 시금치, 엽채소 등
- 밀키트 시장규모 - (' 20) 3,000억 원 → (' 21) 5,000억 원 예상



[그림 120] 지역 농산물 특화 밀키트 상품

7) 기대효과

-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활용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 주변 지역과의 협력강화 및 지역의 미래 신성장 산업 조성 기반 마련

8) 향후 계획

- 예천 농공 3단지를 추진 중으로 기업에 대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모집 설정
- 산학연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및 주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사업3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단지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식물자원 활용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 확보
- 유용식물 자원 활용을 통한 식물 플랫폼 백신 시스템의 산업화 추진
- 예천의 유용 식물자원과 첨단 백신산업을 결합한 산업기반 구축 및 신산업 창출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식물 플랫폼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생산연구 등
- 총사업비 : 450,000백만 원(국비 180,000/ 지방비 135,000/ 민자 13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 연구센터 건립
 - 사업비: 150,000백만 원(국비 105,000/ 지방비 30,000/ 민자 15,000백만 원)
 - 유용물질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물 시스템 구축
 - 식물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형질전환 식물체 및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 연구
 - 사업비 : 250,000백만 원(국비 75,000/ 지방비 55,000/ 민자 120,000백만 원)
 - 의약 및 산업 단백질 생산용 형질전환 식물 및 배양공정기술 개발
 - 식물세포유래 신규 추출물 개발 및 산업화
 - 식물 줄기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신소재 생산 및 실용화 연구 개발

○ 조직 및 추진절차

- 사업비 : 50,000백만 원 (국비 0/ 지방비 50,000/ 민자 0 백만 원)
- 식물 바이오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식물 바이오 테크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4) 예산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 연구센터 건립	150,000	150,000	—	—
형질전환 식물체 및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 연구	250,000	50,000	100,000	100,000
조직 및 추진절차	50,000	20,000	15,000	15,000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450,000백만 원(국비 180,000/ 지방비 135,000/ 민자 135,000백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공모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식물 바이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식물 플랫폼 백신 개발

- 식물 플랫폼 백신은 공기 중의 탄소원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배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산이 쉽다는 장점 보유
- 실제 옥수수를 이용해 개발된 진단시약 Avidin의 생산단가는 계란을 이용할 때보다 10배 저렴
- 계란을 이용해 생산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간은 6~7개월이지만, 식물 플랫폼 인플루엔자 백신은 3~5주면 생산이 가능
-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애플과 지플러스 생명과학, 엔비엠 등 3개 기업이 식물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

- 바이오애플: 한미사이언스와 손을 잡고 백신 개발에 박자를 가하고 있음. 바이오애플은 담배를 활용한 VLP 백신을 개발 중인데, 면역 증강제를 병용 투여한 동물실험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
- 지플러스생명과학: 담배를 활용해 코로나19 재조합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데 성공
- 엔비엠: 벼에서 분리한 식물세포를 플랫폼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돼지열병 백신, 일본뇌염 백신 등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



[그림 121] 식물 플랫폼 백신 개발 및 생산과정

7) 기대효과

- 식물세포배양을 통한 핵심 연구개발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형질전환과 식물줄기세포 기반기술 접목으로 유전자원의 활용 제고
- 인근지역 바이오산업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트 조성 가능
- 경북도청 이주에 따른 바이오기술인력 유입 및 유치 환경 유리

8) 향후 계획

- 안동 및 문경 등 주변 지역과 백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백신산업단지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포함

사업4

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레트로, 뉴트로의 기조를 잇는 이색 패키지와 콘셉트의 음료 제품 출시가 유행
- 예천군은 전통적으로 깨끗한 음수가 강점인 지역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
- 특히 대기업 음료, 주류상품 등이 생산 또는 유통, 보관할 수 있는 예천군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신공항 개항으로 예천 생수사업 여건에 유리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유통사업 추진, 연구소 조성 및 기업 공동LAB 활용, 해외수출 기반 조성 등
- 총사업비 : 50,000백만 원(국비 10,000/ 지방비 15,000/ 민자 2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 사업비: 15,000백만 원(국비 3,000/ 지방비 6,000/ 민자 6,000백만 원)
 - 기업유치 및 지원, 클러스터 운영시스템 체계화, 분산형 Test-Bed 구축 등
 - 산·학·연·관·민 네트워크 사전 구축, 기업의 대내외적 교류를 촉진, 원스톱 지원체제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구축
-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수요 창출과 연관 산업 발굴
 - 사업비: 25,000백만 원(국비 4,000/ 지방비 7,000/ 민자 14,000백만 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수시장 활성화로 지역 음료기업 활동영역 확보
 - 내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등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 진출 확대 추진

○ 지역 강소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 사업비: 10,000백만 원(국비 3,000/ 지방비 2,000/ 민자 50)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활성화
-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신기술 검·인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현장 수요형 전문 인력과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해외 진출 추진

4) 예산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15,000	5,000	5,000	5,000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수요 창출과 연관산업 발굴	25,000	10,000	5,000	5,000
지역 강소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10,000	4,000	3,000	3,000

5) 자원대책

○ 자원대책

- 사업비: 총 50,000백만 원(국비 10,000/ 지방비 15,000/ 민자 25,000백만 원)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6) 유사사례

○ 지역 맥주 브랜드사업

- 2020년 주세법이 기존 '종가세' 에서 제조사의 세금 부과 부담이 줄어드는 '종량제' 를 택하고 음식 가격이 맥주 가격보다 높을 경우 배달이 허용되는 등 개정
- 국내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릴 브루어리 맥주 출시
- 제주맥주 성공사례
 - 기존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의 생산방식인 다품종 소량생산 대신 단일 상품 생산전략 '제주 위트 에일' 출시 및 생맥주 케그, 병맥주, 캔맥주 등 다양한 패키지로 납품할 수 있는 옵션을 확대. 제주맥주를 떠올리는 '시그니처 제품' 전략
 - 양조장 투어와 맥주 도슨트
제주맥주 양조장은 맥주 생산 및 양조장 투어를 계획하고 조성

방문객에게 맥주를 안내하는 '맥주 도슨트(맥주 이야기 해설사)' 운영
양조장 1시간 투어 코스로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



[그림 122] 지역별 브루어리 맥주

○ 지역과 기업의 콜라베레이션 음료 출시

- 세븐일레븐: 고창과 밀양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수박과 사과를 활용한 '고창수박에이드' 와 '밀양사과에이드', 동절기 음료로는 '우도 팥콩라떼' 와 '해남자색고구마라떼' 를 출시
- 국내산 과일을 그대로 사용 및 레트로 디자인으로 패키지 출시



[그림 123] 지역 특산물 활용 음료

7) 기대효과

- 지역의 장점인 수자원으로 지역산업 강점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제조산업 스마트 단지화를 통한 산업단지 구조화 돌입
- 예천 지역의 장점인 물을 활용해 지역의 산업 강점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예천 및 주변의 안동, 문경 등과 연계한 생산망 구축

8) 향후 계획

- 현재 음료산업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농공단지 특화 재생 마련
- 제조산업 스마트 단지화를 통한 산업단지 구조화
- 단술 솟는 예천 지명과 연계한 (가칭)예천수 브랜드 스토리텔링

사업5

스마트 슬로우 라이프 청년 업무지구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청년들은 생태나 전통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살면서 IT 기반의 첨단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트렌드 형성
- 자연친화적 환경과 IT 산업이 결합된 청년업무지구 조성을 통해 전문 인력 유입 모색
- 업무와 휴식 및 주거가 가능한 생태적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조성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구도심 일원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유형별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검토, 5G빌리지 구축, 중간지원조직 구성 운영, 디자인싱킹 기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개발 등
- 총사업비 : 29,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15,000/ 민자 6,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유형별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검토
 - 사업비: 1,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1,000/ 민자 0 백만 원)
 - 지역적 자원에 기반한 장소기반산업 추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 업종 추구
 - 권역별 정서적 연대가 가능한 심리적 거리 내에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으로 구분
- 중간지원조직 구성 운영
 - 사업비 : 13,000백만 원(국비 4,000/ 지방비 6,000/ 민자 3,000백만 원)
 -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화, 복지 등 전 과정의 지원 사업을 안내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역의 전통이나 자연환경과 결합된 슬로 라이프스타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5G빌리지 구축

- 사업비 : 15,000백만 원(국비 4,000/ 지방비 8,000/ 민자 3,000백만 원)
- 로컬 지향 청년들은 컴퓨터와 생산수단을 결합하거나 생산품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판매
- 청년층은 인터넷 기반의 업무와 생활방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디자인싱킹 기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개발

- 기존 지역을 스마트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 해결
-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 유형에 따른 디자인싱킹 기반 모델 개발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유형별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검토	1,000	1,000	-	-
중간지원조직 구성 운영	13,000	5,000	4,000	4,000
5G빌리지 구축	15,000	15,000	-	-
디자인싱킹 기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개발	비예산	-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29,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15,000/ 민자 6,000백만 원)

○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일본 - 가미야마 '위크 가미야마(Week Kamiyama)'

- 가미야마는 도쿄에서 600km떨어진 도쿠시마현의 인구 6,000명의 작은마을로 1995년에는 2만 1,000명이었으나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 전형적인 과소화 지역

- 하지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30세 전후의 정주자들이 늘면서 2011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00여명(거주인구의 2.5%)이 이주하였으며 대다수가 IT분야 종사자로 나타남

- 위성사무실의 공동사무공간인 “가미야마 밸리 위성사무실 콤플렉스(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등을 조성

- 위크 가미야마는 더블룸 2개, 트윈룸 4개, 그룹 2개까지 총 8개의 방이 있으며 더블룸 기준 1일 숙박에 7,500엔이며, 머무는 이들이 다 같이 먹는 저녁식사 이벤트가 특징
- 위성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인 위성사무실 콤플렉스는 봉제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것으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용료는 기업이나 그룹은 월 3만엔, 개인은 월 7,500엔, 창업하려는 스타트업은 월 1만 엔으로 칸이나 벽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그림 124] 일본 '위크 가미야마'

7) 기대효과

-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업무지구 조성
- 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결로 지역의 연계 거점 조성

8)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고 4차산업과 연계하여 미래 신 성장과 창출에 부합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참여

사업6

신선식품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식품 안전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적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소비가 높아지고 신선육류나 어류에 대한 소비도 높아지면서 농산물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유통 전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됨
- 예천군은 지리적 장점과 기존 물류단지 기반 및 로컬푸드 기반의 신선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
- 이에 신선채소, 과일, 축산물 더 나아가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중심의 냉장유통망으로 특화하여 신성장 동력 마련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항공 기내식 신선농산물 유통 물류 창고 및 운영 등
- 총사업비 : 29,000백만 원(국비 8,800/ 지방비 13,600/ 민자 6,6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항공 기내식 신선물류 적용품목 선정 및 One-Stop 운영 구축
 - 사업비: 2,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2,000/ 민자 0 백만 원)
 - 경제성이 있는 상품, 고수익상품, 저장성이 낮은 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력 품목 개발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저온창고, 예냉관련 시설, 포장시설, 전용컨테이너, 저온선별장, 저온집하장, 냉장냉동 탑차 등 저장 및 수송과정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표준화 및 관련 제품표준화 실시
 - 통합적 관리와 관련 시설 간 효율적 연계 강화를 위해 농축산처리단지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예천의 농산물과 물류를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기업을 유치/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축산 원재료, 농축산 가공업 등과의 품목단위 신선물류클러스터 구축

- 사업비 : 4,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4,000/ 민자 0 백만 원)
- 신선식품의 유통 가공, 저장, 수출입 등과 관련된 산학연관의 주체 및 기능, 시스템 등을 집적화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신선식품의 부가가치 상승효과 집합체 구성
- 농산물생산자 및 가공업체, 그리고 수출 관련 무역업체,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창고, 수배송 업체의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 및 식품가공 연구 담당 연구소 조성
- 공동의 냉장냉동물류센터, 첨단 가공시설 구축을 통하여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통합물류 DB구축, 첨단화물운송시스템 및 EDIWeb을 통한 유관기관관련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클러스터의 정보시스템 구축
- 품목단위 신선물류클러스터의 초기 구축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이전됨에 따라,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과의 연계를 통해 상온노출 억제 등 성공적인 운영 담보 구성
- 민간기업 물류 회사 및 출항민 대상 기업 접촉 통해 물류기업의 지역 유치 MOU체결 및 지역 홍보방안 검토

○ 프랜차이즈 사업화 및 공동 마케팅 실시

- 사업비 : 1,000백만 원(국비 0/ 지방비 1,000/ 민자 0 백만 원)
- 물 맑고 공기 좋은 예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목을 프랜차이즈사업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저온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역할 수행
-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많은 시설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에 따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
- 신선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저온창고, 예냉관련 시설, 포장시설, 전용컨테이너, 저온선별장, 저온집하장, 냉장냉동 탑차 등 저장 및 수송과정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표준화 및 관련 제품표준화 실시
- 신선물류는 저온저장수송 등이 요구되어, 만약 상온에 노출될 경우 포장자재의 손실 등의 파손 위험이 많으므로, 해당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선 물류조건에 적합한 포장자재 및 용기 개발
- 신선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유통경로별 유기적인 관리 필요 및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별 개별적 출하보다는 농협 등을 통한 계통 출하 구축
- 예천 농수축산물 생산업자의 경우, 규모가 협소하고 유통 장악력이 낮은 관계로 업체별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하에 구체적인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마련함

- 공동마케팅은 둘 이상 이중 브랜드를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구매시점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이를 비교, 평가하는데 시간 및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 사업비 : 22,000백만 원 (국비 8,800/ 지방비 6,600/ 민자 6,600백만 원)
-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항공 내 신선 기내식품 제공 및 농특산물 해외 판매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수확 및 정선 단계의 위생과 저온관리 방안 마련	1,000	1,000	-	-
신선물류 공급망 프로세스 역량 강화	13,000	5,000	4,000	4,000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15,000	15,000	-	-

5) 자원대책

○ 자원대책

- 사업비: 총 29,000백만 원(국비 8,800/ 지방비 13,600/ 민자 6,6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융복합 물류혁신 R&D단지 조성사업

6) 유사사례

○ 경상북도 - 통합신공항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 항공수출 수요 확대에 대비해 킬러아이템 농산물의 장기적 수출과 안정적 물량공급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 신선농산물 선별·저장기능과 수출물류관리 및 입국한 해외바이어 상담시설을 갖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시장 교섭력 증대



[그림 125] 통합신공항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계획(안)

○ 스마트 물류 시범도시 조성 - 구리·화성·의정부

- 한국형(K)-스마트 물류 시범도시를 목표로 구리·화성·의정부 3곳에 2조8000억이 투입돼 e커머스 물류단지가 오는 2024년까지 구축 예정
-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 계획
-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온라인 기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

7) 기대효과

- 안동, 문경 등과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 기대
- 쿨드체인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소득창출 및 일자리 확대 선도
- 안정적 농산물수출 실적의 획기적 증가

8) 향후 계획

- 한국판 뉴딜사업 및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산업과 연계한 공모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출지원 관련 사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여건 조성

사업7 예천 ART 커넥션 문화복합팩토리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중앙정부는 '문화비전' 으로 문화다양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등을 상정함
- 예천군의 원도심에 글로벌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신도시 시민들, 산공향을 통해 유입 되는 관광객들을 끌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천군은 예천읍 일대에 도심권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남산을 중심으로 개십사지, 한천, 폐철도 구간 등에 문화예술 관광타운 조성하여,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 후 주변 시설 확대 조성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구도심 일원
- 사업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박서보미술관, 세계시문학관, 미디어 아트 예천문화복합팩토리 등
- 총사업비 : 230,000백만 원(국비 58,000/ 지방비 148,000/ 민자 24,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박서보 미술관
 - 사업비: 30,000백만 원(국비 18,000/ 지방비 12,000/ 민자 0 백만 원)
 - 박서보 미술관: 예천읍 남산에 조성. 예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세계적 작가인 박서보 작품의 상설 전시(상설 전시관)
 - 세계적 작가들, 지역 사회 작가들의 초청 전시(초청 전시관)
 - 비상시적으로 작은 콘서트 개최(미술관 내 조성)
 - 작고 매력적인 카페 및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예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

○ 세계 시문학관

- 사업비: 20,000백만 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민자 0 백만 원)
- 국제적 전 세계 시 문화를 조망한 문학관
-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들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방식 고려
- 국내의 현대시를 조망 할 수 있는 문학관 조성
- 시 낭송회 공간 조성 및 시 낭송 대회 개최

○ 미디어 아트 예천 문화복합 팩토리 사업

- 사업비: 30,000백만 원(국비 9,000/ 지방비 6,000/ 민자 15,000백만 원)
-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결지역에 교육, 문화, 관광이 하나가 되는 공간조성
- AI, VR,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활용한 과거와 미래 미디어장 조성
- 4계절 플라워 미디어파사드 및 실내 카페테리아 리스트저리 조성
- AI, VR 청소년 가상 미디어 체험장 조성
- 예천 청년 창의 복합문화예술공간 및 프리마켓장 조성

○ 생태문화공간 에덴프로젝트

- 사업비: 20,000백만 원(국비 6,000/ 지방비 5,000/ 민자 9,000백만 원)
- 대형 실내 수목원 조성을 통해 4계절 방문이 가능한 관광명소 수행
- 에어돔 설치를 통한 대규모 실내수목원 및 자연친화적 생태놀이 조성
- 실내 수목원 내 조명 설치를 통한 야간 경관 조성 및 수목원 프로그램 조성
- 식물을 활용한 플랜테리어 형태로 심신 힐링 공간 및 북카페 조성

○ 한천 레저생태공원 조성

- 사업비: 120,000백만 원(국비 10,000/ 지방비 110,000/ 민자 0 백만 원)
- 친수 여가문화공간조성 : 사계절 놀이터, X-게임, 드론마당 조성
- 소확행 Link 문화공간조성 : 흔적의 정원, 커뮤니티 플라자, 농가레스카페 등
- 아트 힐링숲 공간조성 : 네이처 프레젠테이션, 아트창작소 폴리 등
- 일상 숲 정원 공간 조성

○ 야간 스마트 경관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 사업비: 10,00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민자 0 백만 원)
- 야간 경관 영상, 조명, 음악, 분수 등을 공연 방식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자연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구축
- 등산로, 생태 탐방로 및 우거진 숲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밤의 문화를 구축
- 일정 시기, 시간에 공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박서보 미술관	30,000	30,000	-	-
세계 시문학관	20,000	20,000	-	-
미디어 아트 예천 문화복합 팩토리 사업	30,000	10,000	10,000	10,000
생태문화공간 에덴프로젝트	20,000	-	20,000	-
한천 레저생태공원 조성	120,000	40,000	40,000	40,000
야간 스마트 경관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10,000	-	10,000	-

5) 추진계획

○ 재원대책

- 사업비: 총 230,000백만 원(국비 58,000/ 지방비 148,000/ 민자 24,000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박물관 · 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생태 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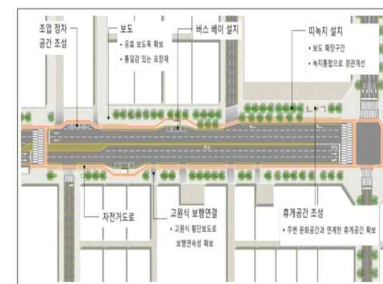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도심형 관광타운 고려 조건

- 기존 공간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보행흐름이 형성되는 '자연아동' 지역 및 관광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이 활성화 되는 '강제이동' 지역이 혼재되는 형태

-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후상권을 중심으로 육성하여 전체 보행흐름을 원활하게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다양한 보행 경험을 통해 독특한 장소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성 방법이 바람직 함



[그림 126] 관광지구 보행개선 및 문화복합 팩토리 사례

7) 기대효과

- 예천 내 관광지점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시너지 극대화
- 관광객의 예천군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

8) 향후 계획

-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천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사업8 자연 및 정신문화 치유헬링벨트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품격 융복합형 관광산업 상정
- 예천은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되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천 지역이 안동, 문경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관광산업 연계가 요구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정신문화 치유헬링벨트, 자연치유 힐링벨트 조성 등
- 총사업비 : 250,000백만 원(국비 120,000/ 지방비 13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정신문화 치유헬링벨트
 - 사업비: 150,000백만 원(국비 70,000/ 지방비 80,000/ 민자 0 백만 원)
 - 예천, 안동, 문경 등의 서원, 고택, 사찰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 벨트 조성
 - 서원과 고택, 사찰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체험 형태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한 가운데 벨트를 조성해 교류함
 - 전통예절, 템플스테이, 탈춤, 고구 음식 등을 체험하고 특성화함
- 자연치유 힐링벨트
 - 사업비: 100,000백만 원(국비 50,000/ 지방비 50,000/ 민자 0 백만 원)
 - 산악자원을 활용한 자연 치유 힐링 공간
 - 예천의 용문사, 봉정사, 부석사, 템플스테이 등 경북의 사찰들은 세계적인 성지로 자연치유 힐링 조성
 - 불교 성지 순례 탐방길 프로그램 개발, 자연치유 트래킹 코스 개발
 - 탐방길 요소마다 적절한 숙박 공간을 마련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정신문화 치유헬링벨트 조성	150,000	50,000	50,000	50,000
자연치유 힐링벨트 조성	100,000	30,000	35,000	35,000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250,000백만 원(국비 120,000/ 지방비 130,000백만 원)

5) 유사사례

- 의성군 힐링 여행 코스
 - 코스 특징: 자연과 생태, 전통과 역사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내 관광지를 힐링코스로 묶어서 홍보
 - 각 여행지 간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30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

(1) 왜가리전통생태마을		(2) 사촌가로숲		(3) 사촌마을		(4) 금봉자연휴양림
생태관 체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전통생태마을	→	나무 군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숲	→	풍수지리 명당	→	의성의 무릉도원
(5) 빙계계곡		(6) 산운생태공원		(7) 산운마을		(8) 탐산악수운천
시원한 자연 계곡	→	생태자연체험	→	30채 전통가옥	→	백악기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온천



[그림 127] 의성군 힐링여행코스

○ 안동시 건강여행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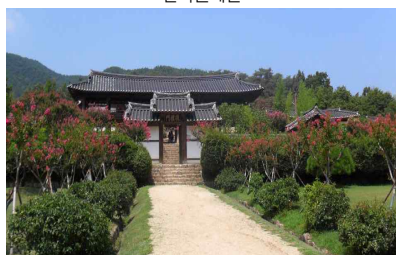
- 코스 특징: 고단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고즈넉한 풍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곳을 중심으로 건강여행코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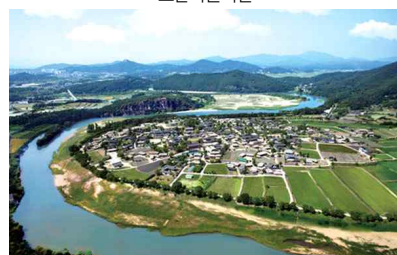
선비순례길



호반나들이길



병산마을길



하회마을길

[그림 128] 건강 힐링 여행코스 사례

6) 기대효과

- 자연자원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힐링벨트 조성
-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치유 문화 공간 조성

5) 향후 계획

-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및 주변 지역과 상생 협력사업 구축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1절. 인구·보건·복지 분야

2절. 산업·경제 분야

3절. 농업·농촌 분야

4절. 지역개발 분야

5절. 문화·관광·체육 분야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제1절. 인구·보건·복지 분야

순번	사업명
1	예천 신도시-원도심-농산촌 연계, 세대 맞춤형 창업 도시 조성
2	도청신도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3	고령(1인)가구 안전확인기술 지원
4	예천군민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5	지속 성장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역량 강화
6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7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 제공 사업
8	예천군 아동·청소년 안경제작 지원사업
9	예천군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운영
10	예천군 안전사고 사상자수 감축사업 및 여성안전시설 설치
11	예천군 유비쿼터스 스마트 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12	파독근로자 정착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13	예천 농민 기본소득 지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14	예천 군민 복합문화복지센터 설치
15	번역 IOT 스피커 도입을 통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16	청소년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1

예천 신도시-원도심-농산촌 연계,
세대 맞춤형 창업 도시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예천군 신도시는 성장과 정체에 갈림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점차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
 -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는 평균 연령 30대로 젊은 도시, 신축 아파트·공원 관리등에 주민 만족도 높지만 지속적 일자리 창출 여력은 아직 부족
 - 예천읍 원도심 일대(노하·동본·남본리 일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져 있으나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도시 미래 지속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평가
 - 면단위 지역은 심각한 초고령화로 지역경제력의 상승 여력이 매우 미약한 상황
- 따라서 예천 신도시 및 원도심, 면단위 농촌지역에서 각각의 특성과 세대에 알맞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프라 조성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4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및 호명면, 이외 면 단위 일원
- 사업비 : 총 10,000백만 원(국비 3,000 / 도비 2,000 / 지방비 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천군 전반: 예천관내 또는 출향 청년 및 중장년, 은퇴 창업등 세대별 LAB을 플랫폼으로 시제품제작과 사업화 지원
- 신도시 및 원도심: 세대, 업종별 창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 창업자간 상호 아이템운영 의견 교류 등 우수창업자가 신규자의 멘토 역할을 하는 코칭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창업노하우를 전수
- 수요조사를 통해 예천군 청년 및 중년, 은퇴자들을 위한 세대별 서비스업, 문화산업, 6차 산업, 농업 창업 LAB 등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상호간 거래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 성공 창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과 후속 연계하여 5년 이상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도록 설계
 - 주요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별 창업 LAB 설치, 3D 프린팅이나 농업 실험도구 등 특성별 필요 인프라 구비 및 운영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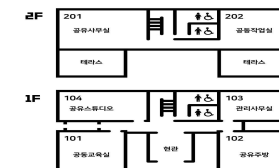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세대별 LAB을 플랫폼으로 시제품제작과 사업화 지원	2,500	2,500	-	-
간담회 개최(세대, 업종별)	500	500	-	-
창업 LAB 설치	5,000	5,000	-	-
네트워크 구축	2,000	-	2,000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0,000백만 원(국비 3,000 / 도비 2,000 / 지방비 5,000백만 원)
- 중앙정부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포항 - 청년 창업 LAB
 - 지역대학 창업동아리 학생, 청년창업가 등을 위한 '포항시 청년창업LAB(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개소 / 제1차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포항대학교 선정
 - 총면적 425㎡, 2층 규모
 - 재무상태, 소비자심리, 기업진단을 통한 컨설턴트 매칭 / 개별 컨설팅 실시 / 역량강화 및 마케팅 교육 / 사업보완 등 프로그램 진행
 - 2020년 기준: 총 8개 기업 지원 (예견미용, 베이커리, 인테리어 소품, 원예상품, 디자인상품 등)



[그림 129] 포항 청년창업 LAB

7) 기대효과

- 청년 창업유지를 증진 및 지역기반 기업체 규모 확대
- 지역소득 창출 분야 다각화

사업2

도청신도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1) 사업의 필요성

-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구비함으로써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향상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신종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감염병 위기대처능력 향상 필요
- 경북도청의 상징성을 가진 지역적 특성 및 경북의 유일한 인구 급증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안동의료원과 연계한 경북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
- 공공의료시설이 장기적 관점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달빛어린이 병원, 고령화 대비한 재활 병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및 고령화대응 체계 갖출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40년
-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일원
- 사업비 : 총 115,000 백만 원(국비 25,000 / 도비 25,000 / 지방비 25,000/ 민자 4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0년 현재 전국 23곳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365일 무휴, 밤 12시까지 운영, 경북도: 전무) 설치 및 지원
- 고령화 등을 고려, 재활병원의 경우 최소 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재활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둔 도립(군립) 또는 민간 재활전문병원 유치 검토
- 청년층의 출산친화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개설 및 운영 필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및 지원	25,000	25,000	-	-
민간 재활전문병원 유치	50,000	-	50,000	-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40,000	-	40,000	-

5) 재원대체

- 사업비
 - 총 115,000 백만 원(국비 25,000 / 도비 25,000 / 지방비 25,000/ 민자 40,000 백만 원)
-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능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6) 유사사례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 2021년 5월 기준, 전국 23개소 운영 (경북권에는 대구에 1개소만 운영 중)
 -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평일 오후 11~12시, 휴일은 오후 6~10시까지 365일 진료하는 병원으로 운영 요건을 갖춘 소아과 병원이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월평균 1,500만 원 가량 지원

구분	지점명	소재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테헤란동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그림 130]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 완도군 - 완도대성병원 공공산후조리원

- 전라남도 지정 3호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최신시설과 친환경 시설
- 이용요금: (1주: 6박7일) 770,000원 / (2주: 13박 14일) 1,540,000원
- 제공 프로그램: 산후체조, 펠트·천연제품 만들기, 웃음치료, 맘&베이비 정서코칭,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 교육 등



[그림 131] 공공 산후조리원 사례

7) 기대효과

- 영유아·아동 관련 보건복지시설 확충으로 가족단위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 전문재활병원 운영으로 농촌 고령화 신체질환 대비 및 고령층 의료복지 제공

사업3

고령(1인)가구 안전확인기술 지원

1) 사업의 필요성

-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최근 고독사, 범죄, 생활 안전사고 등에서 취약한 상황이 확대되어가는 실정
- 주거안전 확인을 위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산재적 특성의 예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 2026년
- 사업대상 : 예천군 행정구역 전체
- 사업비 : 총 600백만 원(국비 200/ 지방비 400백만 원)
연계정책 : 과기정통부-디지털포용사업/ 복지부-원거리 자녀 안심 매일 안내사업

3) 주요사업내용

- 안전확인기술 수요조사 실시
 - 향후 복지부 외 농림부, 과기정통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이에 대응
- 기존 개인의 신체 또는 실내 일정지역에 센서 장착 모니터링 방식 개선
 - TV 등의 전원시간 자동 모니터링 방식 도입전 확인 기술 수요조사 실시
 - 지역 케이블 방송 및 통신 사업자와의 연대 협의
 - 복지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거리 자녀 안심 매일 안내사업 변환 구축
- 특정지역 시범실시 후 군 전체 확대 시행
 - 차세대 맥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
 -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 동영상, 날씨 정보, 노래콘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
- 지역사회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자원봉사 확대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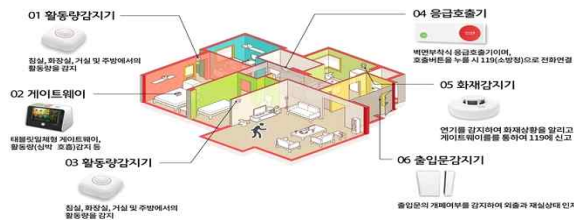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안전확인기술 수조조사 실시	비예산	-	-	-
센서 장착 모니터링 방식 개선	100	100	-	-
시험실시 후 군 전체 확대 시행	500	500	-	-
모니터링 자원봉사 확대	비예산	-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600백만 원(국비 200/ 지방비 400백만 원)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6) 유사사례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차세대택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도입
 - 독거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택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차세대택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2019년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그림 132]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7)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의 1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응급상황 대처시간 단축 및 복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사업4

예천군민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1) 사업의 필요성

- 예천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관,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주민센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소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조사에 의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유 및 전달체계가 취약함. 이에 각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통합관리 및 홍보가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지방비 5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천군 및 주변 지역의 미래 산업에 요구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총괄 플랫폼 구성
-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 생애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평생학습 제공과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HRD-Net 연계)에 학습이력 평가인정, KQF 연동 등 탑재
- 예천형 역량 모델링: 스마트팜·스마트관광을 위한 4차 산업 기술관련 역량과 관광, 농업, 창업 등에 관련한 역량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
- 예천 평생학습 역량관리 플랫폼 구성
 - 측정가능한 역량별 지표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이력이 축적·연동되면서 이력관리 가능
- 예천 매치업(Match업)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확보·유지하는 및 군내 인재 유출 방지
 - 실업·퇴직 걱정 없도록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순환과 교육 안전망 제공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 평생교육 총괄 플랫폼 구축	250	250	-	-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100	100	-	-
예천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150	15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사업비: 총 500백만 원(지방비 500 백만 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 - 교육부 및 평생교육진흥원

6) 유사사례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 온라인학습 통합 플랫폼
 - 화상학습: 재테크, 문화예술, 직무, 영어 등 총 35개 강좌
 - 부모 배움: 예비부모(23개), 영유아기(72개), 아동기(59개), 청소년기(46개) 등 세분화된 강좌 제공
 - 청소년 배움: 진로직업(16개), 미래사회(10개), 기초능력(15개), 생활건강(6개), 인문교양(28개), 문화예술(16개) 등의 강좌 제공



[그림 133] 평생교육 플랫폼 사례

7) 기대효과

- 각 부서·부분별 평생교육사업 파악을 통한 업무지원 효율성 개선
- 예천군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한 평생교육 수강률 향상

사업5

지속성장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역량 강화

1) 사업의 필요성

- 예천군민 다양성이 증시되어 질수록 마을 단위의 사업에 대한 요구 증가
 -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 재생사업, 마을기업, 리빙랩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 역량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참여 역량이 필요함
- 마을기업 만들기
 - 마을소멸을 막고, 지속성장가능한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의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마을의 역사자원, 자연자원, 문화자원, 환경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업 연계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국비 100/ 지방비 4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학습동아리 운영 강화,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공동체사업
 - 집성촌, 양반유교문화로 인하여 단절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마을주민 및 지역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을 문화 형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역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리더 퍼실리테이터 육성
 - 마을활동 및 시민활동 대표 등 지역리더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청년, 마을리더, 시니어리더, 청소년리더 등 연령별, 특성별로 구분하며 맞춤형 리더십 교육
- 예천 마을 디자이너 양성 사업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함양
 - 문제해결식의 디자인씽킹, 마을퍼실리테이션, 하브루타, 액션러닝 등의 기법으로 참여자들이 팀별로 마을 및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지속적으로 마을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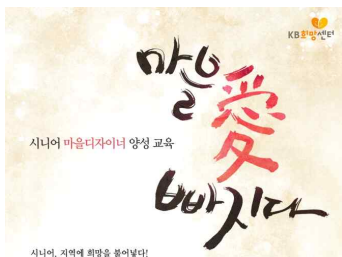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마을역량강화사업 실시확대 실시	300	300	-	-
지역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리더 퍼실리테이터 육성	100	100	-	-
예천 마을 디자이너 양성	100	1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국비 100/ 지방비 400백만 원)
- 중앙정부 관련 사업: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형 대표 정책모델 국민디자인단 운영

6) 유사사례

- KB 희망센터 - 시니어 마을디자이너 양성 교육
 - KB희망센터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시니어 마을디자이너 양성프로그램인 '마을 사랑 빠지다'
 - 마을에 다양한 접근법과 성남 소재 NGO,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의 지역 콘텐츠 활용
 - 지역사회와 재능을 나누고 싶은 시니어, 살고 있는 곳 또는 귀촌해서 할 일을 찾고 싶은 시니어, 지역 비즈니스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은퇴(예정)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성남시 KB희망센터 배움터에서 진행



프로그램	활동내용	활동주기
마을방송단 우리 동네 이야기 '확자지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촬영 제작 홍보	월 2회
지역 탈방 해설가 '광명사랑'	마을 명소 및 광명 지역 콘텐츠 해설 활동	월 1회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한 걸음치킴'	드라마 활동을 통한 마을 특산물 제작 및 마을 환경 개선	월 1회

[그림 134] 마을 디자이너 사례

7) 기대효과

- 지역주민 마을 자치 및 운영 역량강화
- 지역민 참여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문제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6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아동 및 청소년의 특이 질병 등의 발생 시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등이 발생
- 아동·청소년 건강과 생명은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역이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복지지원사업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만들기 비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생기는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행복예천 조성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480백만 원(지방비 480백만 원(연 8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만15세 미만 아동, 청소년 중 저소득층 가정의 연간 진료비 총액 중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예천군 관내 소재 거주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중 저소득층 가정
- 단, 하위 소득자보다 상위 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원받는 역진성 문제 발생 고려, 과대 진료로 인한 의료쇼핑 등을 감안 비급여, 선별금 등 기준의 명확화
- 의료비 신청자 가구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음해에 결정되므로 분위 변동 시 환수 및 추가 지급 등 투명성 제고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비예산	-	-	-
의료비 지원대상 선별	비예산	-	-	-
의료비 지원	480	48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480백만 원(지방비 480백만 원(연 80백만 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인천시 계양구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암 암의 치료를 제고
- 대상질환: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기타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대상연령: 18세 미만
- 의료비 지원 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희귀약품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 암치료를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 지원대상 한도액

- 연간 최대 2,000만원
- 백혈병의 경우(C91 ~ C95) 연간 최대 3,000만원
- 병원 진료비중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급여분 및 비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그림 135]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례

7) 기대효과

-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람 중심의 행복예천 조성으로 군민 정주여건 향상

사업7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 제공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필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높은 노인 빈곤율에 비해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은 소규모
 - 예천 호명면 이의 전지역 초고령화 지역이며 노인의 빈곤비율도 낮지 않음
 - 노인빈곤율 45% 현재 국가노인복지 지출은 GDP 중 3% 불과(OECD 평균 15%)
- 정부 지원 무료급식소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선택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산군 일원
- 사업비 : 총 1,100백만 원 (지방비 1,1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노인 전체 인구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유병률 억제 및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 사업기간 : 시범사업 실시 후 장기적으로는 연중 사업으로 확대
- 공적자금+민간단체(종교·복지·자원봉사단체) 서비스 지원하되 일정기간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실시, 사업 추진 확정에 따라 필요 인원 확보
- 보건복지부-경북도-예산군 TFT에서 사업평가지표 설정해 1년 사업평가
- 성과 달성 및 실적 미비 등에 대해 보고회 개최 → 향후 사업에 반영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행복한 한 끼 식사 대상자 선별	비예산	-	-	-
행복한 한 끼 식사 시범사업 실시	100	100	-	-
시범사업 보고회 개최	비예산	-	-	-
예산군 전역으로 사업 확대	1,000	1,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1,100백만 원(지방비 1,100백만 원)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6) 유사사례

- 경북 영덕군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 거주제(밥상공동체)' 사업
 - 밥상공동체 사업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의 문제를 공동체 활성화로 풀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
 - 밥상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는 것, 밥상머리 소통으로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서로 생활과 안전을 보살피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림 136] 밥상공동체 사례

7) 기대효과

- 고령가구·1인 가구 인구의 생활 및 건강 상태 확인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유대감 증진

사업8

예천군 아동·청소년 안경제작 지원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2017년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44.6%가 시력 교정 및 보안을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생의 사용률 26.7%인데 반해 중·고교생은 각각 56.4%와 59.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경 사용률이 증가함
- 특히 청소년기에는 체육활동 등으로 인한 손상, 분실 등의 이유로 교체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경구입을 미루고 있거나 교체시기를 놓쳐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시기는 안경교체주기가 성인보다 빠르며 근시와 난시를 제 때 교정해 주지 않으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정서불안, 학습장애 등을 겪을 수 있음
- 안경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력악화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1,200백만 원(도비 200/ 지방비 1,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① 대상자 선정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 / 2순위) 차차상위 계층, 한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 3순위) 안경을 착용하는 일반학생
- ② 안경업소 몇단 및 안경지원 바우처 송부
- ③ 안경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명단 관내 안경업소 통보
- ④ 각 안경업소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 지급(1인 5만원)
- ⑤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대상자 : 안경지원 바우처 / 안경업소 : 안경제작 지원 - 안경테와 안경렌즈를 포함하여 1인 5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비예산	-	-	-
대상자 선정	비예산	-	-	-
안경업소 선정 및 안경지원 바우처 송부	비예산	-	-	-
각 안경업소 사업비 지원	1,200	1,2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200백만 원(도비 200/ 지방비 1,000백만 원)
- 경상남도의 경우, 도 차원의 사업 검토

6) 유사사례

- 제천시 -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안경 지원 사업
 - 드림스타트: 만12세 이하 아동과 부모, 임산부를 대상으로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제천시 안경사협회 소속 17개 안경원(회장 김동하)과 협약을 체결
 - 5~12월까지 검강검진을 받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안과 진료를 받고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아 17개 안경원 중 원하는 곳에서 시력교정에 필요한 안경을 구입 할 경우, 안경원은 1인당 최대 5만원 까지 안경 구입비를 지원



[그림 137] 청소년 안경 지원 사업 사례

7) 기대효과

-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층의 시력보호
- 시력저하로 인한 아동·청소년층 학습장애 문제 해소

사업9

예천군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운영

1) 사업의 필요성

-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출장이나 입원,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야 할 때 발달장애인을 맡아 보호해주는 곳이 필요하지만 예천군에는 부재
- 발달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전 생애에 걸쳐 장애가 지속되고 자립에 극히 어려움이 있음
- 가족의 위기 및 긴급상황에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1,500백만 원(도비 500/ 지방비 1,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주5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설립
 - 가족의 일시적인 위기 및 경조사 등 단기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
 - 주간보호센터(아동/성인):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
- 보호자의 부재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지를 제공함
- 이와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과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성 향상
- 단기간 시설 공급보다 기존 관련 시설 리모델링 비용 검토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기존 관련시설 리모델링 비용 검토	비예산	-	-	-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설립	500	500	-	-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운영	1,000	1,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500백만 원(도비 500/ 지방비 1,000백만 원)
- 보건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5) 유사사례

- 영월군 - 단기케어홈센터(꿈&꿈)
 - 설립목적: 지역 발달장애인의 활동 지원
 - 위치 및 규모: 영월군 영월읍/ 건축면적 489㎡, 대지면적 918㎡ 규모
 - 프로그램: 농촌맞춤형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 대상: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지역주민, 가족 등
 - 목적: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남비현상 해소,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 활동: 동네북카페 개방 운영, 직업훈련, 자립훈련(여가문화활동 등)



[그림 138] 발달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6)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회복 및 복귀 도모
- 발달장애인의 사회 자립훈련 및 지역민 사회통합

사업10

예천군 안전사고 사상자수 감축 사업 및
여성안전시설 설치

1) 사업의 필요성

- 안전도시지정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노력 필요
-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
- 여성 안전시설: 요보호 여성에 주거공간 및 생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로 살기 좋은 예천의 이미지 강화
- 군민 정주성 향상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지방비 5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 및 여건을 파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
 -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감축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타지역협력 강화,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
 - 안전사고 사상자수 감축 유관기관 TF 팀 운영/ 지속적 이행 점검체계 구축
- 분야별 감축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 및 여성 안전시설 설치
 - 단기적 여성안전시설 설치
 - 가정폭력 등의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지원, 심리상담, 정서 안정교육 프로그램 병행,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상담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안전사고 5대 분야 현황 조사	비예산	-	-	-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비예산	-	-	-
여성 안전시설 설치 / 리모델링	500	-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지방비 500백만 원)
-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훈련시설 지정신고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지원 등

6) 유사사례

- 파주시 -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 여성안심 귀갓길 안전시설물은 1인 거주 여성이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에 총 13개소에 설치('19년)
 - 슬라표지병 2개소, 로고라이트 2개소, 비상벨 LED 안내판 9개소
 - 로고라이트를 통해서는 '젠더폭력 피해 지원 파주시가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투사해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



[그림 139]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사례

7) 기대효과

- 군민안전 생활화 인식 개선 및 확산
- 우범지역의 조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사업11

예천군 유비쿼터스 스마트 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1) 사업의 필요성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부합하는 미래형 체육 시스템 필요
 - 2040년에는 IT인프라, 신기술 수용문화, 높은 의료기술 등 국내 u-Health 산업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것
 - 새로운 기술을 적극 적용한 미래형 체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수집 및 기획 가능
- u-Health 산업은 IT·BT·서비스 등이 복합된 대표적인 융합 신산업
 - 예천군의 생활체육·보건관련 데이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경북도청의 U-Bike 전략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 예천군 공원, 산책로 등의 U-City 접목 스마트 생활건강시스템 도입
 - U-시설물관리체계 구축을 대비한 체육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데이터 전산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2,400백만 원(국비 500/ 도비 700/ 지방비 1,2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건강관리 시스템 전산화
 - 예천군 건강, 체육 관련 데이터 전산화 및 분석을 통한 생활건강 현황 조사
 - 시설물 관련 데이터 및 군민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시스템
 - 예천의 모든 군민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
 - 예천군민의 연령별, 직군별 요구되어지는 체육 프로그램 공정한 수요조사
 - 개설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합관리하여 홍보 및 성과분석
- U-Health 시스템 구축
 - U-Bike를 통해 예천군 내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획
 - U-Health파크 조성

4)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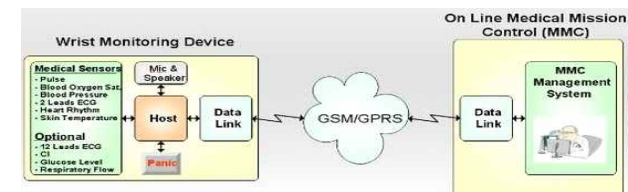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군 건강관리 시스템 전산화	100	100	-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시스템 구축	300	300	-	-
U-Health 시스템 구축	2,000	2,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2,400백만 원(국비 500, 도비 700, 지방비 1,200백만 원)
- 중앙정부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 U-City 사업
- U-health 시스템 해외 적용 사례
 - 네덜란드: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에 대한 홈케어 시스템 제공
 - 독일: 심장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단 시행
 - 스페인: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지원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활용
 - 이용 기술
 - AMON Project: SpO2, 혈압, ECG, 심장박동,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복합의료기기/ GSM을 이용하여 측정된 생체정보를 메디컬 센터에 저장 및 분석 후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



[그림 140] U-health 시스템 사례

6) 기대효과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한 대응 가능
-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12

파독근로자 정착지원 및 기념 사업 추진

1) 사업의 필요성

- 1960~1970년대 독일로 파독을 갔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중에서 독일 등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4천여 명으로 추산
- 이 중에서 나이가 들어 한국으로 귀향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파독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경상북도 출신 중에는 예천, 안동, 영주 등이 고향인 사람들이 다수 있어 이들을 예천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계획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력을 보유한 시니어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15,00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민자(본인투자 5,000 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현재 제정된 파독근로자 관련 특별법 상으로는 파독근로자 정착 지원의 한계가 있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정착마을로 인정받고 있는 남해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남해마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개선 된 정착마을로 조성
 - 독일마을,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여 예천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과 연계 개발 추진
- 파독근로자 정착단지 조성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파독근로자 정착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	비예산	-	-	-
파독근로자 정착단지 조성	15,000	15,000	-	-

5) 재원대책

- 재원대책
 - 사업비: 총 15,00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민자(본인투자 5,000 백만 원))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대한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6) 유사사례

- 남해군 - 독일마을
 - 1960년대 산업일꾼으로 독일에 파견돼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독일거주 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
 - 독일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조성: 독일문화체험, 파독전시관, 원예 예술촌
 - 2010년부터 맥주 축제 개최(2018년부터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그림 141] 남해군 독일마을 사례

7) 기대효과

- 지방의 인구 소멸 및 향후 지방행정통합에 대응한 예천군 인구감소 방지
- 관광명소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13

농민 기본소득 지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1) 사업의 필요성

- 농촌 인구 감소,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증대 방안 마련 필요
- 농업의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천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민 기본소득 및 농가소득 안정화 필요
- 또한, 농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시 외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2,050백만 원(지방비 2,05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농가는 다양한 이유(연령, 영농실패, 신규진입 등)로 소득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분석하고, 예천군이 주도적으로 현안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식 마련
- 농가 소득 안정화에 관한 군민 의견 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 소득지원 사업의 지원 목적, 지원방식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제거하고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 마련
- 농업인 기본소득 확대 및 선지급금을 단계적 상향시켜 농업인 안정화 대책 강화
 - 예천군 농민 기본소득 조례 제정
 - 지역화폐와 연계한 농민 기본소득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업인 기본소득 확대 및 선지급금 단계적 상향
 - 팬데믹 등 재난 시 학교급식 참여 농가 안정대책 마련
 - 기후재난 등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및 계약생산 물량 확대 방안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농가 소득 안정화에 관한 시민 의견 조사	비예산	-	-	-
농업인 안정화 대책 연구 용역	50	50	-	-
농업인 기본소득 확대 및 선지급금 단계적 상향	2,000	2,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2,050백만 원(지방비 2,050백만 원)
- 중앙정부 관련 사업: 농림부 등의 사업은 없고, 경기도 등 도차원의 지급 예산

6) 유사사례

- 농민 기본소득 추진 현황
 - 33개 농민·시민 단체가 참여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

농가소득 안전장치 제도화 추진 현황			
구분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농업인 기초연금
도입 현황	논의 중	전남·전북·충남 등 일부 지자체 시행	관련 법안 발의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등 모든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부적격 대상	없음	농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지자체별로 상이	해당 농촌지역 1년 이하 거주자 등
지원 금액	월 30만원	연 50만~80만원	월 10만원 이상, 연 120만원 이상
수령자 책무	없음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지자체별로 상이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참여

[그림 142] 농민 기본소득 추진 현황

7)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보장
- 농가소득 기반 안정화를 통한 농민 생활 안정

사업14

예천 군민 복합문화복지센터 설치

1) 사업의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생활속 문화복지의 공동체적 논의 및 욕구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 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연계를 주도할 군민복합문화복지센터의 필요성 대두
- 지역적으로 다소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합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면서 동시에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13,100백만 원(국비 4,000, 도비 2,000, 지방비 7,1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이 여가, 문화, 건강 등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민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 늘어나고 있는 인구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신도심 지역을 우선적인 대상지로 선정 검토
- 향후 센터를 군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필요
 - 사업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및 시설설계용역, 공사 착공 및 준공
 - 운영주체 및 방안에 대해 조례를 통해 선정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가능 하도록 내외부 연계 지원
- 상황에 따라서는 출향민을 대상으로 외부자원(민간기업, 종교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 복지관 설립 및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세울 수 있음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100	100	-	-
군민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8,000	8,000	-	-
군민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	5,000	5,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3,100백만 원(국비 4,000, 도비 2,000, 지방비 7,100백만 원)
- 중앙정부 생활 SOC 복합 사업 등

6) 유사사례

- 사천시 - 산단 내 문화·복지 복합문화센터
 -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00㎡, 지상 2층 규모로 컨벤션홀, 식당, 작은도서관, 1인미디어 크리에이티브실, 다목적 프로젝트실 등을 설치할 예정
 - 인접한 방직공원과 연계한 외부시설 계획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
- 광주 북구 -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 위치: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근린공원 일대
 - 규모: 총 사업비 97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3천㎡ 규모로 건립
 - 구성: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영·유아실, 2층은 커뮤니티 공간인 동아리방으로, 3층은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으로 활용



[그림 143] 복합 문화복지센터 사례

6) 기대효과

-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 공동체 연대 실현
- 주민 정주성 향상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15 번역 IoT 스피커 도입을 통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1) 사업의 필요성

- 최근 해외 이주민의 증가추세가 주춤하지만 기존의 다문화 가정의 여러 문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조사해보면 언어문제가 34%로 가장 높았으며 외로움이 33.6%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외로움과 언어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산군 일원
- 사업비 : 총 200백만 원(지방비 2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산군 등록 외국인 대상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한국어 의사소통 및 사회적 교류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와 해외 이주민 결혼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실시, 수혜 대상자 선정
- AI 스피커 기술 보유기업과 MOU 체결 등 업무협약 시행
- AI 스피커 배포(번역, 대화기능 탑재)
- 사용자와의 정기적 피드백
 - 월별 사용 점검 및 사용 문제점 등 수시 파악 시행, 1차 배급 이후 문제점 개선을 통한 2차 배급 대상자 선정, 물품지급대장을 통한 물품 관리 등 해당 제품 관리 체계 구축 마련
 - AI 스피커의 상황적 대응을 통해 민관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고 이를 통해 추후 노인 복지를 위한 AI 서비스 등의 미래 추진 전략 기반 조성
 - 다문화 가정이 느끼는 문제점을 IOT 기술로 해결하는 대응 전략을 통해 해당 전략이 타 소의 계층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및 데이터 확보 가능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AI 스피커 기술 보유기업과 MOU 체결	비예산	-	-	-
예산군 등록 외국인 대상 조사 및 대상자 선정	비예산	-	-	-
AI 스피커 배포(번역, 대화기능 탑재)	200	2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200백만 원(지방비 200백만 원)
-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6) 유사사례

- SK하이닉스 - 광주 다문화가정 AI 스피커 무상지원
 - SK하이닉스가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20가정을 선별, AI 스피커 설치 및 사후 콘텐츠 제공까지 직접 관리하는 사업
 - 스피커 안에 내장된 한글, 수학, 학습지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한국어 학습과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



[그림 144] 다문화가정 AI스피커 무상지원 사례

7)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의 학업성취 능력 향상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

사업16

청소년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교육 사업은 도심-농어촌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대면 수업 및 최첨단 장비 등을 통한 멀티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도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5,000백만 원(국비 2,000/ 지방비 3,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스마트스쿨 활성화를 위한 예천군 지역 학교와의 협약 체결
- 인공지능 학습 및 비대면, IoT 시스템 학습 등의 프로그램 운영 구축
 - 코로나 등으로 인한 원격수업에 있어 부족한 인프라 지원
 - 관련 교육적 체크 시스템 구축
- 학년별 맞춤형 프로세스로 교육 복지 실현
- 경북지역 교육 협약체결을 통한 교육 공유
-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예천군 인재양성
 - 학교체험수업과 전문강사를 연결 매칭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미래교육 등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해 학교와 전문강사를 매칭
 - 이공계 출신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배출
 - 온라인 쌍방향 체험수업으로 수학·정보·융합 교육을 비대면 수업으로 실현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군 지역 학교와의 협약 체결	비예산	-	-	-
경북지역 교육 협약체결	비예산	-	-	-
예천군 청소년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5,000	5,000	-	-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예천군 인재양성	비예산	-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5,000백만 원(국비 2,000/ 지방비 3,000)
-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의 농산 어촌 ICT 지원 사업, 스마트교육지원 사업 등

6) 유사사례

- 평택시 - 스마트스쿨로 보충학습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학교 수업으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AI)기술로 수준별 맞춤형 보충교육을 진행하는 시범사업 운영
 - AI 교사가 학생의 학습수준을 진단한 뒤 개인별 보충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200명을 선정해 AI학습기기 지원
 - 지역 대학생/대학원생/마을학습공간 운영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2차례 방문으로 학습지도와 상담도 병행 (학생 5명당 멘토 1명 지정)



[그림 145] 다문화가정 AI스피커 무상지원 사례

6) 기대효과

-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사업1

예천군 산업용 헴프 육성 안동시 연계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로 지정되면서 안동시 일대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는 사업 계획 및 진행 중
- 현재 대마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마씨의 활용 분야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줄기를 활용한 산업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임
- 식품과 약품으로서의 이용키워드 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동시와 연계할 필요
- 현재 안동시는 대마(Hemp)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실용화 지원을 위해 산업계(수요자)와 임업인(공급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중이므로 예천군은 대량증식·재배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원료공급 및 산업화 지원방식을 활용 추진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 위 치: 예천군 일원
- 사업비: 총 50,000백만 원(국비 20,000/ 도비 10,000/ 지방비 2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스마트팜 기술 적용한 안정적인 재배지 확대를 통한 신수종 공고화
 - 대량 재배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원료공급 및 산업화 지원 방안 추구
- 대마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공동 확보 방안 마련
 - 천연섬유인 삼베 및 대마섬유산업 육성 적극 지원
 - 의료용 대마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기반 조성: 예) 대마유를 활용한 접착제, 페인트,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개발 등 석유화학제품의 대체제로 개발
- 안동 등과 연계한 경북북부 브랜드 및 국내외 판매 공동 네트워크 조성 및 해외 수출 기반 조성
- 향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 및 경북 북부 주요산업으로 브랜드화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제2절. 산업·경제 분야

순번	사업명
1	예천군 산업용 헴프 육성 안동시 연계 구축
2	문화CT 산업 연계
3	예천 황토 산업 단지 구축
4	예천 신도시 스마트도시 산업 단지 구축
5	예천군 워킹 홀리데이 운영
6	종자산업 육성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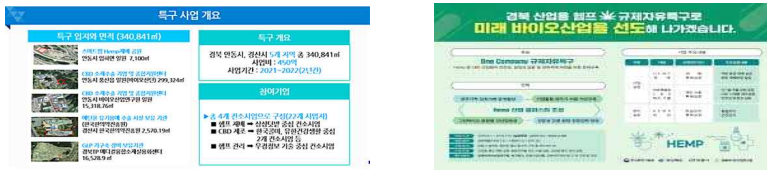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스마트팜 기술 적용한 안정적인 재배지 확대를 통한 신수출 공고화	비에산	비에산	-	-
대마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	20,000	20,000	-	-
경북 북부 브랜드 및 공동 네트워크 조성	30,000	30,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50,000백만 원(국비 20,000, 도비 10,000, 지방비 20,000백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 설정

6) 유사사례

- 경상북도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 특구
 - 농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헴프 산업화를 통해 농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안동포를 비롯한 섬유용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원료의약품, 의료목적 제품 제조 기반 구축을 통해 CBD소재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진행
- 전략목표
 - 스마트팜 활용으로 THC 3% 미만의 청삼종 표준재배 등 고정밀 헴프를 재배해 원자재 공급 시스템을 실증
 - 대마 성분인 CBD 제조·수출과 의료목적 제품 유효성과 안정성을 실증



[그림 146]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 특구

7) 기대효과

- 농업의 바이오 산업화 연계로 기존 농업 패러다임 전환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 창출

사업2

문화ICT 산업 연계

1) 사업의 필요성

- 정부의 AI혁신 클러스터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현실
- 산업적용을 위한 융합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디지털 뉴딜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삼강 문화단지, 금당실 마을 등의 전통문화 지역에 역사문화 연계 관련 AI산업단지를 유치·조성하여 국가 및 예천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경북도,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R&D를 통해 예천군 인공지능 활성화, 문화 주력산업 기술혁신, 문화 인공지능 기능 기반 신제품·서비스 창출 도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일원
- 사업비 : 총 19,000백만 원(국비 4,000/ 도비 3,000/ 지방비 8,000/ 민자 4,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AI 클러스터 조성: 역사문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구축, 경북데이터산업융합원 설립 등
- 예천형 AI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AI기업 유치, 데이터생산·가공 및 활용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산업융합형 AI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AI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AI교육원(경북도립대, 안동대 등 연계) 개원, AI융합 인재교육, AI체험 및 학습캠프 운영
- 군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공지능 예천 만들기: AI기술을 활용한 생활문제 해결 등 군민참여 활성화, AI기반 행정서비스혁신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AI 클러스트 조성	10,000	10,000	-	-
예천형 AI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5,000	5,000	-	-
AI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1,000	1,000	-	-
인공지능 예천 조성	3,000	3,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9,000백만 원(국비 4,000/ 도비 3,000/ 지방비 8,000/ 민자 4,000백만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지역별 AI 혁신클러스터 사업

6) 유사사례

- 광주 - 광주형 AI 생태계 조성
 - 향후 5년간 약 400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3지구 4만6200㎡ 부지에 집적단지지를 조성
 - AI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위해 AI대학원(GIST) 개원, AI사관학교 설립 운영, AI 융합대학과정 신설, AI 융합인재 교육, AI 체험 및 학습캠프 운영 등 5대 과제를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AI 평생시민교육을 추진
 - AI 창업 1000개, 일자리 창출 7000명, 산업분야별 융복합 AI 인재 5150명이 양성되는 효과를 기대



[그림 147] 지역형 AI생태계 구축 사례

7) 기대효과

- 6차산업에 대응한 군 전역 인프라 기반 확보를 통한 관련 기업 유치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반 경제력 확보

사업3

예천 황토 산업 단지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 황토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인더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기반을 이루는 자원이었으며, 세종대왕도 중증의 고혈압, 당뇨병, 난치병 환자들을 황토 한증막을 통해 치료하도록 배려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흙의 의미를 넘어 오래전부터 주거, 식생활, 건강에 두루 활용된 물질임
- 예천군은 오래전부터 황토의 점토질 토양이 우수한 지역으로 1990년부터 황토 생산품 자동화 공장이 설립되어 있었을 정도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
- 타지역 자원(예: 영동군 일라이트) 등과의 융합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 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산업 연구소 및 교육기관 집적화 등이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일원
- 사업비 : 총 1,800백만 원(지방비 1,8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황토 클러스트 조성 : 황토의 과학적 검증확대 및 타원료 융합 사업추진안 검토 / 민간 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사업, 사업권 관리 / 황토산업 단지 및 연구소(마케팅 센터) 건립 추진
- 황토 단지/연구소를 통한 일자리 연계방안 활용
- 황토 휴양단지조성: 숙박과 휴양기능을 갖춘 중규모 관광단지 조성
 - 황토찜질방, 황토체험길, 휴게소 등을 건설하고 잔디구장과 육상경기연습장도 조성하여 동, 하계 전지훈련지로서의 시설도 확충
- 황토 연구소 및 마케팅센터 등을 통합 사업화 모델 발굴 (제품개발, 컨설팅 등)
- 민간기업(예: 삼한CI 등), 경북도립대, 안동대 등 연계한 연구 및 교육 연계
- 황토는 일라이트와 융합할 경우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북 영동군의 경우 일라이트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황토 클러스트 조성	1,500	1,500	-	-
황토 사업 연계	비예산	비예산	-	-
황토 사업화 모델 발굴	300	3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800백만 원(지방비 1,800백만 원)

6) 유사사례

- 무안: 황토갯벌랜드
 - 무안황토갯벌랜드 일대에는 생태갯벌과학관, 해상안전체험관, 분재테마전시관, 황토찜질방, 오토캠핑장까지 갖추고 있으며 한 곳에서 교육, 체험, 숙박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조성
 - 숙박: 황토이글루 등 22동의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38개), 카라반 사이트(15개) 등 국민여가캠핑장 53곳
 - 과학관: 500여점의 생물표본과 갯벌상징조형물 전시, 디지털수족관, 드론타고 갯벌로, 낙지 빨판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 / 스마트빌리지 체험관: 디지털스케치북, 해저탐험 4D VR(가상현실), 무안 360VR 등 디지털 콘텐츠 신기술을 체험
 - 촉각체험실과 갯벌키즈놀이터 편백놀이방, 초롱아귀 타고 떠나는 어드벤처, 점핑점핑 아일랜드를 설치하여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



[그림 148] 자연자원(갯벌, 황토) 관광자원화 사례

7) 기대효과

- 예천군 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지역 이미지 다양화
- 황토 사업화 모델 발굴로 지역 특화상품 개발 및 소득 창출

사업4

예천 신도시 스마트도시 산업 단지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예천군, 특히 신도시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예천형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능을 갖출 수 있으나, 예천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안전, 보건, 교통, 관광, 산업 등의 단계별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5년 ~ 2030년
- 위 치: 예천군 호명면 일원
- 사업비: 총 50,000백만 원(국비 20,000/ 도비 20,000/ 지방비 1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신도시행정을 위한 예천군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추진)
-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지역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예천군 도시관리 강화 및 예천군민들의 방법, 안전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향상,
- 스마트교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 문제, 도로관리 등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교통문제를 개선
- 예천군 스마트 도시화 추진 기반 확대를 위해 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산업단지 구축, 일자리 창출 연계, 산학연연계 및 교육기능 강화
- 노후 주거지역에 적용가능한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원도심 지역 내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와 접목하여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군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5,000	5,000	-	-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15,000	15,000	-	-
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산업단지 구축	20,000	20,000	-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0,000	10,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50,000백만 원(국비 20,000/ 도비 20,000/ 지방비 10,0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산업단지 상상허브,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 산단형 스마트시티 사업 등

6) 유사사례

○ 포항: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중앙동 일원 / 사업면적: 200천㎡

- 총 사업비 : 300억 원(스마트사업비 50억 원)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중앙동 원도심을 공공시설 이전부지 및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심으로 조성
 -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문화예술허브를 구축하고, 문화 예술 플랫폼과 창작공동작업장 등을 조성
 - 북구청 부지는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
 - 청춘 공영임대상가와 보행자 중심의 예술문화 창업로를 조성하여 스마트 서비스 연계



[그림 149]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례

6) 기대효과

○ 노후 지역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있는 정주여건 조성

사업5

예천군 워킹 홀리데이 운영

1) 사업의 필요성

- 과수 및 다양한 농산물 수확철의 모자란 일손을 확보하고, 도농일손교류 확대 및 농촌인력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예천의 특색을 담아 대학생, 청년 등이 올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운영
 - 이와 함께 영농기가 겹치지 않는 농촌 지역과 품앗이 제도 신규 개발
 - 이러한 품앗이 도시를 가칭) '영농 자매 도시'로 표현할 수 있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 서울시는 제주도 워킹홀리데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도비 100백만 원/ 지방비 4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주요 도시, 영농자매도시와 예천군 워킹홀리데이 운영
 - 시범사업으로 예천군 내 특정지역(수확 노동 필요지역 선정) 워킹홀리데이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 등으로 사업 활성화 유도
- 편의시설 지원: 기존 건물을 참가자 숙소 및 편의시설로 리모델링 지원
 - 참가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제공, 다양한 행사, 교통, 축제참가 지원 등
-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 농번기의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을 기대
 - 도시 및 소비자들에게 예천군의 농산물 및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기회 확보
 - 영농자매도시와의 연계 사업 발굴 및 활성화 기대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군 워킹홀리데이 운영	400	400	-	-
편의시설 조성	100	100	-	-
관련 조례 제정	비예산	비예산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도비 100백만 원, 지방비 400백만 원)
- 광역의 경우 제주도 등에서 운영 중

5) 유사사례

- 제주청년농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 제주 농촌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제주청년농부 캠프의 숙소를 제공하며 제주도에 내려오는 편도 항공권을 제공
 - 주 2회 농가 워킹 작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실질 농업 업무 전반을 익히고 농촌의 문화와 생활을 체득
 - 실제 귀농귀촌 생활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전달하며, 청년들이 농촌 생활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150] 농촌 워킹홀리데이 사례

6) 기대효과

- 농업·농촌 관련 진로 및 적성 체험으로 청년층 귀농·귀촌 위험부담 감소
- 농촌자매도시와의 연계 및 교류 증대

사업6

종자산업 육성

1) 사업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은 고성장 중이며 첨단 생명공학의 활용을 통한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확대로 고부가가치화가 크게 증가
- 국제적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예천군 주변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와의 연계하여 발전 방안 모색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5년 ~ 2030년
- 위 차: 예천군 일원
- 사업비: 총 7,00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2,000/ 지방비 4,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역량 있는 종자 및 관련 업체와 예천군 농산업 생산기반과 연계성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 개인육종가가 종자업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시드밸리 조성 지원 및 육종전문인력 양성
(민관학 협력사업, 예시: 예천군 맞춤형 기후 변화 대응품목 R&D 등)
 - 종자기업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개인육종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개별 종자개발 업체와 연결
 - 소규모 종자업체(또는 개인 육종가), 농가, 영농조합, 소비자간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특화된 유통채널 구축
- 종자와 수요산업(작물재배, 식품, 관광 등)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 지향적인 종자를 개발·공급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시드밸리 조성 및 관광자원화하여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제종자박람회 유치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개인육종가-종자업체 상생·발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비예산	비예산	-	-
종자와 수요산업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비예산	비예산	-	-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확대	5,000	5,000	-	-
국제종자박람회 유치	2,000	2,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7,000백만 원(국비 1,000/ 지방비 도비 2,000/ 지방비 4,000백만 원)

○ 농림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

6) 유사사례

○ 김제 - 민간육종연구단지(시드밸리)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사업비 681억 원을 투자해 전북 김제시 백산면 일원 54.2ha(16만 3955평) 부지에 조성

- 단지에 입주하는 20개 기업에 첨단 육종시설과 장비·시험포장 등 연구 인프라를 지원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라북도와 김제시청이 추진한 사업



[그림 151]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례

7) 기대효과

○ 예천형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발굴 및 선점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제3절. 농업·농촌 분야

순번	사업명
1	친환경 신선농산물 육성 및 재배단지 조성
2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
3	양봉 특화단지 조성 사업
4	산업곤충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5	기후 변화 대응팀 구성과 신규농작물 시범 재배 사업
6	예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7	약취 없는 친환경 양돈단지 조성 연구
8	(가칭) 예천자연생태원 조성

사업1

친환경 신선농산물 육성 및 재배단지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주변 지역의 도로 및 철도교통망 확충은 국내 대도시 지역의 친환경 신선농산물 공급지로서의 경쟁력 구비함
- 예천군의 친환경 이미지는 신도시에 입주민의 우수 친환경 신선농산물 소비수요 충족과 인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 있음
- 다양한 국제인증을 확대하면 국내 소비시장에서의 위상증대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 이전 에 따른 항공운송망과 연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 효과도 기대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및 호명면, 이외 면단위 일원
- 사업비 : 총 19,000백만 원(국비 9,000/ 지방비 1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각종 농산물 인증 교육 및 전문가 배정 컨설팅 지원 사업
 - 농산물 인증 교육 사업 확대 (친환경, GAP 인증 등)
 - 농산물인증 관련 업무경력과 자격 구비한 전문가 및 퇴직 공무원 등을 농산물인증 컨설턴트로 위촉하고 농가 배정하여 농가별 일대일 맞춤형 지도
 - 인증 작목별 인터넷 동영상 교육자료를 영문자막과 함께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유튜브, 네이버TV 등)에 공개하면, 예천 농가뿐만 아니라 예천군과 예천농산물의 전 세계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토종 농산물 종자육성 및 보급 사업
 - 다문화 가정 증가와 외국생활 경험자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섭취하지 않거나 새로운 외

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종자는 이미 외국계 종묘업체가 선점하고 있음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신규 신선농산물 소비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토종식물 탐색과 관련 종묘확보 사업 추진
- 신선채소로 활용가능한 신규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신선채소 작물로 육성하여, 품종명에 '예천' 지역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 예천군의 국내외 지명인지도 향상에 기여함 (예: 예천단수수, 예천 앞참깨, 예천더덕 등)
- 예천읍과 신도시 연결축 주변을 친환경 농산물 육성단지로 집중지원
 - 구도심과 신도시 연결 도로 주변 지역을 친환경농산물 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지원
 - 종전의 보조금 사업과 다른 개념으로 경쟁력 있는 대규모 영농기업(단체)을 지역 내 선발 또는 외부유치하고 집중지원을 통한 우수 성공사례 창출
 - 이를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실증 단지조성 개념으로 시범 육성함
 - 신선채소 농장이 6차 산업현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농장 내 소비자 편의시설 (매장, 식당, 카페, 전시실, 체험장 등) 부대시설 운영가능하도록 인허가 원스톱 행정지원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농산물 인증 교육 및 전문가 배정 컨설팅 지원 사업	3,000	1,000	1,000	1,000
토종 농산물 종자육성 및 보급 사업	6,000	2,000	2,000	2,000
친환경 농산물 육성단지 조성 및 집중지원	10,000	10,0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9,000백만 원(국비 9,000/ 지방비 10,000백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5) 유사사례

○ 경상남도 -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생태농업단지 7개소 조성에 14억 원, 친환경농업지구사업 1개소에 7억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504ha에 12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2258ha에 19억 원을 각각 투입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에 2년간 2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2350명에 11억 원,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60곳에 3억5천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16곳에 7억5천만원을 각각 지원



[그림 152] 친환경 생태농업 사례

6) 기대효과

-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급
- 예천군 농가소득 증대

사업2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예천군이 갖는 문화·체육 도시 이미지 정착과 발전을 위한 경관농업 단지 조성으로 예천군 홍보 및 친환경 지역이미지 재고
- 예천읍과 신도시 연결축 공동화 방지 방안으로 경관농지 특화지역으로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며, 경관농지조성 확대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선점 필요
- 곤충도시 예천을 계승하는 농업생태도시 이미지 재고에 경관농업 확대가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및 호명면, 경관 관광지 주변
- 사업비 : 총 29,000백만 원(국비 14,000/ 지방비 1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천읍과 신도시 연결 도로 및 문화관광지 인근 도로변 농지에 유색 수도품종 활용 대단위 농지경관 조성
- 봄밀, 유채, 헤어리베치, 보리, 양귀비, 수레국화, 크림손클로버, 구절초, 하고초, 메밀, 자운영 등 농지경관 조성용 작물재배와 단지 조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활용
 - 특정 경관작물 집중재배를 통한 지역 축제로 발전 사례(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
- 농지경관 조성 내용이 예술적 가치 있는 경관조성지에는 군 예산 지원함으로 경관농지 조성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는 효과 갖도록 사업 추진
- 농지경관 조성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기업홍보 문양 등 홍보 사업 가능한 상업적 농지경관 조성을 통한 농가의 광고수익 창출하도록 농지경관 조성기술지원 사업추진
- 관내 농지경관 조성지 확대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지역 곳곳으로 확장되는 효과와 각종 미디어를 통한 지역홍보 효과 창출
- 경관조성 농지 주변 도로, 주차장, 전망대 조성 지원으로 방문객 편의 지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유색 수도품종 활용 대단위 농지경관 조성	20,000	20,000	-	-
농지경관 조성기술지원 사업 추진	6,000	2,000	2,000	2,000
관광지화를 위한 편의시설 조성	3,000	1,000	1,000	1,0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29,000백만 원(국비 14,000/ 지방비 15,000백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6) 유사사례

- 고창 - 청보리밭 축제
 - 농업경관에 특화
 - 농업경관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해 1차 산업인 농업을 3차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구축
 - 저비용 고효율 축제
 - 총예산 1억 원 내외로 30만~50만 명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
 - 청보리(봄), 해바라기(여름), 메밀(겨울) 등 계절적 소재를 적절하게 선택해 관광객들의 방문가 능 기간 극대화
 - 연간 방문객 30만~50만명/ 축제기간 매출액 8억 원, 고용창출 150명 / 지역경제 파급효과 2백억 원 이상



[그림 153] 고창 청보리밭·해바라기 축제

7)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
-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3

양봉 특화단지 조성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예천군은 다양한 밀원(蜜源)을 보유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양봉업 발달하였으며, 이는 예천군의 곤충산업 지역 이미지와 직결됨
- 관광자원으로서의 곤충자원을 산업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곤충산업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 대표적 산업으로 봉밀산업과 산업곤충 육성 사업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천 봉밀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인증과 브랜드화 사업이 요구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18,000백만 원 (지방비 18,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밀원자원을 고려한 경관농지 조성으로 관광농업사업과 양봉업 지원의 1석 2조 효과 창출되도록 계획수립 및 시행
- (가칭)예천봉밀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관리하고 검사하여 품질인증하는 예천봉밀 품질인증제도 확립과 품질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인증방안 검토
- 봉밀 사업 신규진출하려는 식품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와 협업을 통한 예천봉밀 활성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가칭)예천봉밀 브랜드화 추진	6,000	2,000	2,000	2,000
품질기준 마련 및 국제인증 추진	비예산	-	-	-
양봉특화단지 조성	12,000	12,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18,000백만 원 (지방비 18,000백만 원)

6) 유사사례

○ 인제군 - 청정 양봉 브랜드 육성

- 양봉 사육농가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 전업 규모의 양봉 농가 39곳에 자동채밀기와 벌꿀 자동펌프 등 10개 품목을 보급
 - 벌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10월 말까지 대용 화분 8을 60여 양봉 농가에 지원
 - 양봉 장비의 표준 규격화와 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양봉 산업 기반 구축
- 군의 양봉 브랜드 육성으로 2015년 28억 원이던 농가 소득이 2016년 34억 원으로 증가
- 2022년까지 인제읍 남북리 산78-2 일원에 50ha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할 계획



[그림 154] 양봉 브랜드 육성 사례

7) 기대효과

- 예천군 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사업4

산업곤충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시설원에 농업과 스마트팜 확대는 화분매개를 위한 산업곤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 중심으로 유용 단백질자원 확보를 위한 곤충산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예천군은 산업곤충 분야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산업곤충 용도가 화분매개 기능에 한정되어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연구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2,500백만 원 (지방비 2,5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산업곤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추진
 - 작물의 수정작업 용도로만 활용되는 화분매개 곤충이 갖는 다양한 기능성 연구를 통하여 산업곤충이 바이오산업자원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 화장품 소재로서의 유용성 연구 사업 추진
 - 작물 품종별로 요구되는 특성 생리적 특성과 재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분매개 곤충 신규 발굴 연구 사업 추진
- 천적곤충(노린재류, 풀잠자리류, 딱정벌레류, 파리류, 기생벌류, 응애류 등 농림부 고시 곤충)을 활용한 농작물보호 연구결과 실증단지 확대를 통한 예천군 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산업곤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1,000	1,000	-	-
예천군 농산물의 친환경이미지 스토리텔링 사업	1,500	1,5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2,500백만 원 (지방비 2,500백만 원)

6) 유사사례

- 경상북도 곤충산업 육성 전략
 - 비전: 곤충자원을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목표: 곤충산업 핵심거점 '경북'
 - 3대 키워드
 - 생산: 균일화, 규모화, 스마트화
 - 가공·유통: 체계화, 전문화, 고도화
 - 소비: 안전성, 고품질, 인식개선



[그림 155] 경북 곤충산업 육성 전략

6) 기대효과

-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약용곤충과 학습애완곤충 사육 보급을 통하여 산업곤충 메카로서의 예천군 이미지 정립

사업5

기후 변화 대응팀 구성과 신규농작물 시범재배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와 농작물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조직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연구기관의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변화와 농작물변화 시나리오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 농작물 변화를 농가에 홍보하여 자체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칭) 예천군 기후 변화 대응 팀 신설이 필요함
- 기후 변화 대응 팀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직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사업비: 총 10,100백만 원(지방비 10,1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군수 직속 기후 변화 대응 팀(또는 자문단) 구성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 대응하는 조직체계 개편
- 기후 변화로 인한 예천군 추천 아열대 과채류와 올리브 등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의 종 목록 실증 재배 사업 추진
- 아열대지역 이주 다문화 가정에서 직접 재배하여, 자체 유통하는 열대과채류의 예천군 미래 농작물로서의 가치 분석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군수 직속 기후 변화 대응 팀(또는 자문단) 구성	비예산	-	-	-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의 종목별 실증 재배 사업	10,000	10,000	-	-
예천군 미래 농작물로서의 가치 분석	100	100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10,100백만 원(지방비 10,100백만 원)

6) 유사사례

- 군위군 - 기후 변화 대응 신 소득원 시험 재배
 - 기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아열대 작물 및 기능성 신품종의 실증시험 재배를 적극 추진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 기술 실증 시범포에는 현재 아티초크, 오크라, 양빈, 방울양배추, 아로니아 등 지중해, 중남미 원산의 아열대작물이 2,000㎡에 달하는 면적의 노지와 시설에서 시험 재배 진행
 - 실패의 위험이 있는 아열대 작물의 시험재배를 통해 지역 내 재배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확대보급하여 차세대 농가소득 작물을 육성할 계획



[그림 156] 신 소득농작물 시험재배 사례

7) 기대효과

- 실패 위험이 있는 신 농작물의 시험재배로 지역 내 재배가능성 검토 및 위험부담 완화
- 기후 변화 선제 대응으로 지역 신 소득농작물 발굴을 통한 농민 소득창출원 안정화

사업6

예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대구 경북지역 중심으로 예천 한우의 인지도는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최대 수요시장인 수도권 지역의 인지도는 경쟁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임
- 예천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예천한우' 브랜드화 성공을 위한 효율적 마케팅 필요
- 급변하는 홍보마케팅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마케팅지원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과 전국
- 사업비 : 총 6,100백만 원 (지방비 6,1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천한우 브랜드 정착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추진
- 타 지역 대비 예천한우가 갖는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와 핵심 홍보 키워드 발굴을 위한 종합분석
- 사육농가별 3~5분의 짧은 홍보동영상을 다수 제작지원하여 다양한 SNS 홍보 (대중적 인지도 있는 유튜브채널 연계홍보)
- 예천군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을 통한 예천한우 및 농산물 홍보 유통
- 예천한우 판매 지정식당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예천한우 품질관리 및 홍보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한우 브랜드 정착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추진	3,000	1,000	1,000	1,000
예천한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40	40	—	—
사육농가 홍보영상 제작 지원	60	20	20	20
예천한우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	3,000	1,000	1,000	1,0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6,100백만 원 (지방비 6,100백만 원)

6) 유사사례

○ 포항 한우 브랜드 사업

- 강원도 횡성한우, 의성 마늘한우 등 브랜드 선진지 5개 시군을 벤치마킹
- 포항 부추를 기초성 높게 발효한 생균제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점토광물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사료에 적정량 첨가해 시험 사육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
 - 이 연구를 통해 면역성 증가, 증체량 및 육질등급 향상에 미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추진
- 브랜드 네이밍과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고 우량정액 인공수정을 통한 밀소 자체확보



[그림 157] 한우 브랜드화 사례

6) 기대효과

○ 브랜드화를 통한 수도권 및 타 지역 브랜드 인지도 향상

사업7

악취 없는 친환경 양돈단지 조성연구

1) 사업의 필요성

- 국내산 양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도시화와 공장지역 확장으로 기존에 형성된 양돈장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사육장 운영의 어려움 있음
- 초기 시설투자 비용은 많지만 악취 등 환경문제가 개선된 양돈단지 조성연구와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예천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
-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첨가물 개발과 사육시설 개선 등 시범 사업장 조성을 통한 기술보급이 필요함
-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수출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돈단지 조성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비 : 총 3,000백만 원 (지방비 3,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악취저감 사료, 시설 및 사육방법 및 홍보자료 마련과 기술보급
- 악취저감 친환경 양돈 시범농장 지원 사업을 통한 양돈단지 확대 여부 정책판단을 위한 실증사업장 운영
- 양돈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공동연구 및 지원으로 정책판단 근거자료 구비
- 친환경 양돈농장 실증 사업을 평가를 통해 예천군의 양돈산업 방향 설정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약취저감 방법 및 기술보급	1,200	400	400	400
약취저감 친환경 양돈 시범농장 지원 사업	1,200	400	400	400
양돈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공동연구 진행	600	600	-	-
친환경 양돈농장 실증 사업을 평가	비예산	-	-	-

5) 재원대책

- 사업비
 - 총 3,000백만 원 (지방비 3,000백만 원)

5) 유사사례

- 경남 고성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 경남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 사업(양돈) 대상지역으로 2020년 최종 선정
 - 스마트축산 단지는 관내 대표적인 양돈 밀집지역인 거류면 소재 산성마을에 조성 예정
 - 기반조성과 단지 내 관제센터 및 교육시설 설치에 95억을 투입하는 등 총 611억을 투자해 ICT 기술이 접목된 현대식 무장돈사의 양돈단지를 설립할 예정
 - 과학적으로 축산냄새를 관리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양돈장 모델로 육성 계획



[그림 158]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사례

6) 기대효과

-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냄새, 가축질병 및 생산량 저하문제를 해결
- 축산업 인근 지역민의 악취 등에 관련한 민원 감소

사업8

(가칭) 예천자연생태원 조성

1) 사업의 필요성

- 리모델링 필요한 곤충생태원 활성화 방안으로 곤충생태원을 (가칭) 예천자연생태원으로 개편하여, 토종 농작물과 우리나라 전통 가축(동물) 전시 가능 추가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자연생태원은 곤충생태원과 토종농작물을 수집 전시하는 농업생태원 그리고 토종가축(대 동물, 중소동물)을 사육 전시하는 축산생태원을 추가 조성함으로 예천군의 친환경 이미지 확립과 전통농업테마파크 관광자원으로 육성 필요
- 건강한 먹거리 수요증가에 따른 기능성 잡곡수요 증가함으로 토종유전자원 전시를 통한 신규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농가 지원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 사업비 : 총 20,500백만 원 (지방비 20,5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곤충생태원과 농업생태원 그리고 축산생태원으로 구성된 예천자연생태원 확장을 위한 장기 계획수립
- 곤충생태원 부지 주변을 확장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씨앗은행과 산림청 종자은행에서 유전자원을 분양받아 토종작물 전시포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농업생태원 조성
- 농업생태원의 일반인 관람뿐만 아니라 예천 농가에 토종작물 종묘분양을 통해 신규 소득작물로 육성되도록 토종작물의 기능성 정보제공 병행
- 토종 가축을 전시하는 축산생태원은 일반인의 관광 및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새로운 품종 경험 기회제공 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의 토종가축분양을 연계
- 소규모 주택단지(또는 프리미엄 농막, 카라반 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생태원 주변에 한시적으로 거주하며 휴양할 수 있는 소규모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자연생태원 조성 사업에 참여를 통한 귀농귀촌 장기체험 기회제공과 귀농귀촌 아이템 발굴 기회제공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자연생태원 확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500	500	-	-
예천 농업생태원 조성	10,000	10,000	-	-
국립축산과학원의 토종가축분양 연계	비예산	-	-	-
소규모 체험마을 조성	10,000	10,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20,500백만 원 (지방비 20,500백만 원)

5) 유사사례

○ 평택시 농업생태원

- 농촌체험으로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을 위해 총 375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및 11만 4651㎡ (약 3만 4682평) 면적으로 조성
- 농촌문화체험관과 체험시설, 반려견 쉼터, 생태연못, 피크닉장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이 갖춰진 농촌생태원으로 운영
- 가을 프로그램으로 ▲농업생태원 가을 자연 알아보기 ▲벗짚을 이용한 놀이체험 ▲다양한 자연물로 계기 만들기 ▲나무·식물 생태체험과 10월 30일에 진행되는 벼 베기 체험 등을 해설과 함께 진행



[그림 159] 농업생태원 사례

6) 기대효과

- 예천군의 농업 우수성 홍보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 모색 및 도시 브랜드화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제4절. 지역개발 분야

순번	사업명
1	통합신공항 연계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
2	미래 예천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
3	신도시-원도심 간 무가선 트램 설치

사업1

통합신공항 연계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2028 통합 신공항 개항으로 인한 경상북도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상
- 경상북도청이 입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철도, 도로 인프라 확충 요구
- 지역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년~205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북도, 예천군 등
- 사업내용 : 점촌-안동 간 철도건설, 국도 28호선 예천-지보 간 도로 확포장, 신공항 연계 대중교통 수립 등
- 총 사업비 : 총 779,100백만 원(국비 771,100/ 지방비 3,000/ 민자 5,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점촌-안동 간 철도 건설
 - 사업비: 727,900백만 원 (국비 727,900백만 원)
 - 철도 연장 54.4km
 -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유발효과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
 - 청정보존 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 기대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반영 필요
- 국도 28호선 예천-지보 간 도로 확포장
 - 사업비 : 35,200백만 원(국비 35,200백만 원)
 - 사업량: L=4.6km, B=20m

- 왕복4차도로,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연결
- 세종시, 상주, 문경, 김천, 구미 등과 접근성 개선

○ 통합 신공항 연계한 대중교통 수립

- 사업비 : 15,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3,000/ 민자 5,000백만 원)
- 통합 신공항 주변으로 예천 관광투어버스 시스템 구축
- 관광 택시 운영을 통한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
- 소형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점촌-안동 간 철도 건설	727,900	727,900	-	-
국도 28호선 예천-지보 간 도로 확포장	36,200	36,200	-	-
통합 신공항 연계 대중교통 계획 수립	15,000	15,000	-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779,100백만 원(국비 771,100/ 지방비 3,000/ 민자 5,0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국토교통시설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

6) 기대효과

-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
- 지역 간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의 안전망 확대

사업2

미래 예천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통합 신공항 및 경북도청, 신도시 등과 연계한 미래 도로망 구축 사업 필요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마련
- 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향상 및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도시 이미지 전환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31년~2040년
- 위 치 : 예천군 일원
- 사업주관 :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도심 복합형 자율주행도로 구축,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
- 총 사업비 : 총 300,000백만 원(국비 195,000/ 지방비 65,000/ 민자 4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도심 복합형 예천SMRT 자율주행도로 구축
 - 사업비: 150,000백만 원(국비 105,000백만 원/ 지방비 30,000/ 민자 15,000백만 원)
 -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기반 교통시스템 구축
 - 차량 및 시스템 서비스 실증
 - 도로 인프라 서비스 실증
 - 도로 정보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 사업비 : 100,000백만 원(국비 75,000/ 지방비 25,000/ 민자 0백만 원)
 - 버스, 철도 등과 연계해 환승 시간이 최소화된 연계 교통 서비스

- 대 도시권 광역 교통에 도심항공 교통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 구축
- 도심 항공 모빌리티 구축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사업비 : 50,000백만 원 (국비 15,000/ 지방비 10,000/ 민자 25,000백만 원)
-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
-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인 전동기 활용
- 수소 및 탄소 제로 대중교통수단 도입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도심 복합형 예천 SMRT 자율주행도로 구축	150,000	50,000	100,000	-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100,000	50,000	50,000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50,000	-	50,000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300,000백만 원(국비 195,000/ 지방비 65,000/ 민자 40,0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친환경 교통수단 공모사업

6) 기대효과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예천군의 도시 이미지 향상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지역민들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

사업3

신도시-원도심 간 무가선 트램 설치

1) 사업의 필요성

-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철도 및 도로 등 SOC 사업으로 경상북도 내 접근성 향상 기대
- 통합신공항과 경북도청까지 도로개설 및 철도 개설로 중부권 및 남부권 연결도시로 성장
- 원도심과 신도시 연결은 4차선 확장은 개선되었지만, 향후 안동 시민 및 예천 신도시와의 지속 가능한 연결을 위해 친환경 무가선 트램 설치를 통해 접근성 개선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2040년
- 위 치 : 예천군 구도심 - 신도심 주변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예천군
- 사업내용 : 무가선 트램 설치
- 총 사업비 : 총 110,000백만 원(국비 66,000/지방비 44,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신도시-원도심 간 무가선 트램 설치
 - 사업비: 110,000백만 원(국비 66,000/ 지방비 44,000/ 민자 0 백만 원)
 - 무가선 트램 설치 노선 검토 및 확정
 - 무가선 트램 설치
- 현재 무가선 트램은 1회 충전으로 약 35km 운행이 가능하며, 건설을 위해 최소한 2개 차로가 필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신도시-원도심 간 무가선 트램 설치	110,000	60,000	50,000	-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110,000백만 원(국비 66,000/지방비 44,000백만 원)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및 친환경 교통수단 공모사업

6) 기대효과

-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기대
- 신도시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원도심의 소득증대

사업1

예천 글로벌스포츠시티 조성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미래엔 실내스포츠, 로컬스포츠, 실버스포츠가 각광을 받으며 국제적 스포츠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문체부(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 2019)는 스포츠 산업의 균형발전 표방하면서 지역별, 업종별 성장 추진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
- 경북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 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 문화로 자리를 잡도록 노력 중이며, 해외스포츠 교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현재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클러스터 사업도 진행 중)
- 예천군 종합발전계획(2018)은 한천스포츠융합 클러스터 를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관광 유인력 제고를 제안
- 예천군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미래에는 경북, 국내, 나아가 세계 스포츠 분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음
- 예천군은 미래를 위해 로컬스포츠, 글로벌 스포츠를 지향하는 스포츠사업 필요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 2050년
- 위치: 예천군 전역
- 사업비: 총 247,700백만 원(국비 100,000/ 도비 23,800/ 지방비 70,000/ 민자 53,9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1) 예천 미래스포츠 발전위원회 구성

■ 사업개요

- 2050년도에 조성할 예천 미래스포츠시티 사업에 대한 전반적 구상과 전개를 리드 할 수 있는 조직
- 군민, 전문가 등이 함께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 리드
- 미래 스포츠 산업 전망을 내다 보며 장단기 구체적 발전 방안 구상, 실행

제7장. 예천군 분야별 핵심사업

제5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순번	사업명
1	예천 글로벌스포츠시티 조성 사업
2	예천군 공공디자인(Public Design)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
3	스포츠 의료 관광단지 조성 사업
4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사업
5	전통-자연-하늘이 만나는 하늘문화벨트 조성 사업

■ 기대효과

- 미래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 논의 구조를 통해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담보
- 위원회 논의 구조는 사업의 중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2) 글로벌 종합운동장(Global Sports Complex) 건설 사업

■ 사업개요

- 신공항 이전에 따라 국제 스포츠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를 수용할 만한 글로벌 종합운동장 건설
- 미래 과학기술을 집적해놓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기장
- 로컬스포츠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종합운동장

■ 사업 추진 내용

- 추진 1단계(2022-2023): 건설위원회 구성과 사업 기획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군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구상
- 추진 2단계(2024):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 사업 확정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의 기획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청회, 국가적 차원의 검증
- 추진 3단계(2025-2040):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 사업 시행
단기, 장기 건설 계획을 실행.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건설 실행
건설이 이루어지면 국제경기, 전국대회 등을 실행하며 모니터링
- 추진 4단계(2040-2050): 세계적 종합운동장 브랜드화
예천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화 사업 시행

■ 유사사례 : 서울 잠실운동장 개발 계획

-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MICE)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 201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와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

-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일원
- 대지면적: 123,492.30㎡
- 연면적: 86,941.35㎡

○ 사업의 구체적 내용

-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해 스포츠시설, 유스호텔, 판매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이 도입된 복합시설로 개발
- 야구장: 리모델링을 통해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3만5000석 규모로 변화
- 주경기장 제외 부지: 전시·컨벤션시설(전용 12만㎡), 스포츠복합시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 호텔(900실), 문화·상업·업무 시설



■ 기대효과

- 글로벌스포츠컴플렉스는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예천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스포츠 성장동력 발판 마련
- 최첨단 과학기술과 환경친화적 운동장으로 국내외에 걸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

(3) 스포츠파크(Sports Park)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선진적 스포츠 산업을 수용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반영한 사업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스포츠 확대를 반영한 사업

- 스포츠를 통한 레저 활동으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 시킬 사업

■ 사업 추진내용

- 스포츠 융복합 파크 조성(2022~2030)
 - 국가가 주도하여 미래 스포츠 융합을 촉진하고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스포츠 기업이 연구개발 및 제품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공간·자원 제공
 - 청소년에게 다변화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직업군의 탐색 기회를 제공
- 아웃도어 스포츠파크 및 액티비티 클럽리조트 조성(2022~2030)
 - 가족 액티비티·휴양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 복지에 기여
 - 인근 시설과의 시너지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및 가치와 활용도 제고
 -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수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스포츠 테마 파크의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 기대

■ 주요사례 - (스페인) Club La Santa

-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란사로테(Lanzarote) 섬에 위치한 스포츠 테마 리조트로 1995년에 개장
- 80가지가 넘는 스포츠 종목과 500가지가 넘는 관련 활동 및 교육을 제공하는데,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해 경비 부담을 완화
- 이 밖에 개인지도, 라켓 스포츠를 위한 다이빙, 건강 및 건강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과 같은 일부 추가 옵션을 이용 가능
-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에서부터 평범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의 계층은 매우 다양함



■ 기대효과

- 자연환경의 도움 없이 스포츠 시설을 중점 자원으로 활용하여 여가·휴양의 복합형 시설로 기능 수행
- 방문객들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로 유인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숙박·편의시설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

(4) 국제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 조성

■ 사업개요

- 단기 사업으로 국제적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 조성
- 이미 각광 받고 있는 전지훈련 캠프로서의 예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

■ 사업 추진내용

- 국제 전지훈련의 메카로 확대
 - 세계 육상대회, 양궁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육상은 물론 그 밖의 예천이 전지훈련 최적지로 삼을 수 있는 스포츠 분야를 개발하여 더 많은 단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
 - 스포츠 마케팅 분야 육성을 통해 전지훈련단의 유치를 유도
 - 경북도립대학에 스포츠 마케팅 분야 교육 과정 신설
 - 지역사회의 서비스 분야를 질적으로 고양할 필요 있음(숙박, 여가문화 확대)
- 국제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장 조성
 - 국제적 차원에서 전지훈련을 행할 수 있도록 캠프를 조성
 - 스포츠 전지훈련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세계 스포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갖춰야 함

■ 주요사례 - (터키) 안탈라 전지훈련장

- 터키 남서부 지중해 휴양도시
- 전지훈련을 위해 안탈라를 찾는 축구단은 연간 800개~1천개 팀
- 11월~4월에 집중, 길면 40일 정도 훈련.

- 짧은 기간 훈련은 터키 내 클럽, 가까운 유럽 구단
- 호텔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전용 구장이 잘 갖춰짐
- 날씨도 훈련하기에 적당하며, 숙박비 등 체류 비용도 저렴함



■ 기대효과

- 뛰어난 자연, 예술문화 등을 배경으로 예천을 국제적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경제성 제고
- 글로벌스포츠 예천을 만들어가는 기반 조성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예천 미래스포츠 발전 위원회 구성	5,000	1,800	2,000	2,000
글로벌 종합운동장(Global Sports Complex) 건설 사업	158,700	152,700	3,000	3,000
스포츠파크(Sports Park) 조성 사업	60,000	20,000	2,000	2,000
국제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 조성	24,000	20,000	2,000	2,0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247,700백만 원(국비 100,000/ 도비 23,800/ 지방비 70,000/ 민자 53,900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활성화사업, 생활체육시설지원, 국민체육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전문체육육성 / 경상북도-생활체육활성화사업

사업2

예천군 공공디자인(Public Design)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세계의 도시는 경제 중심에서 창조적 문화도시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변화함
- 미래 사회는 각 지역의 특색을 갖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대외 홍보와 인지도 제고 요구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지역자원 공동 브랜드화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전략적으로 요청
- 경북관광개발 전략으로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성과 역사문화를 활용하고 확대하여 경북 관광을 축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
- 예천군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구축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개발 사업이 미진함
- 예천군의 공공디자인과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
- 예천군의 공공디자인과 콘텐츠 개발은 문화관광 산업과 관련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 2050년
- 위치: 예천군 전역
- 사업비: 총 40,600백만 원(국비 10,000/ 도비 10,000/ 지방비 20,6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예천 공공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 공공디자인은 사람들의 심미적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관광과 직결되어 예천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됨
 - 예천이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홍보할 수 있는 예술성·통일성을 갖춘 디자인 개발
 -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 영역의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

- 추진 주체: 개발을 담당할 군의 주무부서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가능한 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연구용역 필요

○ 추진과정

- 1단계(2022~2023): 지역콘텐츠 조사
예천 문화관광자원, 인문학적 자원, 스토리 자원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역콘텐츠 조사 시행.
공공디자인 정책 영역에서 법규와 행정 등을 검토
- 2단계(2024): 지역브랜드 확정
지역콘텐츠 조사 내용을 반영한 예천브랜드 확정. 지역민들과 숙의과정 포함
- 3단계(2025~2027): 공공디자인실행, 브랜드제작 홍보
다양한 분야의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고,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여서 포지셔닝(positioning), 로열티 확립·확장.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
- 4단계(2027~2050): 브랜드활용 극대화
공공디자인 영역의 지속적 개선과 디자인 실행. 홍보마케팅에서는 지역브랜드의 반복 노출 및 활용. 지속적인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지역콘텐츠 조사	200	200	-	-
지역브랜드 확정	200	200	-	-
공공디자인실행, 브랜드제작 홍보	38,000	18,000	20,000	-
브랜드활용 극대화	2,200	1,400	400	4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40,600백만 원(국비 10,000/ 도비 10,000/ 지방비 20,600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국제문화교류진흥 공모사업/지역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사업, 관광진흥개발사업, 관광인프라 조성, / 경상북도 도비, 예천군 군비

6) 유사사례

○ 지자체 CI와 도시슬로건의 역할 비교

[표 88] 지자체 CI와 도시슬로건 역할 비교

구분	지자체 CI	도시 슬로건
이미지 설정	- 지역 상정의 대표 - 지역의 특성 및 비전 강조	- 지역의 발전방향 강조 - 목표, 목적, 지향성
사용 특성	확정 이후 변경이 어려움	도시의 발전에 따라 변경 가능
이미지 구조	단순 디자인으로만 구성	언어와 이미지 결합 구성
핵심 타겟	지역민	- 목표타겟 (해당 지역을 바라보는 외부인)
적용 매체	- 공식적인 매체 중심 (명함, 간판, 각종 서류 등)	- 홍보, 이벤트 중심 매체 (축제, 지자체 홍보 등)



[그림 160] 도시 슬로건 사례

7) 기대효과

- 예천군을 아름다운 자연과 디자인의 도시로 인식 유도
- 예천군의 브랜드가 국내외에 알려지며 문화관광 산업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

사업3

스포츠 의료 관광단지 조성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견주더라도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갖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 까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
- 의료관광은 서비스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의료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시장이 빠르게 성장
-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양식,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융복합 산업이 성장
- 통합 신공항 이전으로 국내외 스포츠 전지 훈련장 조건을 갖춘 예천군을 의료 관광 거점으로 의료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천에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미래에는 '글로벌스포츠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병원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스포츠 의학 관련 사업 가능
- 예천군은 지역적 특성과 스포츠 기반시설 및 안동, 문경과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 의학이라는 테마를 가진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스포츠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있음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5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주변
- 사업비 : 총 480,000백만 원(국비 200,000/ 지방비 180,000/ 민자 10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1) 스포츠 의료관광 단지 조성

- 스포츠 의학(Sports medicine)은 선수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신체의 사용법, 재활 치료 등을 취급하는 종합적 전문 의학
(스포츠 의학의 팀 구성: 선수,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물리 치료사, 코치 등)

- 예천, 안동, 문경과 연계된 스포츠 의학의 테마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조성
- 글로벌 스포츠 헬스케어 사업 추진(국제적 차원에서 스포츠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함)
- 스포츠운동치료센터 운영(프로운동선수, 유소년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 통증조절, 운동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2) 글로벌 스포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과정 신설

- 경북도립대학을 중심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 외국인의 입국, 의료수속, 수술, 치료 후 요양, 동반 가족의 국내 관광 지원
-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및 관리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재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스포츠 의료관광 단지 조성	450,000	300,000	100,000	50,000
글로벌 스포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과정 신설	30,000	10,000	10,000	10,0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480,000백만 원(국비 200,000/ 지방비 180,000/ 민자 100,000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내 생활체육활성화 공모사업

6) 유사사례

- 충남 천안 - 의료관광단지 조성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은 천안 위례산과 입장저수지를 중심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
 - 1단계: 1,0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120만 3000여㎡에 18홀 규모 대중골프장과 300가구 생활형 숙박시설을 조성

- 2단계: 2,0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입장저수지 주변 8만6000여㎡에 700병상 규모 병원과 상가 조성
- 3단계: 10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40만2000여㎡에 호수공원과 쇼핑몰을 조성



[그림 161] 의료관광단지 조성 사례

7) 기대효과

- 스포츠와 의료·관광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특화 콘텐츠 확보
- 인근 지역과 스포츠 의료 클러스터 연계성 강화

사업4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경량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 취미와 오락을 위한 축제 주최
- 2019년 항공레저스포츠축제가 진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예천에는 유천면 매산리에 위치한 군용 예천비행장이 있으며, 미래에는 예천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가 설립되어 항공레저스포츠 축제의 기반 마련
- 신공항이 개항되고 인근 지역인 예천에 항공스포츠 축제를 개최
- 2014년 항공레저스포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항공레저스포츠 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2016년 12월 현재 106개, 레저 등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는 3,211대) 상황에서 예천이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개최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주변
- 사업비 : 총 150,000백만 원(국비 50,000/ 도비 20,000/ 지방비 50,000/ 민자 30,000백만 원)

3) 주요사업내용

- 미국 위스콘신주 오시코시라는 소규모 지역의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축제인 'Oshikoshi AirVenture' 를 벤치마킹하여 예천군의 대표 축제로 '항공 축제' 를 개최
- 축제 형태: 일반항공은 물론 스포츠 경량항공기, 유무인 드론,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동력패러글라이딩, 인도어 스카이다이빙, RC(무선조종) 항공기, KAI 등 항공 산업 전시와 공군 에어쇼, 무장전시회, 토론회, 학회 등
-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하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축제

- 협회들의 활동들을 예천군에 집중하여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

4) 추진계획

- 세부사업기간 및 자원 배분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계	단기 2021~2030	중기 2031~2040	장기 2040~2050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개최	150,000	100,000	25,000	25,000

5) 자원대책

- 사업비
 - 총 150,000백만 원(국비 50,000/ 도비 20,000/ 지방비 50,000/ 민자 30,000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내 지역문화진흥법, 경상북도 도비, 예천군 군비 등

6) 유사사례

- (미국) 오시코시 항공축제(Oshikoshi AirVenture)
 - 미국 위스콘신주 오시코시라는 소규모 지역의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 축제인 'Oshikoshi AirVenture' 가 개최됨
 - 오시코시 축제는 하늘을 사랑하고 비행을 좋아하는 민간인들의 축제. 지금은 항공기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세계 3대 항공축제
 - 일주일간 진행되는 오시코시 축제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 10만 명 이상이 참여함
 - 주민들은 수개월 전부터 축제를 준비하고 수개월간 뒤풀이성 행사가 지속되어 항공축제는 지역의 큰 자산이 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 전국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매년 개최지가 선정
 - 선정 지역: 제1회 서울, 제2회 충남, 제3회 충남, 제4회 경남, 제5회(2018) 전남, 제6회(2019) 경

남 진주, 제7회(2020) 경북 울진

- 제전 구성: 11월 즈음 2일간 진행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공군 군악대, 의장대 축하공연
 - 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6개 종목
 - 종이비행기 대회
 - F16비행시뮬레이터4D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체험,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체험 등 21개 분야의 다채로운 체험행사
 - 항공사, 항공레저스포츠업체 등 15개 종목의 전시행사로 구성됨



[그림 162] 항공 축제 사례

7) 기대효과

- 항공레저스포츠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연환경과 주변 여건을 배경으로 하여 미래의 축제로 자리매김이 될 가능성 높음
- 스포츠시터의 축제로 수많은 유입 인구를 가져와 지역 경제성 제고



제8장 집행 및 관리계획

제1절. 사업추진계획

제2절. 재정계획

제3절. 기대효과

제8장. 집행 및 관리계획

제1절.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사업 집행

- 국가 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방지

■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집중적 투자 집행

-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투자집행
-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

■ 통합신공항 등 인접 지역 접근성 개선에 발맞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

- 통합신공항 등 인접 지역에 파급력이 높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적응력 제고
- 통합신공항 개항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집행

■ 도로, 철도망 등 조기건설 적극 추진

- 도로, 철도망 등 국가계획에 따라 건립되는 교통망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망계획, 철도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도로, 철도망 등의 조기에 건설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

2. 재정집행의 운용방향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

-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 방지 등 계획적 예산 편성
- 중기재정계획에 본 계획의 사업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용 추진
- 핵심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추진

■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누적되는 흑자재정 해소

- 코로나-19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되는 이월 금액 등 흑자재정을 타파하여 재정집행을 통한 주요진작 및 경기변동 안정화 도모
- 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을 도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누적된 흑자재정을 적자재정으로 돌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

■ 투명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사업 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재정운용 상황을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사업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사업 집행의 각종 내역은 민간에 군정의 방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군정방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

3. 협력체계 구축방향

■ 분산적 거버넌스(distributed governance)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공조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 군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행정환경 조성

■ 인접 시군과의 업무공조를 통하여 지역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발전 도모

-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접 시군과의 지역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공조, 협력과제 수행 등 업무의 협력적 추진

제2절. 재정계획

1. 재정현황

1) 세입세출구조

(1)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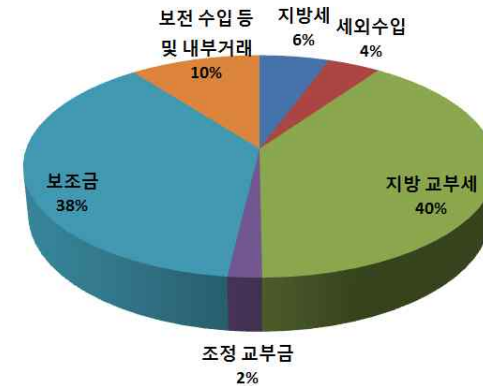
- 예천군의 세입은 총 565,155백만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226,455백만 원(전체 세입 중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후 보조금 213,240백만 원(전체 3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881백만 원(전체 10.4%), 지방세 31,498백만 원(전체 5.6%), 세외수입 23,754백만 원(전체 4.2%), 조정 교부금 11,328백만 원(전체 2.0%) 등의 순으로 세입구조가 구성되어 있음

[표 89] 예천군 세입구조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규모	565,155	31,498	23,754	226,455	11,328	213,240	58,881
비율	100.00	5.6	4.2	40.1	2.0	37.7	10.4

출처: 예천군 예산정보(2021)



[그림 164] 세입구조

(2) 세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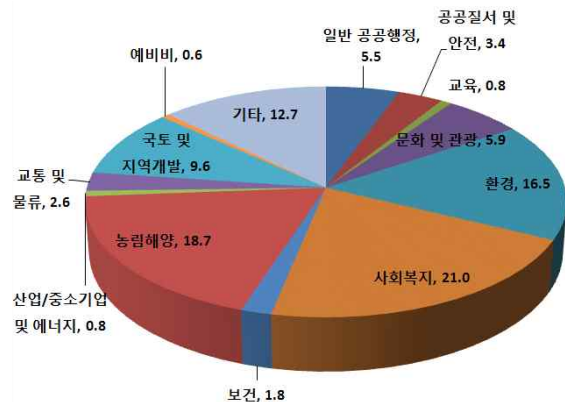
- 예산군의 세출은 총 565,155백만 원으로 이중 사회복지 부문이 118,888백만 원(전체 중 21.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이후 농림해양수산 105,840백만 원(전체 18.7%), 환경 93,377백만 원(전체 16.5%), 기타 71,758백만 원(전체 12.7%), 국토 및 지역개발 54,020백만 원(전체 9.6%), 문화 및 관광 33,317백만 원(전체 5.9%), 일반공공행정 31,353백만 원(전체 5.5%), 공공질서 및 안전 19,282백만 원(전체 3.4%), 교통 및 물류 14,674백만 원(전체 2.6%), 보건 10,360백만 원(전체 1.8%), 교육 4,638백만 원(전체 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29백만 원(전체 0.8%), 예비비 3,318백만 원(전체 0.6%)로 구성되어 있음

[표 90] 예산군 세출구조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규모	565,155	31,353	19,282	4,638	33,317	93,377	118,888
비율	100.0	5.5	3.4	0.8	5.9	16.5	21.0
구분	보건	농림해양 수산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규모	10,360	105,840	4,329	14,674	54,020	3,318	71,758
비율	1.8	18.7	0.8	2.6	9.6	0.6	12.7

출처: 예산군 예산정보(2021)



[그림 165] 세출구조

2) 재정운용평가 분석

(1) 재정건전성 평가

- 예산군의 재정건전성평가를 위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각각 검토할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5.79%로 전국평균 1.90%보다 3.89%p 높아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리채무비율은 2.13%로 전국평균 6.54%보다 4.41%p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합유동부채비율의 경우 예산군이 4.51%로 전국평균 22.66%보다 18.15%p 낮아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91] 재정건전성 평가

(단위: %)

구분		예산군	전국평균
수지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8.79%	1.90%
	관리채무비율	2.13%	6.54%
	통합유동부채비율	4.51%	22.66%

출처: 지방재정공시시스템

[표 92] 재정건전성 평가 방법

$$\text{통합재정수지비율} = (\text{세입} - \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ext{관리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잔액} / \text{세입결산액}$$

$$\text{통합유동부채비율} = \text{유동부채} / \text{유동자산}$$

(2) 재정계획성 평가

- 예산군의 재정계획성을 평가하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81.39%로 전국평균 93.49%로 12.1%p 낮아 다소 재정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세수오차비율은 예산군이 92.05%로 전국 평균 91.30%보다 -0.75%p 낮아 전국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불용액비율은 예산군이 6.28%로 전국평균 10.84%보다 4.56%p 낮아 재정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93] 재정계획성 평가

(단위: %)

구분	예산군	전국평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1.39%	93.49%
세수오차비율	92.05%	91.30%
이불용액비율	6.28%	10.84%

출처: 지방재정공시시스템

3) 종합적 재정평가 분석 결과

(1) 재정 경쟁요인

■ 세외수입비율 : 4.26%

- 예산군의 세외수입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높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18년 5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기업지원 서비스 계약 추가 체결로 인한 증지수입 증가가 세외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외 불용차량 매각 역시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반면에 무허가 측사 비율의 감소로 이행강제금 수입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측사의 재산가치 증대, 민원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50%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낮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 처분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외 관외체납액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을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행정제재적 징수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전자추첨을 통해 은누리상품권 배부를 통해 성실납세자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불용액비율 : 6.28%

- 이불용액비율은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이불용액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인 재정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거나 공기 미도래, 행정절차 진행 상태 등에 의거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집행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집행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재정 개선요인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748.06%

- 예산군의 출자·출연·전출금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형평균 143.1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전출금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기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부 전출됨에 따라 공기업 경산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군민장학회 사업의 증대에 따른 출연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며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증액은 지역 인재발굴에 기여를 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증감률 : -6.46%

- 지방세수입증감률은 '17년 17.42%, '18년 26.54%, '19년 -6.46%의 추이를 보이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낮아 지방세수입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지표값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분양관련 영업이익 감소(약 18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 감소(약 1.8억 원)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축회사의 사업장 철수로 인한 법인지방소득

세의 감소도 지방세수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지방보조금증감률 : 20.91%

- 지방보조금증감률은 '17년 -36.32%, '18년 -4.46%, '19년 20.91%의 추이를 보이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높아 지방보조금 지출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모든 지방보조금 통계목에 걸친 지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자리 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확대에 의해 관련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2. 투자계획

1) 총 사업비 산출

- 계획 사업의 총 사업비는 3,680,530백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906,700백만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가 1,263,330백만 원, 민간재원 510,500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94] 계획 사업 총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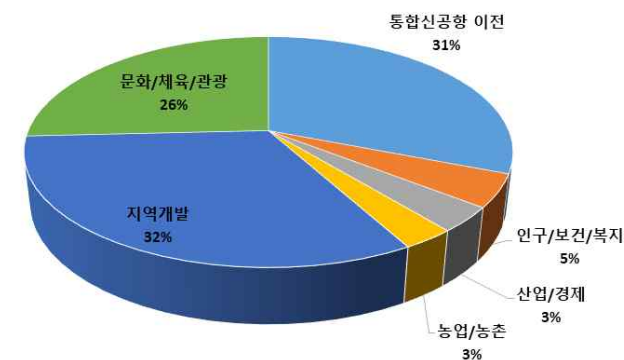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총계	3,680,530	1,906,700	1,263,330	510,500
통합신공항 이전	1,137,500	401,800	503,100	232,600
인구보건복지	169,130	39,800	84,330	45,000
산업경제	128,300	45,000	79,300	4,000
농업농촌	108,200	23,000	85,200	-
지역개발	1,189,100	1,032,100	112,000	45,000
문화관광체육	948,300	365,000	399,400	183,900

2) 총 사업비의 구성비

(1) 분야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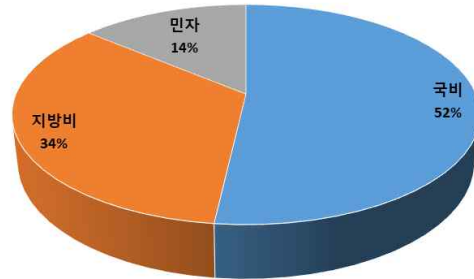
- 계획된 총 사업비 중 지역개발 32%,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은 31%, 문화체육관광 26%, 인구보건복지 분야 사업 5%, 산업경제 분야와 농업농촌 분야는 각각 3%의 순으로 구성됨



[그림 166] 분야별 사업비 구성

(2) 재원별 구성

- 소요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가 52%, 지방비 34%, 민간재원 14% 순으로 구성됨



[그림 167] 소요재원별 사업비 구성

(2) 인구보건복지 분야

- 인구보건복지 분야에 소요될 투자비는 총 169,130백만 원으로 집계되며, 이중 국비가 39,800백만 원, 지방비 84,330백만 원, 민간재원 45,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은 도청신도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사업으로 총 115,000백만 원이 투자되며, 이중 국비 25,000백만 원, 지방비 50,000백만 원, 민간재원 40,000백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됨

[표 96] 분야별 소요재원: 인구보건복지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예천 신도시 원도심 농산촌 연계 세대 맞춤형 창업 도시 조성	10,000	3,000	7,000	-
도청신도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115,000	25,000	50,000	40,000
고령(1인)가구 안전확인기술 지원	600	200	400	-
예천군민 평생교육 지원사업	500	-	500	-
지속성장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역량 강화	500	100	400	-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480	-	480	-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 제공 사업	1,100	-	1,100	-
예천군 아동·청소년 환경제작 지원사업	1,200	-	1,200	-
예천군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운영	1,500	-	1,500	-
예천군 안전사고 사상자수 감축사업 및 여성안전시설 설치	500	-	500	-
예천군 유비쿼터스 스마트 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2,400	500	1,900	-
파독근로자 정착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15,000	5,000	5,000	5,000
예천 농민 기본소득 지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2,050	-	2,050	-
예천 군민 복합문화복지센터 설치	13,100	4,000	9,100	-
번역 IoT 스피커 도입을 통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200	-	200	-
청소년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5,000	2,000	3,000	-
총계	169,130	39,800	84,330	45,000

(3) 산업경제 분야

- 산업경제 분야에 소요될 총 투자재원은 128,300백만 원으로 이중 45,000백만 원은 국비, 79,300백만 원은 지방비, 4,000백만 원은 민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된 사업은 예천군 산업용 험프 육성 안동시 연계 구축 사업(총 투자비 50,000백만 원)과 예천 신도시 스마트도시 산업단지 구축(총 사업비 50,000백만 원)으로 나타남

3) 분야별 소요재원

(1)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사업비는 총 1,137,500백만 원으로 집계되며, 이중 국비 401,800백만 원, 지방비는 503,100백만 원, 민간재원 232,60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음
- 가장 많은 재원을 소요로 하는 단일 사업은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450,000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중 180,000백만 원은 국비, 지방비 135,000백만 원, 민간재원 135,00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밖에 자연 및 정신문화 치유힐링벨트 조성(총 사업비 250,000백만 원), 예천 ART 커넥션 문화복합팩토리 조성 사업(총 사업비 230,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구성됨

[표 95] 분야별 소요재원: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예천 공항조성 확대 및 발전계획 수립	45,500	11,000	29,500	5,000
밀키트(Meal Kit) 식품단지 조성	54,000	6,000	17,000	31,000
식물 플랫폼 백신산업단지 조성	450,000	180,000	135,000	135,000
단술 음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50,000	10,000	15,000	25,000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 업무지구 조성	29,000	8,000	15,000	6,000
신선식품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29,000	8,800	13,600	6,600
예천 ART 커넥션 문화복합팩토리 조성	230,000	58,000	148,000	24,000
자연 및 정신문화 치유힐링벨트 조성	250,000	120,000	130,000	-
총계	1,137,500	401,800	503,100	232,600

[표 97] 분야별 소요재원: 산업경제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예천군 산업용 헬프 육성 안동시 연계 구축	50,000	20,000	30,000	-
문화 ICT 산업 연계	19,000	4,000	11,000	4,000
예천 황토 산업단지 구축	1,800	-	1,800	-
예천 신도시 스마트도시 산업 단지 구축	50,000	20,000	30,000	-
예천군 워킹 홀리데이 운영	500	-	500	-
종자산업 육성	7,000	1,000	6,000	-
총계	128,300	45,000	79,300	4,000

(4) 농업농촌 분야

- 농업농촌 분야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108,200백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23,000백만 원, 지방비 85,20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사업은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29,000백만 원으로 국비 14,000백만 원, 지방비 15,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표 98] 분야별 소요재원: 농업농촌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친환경 신선농산물 육성 및 재배단지 육성	19,000	9,000	10,000	-
경관농업단지 조성	29,000	14,000	15,000	-
양봉 특화단지 조성	18,000	-	18,000	-
산업곤충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2,500	-	2,500	-
기후변화 대응팀 구성과 신규농작물 시범재배사업	10,100	-	10,100	-
예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6,100	-	6,100	-
악취없는 친환경 양돈단지 조성	3,000	-	3,000	-
(가칭)예천자연생태원 조성	20,500	-	20,500	-
총계	108,200	23,000	85,200	0

(5) 지역개발 분야

- 지역개발분야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189,100백만 원으로 이중 국비 1,032,100백만 원, 지방비 112,000백만 원, 민간재원 45,000백만 원으로 구성됨
-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통합 신공항 연계 도시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총계 779,100백만 원으로 국비 771,100백만 원, 지방비 3,000백만 원, 민간재원 5,000백만 원으로 집계됨

[표 99] 분야별 소요재원: 지역개발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통합 신공항 연계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779,100	771,100	3,000	5,000
미래 예천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	300,000	195,000	65,000	40,000
신도시-원도심 간 무가선 트램 설치	110,000	66,000	44,000	-
총계	1,189,100	1,032,100	112,000	45,000

(6) 문화관광체육 분야

-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948,300백만 원으로 이중 국비 365,000백만 원, 지방비 399,400백만 원, 민간재원 183,900백만 원으로 구성됨
-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스포츠 의료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계 480,000백만 원으로, 사업비의 구성은 국비 200,000백만 원, 지방비 180,000백만 원, 민간재원 100,000백만 원으로 집계됨

[표 100] 분야별 소요재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단위: 백만 원)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예천 글로벌스포츠시티 조성 사업	247,700	100,000	93,800	53,900
예천군 공공디자인(Public Design)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	40,600	10,000	30,600	-
스포츠 의료 관광단지 조성 사업	480,000	200,000	180,000	100,000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사업	150,000	50,000	70,000	30,000
전통-자연-하늘이 만나는 하늘문화벨트 조성 사업	30,000	5,000	25,000	-
총계	948,300	365,000	399,400	183,900

제3절.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1) 파급효과 도출방법

○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

-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각 부문별 산출액, 최종수요액, 수입액, 잔폐물 발생액을 포함한 투입산출표 작성

	1부문	2부문	3부문	행합계
1부문	r_{1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1}+r_{12}+r_{13} : S_1$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2부문	r_{2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1}+r_{22}+r_{23} : S_2$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3부문	r_{3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1}+r_{32}+r_{33} : S_3$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열합계	$r_{11}+r_{21}+r_{31} : R_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r_{12}+r_{22}+r_{32} : R_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r_{13}+r_{23}+r_{33} : R_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 작성된 투입산출표를 토대로 투입계수를 도출(각 품목 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 대비 해당 상품의 총투입액)

$$\text{투입계수: } a_{ij} = \frac{x_{ij}}{x_j}$$

$$\text{투입계수행렬: } A = \begin{bmatrix} a_{11} & \cdots & a_{1n} \\ \vdots & \ddots & \vdots \\ a_{n1} & \cdots & a_{nn} \end{bmatrix}$$

$$\text{부가가치율: } a_j^v = \frac{v_j}{x_j} = [a_1^v \cdots a_n^v]$$

○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앞서 작성된 투입계수행렬과 최종수요, 수입, 잔폐물발생액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생산유발계수를 도출

$$\begin{bmatrix} a_{11} & \cdots & a_{1n} \\ \vdots & \ddots & \vdots \\ a_{n1}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vdots \\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m_1 \\ \vdots \\ m_n \end{bmatrix} - \begin{bmatrix} z_1 \\ \vdots \\ z_n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vdots \\ x_n \end{bmatrix}$$

where a_{ij} = j부문 생산을 위한 i부문 생산물 투입계수

x_i = i부문의 산출액

y_i = i부문의 최종수요

m_i = i부문의 수입

z_i = i부문의 잔폐물 발생액

- 이를 방정식 형태로 다시 표현하여, x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음

$$Ax + y - m - z = x$$

$$x - Ax = y - m - z$$

$$(I - A)x = y - m - z$$

$$x = (I - A)^{-1}(y - m - z)$$

- 생산유발계수는 $(I - A)^{-1}$ 으로, 최종수요(즉, $y - m - z$)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도출

- 부가가치유발계수: $v = \hat{A}^v (I - A^d)^{-1} (y^d - z)$

- 고용유발계수: $l = \hat{L}^* (I - A^d)^{-1} (y^d - z)$

○ 도출된 각 부문별 유발계수를 토대로, 추산된 총 사업액의 파급효과를 분석

-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2017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평균을 곱하여 계산

[표 101] 산업별 유발계수

구분	업종(대분류)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A	농림수산물	1.8	4.1	1.0
B	광산물	1.1	7.9	0.6
C01	음식료품	2.2	6.1	0.6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6	6.9	0.3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9	7.4	0.6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1	0.9	0.6
C05	화학제품	3.4	4.3	1.0
C06	비금속광물제품	1.4	6.4	0.4
C07	1차 금속제품	2.4	3.6	0.5
C08	금속가공제품	2.0	5.7	0.7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9	3.0	0.7
C10	전기장비	1.7	6.0	0.5
C11	기계 및 장비	1.6	5.9	0.5
C12	운송장비	1.8	6.6	0.4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2	8.7	0.3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2.1	7.5	1.0
D	전력, 가스 및 증기	2.3	2.0	0.8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3	8.0	0.7
F	건설	1.2	8.2	0.5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1	10.8	1.7
H	운송서비스	2.7	8.5	1.0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	10.4	0.7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1	7.4	1.1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3	7.0	1.4
L	부동산서비스	1.8	3.7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6	10.1	1.3
N	사업지원서비스	2.0	15.9	1.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9	9.4	1.4
P	교육서비스	1.0	13.1	0.7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1	14.6	0.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1	8.5	0.6
S	기타 서비스	1.2	12.7	0.6
T	기타	1.1	9.0	0.0
평균		1.8	7.6	0.8

자료: 한국은행(2017). <산업연관표>

2) 파급효과 도출결과

- 재정계획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비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대 50으로 매칭 펀드가 조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총 군비의 파급효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총 생산유발효과는 1,142,000백만 원이며 이중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453,000백만 원, 인구보 건복지 분야 71,000백만 원, 산업경제 분야 38,000백만 원, 농업농촌 분야 76,000백만 원, 지역개발 분야 101,000백만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403,000백만 원으로 나타남
-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4,000백만 원으로, 이중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362,000백만 원, 인구보건복지 분야 57,000백만 원, 산업경제 분야 31,000백만 원, 농업농촌 분야 61,000백만 원, 지역개발 분야 81,000백만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322,000백만 원으로 나타남
- 총 고용유발효과는 7,302명으로 이중 통합신공항 이전 분야 2,898명, 인구보건복지 분야 453명, 산업경제 분야 244명, 농업농촌 분야 484명, 지역개발 분야 645명, 문화관광체육 분야 2,578명으로 나타남

[표 102] 파급효과 도출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통합신공항 이전	453,000	362,000	2,898
인구보건복지	71,000	57,000	453
산업경제	38,000	31,000	244
농업농촌	76,000	61,000	484
지역개발	101,000	81,000	645
문화관광체육	403,000	322,000	2,578
총계	1,142,000	914,000	7,302

2. 사회적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총수요증대

- 예천군 지역경제 파급력이 높은 사업 추진으로 지역소득 진작
- 정부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지역소득 증대 및 산업연관효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
- 정부 및 민간 최종소비 증가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의 직접적인 증대 및 내부수요 확대
- 내부수요 확대에 따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증대

■ 대내외적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 지역개발, 인프라, 관광, 지역 신산업 등 각 분야의 계획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외적인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장기적 발전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마련
- 지역경쟁력, 펀더멘털의 강화를 통해서 경기변동 및 경제위기에 대한 적응력 강화, 회복 탄력성 제고
- 국가 단위의 경쟁에서 도시 단위의 경쟁으로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로 예천군 자체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패러다임 변화의 대응력 제고

■ 신성장동력 확보 및 적극 육성

- 지역의 전통적인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육성
-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경제구조 개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 전통적인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역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 완화

■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민 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지역민으로 소득이 환류, 증대
-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및 여건 개선

■ 주요 인프라 건설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도로, 철도망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 주요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역의 광역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을 제고

■ 지역 간 불균등 발전 해소

- 예천군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예천읍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지역 발전을 균등하게 개발 추진
- 지역 간 균등발전을 통하여 지역주민 간 심리적 괴리감과 소득 격차 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 심리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축소

■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

-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제고
- 지역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역 특산물, 관광 등에 대한 잠재적 경쟁력을 제고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대내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지역성 높은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인접 경쟁 도시와의 차별적 관광자원 확충
-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관광 및 문화 여가생활 시설 확충
- 다양한 관광지 개발 및 진흥계획 시행을 통해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 형태 변화
-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산업의 역량 제고
- 전통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관광·문화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

■ 지역개발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

- 세수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재정집행 여력 확충

- 자주세원의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개선

■ 일자리 창출, 고령화 등 지역 문제의 적극적 대처

-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통하여 실업, 고령화 등 지역이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 계획 사업의 집행을 통한 향후 정책집행의 환경 개선

- 체계적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핵심사업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
- 예천군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집행력을 제고

■ 민·관 협치를 통해서 주민주도, 수요중심의 행정집행 환경 개선

- 주민역량 강화 및 인력육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협력체계 여건 개선
- 주민주도의 협치를 통해서 행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수요를 조기 파악 및 정책집행